

謹  
速  
文化部長

# 文化記

創刊號

柳浩菴先生貴下

大韓速記學術協會刊

祝  
創  
刊



交  
議  
院

副  
議  
長  
趙  
瑗  
奎

# 目次

|                     |           |            |           |      |
|---------------------|-----------|------------|-----------|------|
| 協會發展의 要諦            | · · · · · | (會長) 張基泰   | · · · · · | 五    |
| 참 (眞) 과 거짓 (虛)      | · · · · · | (虎生)       | · · · · · | 六    |
| 速記文化의 創刊을 祝賀함       | · · · · · | (公報室長) 葛弘基 | · · · · · | 七    |
| 새로운 決意              | · · · · · | 金天漢        | · · · · · | 八    |
| 速記協會 創立과 우리 의 使命    | · · · · · | 金鎮基        | · · · · · | 一〇   |
| 速記士의 処遇改善을 中心하여     | · · · · · | 金震熙        | · · · · · | 一二   |
| 速記士의 隘路와 悲哀         | · · · · · | 金宗弘        | · · · · · | 一四   |
| 速記錄編輯者의 辯           | · · · · · | 速記 諫 韓鍾瑛   | · · · · · | 一八   |
| 教壇生活의 回顧            | · · · · · | B S Y      | · · · · · | 二一   |
| 눈길에서                | · · · · · | 李元福        | · · · · · | 二二   |
| GENEVE 紀行 (旧稿)      | · · · · · | 柳虎龍        | · · · · · | 二三   |
| 은쟁이 速記士時代 (나의 生活日書) | · · · · · | 吳潤玉        | · · · · · | 二六   |
| 最初の 女人創造            | · · · · · | (Z 生)      | · · · · · | 二七   |
|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篇         | · · · · · | (Z 生)      | · · · · · | 二八   |
|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案內        | · · · · · | (速記學校) 金煥基 | · · · · · | 二九   |
| 適當하의 因果             | · · · · · | 吳聖伯        | · · · · · | 三〇   |
| 忙人 勿 說              | · · · · · | 有毛兒        | · · · · · | 三一   |
| 공은 獨身主義者            | · · · · · | 平進 容堂      | · · · · · | 三二   |
| 英國人들은               | · · · · · | 全範成        | · · · · · | 三三   |
| 明朗한 速記課 (明朗몽드)      | · · · · · | 鄭源道        | · · · · · | 三四   |
| 韓國速記十年史 (一)         | · · · · · | · · · · ·  | · · · · · | 三七   |
| 會 務 日 誌             | · · · · · | · · · · ·  | · · · · · | 四五   |
| 大韓速記學術協會憲章          | · · · · · | · · · · ·  | · · · · · | (一)  |
| 大韓速記學術協會會規          | · · · · · | · · · · ·  | · · · · · | (四)  |
| 任 員 名 單             | · · · · · | · · · · ·  | · · · · · | (六)  |
| 大韓速記學術協會正會員名簿       | · · · · · | · · · · ·  | · · · · · | (七)  |
| 編輯后記                | · · · · · | · · · · ·  | · · · · · | (〇〇) |

祝 創 刊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校 長 崔 珽 宇  
副 校 長 徐 商 俊  
校 監 金 震 熙

外 職 員 一 同

祝

國 會 民 議 院 事 務 處

事 務 總 長 崔 珽 宇

祝 創 刊

祝

高麗速記技術學院

院 長 金 星 漢

外 職 員 一 同

鮮  
光  
印  
刷  
所

韓  
興  
印  
刷  
所

南  
洋  
印  
刷  
所



# 卷頭言 協會發展의 要諦

會長 張 基 泰

風雨星霜 歲月은 正히 流水같다.  
 慘酷한 戰亂도 가시고 統一에對한  
 客人十一月 速記協會가 發足하여 願月에야 役員陣容이 끝나고 無에서 有를生하는 難業이 마야호봉 速記  
 人의 熱과 誠으로 具現의려함은 참말 뜻깊은 일이다.  
 回顧컨대 李朝의 党色을 連綿繼承한 不美한 이 民族風習은 賢明하옵신 李大統領閣下의 令志下에 多少 緩  
 和되기는하되 不遇 몇式한 되는 速記에도 그러한 暗靈이 低徊하던것이 弘杼된일 亦 慶賀할 일이다.  
 然이나 人爲待天命이라는 말과같이 오늘날바라서 始終一貫하던 德分인지는 알수가없오되 모든 業의 進  
 育이 오직 다음 세가자에 歸一됨은 事實이다.  
 △ 自覺善勉.  
 △ 不可無理.  
 △ 大乘之心.

이 即 同業同志者의 團合隔和의 先決問題이며 發奮의 基本之心이 여기에서 湧生하는原理인바 앞으로  
 協會가 기리기의 빛날수있는 要諦인을 내 自身 躬계 밍고있는바이다.  
 再言하면 自身의力量을 自己自身이 過信하고 先聲을 發치려할며 社會的인 環境의 團恩功을 거머리는 陰  
 謀之心이있는限 團和는 絶對로 이루어지지않을것이며 公的인 犧牲精神이 薄弱한수록 隔和는 尠한 言質  
 에 지나지 않게됨은 母論이다.  
 特히 速記에게 負荷된 文化的責務는 더욱기 速記人의 尊 家族감이 連結된 禮義道德을 遵守하는에서 完  
 遂되는것이저 少處도 自覺과 意隨과 独自の인行為를 不許하는바 그 特色이 있는것이다.  
 모름지기 各自는 自身을自覺하여 無理를달며 大業之心으로 同僚나 先輩 그리고 先覺者를 待하여 協會千  
 年의 基礎를 튼튼하게 築는 일군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社會 또한 速記人의 苦衷을 理解하여 숨은功勞를  
 마음으로부터 讚揚해줄雅量을 得할時機의 到來를 冀望이다.

創刊辭

참 (眞) 과거 짓 (虛)

오늘날 우리의 周圍에는 基督敎 儒敎等 참을 찾기 위한 宗教가 가득 찼다. 그러나 아직도 이 社會에서는 참보다 거짓이 行勢한다. 政治 經濟 文化 各分野에 眞實 眞實이 없는 것이 없다. 예외없이 우리 速記界에도 거짓이 있다. 似而非速記法이 그것이고 似而非速記能力者가 그것이다. 이러한 거짓을 善意의 方三者인 이 社會는 果然 어떻게 할아 드릴 것인가. 그에 依해서 招來된 結果를 생각 해볼때 民族文化의 一翼을 担当한 우리로서 커다란 責任感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現實 속에서 眞을 모두어 참을 찾고 그 참을 어디뵈들과 노나 갖자는 뜻에서 이 두 어진것이 本協會의 結成이고 그의 促成策으로 나하난것이 이 「速記文化」인 것이다. 或者는 말하리라 그것은 「玉의 티」라고. . . 그러나 보잘것 없는 微々한 存在라고 坐視만 하고있어 보아라 그 조그마한 티가 蝨蝨力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 안가서 참과 거짓의 位置와 標準을 顛倒 시킬것이다. . . 이 단목들의 「速記文化」가 어떠한 마음의 糧食을 보편하고 아울러 어둠속에서 밤가닥의 참이라도 찾아낼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꺼운 일은 없으리라 (虛)



# 速記文化의

## 創刊을 祝賀함

葛 弘 基

聰明이 不如 鈍筆이 많았은 우리記憶力의 無常한때 比하여 記錄의 主要性을 強調한말이다.  
名人 達士의 抑揚自在한 美辭麗句를 우리가 聞어만났이고 長久히 記憶해두기는 거의 不可能에 가까운  
雜事의 하나다.

우리의 記錄技術이 発達하여 演士의 言說을 한마디도 漏여놓지 아니하고 速記 해둔다는것은 우리 記錄  
文化의 內容을 그일마나 充實하게하는것이라. 더구나 文化의 發展은 記錄과 文獻이 그大部分을 寄與한바임에  
鑑하여 이제 재삼스럽게 速記의 必要性을 舉論하는것은 未常不能足之難이라 省略하거나와 우리는 必야호로  
여기에 留意하여 速記界에 有爲한名人이 輩出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바이다.

그런데 이번 斯界의 名士들이 뜻을 糾合하여 거의 荒無地와 같은 우리나라의 速記界를 開拓하기爲하여  
그任을 完遂하려고 그機關紙로서 「速記文化」를 刊行하게되었다. 慶賀하여 마지않는바이며 따라서 將來에  
嚮望이 자못 크다.

바라건대 速記文化誌는 이方面에對한 宣伝과 啓蒙에 注力하여 우리社會의 記錄文化에 偉大한 貢獻이 있  
기를 衷心으로 祈願하는바이다.

速記文化誌의 發展을 冀면서 붓을 놓는다.

# 새로운 決意

(會員에게 訴함)

金 天 漢

周知하는 바와같이 昨年 十一月 十三日 우리 速記者의 大同團結 解放以後 十年을 經過하여 大韓速記學術協會의 構成을 보았읍니다.

우리 速記者 同人들의 發育體가 될 同協會가 이제서야 誕生 되었다고 하는 것은 今 時期가 늦었다는 感을 주는 것은 避치 못할 事實이며 그 點에 있어서 遺憾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와同時에 우리協會의 앞날의 發展이 約束되어 있음을 생각할때에 그 期待는 매우 큰것입니다.

나는 이번 速記協會 發足の 動機를 보고 晚時之嘆이 있으면서도 큰 期待를 갖지 않을수 없다는것입니다.

勿論 本協會 發足前에 여러 新聞의 廣告欄을 裝飾한것은 似而非速記團體라서 그때부터 우리 速記인들이 激憤하기 始作한것은 宜當한 일이라 하겠읍니다. 여기

서 우리는 速記의 正當한 認識과 그 發展을 爲해 서 탄 聲이 터져 되어야 겠다는테서 나온것이 바로 本協會를 構成시키지는 動機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速記者의 自己保身策이라고 보기에 語弊가 있는 말이 될는지는 모르나 이것이 한결음 나아가서 速記者에 對한 社會의 認識을 바로잡고 社會의 不可避한 文化的 要素를 만큼 더 더욱 더 文化的 尺度를 이룩 하여금 文化자라는 데 그 目的을 들었으며 그의하면 自然히 速記者에 對한 待遇는 必然적으로 改善되지 않을수 없는것입니다.

解放以後 十年間의 速記發展의 발자국을 보전해 勿論 遲々하다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別般 社會 乃至는 國家의 協調도 없이 이만한 程度라도 育成된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慰安이 될까 생각됩니다.

現在 既成速記者는 여러분 우리 會員程度를 若干 님는 數字라고 봄이 妥當하여 元來 速記者 數及도 적다 하겠으나 그보다도 速記需要가 적은것도 否認할수 없이 速記發展에 커다란 障礙를 이루고 있는것이 事實입니다.

勿論 韓田의 各分野의 發展이 解放後 急進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混亂期에 處해 있고 이에 對한 整頓이 必要하매 速記文化가 完全히 그 一翼을 나누지 못할것이 大端히 遺憾입니다.



現在는 民議院 國防部 外務部等 國家重要機關 및 言論界에서 速記者가 活躍하여 最初의 速記活口分 野도다는 甚지 그 舞臺가 넓어졌으나 아저도 宜當 히 서지어야 될 法院 裁判所 其他 重要한 會議等 에 不可欠한 速記者 使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앞으 로의 速記發展의 余裕을 모인은 勿論 이터한 速記 舞臺發展은 도 앞으로 더 한層 各社會部門에서 發展도 期約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諸般 當面問題를 생각하건대 우리는 自己 滿足에 陶醉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이터한 意味에서 우리會員은 누구를 莫論하고 받 벗고 나서야 될 任務가 있는것입니다.

勿論 여기에는 對內的義務와 對外的義務의 區別이 나눌 수 있는것입니다. 對內的義務란 다시 말하면 會員自體의 相互團結을 爲해 目標로 삼아야 겠읍니다. 이터한 團體이라도 內部에 龜裂이 생긴다면 對外的 關係에 있어서 余地 없이 敗北當하고 말기 에는됩니다.

本速記協會는 發足時부터 多幸히도 各派를 超越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은 생각할때 우리 同人들의 相互 團結에는 別로 念慮되는바 없었읍니다. 或時 對 外活動에 있어서 相互反目하는 結果를 이루어얌도 특 各 會員은 眞이 注意해야 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方今 國會에서는 追加豫算을 審議中에있는바 여기 에는 國會分科委員會에서 速記士 十五名을 採用하는 豫算이 包含되어 있다고 합니다.

勿論 우리 協會 自體로서는 가장 公正한 立場에 서 該 速記士試驗이 있을것이나 會員 自體는 爲先 實力培養이 가장 커다란 課題가 아닐수 없읍니다. 이를 要건에 各者 會員은 爲先 自己實力을 培養 하여 内部的 團結을 圖謀하고 한명어리가 되어 速記文化를 向上시키며 아울러 後輩을 爲하여는 犧牲 的 覺悟로 나가야만 이 難局을 打開하게 될것으로 생각되어 여러 會員의 새로운 決意를 促求하는 바 입니다.



速記協會創立과

우리의 使命

金 鎮 基

八、一五解放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急作스러이 「  
 크로」크였」된 가지가지의 形態中에 「結社」라는  
 多 글字를 擧げる 無으리만금 各樣各色的의 「結社」가  
 出되니 勿論 每日같이 新聞의 廣告欄을  
 見어서는 안될 有益한 存在라고 믿으나 個中에는  
 寒心하기 甚이 많은 百害無益한 似而非團體도 許多  
 有 否認할 수 있을 것이다. 然이나 現代社會의 構造로  
 보아서 部門別 單位組織體의 有機的인 組織의 活  
 動에 依하여 그 國家社會의 向上發展을 期하고 있음은  
 多言을 要치 않는 鐵然한 事理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 速記가 이 社會에 活用되기 始作된지  
 十 年에 이르기까지 우리 速記人들은 何더 進歩를 集結  
 하여 國家社會에 貢獻하기 爲한 組織體를 築지 못했  
 던 理由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決로 速記人의  
 力量의 不足이나 無能의 所致라든지 多우기 그 必要性  
 에 對한 沒認識에 基因함도 아니었다. 다만 言語의  
 寫真師로서 何時何處에서든지 事突그대로를 그 筆을  
 밖에 모르는 우리 速記人들은 어떠한 誇張이나 僞善

이나 虛偽를 일삼을 줄 모르는 延地임에 名銜을 爲  
 기 爲한 看板이 必要하지도 않았으며 誇張을 爲한  
 有名無實의 團體가 必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스스로 自負할 수 있는 것이다.  
 客年 十一月十三日... 우리들은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바 切實한 責任感에 立脚하여 晚時之數은 있  
 으나마 堅固한 土台위에 名實相符한 我「唯一의 速  
 記人集結體인 「大韓速記學術協會」를 結成함에 이르  
 었으니 이는 우리나라 速記文化의 飛躍的인 發展을  
 約束해주는 燦然한 存在임을 自他가 公認하는 바일  
 것이다. 그러면 이나라 速記文化發展의 先驅者의 立場  
 에 서있는 現職速記人으로서 年來의 宿願이던 協會  
 를 結成한以上 그會員된 者에게 負荷된 責任은 突  
 且 重大함을 認識함과 同時에 그責任은 만드시  
 完遂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어느 社會를 莫論하고 우리는 責任있는 사람과 無  
 責任한 사람을 볼 수 있다. 이 두가지 類型의 사람을 對照  
 하여 比較에 照한 責任感을 가지고 말은바 責任을  
 遂行하는 사람처럼 善美한 것은 없으며 特히 自我를

犧牲하여 가면서 任務를 完遂하는 사람을 볼 때에는 自然히 범가 수그러진다. 그와 反面에 當然히 履行하여야 할 責任을 몰아보지 않고 憚스며이 몰아다니는 것을 볼 때에는 憎惡感이 발할까지 일어난다는 痛感하게 된다. 이러한 存在는 社會와 國家에 弊端과 禍毒은 될지언정 決코 利를 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가 아모리 좋은 趣旨에 依해서 아모다운 看板을 내걸었다 하더라도 會員 各者가 그 말은 바 責任을 完遂하지 않는다면 그 趣旨와 看板은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責任感」이란 무엇인가? 元來 責任感을 가지고 責任을 完遂할 수 있는 것은 理性的인 存在인 人間만이 할 수 있는 일로서... 다시 바꾸어 말하면 人間은 人格의 所有者로서 各己 良心의 發動에 따라 價值를 追求하며 價值있는 活動을 하려고 하는 것이며 各己 價值있는 일을 良心에 따라 実行할 是 責任을 完遂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萬一 이러한 責任을 自覺하지 못하고 또 完遂하지 못한다면 그는 人間의 外觀은 쓰고 있을지라도 人格을 가진 人間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人間은 自己에게 賦與된 責任을 遂行함으로써 完全한 人格的 生活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人間은 本來 社會的 存在이며 社會的 生活를 營爲하고 있는 것이며 單獨孤立的 個人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또한 살어갈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協會

를 組織한 것은 自己個人이나 또는 어느 한두사람을 爲해서 組織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社會我로서 責任感에 依해서 組織한 것이니 知性人임을 自負하는 우리 速記人의 行動에 誤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速記界는 先進諸國에 比해서 아직도 搖籃期를 免치 못한 形便이니 만큼 이의 成熟을 爲하여 우리 協會가 결여된 點은 突로 무거운 것임을 此際에 會員各者는 再認識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各樣各色的의 組織體를 許多히 보아왔고 現 在에도 본다. 어떠한 組織體에는 만드시 한가지 目的이 있을 것이며 그 目的이야말로 그 組織體의 構成分子들의 共同的의 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하거든 하나의 組織體가 생겨나면 그것이 마치 이 個人의 榮譽을 爲해서 하는 것 같은 疑設心을 주게 하는 組織體가 非一非再하다. 나는 위치노니... 우리의 協會는 名實共히 速記人의 團合體로써 共同的 目的을 爲하여 果敢히 勇往 前進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協會에 어떤 個人의 榮譽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派閥의 다툼이 있을 수 없다.



速記士의

處遇改善을 中心하여

金 辰 熙

우리의 말과글을 土俗로한 速記가 처음으로 世人의 注視裏에 그 實務에 処女 進出을 한것이 立法議院의 開院과 때를 같이 한것이다.

그當時 全國을 通하여 募集한 速記士의 數는 五、六名에 不遇한 寂寥한 것이 었으나 이것이 곧 우리의 速記가 職業을 이룬 始初가 되었으며 또한 速記士와 処遇에 처한 起源이 되었다고 할수 있을것이 다.

日帝下의 朝鮮語抹殺政策은 우리 速記術의 發展을 封鎖시켰고 解放과 더불어 日語速記術을 習得한 分들에게 依하여 우리 言語에 符合되는 速記體系를 整備하여 短時日會안에 會議의 實務를 맡을수 있게까지 速記術을 育成시킨 功勞를 讚揚치 않을수없고 나아가서는 獨立民族으로서의 긍지라고 자랑할수있는 事實이라 하겠다.

맹저음의 処遇에있어서는 이 여섯명의 速記士가 아니면 會議의 記錄은 할수없는 処地이니만큼 速記士가 有利한 立場에 놓이게된것은 當然하였고 여기에 技術手當을 支給하므로써 生活保障의 方途를 講究하여 一般公務員보다 優待한것은 特記할만한 事實이다.

그러나 當時의 速記術은 아직 未熟한 地境을 先지 못한것은 研究의 日淺함에서 오는 不得已한 事情이라 하겠으나 立議가 開院된지 不遇 七個月이 못되어 速記가 中止된것은 우리의 速記가 育成發展을 爲하여 大端히 遺憾된 일이라 아니할수없다.

當時 立議의 院法에는 二日後에 速記錄을 내도록 明文規定이 있었는바 이規定은 始初부터 施行될수없는 無理하고 現實을 無視한 条文이어서 發言量에 比하여 問題도 안되는 速記人의 로서는 条文대로의 履行은 不可能한것이었고 會議가 繼續될수록 速記反文은 積滯化되어 速記錄은 一、二個月後에나 나오게되어 性味가 急한議員들에 依하여 速記處世論이 일어나게되어 速記는 唯一한 職場을 喪失하고 만게되었다.

이 院法中の 速記에 관한 條文은 져어도 技術者의 意見을 採擇하였어야 할 것이요 速記士로서는 速記의 專門技術者이니 만치 突情에 맞는 條文은 規定하기 爲하여 積極參與하여야 할 일이었으나 等閑히 하였다는 實을 共히 免할 수 없다.

여기에 이르러 速記術의 向上과 더불어 後進速記士의 養成은 時急하여졌고 앞날速記需要에 對備하기 爲하여 速記人들에 依하여 努力을 다하는 努力이 있었고 여기에서 지금現役으로 活躍하는 有能한速記人材의 輩出을 보게 되어 制憲國會에는 會議의 記錄을 맡을 수 있는 速記人員과 技術을 確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制憲國會의 開院이 야말로 速記人에 있어서는 오대동안 隱忍自重하여 努力한 보람이 있는 歡喜를 느낄 수 있는 때였다.

制憲國會에서도 亦是 技術手當이 支給되었으나 立議에 手當이 가진 生活保障의 比重에 비하면 單只 特殊技術者로서 優待한다는 名目상의 手當으로 變하였고 現在까지 繼續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議會에 있어서의 速記士 処遇에 改善을 要하는 焦點이 될 것이라고 生覺되는 바이다. 制憲國會當時만 하더라도 이미 養成된 速記士는 職場을 얻기 힘들었고 오직 固定的 職場이라고는 國會하나밖에 없는 形便이었어서 速記士의 職場開拓問題는 速記士養成에도 暗影을 던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몇몇 通信社에서 速記士를 採用했고 放送局의 外國放送聘取等 屈指할 수 있는 職場이 開拓은 되었으나 大槪가 國會速記士의 副業으로 되었고 新進은 突務된 달을 機會는 좀처럼 얻기 힘들었으니 여기의 速記士의 処遇는 悲慘한 것이요 아닐 수 없는 形便이었다. 六、二五事變을 겪고 速記의 再建事業이 繼續되는 오늘에 이르러서도 速記는 亦是 이러한 苦惱에 當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하여 速記의 職場開拓問題는 速記界의 發展에 基本課題인 것이어서 國會만 하더라도 民議院과 參議院의 本會議의 分科委員會의 記錄을 完遂하려면 最少限 二百名의 速記士가 必要한 것이요 地方議會 言論機關과 其他文化機關에서도 龐大한 速記需要를 所持하고 있는 바이다 現在의 百名未滿의 速記能力者도 完全히 收容 못하고 있는 窳怠狀態를 露呈하고 있는 奇現象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速記界의 組織的活動이 切實히 要請되는 것이며 또 今日과 같이 時急한 때가 없는 것이다. (一七頁末)

速記士의

隘路

悲哀

金宗弘

우리의 生活은 鬪爭의 歷史라고 한다. 우리의 自進해지나 義務的이거나 莫論하고 行動을 할 때 보면 略略이 몇가지의 障礙가 앞질러니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므로 速記士로 있는 나도 赫々한 經歷은 없을망정 하나들의 困難이나 隘路에는 부디 친바 있다 하는 것을 말하련다.

주어진 標題를 두가지로 크게 即 速記術自体가 가지는 隘路와 速記를習得한 自然人이 느끼는 悲哀이다. 언저 速記自体가 가지는 隘路를 따지면

(一) 聽取不能을 할수있다. 그하나는 方言과 發音不良이다. 速記錄을 作成하다보면 平安道胎生이어서 그렇지 모르나 全羅道나 慶尙道地方의 獨特한 方言에 부딪치는 境遇가 間或있는데 그면 때마다 내가 金상자모양 八道江山을 遊覽이나했던것 같은 부질없는 妄想이 떠오르는 것이다. 그리고 恒常 때 빌리고 熟辯을 社하노라고 애쓰는 사람이나 一反對로 입술은 잠자는 咽喉만 爽奮하여 方今이라고 덤터기를 걸 같은 꼴도

말하는 사람 등은 모두 發音나쁜 사람의 模範型이다. 聽取不能은 좋은 位置의 不良이다. 速記를 시키면

미움겨 못내겨 가장條件이 좋은 中央部에 位置를 잡어 주어야 된다. 그러나 때로는 自己를爲하는 結果로 말아갈 것임에도 不拘하고 우리를 速記士에게 좋은 位置를 提供해주는데 呑呑한 사람이 적지 않다. 그것은 自己보다 劣等한 位置에 있는 自然人(速記士)를 優待해서 안 된다는 自尊心을 그일의 比重보다도 優位에 두어야 하는 모양이다. 이 점을 더 強調하면 同情의 求乞人 같기에 이만 略하고 聽取不能의 성으로 넘어간다.

同時 發音이다. 座談會席上에서 二人以上이 發音하거나 議事堂內에서 議員 또는 議長 發音中에 傍사람이 擲楸를 던지는 境遇 余裕 있는 速記士아니면 注意를 瞬間에 分散시킬수 없고 또 充分히 말아 記錄할수도 없읍니다.

(二) 誤聽이나 誤記인데 誤記는 주로 誤聽과 速記士의 知能에 關係되는 것이기에 保留하고 誤聽을 말하고 지한다.

速記士도 韓이아님以上 誤聽도하고 誤記도한다. 그러나 이는 速記士의 注意力에 關한 點이어서 古典이 酷使한 때 주지않으면 可히 治療될수 있을 것이요 議會 速記를 두고 말한다면 疑心스러운 點은 現在 錄音과 對照하고 있으면서 거의 100%로 是正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三) 速記者 그 知能이다. 速記士가 가져는 그 知能이란 速記의 資本이 되고 核心이 되는 要素이다. 假令 어떤 사람의 發言을 받아서 充實히 音을 記錄했다고 보자. 그러나 그것의 判別이나 是非의 必要까지는 없을망정 理解하는 것인 줄 알기는 해야만 演說가 뜻하는 바 意思가 記述되고 또한 作成될 줄도 믿는다. 그런데 적어도 理解란은 해야만 하는 點에서 特別附記하고 싶은 것은 지나친 外來語나 漢文이 주는 困難이다. 論語와 孟子에서 때로는 詩傳書儀까지 登場하고 外來語로 말하더라도 法學이나 哲學에 나오는 獨逸語에서 工業專門家들이 쓰는 機械名 特殊한 經濟述語 醫學에 있어서의 藥品名으로부터 甚之於는 病名에 이르기까지 그 範圍는 實로 無窮하다. 이런 境遇에 그 方面의 些少한 予備知識이라도 있으면 모르면不然이면 速記는 寸步 아니라 何발 마저 바삭을 版屈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反對도 真理다」라는 眞識 聯想이 끼일지 現役 速記士가 모두 多數에 亙하여 博識하다는 것을 是認하는 것은 아니다.

(四) 演說의 速記에 대한 注意이다.  
우리는 그대로 親切을 베풀노라고 反覆하는 말이 많거나 文脈이 甚히 어지러올 때는 그 表現方法에 影響이 미치지 않는 限度에서 整頓까지 해주는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떤 演說士는 贅음이다. 즉 하였음이다. 別 區別해야 할 是勿論. . . 이지만 別. . . 이지만는 까지도 區別

하도록 要求한다. 이런데 誤화가 起될어 當場이라도 速記와 離離하고 싶이지나. 데. 미제 라 불 에나오는 者. 正當하다. 는데는 所當然 憤慨도 사그머져야만나. 가 正當하다. 는데는 所當然 憤慨도 사그머져야만나. 무정은 已起廢가 아니라. 때로는 自己가 發言한 內容까지도 否認하며 速記의 錯誤라고 惡評을 지는 수가 있는 데 錄音을 하자부터 錄音에도 그러함이다. 하면 是게 못다 말하게 느끼는 처하면서도 毒舌을 거꾸어 들이 고하는 수가 있다.

(五) 速記士의 能力 (速記) 問題이다. 速記士資格의 基準은 每分速 三百字에 운다. 그런데 때로는 2使命이 말하기 위해서 出生했는지 또는 잘못하고 죽은 鬼神이 붙었는지 알 수 없으나 分速 三百八十、四百、四百五十 에올라가 숨이 매키고 呼吸이 困難할 때 限까지 發言하며 급기야에는 絶絶에 지쳐서 소리가 아니라 오도록 惡을 쓰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速記士들에게 마치 蛇蝎이나 不俱戴天之怨讐처럼 마음을 받게 되고 이런 速記를 他人은 그날하로의 화를 가장 不選한 災로 몰아 버기지. 문 했느니 오도바이를 說느니 하여 不平滿이다.

(六) 速記反文 (翻訳) 의 非能率性이다. 우리나라에서는 干今 本으로 反文을 하고 있는데 外田과 같이 打字機 (타를) 을 購得해서 利用한다면 그 時間은 아마 지금의 半은 減하리라 본다.

그러나 이에는 타고난 前條件이 있으나 單用專用的 普及이다.  
 速記하는 데 있어서의 打鈴은 以上으로 그치겠는데 勿 論 그 突發의 不充實이나 資質의 愚鈍 등은 蛇足도 되지 못할 것이기에 그만두련다.

自然인인 速記士로서 가지는 悲哀

(一) 速記는 우리에게 絕對의 忠實과 無條件한 機械的인 容認하는 點이다. 職業人으로서 速記의 請託을 받으면 主자가 主人의 起動의 따라다녀서 對象의 盲動에 機械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하며 放心을 不許하는 忠實으로서 待從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 宿命은 그 對象者가 낮가죽이 어느만큼 두껍건 그 理論이 어떻게 雜湯이건 그 人間性이 唾壺처럼 더럽건 이에 처한 私 見은 一切 介入될 수 없고 다만 自願했다 는 點만 除外하면 奴隸와도 같고 다름없는 服從을 意味한다.

(二) 速記士는 實然眞祿을 풍기야 萬年速記士의 名譽? 稱號부에 없다. 하기가야 速記印刷機關은 것이 出現하는 날이면 自然陶汰當한 存在이기는 하지만 그 때도 마 음만은 살았다고 梅花打鈴이라고 하고 주니 拙者와 같 이 速記에 利用當하는 爲人도 萬年速記士의 稱號만 은 辭讓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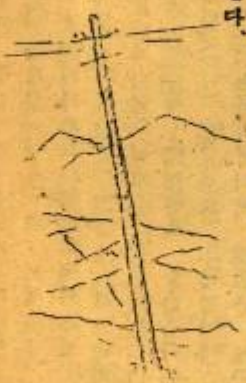
(三) 青年의 抱負와 理想을 蹂躪하는 點이다. 青年은 希望으로 가슴이 부르고 情熱이 용솟음치는 時節이다. 그러나 한번 速記에 몸을 던지면 너무

나 織細하고 機械的인 手工에 그만 蓄積된 情熱은 그 出處를 찾지 못하고 鬱憤으로 自爆해 버리며 가차 抱負는 分秒를 가리고 是非하는 打算性으로 急 速히 衰退되고 만다.

實際에 있어서 速記自体가 對象을 必要로하는 依他的인 宿命을 질머지고 있지만 最高八札僞를 求하기 爲하여 靛靛을 해 보았자 修飾된 말로 秘書가 고작인 悲哀를 아니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어디에 個性과 創意가 參與할 수 있으며 무었에 獨立的인 計劃을 꾸며볼 餘地가 있겠는가? 隘路를 踏다니 不平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悲哀를 느끼게 되니 그만 이것으로 막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結言으로 뒤마디 부치면

速記士는 淺學이나 博識이어야 하니 出世할 사람은 求하니 不平分子는 罷免狀밖에는 授與받을 것이 없는 求라 速記士의 隘路도 嚴히 따지고 들어가면 相對的인 것밖에 아니 된다.





(一三頁에서 継統)

이런 意味에서 去校 結成된 速記協會의 使命은 무  
거운바 있고 그 活躍에 달은 期待는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當面한 職務 開拓問題와 이에 따르는 速記士의  
生活保障과 社會的地位의 向上은 目標로 賢明한 打開  
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干先 速記士의 兼業은 是正하는 方面으로 指導하여  
速記士의 過重한 負擔을 輕減시키도록 指導할 것이며  
速記需要者 側에게 向하여 正當한 報酬와 待遇를 얻을  
수 있도록 仲裁的 役割도 맡아서 新進의 進出을 保護育  
成하여야 할 것이다.

職場 擴張에 關하여는 多方面 多角度로 과고블어야  
할 것이다. 特別 參議院 構成에도 與論에 參與하는 등  
早速한 實現을 爲한 積極的인 努力이 必要할 것이며  
大學이나 實業系 學校에 速記科目의 編入을 折衝하여  
一人一技 教育 施策에 協力할뿐 아니라 速記普及과 職場  
開拓의 一石二鳥的 成果를 얻을 수 있는 最近한 事業  
에도 着眼하여야 할 것이다.

速記士 養成事業에 있어서도 特別 職業 速記士의 實  
任 있는 教育과 指導로써 質的 向上을 圖謀하여 速記需  
要에 應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現在의 弱者的인 地位를 止揚하여 文化面  
에서 찾아오는 速記의 役割을 完遂할 것이며 速記職業의  
確固한 地盤을 構築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速記協會의 組織的 活動이 要請되는 바이며  
草創期의 速記界를 育成하기 爲하여 앞으로의 堅實한  
發展이 있기를 衷心으로 祈願하는 바이다.

### 集 募 賞 懸 賞 告 白

1. 象 徵—速記士의 團結과 躍進을  
氣 脈을 表示할 것
2. 日 時— 4289年 8月 15日
3. 提出處— 國會 速記課內 本協會 文化部
4. 當選 作品은 厚 謝禮
5. 當選 發表 本誌 第 二 號 紙 上



# 速記錄

編輯者의 辯

韓鍾瑛

速記 譯

速記錄은 내가 여기서 제삼스런 계 數材해서 말한必要도없이 議會政治의 「산 歷史的記錄」이다. 歷史에 關한 書籍이나 文獻이 人間社會의 모든部門의 發展的 事象을 事實 그대로 一貫된 體系를 갖추어 記錄함에 反하여 速記錄은 一貫된 組織과 体系的인 面은 없으나 議會內에서 이루어지는 事實은 議員의 發言은 勿論이요 議會內의 旁聽氣까지도 하나 빠짐 없이 記錄되고 있기 때문에 歷史的記錄인 同時에 「산 記錄」이다.

이러한 議會政治의 「산 歷史的記錄」인 速記錄을 編輯함에 있어서 恆常 事務의 重要性을 再認識하는 바이며 아울러 마음의 緊張과 努力을 傾注하고 있는 바이다. 速記錄의 使命의 하나인 迅速이라는 時間的 制約과 淺薄한 知識 그리고 編輯과 校正에 關한 造詣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完全無欠에 가까운 速記錄을 내놓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이제 速記錄編輯過程을 簡單하게 紹介하면서 編輯人으로서 느낀 苦衷다른가 編輯係로서 速記士諸位한테 要望하고 싶은 點等을 몇宇 적어 보려고 한다.

速記錄編輯은 原稿의 接受 原稿의 編輯 및 校正 印刷 付 印刷 校正等으로 二事務節次를 区分할 수 있는 때 速記錄은 前에서도 音及 句의 變이 迅速하여야 하기 때문에 一貫된 編輯事務處理上에 있어서 前記 区分은 明確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何如間 速記錄은 迅速할수록 價值가 있으며 同時에 가장 正確하여야 하는데 이 迅速과 正確이라 고하는 若干 相反되는 것 같은 個別的 要素를 어떻게 合理的으로 結合시키며 克服하느냐 하는 데에 編輯人(校正員도 包含하여)과 速記士의 苦衷이 있는 것이다.

速記錄을 編輯함에 있어 恆常 百「커-센트」의 正確이란 人間으로서 到底히 可望없는 慾望이겠으나 迅速이란 無慈悲한 時間의 压迫과 制限된 時間의 拘束 때문에 誤字 誤植 脫字 등의 誤謬가 生기는 것을 遺憾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이제 便宜上 위에서 区分한 事務節次에 따라 하나하나 차례 原稿의 接受한 速記士가 議員의 發言內容을 反文整理한 原稿을 編輯係에서 接受하는 것을 말함인데 原稿의 文字는 恆常 誰何를 莫論하고 잘 알아볼 수 있도록 正書로 쓸 것이며 特히 曖昧한 漢字 類似한 漢字 등은 注意하여야 할 것이다. 이點 速記士諸位한테 恆常 付託하고 있는 바이다. 元來가 速記를 하는 分을 이어서 그러면 文字도 速記式으로 쓰는關係로 原稿

校正時 또는 印刷所에서 文選工들의 採字時 印刷校  
 正時等 많은 誤字가 생기며 또한 많은 時間을 虛費하  
 게 되는 것이니 原稿는 粗惡한 筆跡을 버리고 깨끗하고  
 正確하게 正書로 써주실 것을 紙面을 通하여 다시 한번  
 付託하는 바이다 그리고 編輯人은 原稿를 整理함에 있  
 어서 校正其他 編輯上 여가가지 指示 및 符號를 記  
 入하여야 하므로 그만큼 餘白을 남겨놓기 바란다  
 들에 原稿의 編輯 및 校正은 原則적으로 原稿를 入手  
 하여 原稿의 誤字 誤文을 訂正하여야 할 것이니 文脈의  
 不統一한 點을 統一시켜하는 것이 編輯人의 役割이었으  
 나 速記錄은 讀員의 發音을 文字發音式으로 事實그대  
 모를 記錄하는 것이기 때문에 發音內容에 對하여서는  
 全히 「갓취」하지도 못하고 「갓취」하지도 않고 있다. 單  
 只 速記錄의 体裁을 갖추어 誤字의 訂正 및 速記士交代  
 時의 發音의 重複이나 連結關係等의 訂正에만 主力  
 을 두고 있다.

그리고 原稿는 編輯時에 完全無欠하게 誤文 誤字  
 들을 整理할 것이며 即印刷所에 廻付된 然後에 原稿의  
 誤謬를 發見하여 訂正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은 時間上의 制約으로 容納되지도 않기에문에 編  
 輯人은 編輯 校正時에는 恒常緊張을 아껴서는 아니  
 되며 原稿의 破綻點은 速記士나 讀員을 通하여 그  
 即時 밝혀서 訂正하여야 하며 速記士諸位도 이點 留  
 意하여서 完全한 原稿를 넘겨주기 바라는 바이다.

셋째로 印刷廻付에 對하여서는 特記할만한 것이 없  
 기 때문에 省略하기로 하고 끝으로 印刷校正인데 印刷  
 校正이란 即印刷所에서 文選工이 採字한 것을 植字工  
 이 造版하고 여기에서 初校가 始作됨을 말하는 것인  
 데 印刷校正은 時間에 拘得되지 않는 限 初校 再校  
 三校 四校로 完全無欠한 때까지 繼續하는 것이나 速記  
 錄은 編輯員의 人的制限과 新聞과 같이 極度の 時間  
 的인 制限을 받기 때문에 再校로서 그치고 있다.  
 速記錄印刷은 夜間作業을 해야 하고 印刷校正도 夜  
 間에 行하여져서 이에 따라 必然적으로 疲勞와 함께  
 注意力이 減退되어 自然的으로 錯誤가 發生하기 쉽기  
 때문에 校正員은 注意力과 緊張과 精力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印刷校正에는 單独校正과 두사람이 서로 돕어가며  
 校正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校正方式의 長短 및 能率關  
 係等은 制限된 紙面關係로 略하기로 하고

끝으로 誤謬에 關하여 簡單하게 적어 가면 誤謬에  
 는 「原稿에 關한 誤謬」과 「印刷에 關한 誤謬」가 있으며  
 前者는 速記士와 編輯人에서 생기는 誤謬이고 後者는  
 文選工과 植字工에서 생기는 誤謬이다. 여기에 特記  
 할 것은 印刷에 關한 誤謬는 速記錄의 完成段階에 있는 만  
 큼 印刷校正은 大端히 重要한 位置를 占하며 이點  
 校正員은 印刷에 關한 誤謬의 發見과 訂正에 格別한  
 注意를 하여야 할 것이다.

誤謬가 생기게 된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니

- 一 議員名에 關한 誤謬
- 二 固有名詞에 關한 誤謬
- 三 日에 關한 誤謬
- 四 數字에 關한 誤謬
- 五 現行法規와 法規에 關한 發言間에 生기는 誤謬
- 六 慣用하지 않는 述語의 使用에서 生기는 誤謬
- 七 同音異意에서 生기는 誤謬
- 八 難解한 漢字의 使用에서 오는 誤謬
- 九 曖昧한 發言에서 生기는 誤謬 등이 있는데 이
- 點 速記士 諸位와 編輯員 校正員의 注意를喚起하는 바이며 이點 特別히 留意하여 주신다면 좀더 完全한 速記錄이 發刊될 것으로 確信하는 바이다.



### 最新의 女人 創造

“트라스드라. 神(火의 神)은 술술 바람속에 일의 날음을 挾하여 거기에서 자슴의 빛을 불붙이고 증주는 햇빛의 즐거움과 나비의 눈물과 暴風의 사나움과 도끼의 수검음과 孔雀의 虛榮과 제비의 목과 송철의 軟弱함을 調合하였다. 트라스드라. 神은 또한 다이아몬드 의 堅固함과 줄의 달콤함과 호랑이의 殘忍性과 석의 차가움을 이에 보태었다. 그는 이것들을 까치의 ‘갈 말’로써 꾸러호드였다. 트라스드라 神은 이傑作品을 男子들에게 贈物로 보냈다.

### 原稿 募集

會員의 原稿를 다음과같이 募集하오니 多數 応募를 바랍니다.

1. 論文 小説 詩 公報 紀行文 散文 隨筆 무엇이든지 可함
2. 每月 末日 마감
3. 掲載分은 所定의 原稿料를 支給함
4. 提出處 一國會速記課內 本協會 文化部

# 回顧 生活의 壇教

B. S. Y.

筆者는 이 前者의 對答은 後者는 街里에서 配行하는 「장부」이나 또는 求景이라든가 前者보다는 未知의 世界를 하나라도 더 알고있는 對答이요 또한 近似한 對答이기때문에 大体로 筆者는 「速記의 意義」를 이별게 規定하고있다 「速記」라는 것은 思想의 言語形式의 表現을 그대로 同時的으로 普通文字와는 判異

人間은 누구나 未知의 世界를 撞擊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또한 그 未知의 世界를 알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 一且 그 것을 알리려는 力을 어떻게 생지 않는 것이 우리들 凡人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速記를 「마스터」한 사람은 凡人의 「카메고리」를 단 「미리」라도 벗어나 사람이 되고하였다 「미리」 그것은 實際로 自己 스스로 速記學을 배우므로써 假令에 필 것이다 筆者가 日高女の 速記學講師로 壇에 선 것은 約二年前부터이다 壇에서 자 나는 學生들에게 「速記의 意義」를 質問하여 보았다  
「빨리 記錄하는 것이요」하는 性味急한 學生의 對答이 壇에서 出되 나았다 또 다른 壇에서 「眞狀스러운 글자로 言語를 記錄하는 것이요」라는 對答이 나왔다  
是認하였

다 體系的인 組織的인 符호로 記錄하는 것이다」과 고 「그런데 한 「프라스」에서 後者와 같은 對答을 體系的인 組織的인 符호로 記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人間은 自己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否定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모르는 것이 많은 未知의 世界를 究明히 弄기있게 하나씩 하나씩 服해 나가야 할 것이다  
筆者는 經驗을 통해서 女學生들의 未知의 世界에 대한 憧憬心과 好奇心이 強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또한 이 것이 오래 持續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突例로 速記學에 있어서 基本的인 部分까지는 大端한 好奇心을 가지고 臨하나 그 部分을 지나서 複雜性을 띤 部分에 가서는 곧 倦怠症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自身의 弱點인 努力하면 能히 補正될 수 있는 것이다 筆者는 倦怠症을 일으킨 學生을 한 三名 個人指導한 結果 그中 一名이 落伍가 되고 二人間은 忍耐力이 強한 사람과 忍耐力이 弱한 사람과 弱點類로 나눌 수 있는데 筆者의 體驗으로 보아서 忍耐力이 強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생각된다  
한 예를 들면 勿論 各個人 個人의 周圍環境 및 性格에도 關係가 있겠지만 教室에서 같은 時間에 速記學을 배우기 시작한 學生들 가운데에서 卒業期에 가서 一定한 일은 水準에까지 到達하는 學生은 不遇 十%内外라는 것을 보더라도 忍耐力이 強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速記를 「마스터」한 사람은 強한 忍耐力의 所有者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누구나 人間은 安逸한 것을 좋아하는 傾向이 있으나 女學生들에게 있어서는

特히 수박 결 알기식으로 無限한 極心과 好奇心을  
 一瞬에 奪으로 假換시키는 傾向이 많다는 것을 直覺  
 하였다. 그러나 方便 男性보다도 몇 百倍 몇 千倍의  
 意志力과 忍耐力을 所持한 女性도 있다는 것은 無視  
 못할 事實이다.  
 그다음으로 女高生들의 社會常識面을 檢討해보면  
 우물안의 개고리모양으로 教室內의 常識以外의 것은  
 全然 白紙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야 너무 짝은  
 社會常識을 摘要하면 學業에도 支障이 있겠지만 一  
 般的인 常識面에 있어서도 全然 白紙나 마찬가지다. 一  
 단例를 들면 우리나라의 政府機構가 아직까지도 十  
 二部四知인 줄만 알고 있는 學生이 半數以上 거의 三  
 分之二에 達하고 있다. 이것은 尤 學生들이 暗記式  
 인 工夫를 하고 있다는 것과 社會의 變遷相을 伝해 주  
 는 新聞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實証해 주는 것  
 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方便으로는 이들을 引導하는  
 教師들의 責任도 不少하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學生들이 新聞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은 첫째로 漢文  
 常識의 欠如가 主인 것을 筆者는 認識하였다. 그리  
 고 尤 高等學生들은 自己가 義務外 責任을 다  
 하지 않고 어떤 좋은 結果를 얻어 보려는 傾向이 漸  
 次로 높아 가고 있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  
 모 速記는 高等學生들에게 있어서 一般學課보다 어  
 러운 學問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尤 忍耐力의  
 所有者란 最後의 月桂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提言  
 하여 두는 바이다.

高 南 女 學 生  
 李 完 福

追 跡 을  
 天 使 들

삼분 삼분 흥날 터는  
 내 追跡을 나의 天使들  
 갈 곳은 없더라도 발길만은 . . .  
 날 단 두레탄 사슴이 걸을지 나도  
 나는 두레탄 라티 불어도  
 남 발길만은 한없이 가고 싶어라  
 天 使 들 과 내 追跡을  
 모두 남 걸 때

# GENEVE 紀 行

(旧稿에서)

柳 虎 龍

봄철을 맞은 사람들의 발걸음은 활짝핀 昌慶苑의 벚꽃에 醉해 미물거리고있던 四月十九日 午後 나는 自動車에 몸을 싣고 汝矣島飛行場으로 向하고있다. . . 아모리 생각해봐도 공만갈다, 내가 GENEVE 會議에 參席하러 간다? . . . 나의 腦裡에는 지나간 二十四時間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어수선하게 映滅한다. 어제 (日曜日) 午前 外務部の K兄이 집에 찾아와 急히 速記할일이 생겼으니 情報局長宅으로 곧오면다 고 伝하던일. . . 그래서 日曜日도 못하고 일의 奴隷가 된 内身勢를 恨歎하며 局長宅에가서 다 른일은 없고 GENEVE를 가게되었으니 來日 아침 아홉시까지 寫真부장을 準備해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들 들고 告別일. . . 十九日 아침 아홉시까지 는 秘密이라고하여 접에게서도 말을 못하고 다만 出張간다고만 하던일. . .

이런일 저런일을 생각하다보니 車는 어느듯 飛行場한복판에 와있었다. 欲送나온사람들과의 人事를 끝내고 KNA 旅客機에 몸을싣었다. 난생 처음으로라는 飛行機라 村音이 처음 自動車타는 気分이 목이더러라 느껴져서 혼자 멧저게 웃었다. 「에어 편」이어나가는 승으로 乘客들이 귀를막고 安全帶를 裝置하고나자 飛行機는 離陸하여 서울上空을 한바퀴 旋回하고나서는 南쪽으로 指向하고 버간다. 한三十分쯤 지나니 興奮되었던 마음도 좀 가라앉아 담배를 한대 피어볼고 낮에 사형있던 新聞을 고대서 읽어다보았다. 그新聞을 보고서야 一行이 누구누구인가를 알았다.

首席代表 下榮泰 (外務部長官)  
代表 梁裕燦 (駐美大使)  
林炳稷 (UN常駐大使)  
洪瑛基 (法務部次官)  
首席補佐官 崔瑛宇 (國防部次官顧問)  
補佐官 李壽榮 (外務部情報局長)  
隨行員 韓有東 (外務部秘書官)  
孫秉植 (外務部儀典課長)  
柳虎龍 (速記士)  
李柱範 (打字員)

新聞에는 이런名單을 掲載하고 그中 梁裕燦 林炳稷 崔瑛宇 韓有東 孫秉植 GENEVE로 向發하

리라고 생각되었다.  
 보도 新聞을 도로 경어 넣고 慰勞으로 下界를 내  
 러다 보니 가마 大田上空을 띄웠는지 장난감 같은 市  
 街地가 눈에 띄었다. 飛行機의 動搖는 꼭 마담부는  
 남 濱江에서 「로」로 「란」것 같은 느낌이 준다. 서울  
 出發한지 4時間半만에 釜山에 到着한 一行은  
 東茶에 있는 國際호텔에서 一泊하였다. 다음날 二十日  
 午前中에 出京申台等 諸般手續을 마치고 午後三時  
 NWA 航空便으로 水管空港을 出發하였다. 飛行機는  
 四發機라 動搖도 거의 없고 日人二世의 美國人「에  
 어필」이 상냥한 단석로 案内를 해준다. 玄海灘을  
 건너 北上을 繼續하는 飛行機는 午後三時十分 발로  
 만 들던 羽田國際空港에 着陸하였다.  
 金駐日公使의 案内로 一行은 代表部로 들어갔다  
 이날 저녁 金公使는 앞으로 當分間 韓食을 맛볼  
 회가 없을 우려를 爲하여 韓食晚餐會를 배정해주었  
 다. 밤늦게 指定된 STATION HOTEL (東京駅  
 上層)에 들어가 疲困한 몸을 寢台에 依支하였으나  
 汽笛소리와 騒音으로 因하여 寢室으로 移한 지 얼마  
 지은날 二十一日 아침 호텔會堂에서 朝飯을 마친  
 一行은 午後七時의 東京出發까지 自由行動의 許容되었  
 다. 나는 于先 準備金 百弗을 帶아가고 UN 宣司  
 令部 「가나운서」로 있는 Y兄을 찾아가 그날  
 우고 韓國銀行東京支店에 가서 日貨로 돈을 바꾸었다.  
 돈을 바꾸는 동안 나는 TAXI안에 앉아 있었다.  
 담배(CAMEL)를 하나 고내 입에 물고 運轉手에  
 지도 한대 袖했더니 「스고이 다바그 메스비」(정장단 담배입니다 그럭)라고 받아서는 파우지 않고

귀에다 웃는다. 알고보니 日本서는 洋담배를 파우지  
 못하도록 法으로 規定되어 있는데 남에게 얻어 파우는  
 것은 괜찮다고 한다.  
 百貨店街로 車를 몰아 必要한 日用品을 準備하였다.  
 百貨店內部는 文字 그대로 輝煌燦爛하였으며 女店員  
 들도 매우 親切하고 기이 모두가 英語를 할 줄 안다.  
 해가 머리위에 와 있는 것을 意識한 나는 그제서야  
 空腹感을 느껴 가까운 飲食店에 들어가 점심을 먹  
 었다. 알기 미처서 그런지 말은 조금 주고 고기를 많이  
 먹었다. 食後 거리를 걸어보니 여러군데서 近代式高  
 層建築物을 볼 수 있었는데 모두가 麗기 일마 없고 窓의  
 部分이 넓어서 建築物全體가 「유리」로 된 것 같은 錯  
 覺을 일으키게 하였다. 東京에는 日本全人口의 一割이  
 該當하는 約八百萬이 集結되어 있어 「맛슈카워」에  
 는 걸이 미어 걸것 같은 夥多한 人波를 이루고 있었다.  
 人口는 많고 農産物은 絶對量이 不足하여 糧穀統制  
 政策을 쓰고 있으나 主食物인 白米는 우리나라 市價  
 의 約五倍의 價格으로 高去來되고 있다고 한다.  
 發售한 저녁 마담이 부는 가운데 飛行機에 몸을 담은  
 一行은 AIR FRANCE 航空便으로 一路 GENEVE  
 E에로의 旅行의 始作되었다. . . . . .  
 가려운잠에 醉했다가 깨어보니 時計바늘은 二十二日  
 午前二時를 가리키고 있는데 沖繩에 到着하였다고 한다.  
 밖에서는 새벽의 어둠속을 비바람이 저벅저벅 있었다.  
 「에어필」(私人)보고 밤에 나갈 수 없느냐하니 「파라  
 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럭 「파라뿌리」가  
 무엇이냐고 웃으면서 再次 물으니 兩傘이라고 가르



치준다. 우리들은 이 「따라부리」라는 웃은 語感을 가지고 얼마동안 話題를 삼았다.

注油을 完了한后 다시 七時間半을 飛翔하여 「베트남」의 首都 SAIGON에 내리니 現地時間은 午前九時라는 아침時間 이었는데도 우리나라 初伏의 위와 비슷하여 手汗을 흘린 地熱이 다 리밀므로 숨이 올라온다. 우리들은 이렇게 더운데도 日射病에 걸릴 危險이 있어 帽子를 쓰고 있지 않을수 없었다. 飛行場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눈에 더운것은 櫛比하게 늘어 서있는 軍用飛行機와 機關短銃을 들고 嚴肅하게 서 있는 시커먼 살색의 베트남警備兵이었다.

그리 개짓지 않은 食堂에서 珍饈을 같은 「키아」와 시커멓게 태운 「토이스」로 朝飯을 치문 우리는 같은 飛行機로 다시 約七時間半을 西쪽으로 달며 當地時間 午後零時三十分 印度의 首都 CALCUTTA에 이르렀다. 더위는 SAIGON에 比할 筈이 숨이 막힐정경이다. 이렇게 더운데도 大都市에는 六百萬의 人口가 살고있다는데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날 저녁 「카키스탄」의 首都 KARACHI에 닿으니 酷熱은 어디든지 사라져 버리고 무더운 서늘의 氣은 봄날씨 같았다. 航空会社の 「더이스」로 飛行場에서 若干 떨어진곳에 있는 食堂으로 案内되어 저녁을 마친 우리는 밤하늘에만 짝이는 北斗七星을 바라보며 近郊의 庭園을 기념했

다. 雜物을 몇근데 붙여보니 모두 石造物이다.

理由를 알아보니 이地方의 「데미」는 獨特하여 木造物은 하도밤 사기에 侵蝕해버리므로 木造建築이 不可能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地方에는 燃料가 不足하여 牛糞을 쪼아 壁에 붙여 두었다가 乾燥한 다음에는 茶를 끓일때 우리나라의 土炭과같이 그것을 燃料로 쓴다고 한다.

KARACHI를 떠난 우리는 하도밤을 飛行機속에 서 지내고 二十三日 새벽 五時 「베마논」의 首都 BEYROUTH에 到着하였다. 亦是 空港構內食堂에서 朝飯을 마쳤는데 醬을 담은 醬주머니가 膩이 膩이 仔細히 보니 그 材料도 模樣도 우리나라의 것과 똑같았다.

BEYROUTH를 떠난 一行은 이날 午前十時三十分 伊太利의 首都 ROME에 到着하였다. 이곳에서 ALITALIA航空便으로 飛行機를 바꾸어 타고 仏蘭西의 NIZZA空港을 經由 白雪에 덮힌 「알프스」山脈을 橫斷하여 目的地인 GENEVE에 到着하였다. 當地時間 二十三日 午後一時 (韓國과의 時差 七時間三十分) 總飛行時間 約五十時間 地球의 折半을 太陽을 쫓아 달려온 것이다. (繼續)

# 행의速記士時代

## (나의生活白書)

吳潤玉

職場에 나가서 冊上에 앉기만하면 退勤時間까지의 八-九時間을 通하여 점심時間과 電話하는時間을 除外하고는 余念이없다. 옆에앉은 同僚들의 雜誌이 때로는 귀에 거슬린다. 아직도 나의 冊上에는 原稿用紙가 나뒹비웃고 있다.

氣分이 傷하기始作한다. 夢계몽계 우울한 구름이 퍼져 나가는 더 참을수없다.

어떻게하면 가장 自然스럽게 이環境에서 따져 나갈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을행이 速記士生活의 回顧談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苦役스러운 速記者生活도 달이지나고 해가 바뀌임에따라 自然 몸에 저졌고 제법 會議速記도 할수있게되었으며 때로는 座談會速記도 맡게되었다.

只今으로부터 約三年前 어느날 貯蓄에關한 座談會速記를 担当하게 되었다. 座談會時間이 되자 五-六名의 參席者와 女子 「아

나운사」가 나왔다.

이속고 錄音放送은 始作되었다.

명. . . 正刻여 時를 알리드였습니다.

只今부터 貯蓄에關한 座談會를 始作하겠읍니다. 여기

에 나오신분은 大韓金融組合聯合會副會長으로 계시는

XX氏 韓國銀行業務部長으로 계시는 XX氏 하고 나

드니 가슴속으로부터 더져나오는 우습브마티를 알라

더러노왔다. 이종에 옆에 앉았던 司會者는 勿論 參

席者全員도 같이 우서버렸다. 錄音放送은 다시 始作

되었다.

正刻여 時를 알리드렸읍니다. 「HLKA서울코리아」

하는 아나운사의 愛嬌있는 모습이 어찌나 우수웠던

지 이번에도 나의가슴속에 刺땀어 오르는 우습을

참을수없어서 알라 웃는바람에 參席者 全員이 다시

한번 爆笑하였다.

放送은 세번째 다시 始作되었다.

「HLKA」할때에 「아나운사」와 나의 視線이 마

주치는瞬間 「아나운사」와 나는 다시한번 爆笑하여

버렸다. 勿論지미버오르는 우습을 참을수 없었기때문

이다.

이종에 參席하였던 모든 사람은 우습과緊張에찬

얼굴로써 나를 노려볼때에 그女子와 나의얼굴은 우

습이 爆發할때와 마찬가지로 같은瞬間에 紅顔이 되

어 버렸다.

그 때에는 왜 그렇게도 우수웠는지 또 우습디 視線이 마주칠때와같이 같은瞬間에 紅顔이 되었는데 나는 나 자신도 모른다. 또 그女子自身도 모를일이었을것이나 何如든 처음만난 女性과 視線을 같이하고 爆笑할일도 처음이오오더니와 가슴시련하고 異常한感情을 느끼는 우스운일이였다.

그女性과 다시 한번 만나서 爆笑하였던 그옛날을 回顧하며 묵이더라도 다시 한번 우서보고싶은 慾望이 나의머리에서 사라지지않지만 다시맛날 機會를 찾지 못한 웃지 못할 우스운 일의 하나였다.

일福 타고난 環境을 悲觀하였던 나의 初步的인 速記生活도 앞에서 말한바와같은 爆笑等을 通하여서도 하나의 喜樂이 될수있으며 速記의 文化的價值를 主張하는 사람의 하나가되었고 速記文藝의 利器를 最高度로 利用하는 快感을 느끼는 한사람이 되었으며 速記技術과 더불어 創意性을 發揮하기에 힘쓰는 한사람이 되었다.

한나라의 文化가 歷史와 더불어 存続한것이라면 速記文化 亦是 어느部面에 못지않게 文化發展에 寄與한바 크다고 自負하는 사람의 하나이고 나의 職場에서도 이런氣分으로 일하고있었지만 도리어 생각컨대 아직도 初創期인 이나라의 速記文化는 겨우 幾十名의 速記士로 維持되고 一人 三役 四役으로

加重한 精神力을 要求하는 爽情을 생각할때 가슴앞음을 禁치 못할때가 많다.

一千八百余名の 職員을 갖인 나의職場에서 나만이 할수있다는 快感이야말로 比肩할수 없으랴만큼 기쁜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孤獨感을 禁치 못하던 次 多幸히 苦樂을 같이할수 있는 좋은 同僚가 생겼다는 것은 나의速記生活에 있어서 또하나의 기쁜일이라 아니할수없다.

定例的인 말은바 速記事務以外에도 日常生活인 銀行事務面을 通하여 하루 數十番式 주고 받는 記錄을 要하는 電話連絡 其他連絡에 있어 速記를 利用함으로써 能率向上을 期하고있고 私生活에 있어서도 對談時 記錄을 要할때나 秘密을 要하는記錄 또는 時間的으로 오르는 思考的인 插寫等 事務面에 있어서나 私生活에 있어서 文明的利器인 速記의 價值를 吟味함으로써 修練이 不足하였던 은쟁이 時代의 苦惱도 自然 이 지버리게된다.



#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篇

(Z 生)

記者가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를 찾았을 때는 三十分頃— 아직 授業이 始作되지 않았었다. 三十名 가까이 되는 學生들이 無秩序하게 앉어 웅성웅성하고 있었다. 이윽코 키가 壯렬한 先生이 나타나 教壇에 登壇.

「차렷!」

班長의 口令을 따라 先生과 學生들間에 鄭重한 인사가 있었다. 學生들의 머리가 恭恭敬敬한데도 先生기도들 드리고 있었는가.

「자아 앉을때 쓰세요」

先生의 말이 떨어지자 學生들 손에는 일제히 鉛筆이 拵두셨다. 종이 위를 달리는 鉛筆소리는 천연「누에」 뽕잎 삼아먹는 소리 같다고 할까

「사막 사막...」

記者는 이 소리를 귀에 달으며 室內들 훑어 보았다. 前面벽에는 「努力 忍耐」라는 글씨 筆致가 눈에 띈다.

(저 글을 쓴 學生이 이 자리에 있는가) 이것은 記者가 부질없는 杞憂이기를 바랐다. 비록 電球가 무려 여섯燈 부파에는 「오일

스도! 부」가 한장 달고 있었다.

記者는 으시며고 (??) 學生들의 쓰는 양을 視察 (??) 하기 始作— 「미늘기」처럼 단군이 외떨어 지 않아 쓰는 女學生들 앞에서 記者의 발이 밟혔을 때

「보지 마세요」

얼굴을 붉히는 女學生의 모습이 情다웠다.

「이번엔 번역해요」

先生의 말은 부드러운데 學生들 얼굴에는 緊張의 빛이 떠오른다. 學生들손의 鉛筆이 치미치미 흔들는다. 가다가 때리는 「메」가! 先生의 입기가 끝나자 學生들은 번역을 하느라고 筆을 들지 단 짜이 되어 도란도란 자미도냈다.

「지금 先生을 잠고

「지금 先生을 몇자 釋康나 된니까?」

「탄 이 때유집자?」

하면서 고개를 기울이는 몸이 제 안되는상도 싶었다. 그때 筆을 얹는게 다시 先生은 「수기득은 이 때유집자 정도 읽어요」한다.

「몇명이나 졸업할까요?」

「글세 탄 삼십명...?」 이것도 자신 만만단 答은 못되었다.

「자랑 거린 없나요?」  
하고는 記者에게 先生  
은 것이 웃으며

「뭐...」  
하고 우물쭈물 하더니만  
冊上위에 노인 新聞을 들  
고

「학교 정미에서 학생들  
에게 신문도 보게하고  
있어요」

國家予算으로 運營되는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라지만  
學生들에게 新聞까지 惠沢  
(?)을 베푸는 善은 記  
者야 勿論 하나 여러분도  
聞外聞일진...

記者는 先生을과해서 一  
덕하는 學生들 들을 散策  
하다가

「번역 잘 됩니까?」  
「잘 안 되요」  
편히 알면서 물었던것은  
記者의 지푸진 심자였을까  
記者는 또가야 할곳이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案內

大韓速記技術學校는 단기四二八四年十二月一日  
臨時首都釜山에서 文敎部長官의 認可를 受  
育法에 依拠한 高等技術學校로 開校式을 舉行하  
어 韓國에서 最初로 規模있는 速記敎育事業機關  
으로 發足을 보게되었다.  
同校는 速記敎育의 特殊性과 制限된 짧은 敎  
育期間內에 所期의 成果를 期하고자 授業에 있  
어서는 主로 速記學(逸波式)과 그 實習에 注重  
하고 其外의 科目으로 國語 法律 經濟 新聞學等  
은 各週一時間의 學科配定을 하고있다.  
同校는 남모 激增하여 가는 速記需要에 鑑하여  
速記學術의 時急한 普及와 發展을 期하고자 授  
業料을 爲始하여 後援會費等 一切의 學生負擔을  
免除하고 있는에 特色이 있다.  
授業陣은 다음과 같다.  
校長 崔廷宇 民議員事務總長  
副校長 徐商俊 議事局長  
校監 金震熙 速記課長  
速記學教師 金鎮基  
          鄒源道  
          張慈根  
國語講師 徐商俊 金震熙  
法律 " 徐一教  
經濟 " 金昇鎮  
新聞學 " 李漢鎔 國都新聞編輯局長  
民議院法制司法委員會專門委員  
財政經濟委員會專門委員

있어 온다 같다」말없이 바  
람같이 세어 나왔다.  
「도카」를 나서니 學生들의  
번역하는 소리가 마치 「길  
」이 재끼들 처서 단상된  
남려고 할때 벌 은 에워싸  
고 「칭칭」거리는 소리  
같이도 들렸다. 記者는 하루  
속히 그들이 한살땀 나서  
蒼空을 한껏 나눌수 있는  
「별」들이 피기를 祈願하고  
있으므로 살짝 떠났다.  
(次号에는 高麗速記技術學院  
篇을 記載함)



# 適當히의因果

金 勳 基

愚鈍하고 生覺없는 나의머리도  
 웅얼인지 이適當히라고 觀念을가지  
 고 轉을드니 머리의 이구석 저구  
 석에서 가자가지의 適當한生覺이  
 들켜거린다. 適當. . 이表現이아닌  
 모 疲倦스 諾스하고 疲이나 痛을고  
 습있는말의 表現은 틀림없을것  
 이다. 내가 새로 사친 某親旧하  
 가 今年大學進學生인데 그지 높고  
 만다. 一流大學을 進學하려는가 忠  
 告하는것같은 말을 하였더니 그의  
 멋머리정말이 미! . 스럽! 適當히  
 하면「OK」라고. . 나는이表現自体  
 에對해서 疲倦通性있고 餘裕있는  
 對答이라고 善惡로 그의人生觀은  
 드러다보았다. 視野를 넓히볼때 社  
 會生活하는 人間은 거의 이適當  
 이라는 觀念에 病을있고 慢性되  
 다해도 自覺있는者 反駁할것이다.  
 政治로부머 社會生活 全体에亘한  
 一擧手一投足の 動態는 다! 이觀念  
 에서 움직여지는것이 現突이 아닌  
 가! 그러므로 適當히 帳簿를만들

고 適當히 著作하고 適當히 내고  
 따지고 適當히 붙여가고 나오고  
 등々. . . 그리고서 寫理는 適  
 當히 사바사바하는것이 아닐가. 여  
 기에 은交 醜態와 罪惡이 發生하  
 고 무루하고 結局은 是의 現突을  
 招來하고 民心이되고 이것은 痛  
 없이 放縱하고 게으르고 無秩序한  
 오날의 社會相을 말로 「適當」이  
 라는 字로 表現한것으로 生覺된  
 다. 그러니 나도 이속에 呼喚하고  
 발맞추어 나가는 二十世紀 文明社  
 會의 一員인以上 自然히 意識中無  
 意識中 이觀念의 是은것이 습득  
 는 事實이다. 나는 나의使命으로  
 알고있는 速記習得에 依해서 已經  
 學으로써 더욱 以上과같이 쓸수있  
 었고 生覺할수있었다. 그것은 自  
 身을 조용히 回顧해본것이다. 即  
 速記의原理는 線의長短과 線의方向  
 點의位置 등々으로 細密하며 嚴密  
 리 組織되어있는 까다로운 學問인  
 것이다. 이것을 交다가 適當한 規  
 則과 細密한注意와 規則과 嚴格

한 態度를 버리고 適當히 세버리  
 는것이다. 「五미리」그어야 할것도  
 「一〇미리」方向도 適當히 位置도  
 適當히 적어놓고 귀찮으니까 그지  
 適當히 되는대로 해버린다. 어전일  
 인지 암만해보가야 남들은 할줄  
 번역하는데 나홀로 不通이다. 안타  
 까운제 날이가고 말이가 總決算의  
 남산 눈앞에두고 초초한마음을 여  
 제하고 가슴에손을인고 回想하  
 適當히의 因果임이 判約되었다. 나  
 는 가슴아프고 痛歎함을 禁할수없  
 었다. 나는 分明히 이觀念에 사로  
 잡혀 있었기때문에 速記習得에 落  
 伍가 되었고 모! 一面에 뛰떨어졌  
 고 지금에야 비로서 勞心無思하고  
 발버둥질 하는것이다. 이렇듯 이適  
 當히의 因果는 조금도 容恕없고  
 冷情하고 嚴格한 適當과는 正反對  
 의 結果를 가지오는 理致를 알았  
 다. 혼란아니라 諸般事에 耳해서도  
 同一함을 알았다. 流行性 心病인  
 適當히의 觀念은 너! 들 莫論하고  
 拔本塞源하고 每事에 臨해야 되  
 지만 더욱이 速記를 研習하는 熱血  
 同志는 더욱 留意하여 習得하  
 지않으면 失敗하는 하나의 要素라  
 고나의經驗은 痛切함이 말해주고있다.  
 그렇다고해서 固執不通이거나 機械

的인 觀念을 讀揚하는 것도 아니다. 차라리 나의 速記研習은 모든지기 지워달 두서운 軍國主義 그精神을 活用 또는 應用함에 適當의 觀念을 몰아 낼 수 있고 나의 速記가

完全 習得하지 않을 까? 또 捷徑 이 아닐 까? 이런 雜念도 생기곤 한다. (金言) 自身에 對해서는 嚴格하라 그러나 他人에 對해서는 恭遜하라

그때 그때에게는 時물이 없게 된 것이다. (中國觀言)

# 忙人勿讀

具聖伯

便이 急한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사람한테 먹지 않는 오수탕을 찾아가 쥬쥬대다가 失手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 急한대로 아모데서나 勇致히 行動을 開始하라. 다만 눈을 감는 것을 잊지 말고... : 남이 나를 안보는 것이나 내가 눈을 감고 남을 안 보는 것이나 結果적으로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空想의 自由 ○돈 없는 자여 恨歎말라 世上돈이 모두 自己돈인 데 다만 꾸어주고 팔지 못한 것으로만 생가하면 편다

○孔子의 英語 ○西洋사람의 頭腦가 좋으나 東洋사람의 頭腦가 좋으나 하는 것은 누가 輕率히 判斷 못할 것이다. 그러나 東洋 사람의 머리가 斷然 優秀하다는 事實같은 거짓말 하도막!

옛적에 東洋人에게 漢字를 가르치고난 孔子가 西洋에 건너가 그곳사람들에게 漢字를 가르치며 하였으나 머리가 나빠서 到底히 習得을 못하여 화가난 孔子는 「에이 못난놈들 같으니...」하고 正經이든 正經이든 말아왔는데 그지경이 자욱이 오늘날의 英文字(筆記體)가 되었다는 이야기... ○눈(眼)의 技術 ○손아름답지 못한 이야기지만 손히질은 건다가 用



# ” 獨身主義者 ”

有 之 見

인호는 X X 중학 학생들 사이에 인기들 두차지하고 있는 영어선생이다. 학생들이 인호를 따르는 때에는 인호의 풍부한 학식, 타협적 성격때문인지도 모른다. X X 대학을 나온 인호가 이러한 타협적인 성격을 자기몸에 지니게된 것은 신천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일찌기 아버지들 어이고 풀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난데서 온 우권적인것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할것이다. 인호는 풀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않는다. 이러한 호자인 인호가 서른다섯살이나 되도록 충각으로 지내고 있는 때에는 이유가 있다.

인호가 풀어머니의 권고로 선을 보러다니기 시작할것은 때학술 나온 이듬해 스물다섯살 부터이다. 손교락을 끝아 세어보면 아마 두손은 다 껴도 모자랄만큼 해아릴수없이 선을보았다. 그러나 어쩔일인지 그때마다 손담은 껴어지 공험히 순진한 인호가슴만 아주게 하였을뿐이었다. 이러한 일들로해서

인호는 다시는 손담에 귀를기우리지않고 평생을 충각으로 지내타라고 굳게 마음속에 다짐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열을이릴다하고 좋은은처가 낫으니 내버려와서 선을보라고 권지를보내온다. 한편 이미 염증이난 인호는 인호대로 건진 여류방학에도 고향에 내려가지않고 서울에있으면서 산으로 장으로 학생들과같이 싸다니면서 어름을났다. 이러한 인호가 어머니의 권지를 손에들고 저울방학에는 고향을 다녀올것을 작정한것은 그의 타협적 성격에서인지도 모른다. 하여튼 해를 거듭할수록 수척해지는 어머니의 모습은 견딜수없이 떠아르게 느끼는 인호였다. 인호의 정은 천안 에서 그리 멀지않은 읍면두리에있었다. 집에 다다르니 어머니는 흥취의사건을 내보이며 이번 한번만 제발 선을보라고 졸라댔다. 서울서내떠올때 이미 작오를 하고은지라 그는 정말 이번 한번만이라는 조건아닌 조건부로 선을 보기로 승락하였다.

선부감은 같은 읍내에있는 담배가게집 불제말이고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그담배가게에서 선부가 담배를 팔고있을것이니 인호는 담배를한갑 사면서 보라는손서였다. . . . 약속된시간에 담배가게앞에 이른 인호는 건에어려차때 선을본경험이 있건만 총각인탓인지 그때도 가슴이주근거리고 열물이 끓어지는것만은 어찌할수없었으며 그순간 지난날에 선을본 허구



달은 여정들의 모습이다. 정신을 가다듬은 인호는 벽판짜리를 드려밀고 담(搭)을 한장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가게앞에서도 수줍어서인지 잠시 머뭇머뭇하다가는 담배와 거스름을 내준다. 이때라고 생각한 인호는 일괄을 물어 상대를 쳐다보았다. 이럴수가 있으랴 여직조 장가를 안들기를 찢었다고 생각키울만큼 이상스럽게도 훌쩍 마음에 풀리는 것이었다. 어찌나 기쁘지 담배는 물론

英國人들은 自己가  
自由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自由인것은  
投票의 순간이요  
投票가 끝나면  
그들은 도로 奴隸가된다

- 두.스 -

두마리의 외비들이가  
귀요운 마음으로  
사랑 했더랍니다  
그남아지는  
말할수 없어요

- 장 작르 -

거스름도 그때로놓고 허공지붕 걸음으로 돌아온 인호는 어머니를 붓글고 결혼을 승락하였다. 어머니 어머니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수없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이란 이런일을 두고 한달이되라. 신부의 오빠가 험테벌며 거리며 휘젓아와 하는 말을 들으니 담배를 팔러나왔던 여자는 신부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못나가겠다니 어서 나가보라니 우선 가신 성경이들 하다가 인호가 오니까 더지체할수없이 신부의 율개인 자기아내가 나가서 담배를 내주었다는 것이다.

삼년공부 나무아비타불. . . . . 이제는 정만 두신으로 함으리라고 맹서한 인호는 이른날아침 새벽 만류하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서울행 열차를 타기위해 정거장으로 그의 거품을 채취하고 있었다. 마을에 글독들에게서는 아침밥을 짓는 허연 연기가 뭉게뭉게 기어올러와 지붕을 탄바퀴 간붙고는 새벽 바람에 일터 옆으로 옆으로 퍼져가고있었다. (끝)



# 明朗한 速記課

全 範 成

국회 제七十九차 본 회의가 끝났오 (午) 이때 속  
기과 사무실에서는 계불장을 다아 보고난 속기사들  
이 방충국에 가서 노래를 권입 해 왔다는 속음  
테이루를 듣고있었다.

지금 속음기에서 흘러 나오는 노래는 심 언육씨  
의 「도라지 만보」다.

(몸 바깥에 남도 불경 치마 자락 날리면서 도  
라지를 꺼터 가네 해이 만보. . .)

「도라지 만보」에는 이처럼 「해이 만보」하는  
대목이 여러 번 있다.

속음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친구들은 「도라지  
만보」를 불을 줄 알거나 모르거나 「해이 만보」  
하는 대목에 가서는 번번히 소리를 맞추어 「해이  
만보」라고 속음기를 따라 소리친다. 그때 높고도  
재미있는지 그들은 서로 일괄 들만 바라보곤 싱글

싱글 웃는다.  
마지막으로

(도라지 만보오) 하고 결계 때는 대목에 가서  
얇친이 C군의 무릎 쪽이 때고선

「마안 보오오」 하고 피상한 목소리를 뽑자  
그들은 일제히 좌적 웃어냈다

「했 하하. . .」  
바로 그때다 「도어」가 으젓기 열린다.

한참 너털대고 웃어 넘기던 소리가 딱 고친다.  
상전이 들어 오는 줄로 아는 모양 들이다. 조용하

다.  
그런데 나타나는 사람인속 하찮은속기사 Y군이있

다. 머리에는 눈이 더뻛하게 싸이고 외투에도 눈  
이 두터우더 싸였다.

「아아 영화에 나오는 「사으로 보와이에」 같구  
나. . .」

「하하. . . 자식 입마 껌짜 늘렸다.  
어잇. . . 또 들어.」

이살맞은 A군이 멧뜨러지게 웃어 재치곤 속은것이  
불하다는 표정이다.

「어디 갔다 오니?」  
Y군과 가장 가까운 D군이 묻는다.

「. . .」  
Y군은 구린 입도 알다시고 구석진 재자리로 잔

다. 주머니에 년 손은 땀도 하지 않고 창밖  
에 나리는 좁은 눈 발을 밀고 덩이 내다 보고만 있  
다. 발안이 후는 하니까 머리에 썩었던 눈이 녹느  
라요 한 방울도 한 방울 때 불 위에 떨어진다  
그래도 Y군은 눈탄된 갑작하지 않고 손 나간 사  
람처럼 창 밖만 내다 보고 있다.

「저 자식 지금 영화 배우가 될 거구 연습 하는  
중이야. 야아 근자 한몫요? 좀더 엄숙하게  
조금 더 심각한 표정으로!」

Y군과 직구게 못 가진 L군의 비이고요 또는  
나답에 실내는 또 한파당 웃음바다를 이루었다.

Y군도 석두득 웃으며 일어 났다.

「님 보러 가세 만안 보오!」

도라지 만보가 즐 났다.

「어이 한번 더 들어!」

「야! 판 것 해라. 하루 들어서 이제 실증이  
난다.」

넌더스면 E군의 말이다.

황소 고집을 가진 S군의 E군의 말에 질 터가  
없다.

한번 더 들자거나 판것을 들자거나 E군과 S군  
이 상쟁이를 하는데 한경장이 파장이 「빨부러!」문  
을켜 쥐고 나타났다.

결부 시간이라 파장을 보기가 피스러웠든지 속기

사들의 시선은 전부 당위에 떨어 졌다. 얼굴 얼  
붙어는 농철맛은 황소 웃음이 감들고! — 그럴라치  
면 파장도 생긱의 웃으며 종종 걸음으로 살아진다.

「야! 저게 물어라.」

「야! 그때 좀 적게 물어라.」

비고적 양심과인 G군과 L군의 기어들어 가는  
소리를 하니까 녹은기를 득점하다 싶이 풀안고 싶

던 O군이 버럭 소릴 지른다.

「어데? 펜창어! 할것 다 하구 노는데 어떤  
너서의 뭐래?」

아우개나 들어 놓고 조용히 앉아서 불끄드면 좋

을 것을 이번에는 크게 들라거나 적게 들라거나 하

고 썩그라 썩그라 한다.

그 판에 오만상이 일그러진 W군이 천고저를 들

고

「로치키스!」  
하고 정음 정음 걸어 온다.

「야아 해운의 문이 열렸구나 하하하...」

「비리익을 친구들의 말을 빨리 하거면랑 득득히  
나 해아지? 동 안들려 뭐 성영...」

오늘의 바가지는 W군이 왔다. 말하는 사람의

중이 여러 층이므로 기와층을 내 썩듯 말을 쏘

다 놓는 사람 또는 입속으로 일버우려 넘기는 사

람들의 발언을 속기란 속기사는 그날신수가 미세한

사람인 것이다. 일일이 녹음 대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속기사들은 그런 경우를 당한 사람에게 위안 아닌 위안을 해 준다는 소리가 「행운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었다.

W군은 녹음기를 일색-안은 O의 어깨를 재치면

「비켜나! 대조 좀 하게.」

「가만—요 아름다운 푸른 언덕이 끝나거덜 땅 하시죠?」

「하하하... 푸른 언덕이고 별거 빛은 언덕이고 말리 대조를 해야지.」

W군은 자전다는 듯이 웃고는 피억하니 섰다.

(... 어서 가자 푸른 언덕—)

「자! 왔읍니다.」

O군이 물러 나자 W군의 녹음 배-푸를 가라

깎다.

녹음기를 둘러 싸고있던 속기사들이 푸들물에

「대기」 빠져 나가듯이 어찌문자들 살아졌다.

「야... H야... 이것좀 잘이 붙어 줘.」

「요오씨... 내가 들어 주지.」

H군은 못들은 처 나가버리고 남의 일이라면 제

붙일 제쳐 놓고 덤비는 K군이 녹음기 앞으로 간

다.

「대시반 때구...」

「그런가? 아무도 없으니까...」

W군이 녹음기에 뜻힘 메시지를 썼다.

(본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로말씀

할려고 올라 왔읍니다. 물론 수사권을 가진사람

의 그 수조가 많은 것을...」

녹음기 소리를 따라 K군의 손가락은 고물락 거

리고 있다.

물아 가던 녹음기가 딱 밟는다.

「여기 좀 붙어봐... 요기 본 팀안의 소수장

하고 다음엔 뭐야?」

W군은 또 녹음기 단추를 눌른다.

녹음기 옆엔 K군의 키가 키스를 한다.

「다가 됐어요!」

저어 쪽 방에서 들려 오는 편집계의 수신장이

I군의 취침이다.

속기자들은 못들은 처 때푸도 안는다.

장밖에는 때가루 같은 눈이 소복소복 나리고 있

었다.

### 告

會員 各位

本協會會費納付에 關하여는 三月부터 納付告知書로

事前에 通知하지 않겠으나 當該月 二十五日까지 自

進 納付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總務部

# 韓國速記十年史(一)

鄭源道

「속기문화」編輯者로부터 速記十年史를 執筆하여 달라는 當부를 받고 筆者는 저속히 唐愼하였다. 來日 모래로 原稿를 마감해서 刊피던은 編輯에 着手하였다. 歷史가든 하두적에 제一回分을 쓰라는 命은 나의 歷史가든 하두적에 제一回分을 쓰라는 命은 筆者의 多少는 차지하고라도 워낙 文章에 재간이 없지는 筆者인 자라 이 붓을 들기까지에 갖다들 망서리고 주저하기를 마지않았다.

「속기문화」編輯者가 나에게 그로독 수필치않은 것을 付記한것은 다만 筆者가 차지하기는 주제를 弄지 모르나 韓國速記界에 좀 일찌 발을 들여 놓았고 또 速記와 더불어 오늘날까지 살아왔다는게 있는 것으로 믿고 지한다. 筆者는 僞先資料蒐集에 온갖 努力을 아낌없이 傾注하여 여러 先輩 同僚들의 助是 鞭撻을 받아가면서 敢히 이번 韓國速記十年史를 쓰려고 하는 것이다. 筆者는 肅한의 「오동나무」를 비이제 붓을 드니 出嫁하려는 処女의 心藏인양 자못 디어 장을 짜서 出嫁하려는 處女의 心藏인양 자못 디 근한바가 있다. 肅한에 심은 先祖들은 後日에 누가 씨

도 쓸것을 믿고바라는 마음에서 그 오동나무를 심었으리라. 그 가독한 정성을 행하여 忘却한세라 筆者의 가슴 우러나라 速記를 開拓하시 先輩들에게 向하는 丹正 感慨無量함을 禁할진없다.

歷史는 人間이 건어온 자취를 만하는 것임에 우리 韓國速記十年史라 하면은 곧 우리 韓國의 速記人들이 건어온 자취를 더듬는게 될 것이다. 이제 무엇보다도 筆者의 머릿속에는 우리나라 速記를 開拓함과 同時 先鋒에 나서서 일하다가 故人이 된 先輩들의 영특하고 날선 그 모습이 떠오른다. 그렇거나 애있던가! 그 일마나 고생했던가!

자 일군 당위에 열매 맺는 것을 보지 못한채 앞서 간 先輩들!

筆者의 애웃한 심자 가실줄몰라 다시금 애도의 뜻을 表하여 마지않는다. 先輩들의 뜻은 이어받아 아직도 開拓의 余地가 많은 우리 速記를 發展시켜야 하는 것은 再言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速記의 黎明期를 살펴 紹介하여서 여러 同僚들에게 옛날을 돌아보고 앞날에 躍進할수있

는 남편의 그림자 일이라도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序論을 개설 하려한다.

「追記」 여러先賢의 同僚에게 序論에 앞서 謝過  
를 드리는바는 모든資料가 不備한가운데 執筆하  
였고 또한 다 아는事實을 너무 長憤의 記載한  
것도 있을것이고 또 알고자 하는部分의 漏落된  
것도 많을것이며 筆者가使用하는 法式以外の 法  
式은 記載함에있어 可及的 模倣을 할타고 하였  
으나 亦是 誤線이 있을것이라고 보는点이다

### 序論

우리나라 速記史를 研究에 앞서 우리말 速記의 發案  
을보게된 그 「못도」라고도볼수있는 外國 速記의 發  
展史를 簡略히 紹介하고자 한다.

어느것이고 그始發點에있어서는 不完全하고 體系를  
일은것으로서 發生의 次序 거기에 經驗과 研究의  
時日에依하여 人類社會에 適應을 求수있는方向으로  
운동하는것일지 速記도 亦 처음에는 略記法으로부러  
始作되어서 符號文字化하여 오늘날의 速記로 發達한것이다.  
古代로부터의 發展過程은 다음과같다

### 一、略記法時代

西紀前五三年(二千余年前) 古「로마」人 「타  
이로」 Tiro (타이로)의 大雄辯家 (키케로) Cicero  
Cicero 의弟子)가 自己先生의 演說集을 著述  
함에있어서 自身略記法을 考案記錄하여 有史以來  
最初의 速記學的史實을 伝하고있다. 그러나 「타  
이로」의 略記法은 西紀七百年 西「로마」帝國  
滅亡時까지 使用하다가 그後十六世紀에 이르러  
자에는 歐洲에서도 速記에關한것은 全히 沒却되

있었는데 三百六十余年前(西紀一五八八年) 英國의  
「보라이드」라는考古學者가 이「로마」의史實  
乃至 略記法을 探知한바있어 이에서暗示를 얻어가자  
고 드디어「記號字」라는 著書를 發刊한데에서 다시  
速記의 研究가 始作되었다.

그後 十七世紀에 들어가

一六三九年에 「윌리스」 Willis의 記號略記法

一六七二年에 「머리슨」 Mason의 新速記法

一七三七年에 Thomas Gurney 氏等을始하여 여러  
法式이連하여 發表되었으나 그모두가 略記法의 城  
에서 버서나지 못한 即 現速記學으로의 轉變 誘導

時代에 屬하게된다.

### 二、符號筆記時代(速記時代)

이時代는 十九世紀以後 現今을包含한 後期時代로서  
이때까지의 文字의部分的利用考案에 不遜한 略記  
法時代에서 一躍 大転換하여 全히 새로운構成아래  
點과 線 位置等의 要素를 利用한 純全한 符號의  
筆記時代를 이룬다.  
西紀一八三七年에 英國人 「아이작 필덴」 Isaac Pitman  
은 「速記의速記法」 即 「超速記法」이라는 突로  
發音即席 完全記錄法을 講述한著書를 世間에發表했  
는데 이것이 即 符號筆記時代의 初出發이었으며  
速記의 速記다운 眞價를 遺憾없이 發揮한 才一步  
를 내디딘것이다.

爾後 「필덴」式 超速記法이 各界各層에 普及되었고  
또한 各國의 速記法案이 모두가 「필덴」式에서  
「필로」를 얻어 急速적으로 進展을보너 東洋에서는  
完全速記法의 出現이 日本에서 西紀一八八二年(明治

十五年) 田 田鐵經記 中國 光緒二十二年  
 “伝音快字” 라 田 田鐵經記 中國 光緒二十二年  
 八、一五 田鐵經記 中國 光緒二十二年  
 田鐵經記 中國 光緒二十二年

英-國

1588 Balch  
 不 1639 John Willis  
 1672 Shelten  
 W. Mason  
 Pyrcm  
 Toylar  
 Maver  
 Samuel Yaylor  
 Lewis (가)  
 Isaci Pitman (가)  
 Graham  
 Guass (가)  
 Dewey  
 不 1796 Moschgeul (最初 榮 榮 者)  
 1834 Gabelshosger  
 1847 Wilhelm Stolpe  
 1898 Kaeding  
 Paulmann (가)

伊

不 1809 Inee  
 1872 Tiposten  
 Amanati (가)  
 Donye (가)

美

不 1888 Lindsley  
 John R. Grege

佛

1657 Jockues Cossurd  
 1831 Dugardin  
 Cornen de Prepean  
 Hamile Puploye  
 Bulisso  
 Conton  
 Dupont  
 Dupuslogi (가)  
 Alme Paris (가)  
 Paevst delaunay (가)

蘇

不 1858 Kritoehe  
 Jvanine (가)

西

1803 Merti  
 1816 Ginssta

瑞

1929 Okana (가)

中

1887 蔡 甲 燻 水  
 1893 媽 炳 邦  
 1921 蔡 甲 燻 水

|      |             |           |
|------|-------------|-----------|
| 1922 | 榮 勳         | 速記筆法      |
| 1923 | 孫 北         | 速記筆法      |
| 1924 | 江 洽         | 速記筆法      |
| 1926 | 徐 氏         | 速記筆法      |
| 1927 | 趙 十 叔       | 速記筆法      |
| 1882 | 田 鐵 額 記 (韓) | (우려(吳)의)  |
| 1887 | 毛 平 高 植 (韓) | (毛 平 高 植) |
| 1912 | 卞 楨 五 鏡 (韓) | (卞 楨 五 鏡) |
| 1926 | 川 口 秀 (韓)   | (川 口 秀)   |

(日本은 速記의 研究는 創案者들)

위의 一覽表中은 (折) (幾) 라함은 速記筆法은 世가지로 分類한것을 表示한것으로 첫째 幾何線派 草書派 셋째 折衡派이다. 이세가지 性能을 나 區分하면

一, 幾何線派- 이것은 幾何學의 原理를 引用한것으로 正円形을 各分해서 延短의 方法 或은 濶薄의 方法 으로 文字의 變形을 하는것이요 (英의 Pitman 式 같이요)

二, 草書派- 이것은 尙古體筆體와 同一한 方法으로 上向과 下向하는 斜線의 法式

(英의 Gregg 氏 氏의)

三, 折衡派- 이것은 幾何線派와 草書派의 長點을 線 合檢討하여 採用한것

等으로서 이세가지 流派에 該當되는 速記法은 우리 韓 國에서 能히 찾아볼수있고 또한 外國의 各速記法을

檢討해보면은 이에 依하여 모든 速記文字가 構成되고 있는것을 알수있게된다

韓國速記法의 發生과 發達過程은 그다지 말르지도 못하였고 또한 發案치도 못하였음은 自他가 肯定하 可바이다.

모든 發展史가 어떤 「創案」에 對한 繼承 「普及」에 있어야 한 水準에 到達하는것인마 우리나라 의 速記는 發案後에 있어 環境의 不自由로 말미암아 長時 挫折되었던것이다.

國內速記史實- 우리速記史는 近代우리政治的事實에 依拠해서 解釋된다고 볼수있으나 侵略과 解放 이가 運미서 우리速記는 發生하고 實用化되었는데 이것을 그 發達史의 考案해보면 두가지 事實을 發見할수 있다. 即 速記法의 發達이라고하면 發生 普及 繼承 이세가지 要素를 말하는데 우리速記法中에는 이 要素에 合理的인것과 그렇지 못한 두가지것으로 分類할수 있는 데 그前者는 日帝時에 發案된速記法을 말할수있고 後者는 解放以後 實用되고있는것을 말할수있다. 不合理的인것에 未完成이라고만 말할수있음은 아시다싶이 法自體의 自由로운 環境에서 자라나지 못하였기때문이고 平坦히 자라나다고하면 能히 實用되고 繼承되었을지 도 모르는것이요

그 前者를 大別하여 日帝三十六年間의 史實을 先 覺期 發表期 萎縮期의 三期間으로 나눌수있다.



一九〇九年에 「朴如日」氏가 慶北出生으로  
 一九〇四年에 韓國을 떠나 「하학이」로 건너가고  
 一九〇九年에 朝鮮速記法을 創案하여 當地에서 發刊  
 되는 韓國新聞「신한일보」에 發表 또한 已未  
 獨立運動이 있을뉘 一九二三年에 亡命地上海에서 金  
 ○○이 出刊한 文法書 才二附錄에 실린 「남적」란적  
 기「(남적即 朴如日 著는다는 뜻에서取한것) 등이  
 리말 速記法創案의 先鞭을 佔하여 되니 이時期를 先  
 覺期라고 보고  
 이어서 一九二五年에 方翼煥 李源祥兩氏의 發案  
 九二七年에 金한머氏의 發案 同年에 嚴正友氏의 發案  
 이있었고 一九三五年에 姜駿遠氏의 一案이 東亞日報에  
 發表된것이있었다 이때를 發表期라고 볼수있다  
 그뒤에 이어서는 우리말 新聞紙의 停刊絶分中日戰  
 争 才二次大戰을 經하는동안 그發案活動조차 中斷되  
 었던것이다  
 이와같이 여러式이 있었으나 各自各處에 孤立한제  
 로 되어져서 共同研究의 機關과 檢會가 없어 決合的  
 인 方案들과 發案의 立地가 없었던것이다  
 다음에 解放前까지의 움직임을 文獻上에 發達된것  
 을 綜合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一九〇九年朴如日氏가 美洋하학이에서 朝鮮速記法  
 을 發案「지카프」에서 法의 講義와 美國에서 發刊  
 되는 朝鮮新聞「신한일보」에 發表하였다 뒤이어  
 一九二〇年에 印度 南쪽에「마인」이라는곳에 移住  
 하여 書冊出版에 着手하였다가 一身上事情으로 中  
 途에서 中止하였다  
 그의 速記法은 幾何線派이며 單複한一點에서 始源  
 하여 文字를 構成한다 即 一點이成長하여 單平直

線을이로고 (一) 이점이 曲하여 弓線을 이로고  
 (二) 이것의 長短과 肥版으로 變하여  
 文字의 變化를이룬다 (基本文字 例一)  
 ○一九二三年 金○○ 亡命地上海에서 出刊한  
 文法書(김도근선판본) 才二附錄이 「남적」의 이틀  
 으로 英의 一五九七年의 「부라이드」式처럼 水平  
 名八線子音에다가 垂直名稱線母音을 適用한文字組織  
 의 速記法  
 ○一九二五年七月一日과 二日附의 時代日報紙上에  
 方翼煥 李源祥兩氏가 「朝鮮語速記術」이라하여 曰  
 田綱式같이한 子音線에 各方向있는 大小楕圓으로된  
 母音을 加하는式이다  
 ○一九二七年一月號 月刊紙「新朝鮮」에 金한머氏가  
 「우리말速記法」의 이틀으로 한子音線에다가 右方  
 向小線或은 小楕圓을 加하는것인데 이의特色은 書  
 線의 下向性을 띠기爲하여 子音線中下向 人字에는  
 小字은이고 大字가 없는것이 注目된다  
 ○一九二七年七月、八月 兩號月刊誌「東光」에 嚴正友  
 氏가 「朝鮮速記術」이라하여 單單子音線形에 가까  
 운 各方向曲線을 子音으로하고 各方向大小直線을  
 母音으로하여 初聲複用으로 終聲을 쓰는式이니 가  
 명「지」一字를 쓰면 充分히 三筆으로 써야되는  
 式이다  
 ○一九三四年二月刊 東萊高普校友會誌에 學生 金勇  
 虎氏가 「朝鮮語速記法」을 掲載하였는데 이는 橫  
 書가 아니라 縱書式으로서 우리速記史上에 奇異한  
 것의 하나이다  
 ○一九三五年六月十八일부터 七月二十八日間 二十九  
 回에分하여 姜駿遠氏가 東亞日報에 「朝鮮語速記術

詳解「로」連載  
 (詳細한것은 後編에 記載키로함)  
 以上 여씨문자의 心血을 傾注하여 「無에서 有」  
 의 原形을 살피보면 速記法式을 創造한 것인데 그 基本文字

① 補如日 ㄱ ㅋ ㆁ ㄷ ㄸ ㄴ ㄹ ㄷ ㄹ ㄷ ㄹ ㄷ ㄹ

② 金 00 子音 ㄱ ㅋ ㆁ ㄷ ㄸ ㄴ ㄹ ㄷ ㄹ ㄷ ㄹ ㄷ ㄹ

母音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例 ㅏ ㅑ ㅓ ㅕ ㅗ ㅛ  
 가 너 도 루 문 참

③ 方 香 子音 ㄱ ㅋ ㆁ ㄷ ㄸ ㄴ ㄹ ㄷ ㄹ ㄷ ㄹ ㄷ ㄹ

④ 金 汗 子音 ㄱ ㅋ ㆁ ㄷ ㄸ ㄴ ㄹ ㄷ ㄹ ㄷ ㄹ ㄷ ㄹ

例 ㅏ ㅑ ㅓ ㅕ ㅗ ㅛ  
 난 들 불 주

⑤ 最 正 友 子音 ㄱ ㅋ ㆁ ㄷ ㄸ ㄴ ㄹ ㄷ ㄹ ㄷ ㄹ ㄷ ㄹ

以上과 같은 線으로 되어 있다.  
다음에는 各式의 法精造를 对照表로서 만들어 보기  
코 한다.

- 表의 作成要領은
- 1 文法이 韓國語法과 字法에 依하는 創案이나 他 田某法의 模倣인가의 別
  - 2 文字精成法이 있어서 子音의 平音과 喉激音表示方 法 母音表示法 받침을 쓰는 方法이 있어서 文字二 개로 쓰는 別定法이 있다.
  - 3 文字를 精成하는 條件에 들어가서 文字의 기리의 別가져 文字의 方向이 別가져 인가
  - 4 받침은 初聲子音形은 復用하는가 別立하는가
  - 5 助詞는 文字를 二개로 쓰나 다른 方法을 쓰나
  - 6 發音表現은 省略되지 않고는 語形만을 들어 쓰는 文法이 있는가
  - 7 發音表現과 語形을 別같이 들어 쓰는 略文法이 있는가
- 等을 一覽하기 코 한다

|     | 創<br>倣 | 文    |          |     |    |    | 字  |          |    | 助詞<br>大助詞 小助詞 | 法<br>有無 | 略文字<br>有無 |
|-----|--------|------|----------|-----|----|----|----|----------|----|---------------|---------|-----------|
|     |        | 子音   | 硬激音      | 母音  | 기리 | 方向 | 받침 | 復用       | 別用 |               |         |           |
| 朴如日 | 創      |      |          |     | 2  | 2  |    |          |    |               | 有       | 有         |
| 金○○ | 創      | 橫行線  |          | 下向線 | 2  | 4  | 復用 | 文符<br>別用 |    |               | 無       | 無         |
| 方李  | 倣      | 各種線  | 加矣       | 方向線 | 1  | 4  | 別用 | 復用       |    |               |         |           |
| 金昌司 | 創      | 〃    | 別線       | 〃   | 2  | 5  | 復用 | 〃        |    |               | 〃       | 〃         |
| 嚴正友 | 創      | 方向曲線 | 加矣<br>別用 | 方向線 | 2  | 5  | 〃  | 〃        |    |               | 〃       | 有         |

다음에 外國書籍에서는 우리 速記의 發案史의 全貌가 記載된 것을 紹介하면 日本版으로서 西紀一九三四年版 「日本速記五十年史」에 다음과 같이 記되어 있다.

朝鮮에 있어서는 古來로 官庁事務에 쓰기爲한 幼穉한 速記法이라고 稱할 一種의 早書法을 案出하여 地로 發本된 것은 있지만 完全한 組織과 科學的方式에 依하여 編成된 것은 없었다.

그런데 (大正八年)頃 京城日報社司事 方台榮이 貴族及 實業方面有力者로부터 發起한 바 있어 朝鮮 方翼德으로 하여금 日本速記術을 習得케 한 다음에 朝鮮 速記法을 制定하기로 하고 京城鎭路基督敎青年會館敎授 李源祥과도 協議提携하여 大正九年 初頭부터 研究을 開始하였다.

朝鮮語速記術은 朝鮮語發音의 規則을 準據로 한 朝鮮語 文을 基礎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故로 純히 他語에 依하는 速記術의 形態를 直訳의 方式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二重點을 充分히 捕捉한 後에 朝鮮語를 本位로 한 母音과 十四個의 子音으로 되어 一文字는 二級以上의 級以內로 限하여 또 母音記號가 最初부터 一定한 發音이 있을 뿐이므로 配合에 依하여 色々으로 變化하는 原理의 上으로 있으며 또 英語와 言語의 系統이 全然 不同으로 美英의 發音은 二級으로 範圍을 越하지 않는다. 世界中 朝鮮語에 才一가 才운 것은 日本語外에 없으며 더욱이 漢文을 混用하는 點도 全히 同一함으로 速記記號에 있어서는 日本語와 朝鮮語의 相違點을 生지 記術이 아니라 日本語와 朝鮮語의 相違點을 生지

하고 朝鮮語本質上에 適合하도록 朝鮮語에 特有한 方式을 採行시켜 朝鮮語速記法을 發明創始하였다는 報 道에 採한 것이 大正九年六月이었다.

이러하여 朝鮮語速記法은 創始되었지만 아직 實用 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當時朝鮮語速記의 模樣은 韓人의 講演者가 있었으며 이에 對하여 五、六人의 速 記者라고 自稱하는 筆記者가 各 卓子 앞에 坐스며 互로 相互間 何等의 連絡도 없이 各自 各에 對하여 二、三語밖에는 筆記한 바 勿論 演者의 十語에 對하여 昭和元年에 이르러 林容德이라는 사람이 日本語 朝鮮語共用的 朝鮮語速記術研究에 努力하여 今日에는 全히 活用하게 되었다. 氏의 功에 依하면 朝鮮語는 日本語에 比하여 容易하고 또 地方語가 極히 少하며 文字에 比하여 輕便한 點도 速記基本文字도 日本의 基本 略字(縮熟語)는 千四百字가 달랐다.

發案時代篇을 마치고 實用篇으로 옮길에 한가지 附言으로 하는 바는 發案時代의 不完全의 速記法의 發 表는 二時代의 要求가 있었으며 또한 그 發展이 社會現 象에 依하여 萎縮되었던 것이다. 現今에 있어서는 非科學的 인 無秩序한 法式의 發表로서 尙學塾에 넘치는 學徒 羅하여 長久한 時日과 努力의 浪費와 人材의 損失을 가져오는 似而非의 法式創案者의 良心的 猛省을 바라 는 바이다. 速記術이란 一種記號學的符號의 無秩序한 羅列로서

는 絶對로 이루어지는 技術은 아니다 設或 이 法則  
 法에서 長點을 따가지고 個人的으로 自己의 識見과  
 究心을 기울여 克服했다든지더라도 그것은 全히 個人  
 的인 問題이지 一般的인 普及上 技術으로서 말 때에는  
 아무 價値를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真正한 意味에 있어서  
 의 速記術이란 個人的 技術을 떠나서 大衆的 教育이  
 絶對可能한 모은點 即 換言하면 速記術이란 新文化  
 인단지 더우기 速記文字 構成上의 原理가 嚴然히 樹  
 立되어 있어서 現時 우리 諸學가 一致符合되어가지고  
 言語記錄上 最大能率을 短時日에 無難히 克服할수있  
 도록 良心的인 法式 價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科學的 記錄體系上 어긋남이 있다든지 우리  
 記錄上 無理가 있다든지 記錄速度가 速記學術上 最  
 高位에 到達치 못하다든지 때 때 있어서 容易함이 不  
 足하다든지 할때에 이는 速記가 아니라 速筆에 不過  
 한 것이다

會務日誌

- △ 十一月四二八八年十一月十三日(日)  
 大韓速記學術協會發起人大會 및 創立總會開會
- △ 十一月十五日(火)  
 協會創立以後第一次理事會召集  
 理事長 및 各部部长選舉
- △ 十一月十七日(木)  
 葛弘基氏 顧問으로 推 戴
- △ 十一月十八日(金)  
 徐商俊氏 顧問으로 推 戴
- △ 十一月十九日(土)  
 才二次 理事會召集  
 各部專業計劃報告
- △ 十一月二十二日(火)  
 協會機關紙發刊 및 速記發技大會開催 內定  
 崔秉宇氏 顧問으로 推 戴
- △ 十一月二十五日(金)  
 金法禧氏 顧問으로 推 戴
- △ 十一月二十六日(土)  
 金成坤氏 顧問으로 推 戴
- △ 十一月三十日(水)

朴哲在氏 顧問 推 戴

△ 十二月三日 (土)

郭福山氏 顧問 推 戴

△ 十二月七日 (水)

才三次 理事会召集

協定会規通過

△ 十二月十二日 (月)

嵯璋參氏 名誉會長 推 戴

△ 十二月十三日 (火)

創立 聲明書發表 (朝鮮日報)

△ 十二月二十二日 (木)

會長 放送 予日 速記

△ 十二月二十二日 (木)

才四次理事会 召集

審査委員 五名 決定

△ 十二月二十八日 (木)

速記競技大会後援要請

△ 一月三十一日 (火)

機關紙速記文化編輯 叶香

△ 二月一日

速記競技大会 後援承諾 (民議院事務處)

(總務部)

# 大韓速記學術協會憲章

才一條 本協會의 名稱은 大韓速記學術協會라 稱한다  
 才二條 本會는 我國에 現存한 諸速記法式을 總網羅한 集結體이다  
 才三條 本會의 本部는 首都에 두고 必要한 地域에 各支部를 둔다  
 才四條 本會의 目的은 我國의 真正한 速記文化를 正常的으로 向上 發展시킴에 있다

才五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三種으로 構成한다  
 1 正會員  
 2 準會員  
 3 名譽會員

才六條 本會 會規에 依한 資格審査에 合格한 速記 能力者가 아니면 本會의 正會員이 될수없다  
 本會 總會決議에 依하여 認定된 速記法式을 習得한者나 習得中에 있는 者는 理事會의 議決로서 準會員이 될수있다  
 本會의 目的과 事業을 理解하고 物心兩面으로 後援하는 人士는 理事會의 議決로서 名譽會員으로 推戴할수있다

才七條 正會員이 아니면 本會의 會員으로서의 權利 行使를 할수없다  
 才八條 正會員은 議決權 選舉權 被選舉權 其他 本會 會員으로서 가질수있는 모든 權利를 平等하게 行使한다  
 才九條 會員은 憲章 또는 總會의 議決事項의 遵守 外 會費를 納付할 義務를 진다

才十條 本會에 다음의 機關을 둔다  
 1 總會  
 2 理事會

才十一條 總會는 正會員만으로 構成한다  
 總會는 每年四月中에 會長이 召集한다  
 但 正會員 四分之一以上의 要求가 있을때 또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必要할時는 臨時總會를 召集할수있다  
 前項의 召集要求가 있을때는 會長은 그要求한 날로부터 一個月以內에 臨時總會를 召集하여야한다

才十二條 總會는 本會의 最高機關으로서 그職能은 다음과 같다

才十四條

- 1 名譽會長의 推 戴
  - 2 會長과 副會長의 選舉
  - 3 理事會의 定足數 決定과 二選舉
  - 4 監査의 選舉
  - 5 理事會所屬 各部署의 會務에 關한 報告 處理
  - 6 理事會의 對한 極限委任에 關한 決定
  - 7 豫算 및 決算의 承認
  - 8 總章의 改正
- 理事會는 總會에서 選定한 理事로서 構成 한다

才十五條

- 1 理事長 및 所屬 各部長의 選舉
  - 2 顧問의 推戴
  - 3 一切會務의 執行 決議
  - 4 總會로 부터의 受任 事項의 處理
  - 5 各部에서 提出하는 會務報告의 處理과 總會에 對한 報告案 其他 議案의 決定
  - 6 總章 改正案의 決定
  - 7 會則의 制定 및 改正
  - 8 總會의 事後 承認을 受어야 한다
- 但 總會閉會期間에 있어서의 總代理 代行한 事項은 其後 召集된 總會의 承認을 受어야 한다
- 理事會는 本會의 執行機關으로서 그 職能은 다음과 같다

才十六條

- 9 會員加入 承認의 決定
- 理事會에 다음의 部署를 둔다

才十七條

- 1 印章 文書 什器 其他 財產 管理에 關한 事項
- 2 庶務 財務 連絡 組織에 關한 事項
- 3 他部에 所屬되지 않은 事項
- 4 總務 印刷 文書 什器 其他 財產 管理에 關한 事項
- 5 前條 各部의 事務分担은 다음과 같다

才十八條

- 一 總務 部
  - 二 庶務 部
  - 三 文 化 部
  - 四 宣 傳 部
  - 五 研 究 部
  - 六 會 務 調 査 部
  - 七 會 務 調 査 部
  - 八 會 務 調 査 部
  - 九 會 務 調 査 部
  - 十 會 務 調 査 部
  - 十一 會 務 調 査 部
  - 十二 會 務 調 査 部
  - 十三 會 務 調 査 部
  - 十四 會 務 調 査 部
  - 十五 會 務 調 査 部
  - 十六 會 務 調 査 部
  - 十七 會 務 調 査 部
  - 十八 會 務 調 査 部
  - 十九 會 務 調 査 部
  - 二十 會 務 調 査 部
  - 二十一 會 務 調 査 部
  - 二十二 會 務 調 査 部
  - 二十三 會 務 調 査 部
  - 二十四 會 務 調 査 部
  - 二十五 會 務 調 査 部
  - 二十六 會 務 調 査 部
  - 二十七 會 務 調 査 部
  - 二十八 會 務 調 査 部
  - 二十九 會 務 調 査 部
  - 三十 會 務 調 査 部
  - 三十一 會 務 調 査 部
  - 三十二 會 務 調 査 部
  - 三十三 會 務 調 査 部
  - 三十四 會 務 調 査 部
  - 三十五 會 務 調 査 部
  - 三十六 會 務 調 査 部
  - 三十七 會 務 調 査 部
  - 三十八 會 務 調 査 部
  - 三十九 會 務 調 査 部
  - 四十 會 務 調 査 部
  - 四十一 會 務 調 査 部
  - 四十二 會 務 調 査 部
  - 四十三 會 務 調 査 部
  - 四十四 會 務 調 査 部
  - 四十五 會 務 調 査 部
  - 四十六 會 務 調 査 部
  - 四十七 會 務 調 査 部
  - 四十八 會 務 調 査 部
  - 四十九 會 務 調 査 部
  - 五十 會 務 調 査 部
- 各部의 事務分担에 關하여 相互 負擔가 生할 境遇에는 理事會가 決定한다
- 本會의 모든 會議은 在籍會員의 過半數出席으로 成立되며 出席員數의 過半數로서



才二〇條

譜決한다  
但 可否 同教인 境遇에는 司會者가 決定한다  
地方會員은 總會出席을 他會員에게 委任할 수 있다  
但 前項의 委任은 成員을 爲한 手統以外의 效力은 發揮되지 않는다  
才 四 章 任 員

才二一條

本會의 任員은 다음과 같다  
1 名譽會長 一人  
2 顧問 若干名  
3 會長 一人  
4 副會長 一人  
5 理事長 一人  
6 理事 十五人  
7 各部의 部長 一人  
8 監 查 三人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本會를 統轄한다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有故時에는 그職務를 代行한다  
理事長과 各部의 部長은 理事中에서 選定하며 該當部의 所管事務를 担当한다  
監查는 總會에 提出할 決算報告를 監査하며 總會에 提出케 한다  
各種任員의 任期는 一年으로 한다  
但 連任할 수 있다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才二二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本會를 統轄한다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有故時에는 그職務를 代行한다  
理事長과 各部의 部長은 理事中에서 選定하며 該當部의 所管事務를 担当한다  
監查는 總會에 提出할 決算報告를 監査하며 總會에 提出케 한다  
各種任員의 任期는 一年으로 한다  
但 連任할 수 있다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才二四條

本會의 經費는 會員의 入會金 會費 및 其他 收入金으로써 充當한다  
入會金과 會費에 關한 事項은 會規로서 定한다

才二五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四月一日부터 翌年二月末日까지로 한다

才二六條

本會의 目的과 事業을 爲하여 特別한 功勞가 있다고 認定되는 會員은 總會의 議決로서 그功勞에 相應하는 表彰을 할 수 있다  
會章 또는 會規에 違反하여 會員으로써의 義務를 履行치 않거나 本會의 體面을 損傷하는 所行을 한 會員은 理事會의 議決로서 다음에 列記한 懲戒에 處한다

才二七條

本會의 目的과 事業을 爲하여 特別한 功勞가 있다고 認定되는 會員은 總會의 議決로서 그功勞에 相應하는 表彰을 할 수 있다  
會章 또는 會規에 違反하여 會員으로써의 義務를 履行치 않거나 本會의 體面을 損傷하는 所行을 한 會員은 理事會의 議決로서 다음에 列記한 懲戒에 處한다

才二八條

1 謝 費  
2 停 權  
3 除 名  
但 除名處分은 總會의 事後承認을 經야 한다  
附 則  
이 章은 發起人大會에서 議決함으로써 效力이 發生한다  
本會 發起人大會에서 報告接受된 者는 本會 最初의 會員이 된다

才二九條

이 章은 發起人大會에서 議決함으로써 效力이 發生한다  
本會 發起人大會에서 報告接受된 者는 本會 最初의 會員이 된다

才三十條

이 章은 發起人大會에서 議決함으로써 效力이 發生한다  
本會 發起人大會에서 報告接受된 者는 本會 最初의 會員이 된다

# 大韓速記學術協會會規

## 第一號

### 事務執行規程

#### 前文

本規程은 憲章才三章 精神에 依廻하여 事務執行의 嚴格한系統과 円滑을 目的으로 한다

才一條 總회의 決議로서 文書에 依한 事務執行은 總務部長의 處理하되 會長의 決議를 依하여 한다

才二條 理事會決議로서 文書에 依한 事務執行은 各長이 處理하되 理事長의 決議를 依하여 한다

但 理事長은 處理한事項을 會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 附則

才三條 豫算의 執行은 各部長의 申請으로 總務部長이 理事長의 決議를 依하여 行한다

才四條 豫算上에 計上되지 않은 本會收入金은 各部長이 總務部長에게 納入하고 總務部長은 이를 理事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才五條 一、二、三、四條件의 規程은 各已代理者가 代行할 수 있다

才六條 監査는 會長의 命을 받거나 必要한時에는 會長의 同意를 얻었을 때 事務監査를 行할 수 있다

다 各部長은 如何한理由로도 監査에 應하지 아니

치 못한다

才七條 本務行爲에 異見이 있을時에는 理事會決議에 依한것을 原則으로 하되 理事會決議를 거

다될時間의 餘裕가 없을時에는 理事長이 處理하고 다음에 召集되는 理事會의 承認을 얻는다

附則

#### 附則

才八條 本規程은 理事會를 通過함으로써 그效力을 發生한다

才二號 入會金과 會費에 關한規程

才一條 이規程은 憲章才二十四條의 依하여 會員의 入會金과 會費에 關한 事項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才二條 入會金과 會費의 負擔은 會員으로서의 權利에 相應하는 神聖한 義務이며 會員의 團結의

表現이다

才三条 入会金は 正會員 五百圓以上 準會員三百圓以上으로 한다

才四条 会費는 每月 正會員 二百圓 準會員百圓으로 한다

才五条 入会金は 入会와 同時に 納付하고 会費는 每月末日까지 納付하여야 한다

才六条 会費를 三個月以上 未納한 會員에 대하여는 會員으로서의 權利行使를 停止시킬수 있다

才七条 本會事業部를 通한 委託速記에 있어서는 速記料全額의 五%를 納付하여야 한다

附 則

才八条 本會規程는 理事會에서 議決함으로써 그效力을 發生한다

才三號 會員資格審査規程

才一条 이規程은 敍章 才六條에 依하여 會員資格審査에關한 事項을 定함은 目的으로 한다

才二條 會員의 資格審査를 爲하여 別途로 資格審査委員會를 둔다

才三條 資格審査委員會는 審査部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五名의 委員으로서 構成한다

才四條 資格審査委員會에서 모든 決定은 無記名 投票으로 行한다

票으로 行한다

才五条 審査委員會에서 決定된 事項은 理事會에 報告하여 이를 承認받아야 한다

才六條 三個月以上 本會의 準會員으로 在籍한 자가 아닌 審査를 받을수 없다

才七條 資格審査는 審査를 받은者의 速記能力思想, 學歷 經歷 年令 性別 家庭關係等에 關하여 調査한 資料에 依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才八條 速記能力基準은 다음과 같다  
一、論文式 二、七〇〇字(十分間) 以上  
二、演說式 三、〇〇〇字(十分間) 以上

附 則

才九條 速記能力에 있어서 五%以上の 「미스」는 容認한다

才十條 資格審査에 合格된者는 會員審査合格者 名簿에 記載하여 即時 庶務部에 通告하여야 한다

才十一條 本會規程는 理事會에서 議決함으로써 그效力을 發生한다

大韓速記學術協會

任員名單

顧問

- 金法麟 (民議院文教委員長)
- 崔廷宇 ( " 事務總長)
- 徐商俊 ( " 議事局長)
- 葛弘基 (公報室長)
- 金成坤 (東洋通信社長)
- 郭福山 (斗室新聞學院長)
- 朴哲在 (文敎部技術敎育局長)

(無暇)

理事

監事

- 宋貞浩 (總務部長)
- 柳虎龍 (文化部長)
- 金星漢 (研究部長)
- 李柱範 (審查部長)
- 韓奉永 (專業部長)
- 揚佑鎮
- 尹壽鉉
- 金春盛
- 韓奎勳
- 吳潤玉
- 具然東
- 金炳南

- (總務部長)
- (文化部長)
- (研究部長)
- (審查部長)
- (專業部長)
- 全範成
- 尹炳島
- 李東淳

(無暇)

審查委員會任員名單

- 金鎮基
- 鄭源道

- 揚佑鎮
- 韓奎勳
- (不詳)

名譽會長

趙瓊奎

(民議院副議長)

會長

張基崇

副會長

金天煥

理事長

張慕根

内

朴徐尹金金林金宋揚尹盧李韓張鄭金張姓  
貴萬壽允哲壽宗貞佑戴元圭奎惠源領基  
順福鉉結淳洪弘浩領秀鎬洪融根道基泰名

逸派  
派式  
式式

國公職  
報會  
會室場

大韓正速會記員學術協會

劉心金張許金李姜李柳吳林金全鄭金姓  
瑒寬春復承海炫暹浩潤倬百範彙仁  
誥淳盛根寬明祥泰鎬龍玉相坤成淑寧名

逸派  
派式  
式式

國公職  
報會  
會室場  
陸軍本部  
公報室  
每日新聞  
朝鮮日報  
東洋通信  
韓國銀行  
自由黨政治  
訓練院  
公報室





編輯後記

(其의 一)  
 꾸며 놓고 보니 創刊호도시는 너무도  
 무게가 없는것같은 느낌이잔다. 그러  
 나 「로-마」는 하로에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옛사람의 말로써 辨明에  
 代身하고 自慰한다.

本協會 名譽會長인 趙瑗奎先生의 揮  
 毫와 本協會 顧問인 葛弘基博士의 玉稿는 本誌를  
 刊行케 하시게 해주었고 速記界에 多年間 獻身해온  
 鄭源道氏의 「韓國速記十年史」(速載)를 비롯하여 去  
 般 「제네바」會聯韓國代表團 隨行員으로 다녀온바  
 있는 柳虎龍氏의 「제네바 紀行」(速載) 民議院  
 速記課長 金震熙氏의 「速記士 処遇改善會 中心하여」  
 하는 論壇 「速記錄編輯者의 辨」 「速記士의 階級」  
 이밖에 隨想 詩等 多彩로운 內容으로 編輯하  
 였다. 多幸히 讀者의 良論에 보답이 되었었다.

立春大吉 추위에 음수있던 가슴을 활짝 펴고 深呼吸  
 을 더푸터하니 清淨 내세상을 만난것 같다. 해마  
 다 맞이하는 봄이건만 올봄은 本誌가 겨우마칠 시  
 작하는 봄이다.  
 江南 갔던 제비가 하로바닥에 여러분에게 기꺼운  
 봄소식을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 (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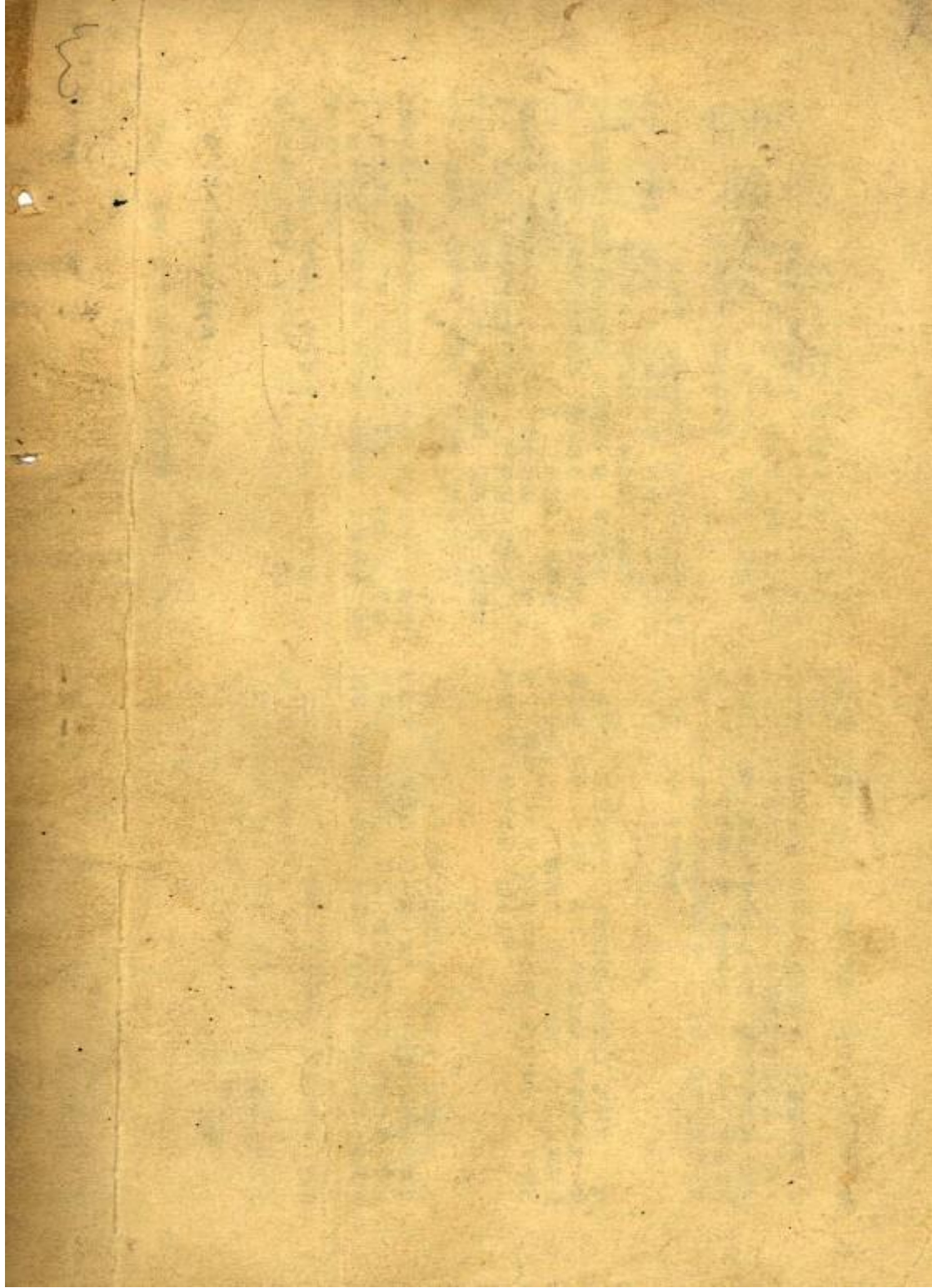
출판한 冊을 내게 되거나 贈送받은 冊을 내게 (其의 二)

읽거나 編輯을 마치고 編輯后語를 쓸라던 卷거운 것  
 이다.  
 이제 「速記文化」 創刊호를 發刊함에 이 編輯者의 心  
 情마치 맞머느리할 卷라는 시어머니와도 같다. 들  
 으머느리할 이웃사람들이보고서 贊말어왔다고 할론  
 지. . . . . 어머를 말 卷을론지. . . . . 머느리르  
 밋어 말이기를 작정했음에는 「그만 하던」하는 시  
 어머니 마음 이었는대

事實上 原稿募集에 저지않은 階路가 있었다. 原  
 稿料을 갖다 올리고 附託 드렸던들 쉬웠을는지 原  
 稿를 冊을 . . . . . 貧弱한 協會財政에 돈이 있었시아  
 없게 해 드리기로 約束한다.

또 한가지 本誌를 發刊함에 있어서 自進하여 各  
 校當局과 本協會 顧問 金成坤氏에게 編輯者는 勿論  
 會員 諸位와 함께 感謝한 마음 한때 품어 마치던  
 다.  
 이와같이 本誌는 많은 人士들의 後援으로서 發刊  
 을 보게 된것이다.  
 제머느리할 卷는 시어머니의 心情이 되어 臂하고  
 맞하기전에 기대하자. (全)





# 速記文化



第一卷 第一號

朝鮮速記文化協會發行

— 速 記 文 化 —

目 次

卷頭言 ..... (1)

創刊에 際하여 ..... 主 幹 ..... (2)

速記의 社會的 價值 ..... 일 파 ..... (3)

朝鮮速記文化協會沿革 ..... (5)

「優等」과 「우등」 ..... 韓奎敷 ..... (10)

陸軍速記學校記 ..... 李圭洪 ..... (7)

소-루 게이조 ..... 劉載殷 ..... (8)

點想하라 ..... 三 圖 ..... (9)

「目的」을 中心으로 ..... (11)

仲秋有感 ..... 白瑞生 ..... (12)

내-보 速記學 ..... 吳潤玉 ..... (12)

企 山 ..... (16)

朝鮮速記文化協會之 則 ..... (17)

編 者 後 記

解放後 於馬 五年 ！

우리 協會가 發足한지도 벌써 四年이 된다

回顧하니 그것은 文字 그대로의 荊棘의 길이었으며 受難의 行路였다

深刻한 混亂속에서 우리 速記界만이 홀로 受難할수는 勿論없었다

더욱이 우리 速記는 草創期의 南拓이었던 만큼 우리들은 先驅者로서의 가진 苦楚와 南拓者로서의 온갖 艱難을 사상이 맛 보았다

우리들의 擴大한 抱負도 불타 오르는 熱意도 踴躍한 血氣도 赤手空拳의 그것이 었기 때문에 커다란 潮流앞에서는 恰似 한낱 버들가지에 대어달리려고 벌바

동길치는 개고리와도 같았다

挫折의 危機에 臨한지도 한두번은 아니었다 이와같이 우리들이 諸般 惡條

井과 싸우며 이기고 지켜온 길은 그리고 오늘날의 조그마하나마의 成果는 過去의 悲劇가 컸던만큼 더욱 貴重한 것이며 또 이것은 반드시 우리 速記文

化史上的의 巨大한 足跡이 될 것이며 그의 發展의 튼튼한 基礎가 될 것이다

마침내 버들가지에 다른 개고리는 이번에는 어찌로 跳躍할 것인가

鋼領에 胡衣된바 우리나라의 眞正한 速記文化樹立을 指向하며 民族文化發展에 貢獻하는 길에로 一途邁進하는 것 뿐이다 今般 全州支部設置를 契機로 이 會報의

刊行을 또다시 擘想하였다 現時之狀을 말라 몇반인가의 挫折 끝에 비로서 可能케 된 것이요 極甚한 難痛 끝에 나오게 된 것이니 그것은 우리들의 길어온 길이 일파나 쓰라

린 것 - 이었는가를 立證하는 것이며 그러니만큼 憂着하여 크고 意義도 관습 관은 것이다 觀건대 이 速記文化로 하여금 그것인바 使命을 完遂할 수 있도록 會員各位의 一層의 協

助와 在會諸彦의 偉大한 聲援을 바라바지 않는다

# 創刊에際하여

主幹

流水穿石이란말과같이 精誠과努力이 끊임없을진대 穿石에 비길만한 成事를 이루어지  
 는例가 許多하다. 우리나라에 있어서眞正한 速記文化의 樹立이 果是 들에 부딪친 물  
 방울처럼 自身만 玉碎되는 微雨한 反響밖에 主지 못하였을것임 日月을 거듭하고 보  
 니 그래도 穿石의 成果를 거두었다 할수 있는것이 오늘의 溫波式의 存法이다. 苦難  
 前線의 歲月 幾星廻、逸波式의 存在를 竝려하는 存法의 阜翁한 酷評이 아모리 志氣할  
 긴대 公正을 如實히 말하는 穿石의 現實이야 微動도 안할것이요, 이에 彩光을 加하는  
 것이 會報의 刊行이러니 感慨 오직 깊을뿐이다.

速記學이란 元素가 苦難의學이다. 수박속정질같이 單調無味한 難症이 나기 쉬운  
 一鍾 獨特의 맛을 주는 簡便 成學後에 돌보면 우수 우려한치 손쉬운 맛이 나는  
 學이다. 이것이 眞正한 速記學의 맛이다. 焦燥와 쓴 悲哀를 주는 不純은 記法의 맛과  
 는 아조를린 맛이다.

이 맛을 알기爲해서 有無相通하라는 盲目과 激勵의 兩面을 떠운 單調 記法의 苦  
 폐기와 같은 速記文化의 나라남이여! 오직 희고 밝고 짙싸고 余裕있는 그 날 것질  
 아래 滄波와 더불어 靑々한 心情을 이루비! 같이 안고 오늘도 來日도 아니 永遠  
 히 힘차게 나르자..... 힘차게 뻗어나가자

(四三八年九月)

速記에 관한認識이 우리나라처럼薄弱한 곳은  
찾을내야 찾을수 있을 것이다. 社会的으로 보아極  
少數의 一邦人에 그칠뿐이요 多少間速記라는文字  
는 하아려도 그 簡明한 眞意나 極值에 관한것을  
아는 이는 亦 몇 사람에게 不過하다.

그렇다고 더 늦고 啓蒙을 할때야 啓蒙할 길  
이 漠然한 社会的現狀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社會이다. 當然히 一般이 알아야만 先進文明에  
뒤지지 않을것을 알릴길이 然然한 이가운데에  
있어서 그라도 몇 사람의 理解를 得하기爲해  
서는 機會적 努力을 아끼지 않고 서둘러야겠으나  
速記인의 이담담한 苦衷은 언더나 풀릴는지!  
비단 速記하나의 啓蒙問題만도 이만큼 고달으니  
은갖 文明認識이 어느만한 社會人에게 浸透되려  
면..... 痛막한 現狀이다

速記는 勿論 難리 쓴다는것이다. 그렇다고 우  
리글자로 寫되 내갈려쓰는것은 아니다. 一種의  
記號學, 다시말하면 符號學 또는 記號學  
大限 利用한 符號文字를 構成하여가지고 사람  
의 發言에 맞추어 即一發時 大音字를 發言한다

면 二發時같이 二發에 大音字를(發) 十分  
이든 三發 大音字 發聲이 되는데 發上이건  
發聲發音은 들을고 普通對談이나 演說에  
있어서는 十分時 三發 大音字 以內에 들게된다  
記號라는 簡單現狀을 速記라稱하는故로  
速記의 뜻은 結局以上 말한바 符號文字  
의 使役로서 사람의 發言을 助有記號한다  
는것이 正當한 뜻이요 이 記法이 可能하  
도록 体系와 學的極值를 가준것이 이른바  
速記法이라는것이다.

따라서 眞正한 速記法은 假令 우리나라로할  
라면 中卒以上の 常識者이요 우리말에 極  
한者로서 一定한 期間(大略 一邦內外) 習學  
하면 누구나 十分時 三發 大音字 以內에 들  
記號하게 되도록 責任지고 教授할수있는  
學的極值가 然然한記號學이며 이나나 이  
即 速記學이란 名稱을附하게되는緣由이다  
그러므로 速記界에서는 最高 一發時 三發 大音字  
記號의 速度性이 없는記號學字構法이나 記號의  
있는것이냐 普及習學이 안되는 邦人的인記  
法 即 學的極值性이 없는記法은 이를 一種  
의 速記的인 異樣文字라하여 最의 區別을하고

速記는 勿論 難리 쓴다는것이다. 그렇다고 우  
리글자로 寫되 내갈려쓰는것은 아니다. 一種의  
記號學, 다시말하면 符號學 또는 記號學  
大限 利用한 符號文字를 構成하여가지고 사람  
의 發言에 맞추어 即一發時 大音字를 發言한다

이런 殺着의 記法에 一般이 속지 않도록 恒常注力하게 된다.

速記는 그 存在意義가 語言의 抑 希 記法에 있으나 社會的 價值도 語言의 被動的 役割을 하는 것이 主要한 것이다.

제아모리 鬼神 같은 速草의 才換가 있다해도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주저없이 날날히 記法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主要한 質은 다 해도 이것은 단 몇 분 몇十分間이라면 物은 物의 時間이 나간다면 처음에는 大體의 記法이 終末에는 大要中 大要點으로 必 省略된 語言의 意思와 相違하는 記法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서 어찌 正確한 記法이라 할 수 있으며 忠心하고 誠을 할 수 있는가?

즉 記法保存하여 讀해하거나 討論 座談을 비롯하여 會議 記法 같은 것이 實로 特種한 記法을 利用하지 않고 正確한 記法을 하려는 것이 自體가 이미 時代에서는 非文明的인 것이요 速記와 復理가 성하는 것이니 檢令 重大한 裁判의 記法 같은 것이 있어서도 速記이니고는 被動的 役割을 할 말을 바로 記法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正確한 語言 記法 이것이 速記의 絕對的인 特長이며 이 特長

發揮가 때와 場合에 따라서 社會에 미치는 影響이 크다 고 할 수 없으며 스스로 價値를 伴하는 것임은 否定할 수 없는 事實이다.

또한 速記의 價值는 正確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迅速한 면에서 또 그 特長 發揮가 尋常적이 아니라 大體 優秀한 速記士는 十分間 速記한 것이면 十分이던 우리 文字로 還元해 낸다(註). 普通 復字의 인 우리 글은 三百餘字를 쓰려면 十分은 十分 걸리나 이와 比較하면 알 것이다. 卽一時間 講演이면 六七時間이 翻譯時間이 되는 데 이것을 大人이 交代로 速記한다 보면 速記後一時間이면 京稿化되니까 一政府에 數十名의 速記士를 要하는 것도 可成이다. 議會에서의 重大演說의 正確 記法이 極히 短時間內에 各 通信新聞社에 收해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學生은 講師의 講義를 聽난 후 記法하고 講義는 各을 聽고 論說할 수 있으며 新聞通信社에 寄하는 正確한 「인사부」와 雜報를 速記를 이룰 수 있고 各種會議은 그

全體가 保存되는 文明記法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든 언저나 이루어질는지. 우리 말  
 이 漢着語이며 그 尙大한 基本音字와 複雜  
 한 非記法 그리고 多量의 漢字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漢或 美國과 같은 1라이프의 出現  
 을 祈求할는지 몰음의 朝鮮의 歷史는 現  
 記法이 抹消되는 慘酷한 變化가 오기를 바라  
 는 그 무엇이 있다면 몰음의 또는 發言이 그  
 대로 文字化하는 簡便小型의 超文明機械가  
 出現되지 않는 限 우리나라에서는 優秀한 眞  
 正한 速記法의 普及以外에는 正確迅速한 發  
 言 記錄이 絶對不能임은 斷言하며 此로 速  
 記가 文明된 筆法을 實生活에 利用하도록 되  
 기를 懇願하며 마지 않음 바이다.

朝鮮速記文化協會沿革

第一次 美蘇共委가 流會되어 慶陽社 暗號  
 이 底基하고 있을 지음 一九四六年 六月 下旬  
 都下 各報道 機關은 一齊히 우리 말 速記  
 學의 完成을 促하며 勸히 그것이 千八才의  
 一雙 青年의 손으로 이루어 졌다는 報道  
 로 社會의 耳目을 衝動시켰다

이것이 바로 우리 速記式 速記가 時代의  
 曙光을 받고 登場한 것이었다

여기까지의 經過와 그 後의 發展을  
 하여 이에 紹介하고자 한다

X X X

創設者 逸波 裴基泰先生은 일찍이

기 速記에 뜻을 두어 漢日 東京 早稻

田 速記士 養成所에서 그 基礎를 닦고

爾來十年 一線 速記士로 活躍하며 南北

斯界의 宣傳普及에 從事하여 오든 바 우

리 말 速記의 自紙 狀態에 비추어 이

를 痛數 發憤하며 우리 語文을 研究하며

우리 말 速記法의 完成에 銳意 努力하여

왔던 것이다

八一五 解放을 契機로 年來의 發展과



宿望을 實現하려고 多角度로 活動을 開始하며  
 ~ 우리 나라 速記界의 隆盛發展을 催促하였으  
 나 當時의 極度로 興奮된 混亂속에서 이  
 러한 일을 돌보아 주는 사람은 없었으며  
 或 있어도 走馬看山으로 눈여겨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밖에도 여러가지 隘路로 해서  
 進退이 如意치 못하였다. 持此 經濟的難  
 關은 現時 同志는 있었으나 克服할 길이 없어  
 閨口의 날을 孝悌洞 寓居에서 보내었다  
 이리하여 友誼圖는 毀慘히도 一敗地에  
 돌리고 말았다

忠南 保寧에 一時 困居하다 極度로 疲勞  
 한 心身을 이루면 지면서 全復 講義錄 京鎭  
 를 修正 整備하여 捲土重來 새로운 同志를  
 上京 하였던 것이다  
 一九四六年六月二十日 合洞 通信 第二便으로  
 우리 速記法 完成 報道가 載해져서 自  
 由 中央을 刊載한 當時 一流紙에 掲載되며 友  
 送는 一스베도 發表되어 大々의 으로 알리워  
 며 持의 文月二十四日에는 午後 文房 부터 十五  
 分 同州 中央 放送局의 바이크를 通하여 「速  
 記法에 對하여」라고 題하여 우리 나라 最初의

速記에 관한 放送을 創案者 自身이  
 이 始作한 가운데 着々 諸般 準備을 進行  
 시켜 八月七日 合洞 通信에 載하여 同  
 日 一스 各 新聞에 「朝鮮 速記 文化協會」 創  
 立의 報道를 보게 되었다.  
 이리하여 四十余名의 研究者의 應募아래 九  
 月十一日을 期하여 東大門 昌信學院에  
 事務所 屬의 逸波式 速記士 養成所가 開講  
 하게 되었다.

此를 僻處한 곳의 隨筆에서 寫한 것이  
 였지만 우리나라 最初의 權威있는 公認  
 速記指導機關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速記史上 또 文化史上에 한 새 기록을  
 지은 一大快事이었던 것이다  
 (繼 續)

陸軍速記學校記

李圭洪

速記에 대한宣傳을 하는 方便 座談會 記念式

軍의 速記人으로서 筆을 드린지 數年 經驗적은 筆者

로서 原稿다운 榮稿가 되지 못할가 躊躇치 않을 수 없으나 能

往에 速記文化發展을 위하여 速記界에 投身하여 온터이니

더기에 그 동안에 느낀 點 速記에 對한 將兵의 認識은

軍에서 速記教育을 始作할 動機等々를 略述하며 速記

界에서 活躍하고 있는 여러 先輩諸賢과 後輩들에게 多

少라도 參考에 資가 되리라 한다.

一言 速記라면 大衆認識이 不足함은 日帝가 이 땅에

남겨는 形言하지 못할 鮮血의 하나라 하겠거니와 英美等

地에서 速記學을 相當히 認識하고 있을 만간 人士들까지

도 이 나라의 速記學에 兩해하는 何等의 認識을 갖지 못

함을 볼 수 있는데 查물며 軍將兵의 速記에 對한 認識의

관 缺處도 甚었다는 對해 하시는는 그의 크게 놀라지도 않었다

多幸히 海外에서 多年 祖國光復을 위하여 苦闘하기 든

분으로서 當時의 國防部 兼 書室長이 軍內에서 누구보

도 速記에 對한 認識을 갖지 못하였는지를 數次에 會

會 協談한 일이 있었다나 亦是 積極的으로 辨이 將兵

에 對하여 現社會가 當面하고 있는 速記의 重要性、速記의

存在價値等々를 認識시키지 못하여 防될 것은 切實하게

되었고 陸軍은 勿論 海軍 空軍의 各局 監室에 書面으로

會議等 記錄으로 速記를 辨이 宣傳하였다

殊終에는 時間的으로 敎材가 缺을 程度로 奔走

하여 집을 다라 速記士의 不足을 切實히 하는 點

書室長은 筆者에게 軍人 速記養成에 要望하고

은 것이다 그러나 經驗全無하고 自身敎養이

不足함으로 一時 拒絶하였으나 敎材에 關한 懇請에

該式을 辨이 普及파 아 울러 速記文化發展에

貢獻할 것을 생각하고 反對하며 敎育을 始作하

기로 하였다

志願者數는 千余名에 達하였으나 其中 將校三

名과 士兵四名은 所屬된 課務에 支障이 있어 不

得己敎育을 中斷하며 該隊에 復歸하고 十四

名으로서 敎育하고 있는 中이다

(繼 續)

소-루 제이쵸

劉 載 殷

뒤에 알고 보니 「안쓰카와」는 「揚子江」이요,

俗談에 「기지도 못하는 새가 나르려 한다」 「소-루 제이쵸」는 「서울京城」 「잔사」는 中國의

는 格으로 내가 처음 史務速記라고 한 것이 日本의 「長沙」 잔말이었다.

放送行-스 即 日本말을 速記하는 일이 었다. 게다가 「야마구지정」(山口縣) 「요코하마」

나는 이 速記를 참에 앞서 다음과 같은 것을 (擧演)..... 等 이런 같은 國有名稱이 나오면

생각 하였다. 「산구현」 「형빈」..... 이렇게 우리 文字로

日本語音을 우리말 本文字로 쓰는 것은 到 難譯된 글자가 버리게 되어 오르지 않고 漢文의 口

口 難 「擧演」가 더 모른다. 그러나 이놈의 書 數 많은 漢文을 살 수도 成. 아니까 不得은 日本가

나로 代用하려 드니 「개명」 두 葉에 쓰려면 日本가 是 處으로 日本글자를 그대로 보지 않아 그런

지 제대로 辨리할 수가 없다. 又 이따금 中國의 國共戰況을 말하는데

부구 揮下의 무는 部隊가 「무순」市 西南省 變料地處..... 云々 하는데 이 「부구」 「변

를 中國音을 따라서 發音하는데는 眞實이다. 그러나 여기 新聞 라디오에서 밤낮 떠드는

國際的인 뉴스 即 國際總會 安全保障 理事會 四國外相會議..... 같은 部類

에 屬하는 것은 翻譯해서 쓰기도 過히 어렵

르겠고 어떻게 總筆을 돌리기도 못할 形

이렇게 생 각하고 受信機 앞에 가서 受信機를

키에 부치고 앉으니 우선 들리는 소리가 오래간

만에 들리는 소리는 數千里 異國 땅에서 電波를 타

고 오는 소리라 尙々이 雜音이 섞여 는 말이 저

무려 지 4만 제법 할 들리는 聲이다. 그러나 「안쓰카와」 「소-루 제이쵸」 「잔사」.....

등의 固有名稱이 나오는데는 무슨 말인지도 모

르겠고 어떻게 總筆을 돌리기도 못할 形

이렇게 생 각하고 受信機 앞에 가서 受信機를

한 速記文이므로 알아  
보기도 수월했다.

그리하여 얼마간은 동안  
에 대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日本國內 뉴스中物  
價々格決定의 政府電  
表 또는 부는 市 부는  
通 뉴스中에 關係

어떤 놈이 도둑질  
했다와 같이 固有物  
論 不 當 否 矣 라 든 들 기 힘  
드는 말이 많이 섞인  
것은 速記하기 어려운  
分野의 것이 國內

뉴스中에서 政府界  
의 消息 而 民主自由黨과  
共產黨等의 政爭、勞動組

合爭議 國會(衆議院、參議院)  
消息과 國際的인 大 뉴스中  
특히 우리나라에 關係한 것은 速  
記하기 쉬운 分野에 屬하  
리겠다.

### 黙想하라!!

三陶

가칠은 世上은 젊은이들의 마음까지 거칠어지게 하  
침다. 오늘날 祖國의 現狀이 아모리 混亂을 極하였  
다 할지라도 青年은 그날그날 이것을 若干이라도 注意  
하기爲한 自己義務를 다하는 同時에 또한 祖國의 明日  
은 自身의 双肩위에 걸려 있다는 自覺을 發해서 且  
은 日 明日에 對 策하는 바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나 且  
五 焦燥한 남어지 現狀의 混亂한 救濟에 亞 조 策을 講  
러 가지 않도록 千萬 操心 해야 할 것이다.

#### 黙想하라!!

余暇를 利用하기 爲하여 黙想하는 習慣을 기르라는  
勸告는 現在의 緊迫한 現狀속에서는 이땅에 젊은이  
들에게는 좀 于 遠한 勸告인 것 같은 感도 敏지 않으나  
나 確實히 우리 젊은이들은 余暇가 없으면 時間을  
내서라도 좀 黙想의 機會를 가져야 할 것이다.

너부나 東 莫한 現狀인 가 靑 年에!  
너부나 焦燥한 現狀인 가 靑 年에!

靑 年은 未日을 爲하여 蓄積하는 바  
많은 것이 있어야 하는 靑 年에!

乙丑八月十四日

優等과 우동, 韓奎勳

내가 어렸을 때에는 學校에서 공부할 때면 「우동」 못하면 「떡국」 그리고 「入學試驗」에 합격하면 「찰떡」을 해 주는 법이 중 알리고 있었다.

내게는 兒童도 少年도 없었지만 동무배집에 놀러 가면 그집에 兒童 少年들이 많아서 學期 末만 되면 서로를 누누는 優等이나 누누는 優等이나 하고 들떠들면서 우리들 보기는 찰떡을 먹어야 한다는 등 누누는 떡국을 먹었다는 등 하는 소리를 듣고 「優等」이란 말을 보려는 나는 「우동」을 떡국과 醃梨시켜 「우동」으로 말아 드리고 찰떡은 제일 맛이 있으니 「入學試驗」에 합격하면 주교, 떡국은 집에서 조금 그려 먹지만 우동은 中學校에서 사먹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것이니 공부 잘하는 사람은 우동을 주교 못하면 떡국을 주는 것이거나 하였든 것이다.

내가 放送局에서 일하게 된(平壤放送局) 때 그 첫날 일을 마치고 자리에 누웠을 때 버리에

으로 알아듣는 따위의 미련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十餘里를 날러오는 소리로 妙善庵에 다다란 것도 있다 하니, 알아듣기에 힘이 들리라고 애초부터 覺悟는 하였지만 무상. 그리고 보니 함들기란 실로 想像밖이었다. 터군다나 내키게 의은 말이면 「원수」로 들리드라고 그 말 「원수」으로 마무리서 「完遂」를 「總體」로 알아듣지는 않지만 생긴 처음 들은 말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雜音 때문에 첫머리는 잘 들지 못하고 「강도」라는 말만 들렸기에 이 말이 첫머리에 나온 말이라 알 말로 마무리 해 아릴 것도 있고 해서 첫머리가 「스」 줄의 소리인 듯한 것으로 다루어 「저齋」라고 새 놓았는데 뒤따라 나온 줄 알았든 「日帝」나 그에 비슷한 말은 나오지 않고 당치 않게 「道民」이 되어 나오니 어찌 당황치 않을 수 있겠는가.

江東道云々하고 시작했는데 「道庁所」

在 延元山 이란 말이 뒤따라 나오므로

이 놓지 江東道를 咸鏡南道로 고쳤더니 나중에 다시도 나오는 말이 아무래도 江東道에 가까운 것 같고 咸鏡南道라 하고 들으면 咸鏡南道라고는 들리지만 咸이 빠진 건다.

그러나 雜音과 말이 한번 섞여 버리면 라디오를 인용하느냐 보다는 地理時間이 배운 咸鏡南道方在元山이란 雜音이 비듬지 자며 내내 咸鏡南道라고 읽고 말았다.

農林部人民이라는 소리가 數명이 나오길 레 피상한 말도 만들어나다 하면서도 農林部傘下의 人民 즉 農民을 이름한 것이 아니라 생각 해 봤으나 前後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放送이 끝나 「레지」 「바」를 귀에서 떼고 알아 보니 「저」 「저」 「저」 로 「咸鏡南道」方在元山은 이미 낡은 知識이었으며 「農林部人民」은 「南半部」를 「農林部」로 잘못 들은 것이었다.

한 일은 귀머귀리를 만나 — 귀머귀리는 대개 병이 아니라 하지만 병이 아니라 — 말다 들을 한다면 이쪽 말은 못히 들지 않고, 러 하고 싶은 말만 느러 놓려니 말바나 담담 할지 모르겠거늘 라디오는 귀가 있어 雜音 때

문제 들리지 않았노라고 호령을 해도 다시 말해 주자 양을 붙이나 라는 도 말바에서 4급이 잘 길 것도 알지 못하니 못내 기라 하여 나에게 언급은 江東道에 編入되었다는 것을 미리 알려 주지도 않으며 여러 나라 말을 잘 들은 아나, 입술이 비뚤어져서 雜音을 따지도 못한다, 답답하기로 말하면 당장에라도 부서 버리고 싶은데 雜音과 雜音은 4수로나 여러진 곳에 있으니 여전히 지적할 것이 雜音도 사라질 터가 만 무하나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하고 말은 라디오나 부서는 라디오 대신에 러까지 좁은 라디오가 아니라 날는 지누가 알겠는가 말이다.

**目的을 中心으로**

從來 「目的」은 — 을 새웠으나 「目的」 하면 — 으로 「目的」은 가가 — 을 쓰려고 「목적」으로 쓰면 — 을 가려고 「目的」으로 쓰면 — 을 쓰면 좋다

目的을 目的도 目的은 目的으로 부

仲秋有感

白 隱 生

우리 나라에 速記普及機關이 생긴지 이제  
三年이라는 星霜이 흘렀다. 그동안 여러 先  
輩들의 晝夜不息한 奮闘努力의 結晶으로 인  
하여 오늘날 몇々國家重要機關의 歷史的  
인 施政의 記錄이 可能케 되었으며 隨處에  
今年八月에는 最初로 國際會合에 우리 速  
記가 露場하게 까지 되었으나 全體的인 面  
에 있어서의 人的不足이란 現象으로는  
아직 우리 나라 速記가 正常的인 軌道에 올  
랐다고는 言할 수 없다.

大概 速記에 대한 關心은 다 世 速記專門  
人분만 아니라 全民族이 多量히 가려져 있  
는 것이다. 그러나 그 中에서 또 速記를 日常  
行하는 것이 職務인 우리 速記人들의 이  
에 대한 關心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切實하고  
더 緊迫하고 더 直接的인 바 있음은 自他  
가 勿認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速記人들은 누구보다도 우리  
나라 速記가 過去에 걸어진 것 또 앞으로  
걸어나야 할 것들을 速히 認識하고 있음은

내가 본 速記學

吳 潤 五

一言「速記」라 하면 大衆認識이 不足함은  
再言을 要치 않거나 「速記」는 特殊한 符  
號로써 사람의 發言을 卽席記錄하며 그대로  
綴寫할 수 있는 一種의 高質한 術法이라고  
認識함이 大部分의 常識인 것이요 所謂  
外國等의 速記狀況을 認識하고 있는 一部人  
士를 가리기도 지극히 우리 나라가 當面하고 있  
는 緊急한 速記의 學的 問題에 關해서 는 온  
바른 識見을 갖지 못함은 우리 速記學을  
習得한 사람들의 不足者스러운 일일 만만하  
나 아니라 大體總事라 아니 할 수 없다.  
科學的 體系下 一定한 符號로써 構成되니  
있는 一門의 學인 以上 不斷한 忍耐의 努力  
을 한다면 不過 一年 餘에 누구나 習得  
할 수 있는 學的文化이다.

그러나 速記學을 單純히 記號의 技術이  
不過한 樣으로 認識하고 習得을 願하는 者로  
서 우리의 汗을 제대로 不吝者가 果然 그  
것이나 있으랴! 이 닢 하나만이라도 무

본만 아니라 非良否의 當然之事까지  
 를 隱蔽, 掩蔽한다 바지. 自己만이 아니라  
 나라의 歷史를 나았의 自己만이 歷史界의  
 入者이고, 自己만이 惟一의 歷史法然하는  
 沒庸識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같은 歷史人  
 들 본만 아니라 이 事實을 아는 他界의 人  
 事들로 하여금 歷史界을 爲하는 다음에  
 一 大遺憾事라 하니 할 수 있으며 우리 歷史  
 界를 辱되게 하고 우리 歷史文化의 發展을  
 阻害하는 이러한 人士가 우리 歷史界에 있  
 더는 것은 歷史人 身體의 恥辱이라 고 하니 할  
 수 있는 바이다.

二 例를 四二八年四月二十五日 發行 朝鮮  
 歷史 創刊 號에서 屢々히 見볼 수 있다  
 即 二第五頁에서 「朝鮮 諸 歷史 法의  
 劣劣 歷史」라 題하여 自己式의 優秀 勝  
 을 자랑 함은 可하다 하겠으나 如式을 가  
 르러曰 「처음부터 끝까지 日 早 縮 田  
 式의 兩 辭 語 通用」云云 이나 또는 다른 法  
 式을 總括的으로 云云 曰 「그들에게 別  
 거니와 이 모 諸 深 史 學 理와 充分한

할 수 있겠지요」 하고 答 答 하엿드니 「그렇  
 겠지요」 一定한 符號 반의면 쓸 수 있을  
 터니까, 時 時 變 變 有는 글입니다 나 좀 가  
 려 주시요」 하고 바적 달러 보는다. 勿論  
 이것은 一例에 지나지 않지만 筆者 自身  
 에게나 切實히 느끼는 바는 一般의 歷史에  
 對한 認識 不足이다. 우리 말의 不足한 사  
 람들을 如何로 하는 이 學術의 進路가 大  
 小 單 統 統 이 아니요 이의 普及에는 許 多  
 한 難 點이 있을 것은 事實이나 이를 克服  
 함은 先輩 諸 賢 言의 努力 如何에 달렸을  
 것이다.

오늘날 國會 歷史는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繼 上 人의 不足은 難 免 일 것이요. 各 言  
 論 機關은 말할 것도 없거나와 안을 言  
 道 議 會가 성 김에 따라 必然的으로 느끼어  
 질 歷史 不足을 如何히 解決 할 것인가  
 가 國家 將 來를 爲하여 當局에서나 速  
 記 障 害에 있어서 商 切 切 再 考 慮 를 要  
 請하느바 이나 官 費 養 成 其他 方法으로  
 育 成에 盡 力하기를 強 調 하는 바이다  
 筆者는 一線에서 爲 爲 也 行 行 也



基本文字의 自身改定 他身改定이 欲은  
 然한 該書系의 完成이 있어 云云」.....  
 等々 自式의 立場만은 鞏固히 하기 勿  
 波하여 他式을 發責하게 攻擊하는 非  
 良心的 論說을 하였으며 同三十五頁、  
 「述記人消息」이라 題하여 編輯子曰

「姜駿遠氏 Ⅱ (前略) 그의 猶女主義教  
 育이 시작된 모약」云云.....

「姜基英氏 Ⅱ (前略) 姜氏의 猶女主義  
 와는 달아 猶女主義教育이 같은가 어떻  
 든 우리 말 述記教育의 斜에 있어서의  
 好對照」云云.....

아오 證據도 없이 남을 橫暴이나 粗  
 魯나 親如莫知한 文句로서 남을 攻擊  
 함은 그 「朝鮮述記」라는 冊子가 그들의

穢汚紙임을 一쪽 一쪽 批發하였으면 假事十  
 步를 護히야 裁解할 수 있을지 모르나 外  
 面的으로 公正한 者 「감무라지」 하야 구

러한 行爲을 取하였다는 것은 到底 批發  
 할 수 없지 아니하

..... 그들은 이 述記를 分發시킨 責任  
 을 느끼는가? 안느끼는가?.....

諸氏에 敬意를 表하는 同時에 第一線에  
 什 活躍하는 諸賢의 樓閣을 빌리며 앞으로  
 述記文化가 燦爛히 꽃피며 時期가 오기  
 를 期待하다 加一層 頑惡의 育成에  
 精進하기를 바라 마지 않는 다  
 (八月)

그들은 다 땅히 오늘날의 述記界를 分發  
 시킨 責任을 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  
 공도 改選 惡善은커녕 相對가 始終 記  
 惡함을 如故로 여기고 己의 立場을 正當化  
 함만 絶叫하며 自己의 立場을 正當化  
 하려는 行爲을 取함은 褻當치 못한 일  
 이다.

X X X  
 筆者는 以上과 같은 글을 쓰게 된 것을 遺  
 憾으로 생각하는 同時에 尙코 本意가 아  
 남을 더기에 批發겨 두는 바이다.  
 對立에 對 競爭이 성기고 競爭함으로서

16-  
 爭執의 發露가 있다고 하는 것은 肯定할 수 없으나  
 그 對立이 남을 誣陷하기 위한 對立이라 하면 그  
 것은 建設的인 對立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기 어렵  
 할 것이다

오늘날 이 時期가 옛 同人끼리 感情的  
 인 對立으로 나갈 時期가 아니라 하는 것을 筆者  
 는 強調하며 이를로서 그들의 反省을促하  
 야 이 微弱한 우리 나라 建設文化發展을爲  
 하여 보다 안전한 同人들이 異身同體가 되  
 어 努力하여야 아가서는 民族文化向上에  
 貢獻할 것을 勉으며 그 代價로 가슴을 쥐어  
 잡고 이 글을 쓰는 바이나 實用한 諸賢은  
 筆者의 苦衷을 알며 주며 同時에 公正한  
 批評을 바라가지 않는 바이다

X X X  
 끝으로 바라거나와 諸賢의 統合의 必要性이  
 痛感되는 오늘날 諸先輩께서는 我田引  
 水格인 統合論이나 從來의 唯我獨善의 인  
 態度를 一掃하고 公을爲하며 나서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以上 述記를 爲하는 데에서 本意 아닌 苦衷을  
 썼으나 實코 攻擊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眞正한  
 建設文化를爲하며 不得已한 處事이었음을 再



四三二一年八月十三日(土) 勸農町十二番地本會  
 會議室에서 臨時總會를 開催 會則의 改正  
 外 方舍務 兼 第四期生募集 其他 安件을  
 決議하고 다음과 같이 役員을 改選 各務을  
 分擔하여 앞으로의 一層 強力한 運動을  
 期함

名譽會員 1 南載禧 呂尚云 黃仁默  
 主幹 1 張基泰  
 幹事 1 柳章熙 全鎮基 鄭源道 張  
 德根 吳尚玉

總務部 全鎮基 吳尚玉  
 發行部 全鎮基 鄭源道  
 調査部 柳章熙 外一同  
 出版部 柳章熙 張  
 書記部 張德根 外一同  
 ○ 八月四日

金、許、西氏 鎮海會發述記次 鎮海로  
 發行  
 八月二十五日 黃仁默氏 全州支部設置에  
 對한 最後冊發에 上京

八月二十七日(土) 新設洞 手幹室에서 第一回 常任委員會  
를 前催 戶舍移轉、移舍擴張工事 四期生募集에 關  
한 假休案과 定務、速記事務外 支部에 關한 細則  
通達

○九月六日 全州支部 認司格

○九月八日 新設洞 三〇五의 三三로 枚數定了

○九月二十三日 校舍擴張工事竣工 第四期生募集

○十月十二日 全州支部 冊所 前籍 晝夜向 四十二名으로  
앞으로의 發展을 期待

○十月十二日 朝鮮新聞學覽에 週三兩向의 必讀課目으로  
採擇 主幹 初講議

朝鮮速記文化協會 々則

一、本會는 朝鮮速記文化協會에 縮合

一、本會는 本會를 付을市에 두고 必要한 地에 支部를  
들

一、本會는 速皮式速記字는 通하며 우리 나라의  
眞正한 速記文化樹立을 指向하며 民族文化

發展에 貢獻함을 目的으로 함

一、本會는 다음과 會員으로서 構成함

正會員 公認 速皮式速記士養成所 卒業生  
副名譽會員 本會의 題首에 簽同하여 後核

朝鮮速記文化協會 上京

一、本會에 主幹一名 幹事 若干名의 役員  
을 들

幹事는 主幹이 任命하여 總會의 同意를  
얻어야 하며 任期는 滿一年으로 함

主幹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理함  
幹事는 各 担当會務를 處理함

一、前記의 役員으로서 常任委員會를 組織  
하여 本會의 執行機關 及 委任事項決  
議機關으로 하며 同 委員은 必要에  
따라서 隨時로 主幹이 이를 召集함

一、本會에 다음과 五部를 두고 會務를 担当  
處理함

總務部 庶務 財務外 支部에 屬하지 않  
는 事務

養成部 養成所 運營 及 通信教授에  
關한 事務

調査部 速記學의 研究 資料蒐集 圖  
書에 關한 事務

出版部 機關紙 雜誌 及 其他 書籍  
출판에 關한 事務

他 出版에 關한 事務

正會員 公認 速皮式速記士養成所 卒業生  
副名譽會員 本會의 題首에 簽同하여 後核

一 本會의 最高 決議機關으로 每年 一回 (四月) 의 定期總會와 必要에 依해서 隨時로 臨時總會를 召集할 수 있음

本會의 모든 議決은 過半數出席의 過半數可決로 決定

會員中 會員으로서의 義務를 履行하지 않거나 法式의 侵害 其他 本會의 名譽財產에 損害을 미치는 경우에는 常任委員長의 決議로 除名할 수 있음

本會別에 規定되지 않은 것은 一般 習慣에 依함

以上

◇ 編輯 後記 ◇

이사를 하느라고 奔忙했다. 는 것이 弊明의 口實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런 말이라도 꺼집어 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워어 놓고 보니 초라하기 짝이 없어 여러분한테 내놓기 부끄러운 것이 되었다

昨日만 오려 살리던 丁叢山 鳴鶴까지도 못 가도 부산을 치다가 結局 나온 것이 이 귀한 마더 폭도 못되는 것이나 大驚하 未 竟하다

그러나 여러가지 딱한 事情을 잘 아는 여러분인지라 늦게나마 義務하나마 申報의 刊行을 左右向 始作려 왔다는 그 뜻만 으로 이번은 容寬해 줄 것을 믿으며 또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他一層의 協助 鞭撻이 있기를 期待한다

1949년

非賣品

檀紀四二八二年十月二十日 印刷  
檀紀四二八二年十月二十五日 發行

速記文化 第一号

編輯兼 朝鮮速記文化協會

發行人 柳 章 熙

印刷人 서울特別市中區武橋洞四番地

首都 프린트社

發行處 서울特別市東大門區新設洞二〇五의三一

朝鮮速記文化協會

— 出版部 —

非書品

卷之十

海國圖志卷之十

南洋圖志卷之十

卷之九

南洋圖志卷之九

卷之八

南洋圖志卷之八

卷之七

南洋圖志卷之七

東

一

廣東省城西關

廣東省城西關

一

謹呈

# 文化記速

第二號

柳浩龍  
貫下



大韓速記學術協會刊



# 目次

卷頭辭 蛇頭龍尾를 爲하여 ..... 大

提言 速記士에게 ..... 民議院 趙瓊奎 ..... 八

國會의 速記士의 役割 ..... 民議院 崔 漢 宇 ..... 一〇

論壇 速記의 將來 ..... 張 惠 根 ..... 一四  
一人一技로서 의 速記 ..... 黃 圭 鎮 ..... 一七  
—— 速記學의 普及를 爲하여 ——

常任委員會 速記 錄作成 問題를 中心하여 ..... 金 鎮 基 ..... 二二

連載 議會를 中心한 速記의 發達 ..... 民議院 金 履 熙 ..... 二九  
韓國 速記 十年 史 ..... 速記課長 鄭 源 道 ..... 七二  
GENEVE 紀 行 ..... 柳 虎 龍 ..... 三九

協會에 對한 一考 ..... 韓 奎 勳 ..... 三四

採訪記 高麗 速記 技術 學院 篇 ..... 乙 生 ..... 五八

速記 入門 所 感 ..... 梁 雲 錫 ..... 六二  
夏期 講座를 마치고 ..... 金 聖 漢 ..... 六五

明朗子 오노바의 다른 速記士 ..... 全 範 成 ..... 六七

職業女性의 喜悲 ..... 朴 淑 卿 ..... 四五  
三十九十一 團 ..... 報 惠 ..... 四九  
消 息 ..... 曠 齋 室 ..... 八三  
職業 ..... 金 惠 姬 ..... 五三  
夏期 講座 報告 ..... 曠 齋 室 ..... 六四

詩 綠 下 吟 ..... 曠 齋 室 ..... 八三  
世羅는 내 곁을 떠났다 ..... 曠 齋 室 ..... 六四  
隨 湖 ..... 五二

協會 彙報 (會務 日誌) ..... 總務部 ..... 七二



# 國會速版社

代表 林敬澤

電話 ② 一四四一 構內五三

印刷種類

孔版印刷（活版代用）  
騰寫

印刷案內

活版印刷  
石版印刷  
音似三印刷

合資  
會社

## 青丘出版社

社長 李亨  
業務課長 尹忠鎮

住所 仁川特別市中區北倉洞九三斗四六

電話 ② 一三三八

- 學生募集 每年三月
- 受業年限 一個年
- 特典 國貨養成

#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校長 崔

璣

宇

山卷 齋 特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崔璣宇

卷頭辭  
蛇頭龍尾를爲하여

速記人の 唯一한 雜誌 『速記文化』의 発行에 있어서 會員 여러분의 精誠어린 拔擢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努力不尺으로 이와같이 食弱하기 짜이 없는 第二号를 이제야 내  
 놓게 되었음을 甚히 부끄러이 생각하느 바이다  
 本協會가 처음에 『速記文化』誌의 發刊을 計劃할 때에도 原稿蒐集 編輯 印刷 頒布等  
 許多한 隘路와 難關을 予測하고 預備과 躊躇가 없지않아 누구나 그리 큰 期待를 갖  
 지 않았던 것만은 事實이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出版界의 雜誌發刊에 있어 號刊호가 終刊호가 되는 例가 非一  
 非再하며 더구나 學術雜誌나 公共機關의 機關誌에 있어 더욱 그러하므로 本誌도 亦是  
 그러한 運命을 踏지 않을가 몹시 근심하였던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編輯關係者는  
 모두 奔忙한 本務의 余暇를 利用하여 이에 當하고 協會에 資金이 豊富한것도 아니며  
 또한 頒布에 있어서도 이 雜誌의 性格上 讀者層이 至極히 局限되어 있기 때문에 龍  
 頭蛇尾는 커녕 蛇頭無尾가 되지않을까 憂慮하지 않을수도 없었다  
 그러나 다행스나마 이제 難産中이던 第二号를 發刊하게 되었다 体裁로 보나 內容은

로 보아 이것으로 우리가 滿足하려는 것은 絶對 아니나 다만 「無尾」는 간신히 免하였고 「蛇頭」에 「蛇尾」나마 붙여 나가고져 하는 하나의 적은 우리들의 努力이 成就되어 간다고 自慰하고 싶다는 것이다

荒蕪地와 같은 우리나라의 記錄(速記)文化를 開拓하며 向上發達시키고고져 하는 會員 여러분의 努力은 偉大하고 聖스러운 努力이며 자당스러운 奉仕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速記人은 過去에도 그리웠지만 現在도 그야말로 어려운 고비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本 「速記文化」誌는 여러분 速記人이 걸어가시는 前途에 一樓의 빛이나마 띄어 여러 분께 諷과 慰安을 드리고져 加一層의 努力을 하고져 覺悟를 같이 하였다

編輯의 會員 여러분께서 本誌를 自己의 雜誌로 아시고 本誌를 賜하여 辛難하고 果 刻한 批判을 加하여 주심과 아울러 率直하고 建設的인 意見의 提供을 아끼지 말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와 같은 批判과 鞭撻과 積極的인 協助에 依해서만이 本誌가 「蛇頭」에 「蛇尾」가 아닌 「龍尾」를 부쳐서 次号부터 그 面目을 一新하여 그야말로 「蛇頭龍尾」의 怪物로 出現할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理事長)



提言

速記士에게

國會副議長  
本會名譽會長

趙 瓊 奎



文字란 言語의 表現으로써 世界各國에 形々色々인 것이니 「알파베트」의 二十六字로 表示되는 英字가 있는가하면 四千余字의 漢字等 實로 複雜難解한것이 文字인 것이다

言語와 文字란 것은 口頭로 傳授되는 聽覺만으로 意思를 表 乃至 傳達이란 不可能함으로

原始時代부터 文字가 存在한 것이니 人類의 知識傳授와 더불어 漸次 이 文字가 簡易

隔明된 것이 오늘날 使用되고 있는 文字인 것이며 따라서 言語도 이와 마찬가지로 「듣기 쉽

게 알기 쉽게」 傳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人知는 文字의 飛躍的 發展表現으로써 「速記」即 口述의 記錄을 時間的余裕

없이 口述과同時 表現하는 一種의 文字인 만큼 이는 「文字의 極端的인簡便」이며 「알」의

錄音인 速記術이야말로 文字의 極致라고도 할수 있다

速記는 分明히 一種의 技術이다 오늘날 速記의 使用範圍가 漸次 擴大되고 있는 것

은 文化發展의 一端面이겠거니와 專門家以外的 門外漢으로 볼 때에는 그技術이 難達한

가 됨으로 大衆的으로 使用한지 뜻하는 것에 速記士諸君들이 習得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  
이다

사람의 欲心으로 말하면 速記術을 習得하기 쉬울것 같으면 그 누구나 이를 배울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것이다

勿論 어느 技術을 習得하는데에도 努力 精氣 그리고 練習가 總的으로 必要한것이 必  
지만 文字의 濟易化한 原則的 思考下에서 볼 때에는 容易하게 習得할수 있는 方法을 現  
役速記士 여러분들이 研究発表하여 주기를 切實히 要望하는바이다

끝으로 速記士諸君들에게 付託하고 싶은 것은 廣範한 練習을 勵發하고 싶다 예를 들자  
면 原子力에 關한 講義를 速記할 때에는 原子力에 關한 書籍을 事前에 어느程度 突破  
한 努力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速記란것이 손으로 機械的으로만 表現되는것이 아니라 聽覺에 依하여 速記되는만큼  
무슨 兵이라는것을 알수 있다면 速記自体는 勿論 翻譯에도 利便 容易하지 않을가 한다

要件에 速記士 諸君들에게 付託코져 하는바 速記術의 容易한 習得을 爲한 研究発表  
을 하여 주는 同時에 速記士諸君들이 平常에 練習을通한 廣範한 知識攝取에 介스름이  
있기를 말하면서 速記의 運用을 廣範圖하게 大衆的으로 浸透시키기를 바라 마지 않는  
다

# 國會와 速記士의 役割

民議院事務總長 崔

瑛 宇

國會制度는 人類의 偉大한 精神的產物이었다. 人類가 貪婪 蒙昧한 存在에 지나지 않았던 時代에 있어서는 政治라는 것은 다만 實力을 가진 자가 自己보다 弱한者들을 抑壓 屈折시키는 方便으로서만 利用되었고 國民全體나 或은 國民의 代表者들이 一堂에 모여서 直接 自己들의 問題를 論議 決良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차츰차츰 人智가 飛達함에 따라 共同으로 關係되는 일을 모든 構成人員이 一堂에 모여서 公關計議하여 決良하는 것이 가장 合當하고 賢明하다는 事實을 깨닫게 되어 처음으로 諸種의 民會가 歷史에 登場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新羅時代의 和自이라든지 或은 西洋에 있어서는 希臘都市國家의 여러가지 政治的會合같은 것이 이러한 民會의 代表的인 것들이었다. 이러한 民會는 多少의 紀法이 있기는 하였지만 中世紀에 이르기까지 命脈을 維持하여왔던 것이다.

그러나 國家가 廣域化하고 또 強力한 君主가 出現함에 따라 民會로서는 벌써 諸種의 時代的要求에 順應할 수 없게 되고 宮廷 封建階級 僧侶 騎士 商工階級等의 封建的 會合인 專族會議가 中世를 裝飾하는 政治的會合으로 登場하였다.

이 專族會議에서 現代의 代議政治의 萌芽를 찾아볼 수 있기는 하나 이 會合은 國民의 基礎위에선 會合이 못되었고 諸專族階級の 利益을 追求하기 爲한것에 지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專族會議는 必然코 다른形態의 會合 卽 國民全體의

基礎위에 서는 會合과 代替되지 않으면 안될 運命이었던 것이다. 現代國家의 雛兒인 國會는 바로 이러한 時代的背景下에 出現한 것이다.

「루소」나 「몽테스큐」와 같은 大思想家들의 貢獻에 倣하여 主權在民의 大義와 三權分 立의 理論이 確立됨으로써 國會는 처음으로 現代의 意義를 지니고 登場하게 되었다. 卽 國會라는 것은 主權在民의 理念下에서 國民代表가 集合하여 國事를 談論하고 法律을 制定하고 國家의 予算을 審議決定하고 國政을 監督하는 國家機關을 意味하는 것이다.

國會가 이토록 重大한 使命을 띠고 있기 때문에 現代의 民主主義諸國家에 있어서의 國會의 地位는 絶對的인 것이며 國會權限의 消長은 民主政治의 運命을 左右하게 되는 것 이다. 따라서 人類의 高貴한 精神의 所産인 이國會가 아무런 制約없이 固有의 權限을

行使하는 동안은 民主政治의 實은 擧揚할 수 있는 것이지만 万若 어떠한 形式에서든지 國會의 權限이 制限을 받게 되는 때에는 벌써 民主政治는 危機에 處하든지 或은 破滅



을 보게 되는 것이다.國會는 이르륵 現代民主國家에 있어서 重要な 地位를 占하고 있으  
며 國會政治는 바로 民主政治의 代名詞가 되어 있는 程度이다

國會는 恒常 國民의 輿望에 順應하는 運營을 하고 있다. 이것은 非但 國會를 構成  
하는 國會議員이 國民으로부터 直接 選出된다는 事實에 依해서 뿐만 아니라 國會의 存  
立意義自体가 別로 國民의 意思를 國政에 充分히 反映시키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輿論의 轉移는 곧 議政壇上에 反映되어서 恒常 國民과 더불어 있는 政治가 行해될 수  
있는 것이다. 反面 議政壇上에서의 議員들의 一舉手一投足도 國民生活에 卽刻의 影響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나라에 따라서 程度의 분가 있기는 하지만 國會는 國政의 中樞機關  
乃至는 國體의 最高機關이기 때문에 國會에서 進行되고 議決되고 決行되는 일 하나 하나  
가 國民生活과는 不可分離의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으며 國民은 議事堂內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非常한 關心을 가지고 注視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異族의 오랜 桎梏에서 벗어나서 歷史上 처음으로 國民의 權利義務  
의 保障과 權力의 分立을 規定한 憲法을 制定하여 民主政治體制를 確立하였으며 그 中  
樞的機關인 國會를 構成하게 되었으므로 國會運營의 成敗는 우리나라의 民主政治의 前程  
을 示顯하는 重大한 意義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國會運營에 차한 國民의 關心은 날로  
高潮되고 있는 感이 있다. 그러므로 議政壇上에서 論議된 全部를 直時 國民에게 紹介하여  
主權을 가진 國民이 그들의 代辯者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다는 것을 恒常 알 수 있게끔 하여

고

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議員의 報告와 報告事項과 決定事項을 하나 빠짐없이 記錄하여 國民에게 紹介할 必要가 생기는 것이며, 따라서 速記의 重要性이 喚起되는 것이다. 國會活動의 記錄은 直譯作成한다는 것은 議員들에게도 또 대단히 必要한 일이다. 다른 議員의 發言要旨을 把握하고 이에 대한 自己의 意見을 개우며 其他의 活動을 準備하기 위해서는 不可不 會議의 記錄을 의기 望으면 안 될 것인데 이 記錄은 速記士의 勞苦에 依해서 作成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國會에 있어서의 速記士의 位置는 決코 輕視할 수 없는 것이며, 그들의 일은 活動이 公論暢達에 裨益하는바 不渺한 것이다.

國家가 古代의 都市國家와 같이 規模가 적으면 全國民이 直接 一堂에 모여서 國事를 論議할 수 있는 것이지만 現代와 같이 廣域化되어 있으면 國民全體가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國會는 廣域國家化한 現代諸國에서 國民의 代表로 選出된 議員들로써 構成되는 國家機關인만큼 議員들의 諸種의 活動이 多大數의 國民의 意思에 經常 迎合되어야 한다는 것은 贅言을 요치 않는 일이다. 그렇다면 國會의 活動全體는 特殊不可避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公開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國民의 反應을 돌어야만 하는 것이다. 勿論 國民의 言論機關을 통하여 國會消息이 報道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例로 보아서 지극히 夜相的인 是免치 못하였으므로 가장 完全하고 適切한 方法은 速記를 公開乃至 頒布하는 것이리라 생각한다. 現在 國會의 速記記錄은 予算上의 事情에 依하여 限定的 數만을 每日 印刷하여 國會議員과 國內 國外의 重要한 族團에게 配付하고 있지만 좀더 広範圍한 配付計劃을 세우고 있으며 英國의 「판사이드」(Parsons) 故 같은 것도 構想中에 있다. 이러한計劃이 實現되는 날에는 國會에 있어서의 速記士의 勞苦가 國民의 認識을 받게 되리라고 믿는다. 國政을 論議하는 國會의 活動相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記錄하여 여러의 高貴한 執政史상의 발자취를 남겨 놓고 있는 速記士의 일은 勞苦야말로 기록하고도 燦然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各報公談機關에 있어서의 그들의 活動이 漸次 增加되리라 생각한다. 世上에 그의 알려지지 않는 그들의 일은 功勞를 높이 致賞하며, 앞으로의 活動에 크게 期待하는 바이다.

論壇

速記의將來性

張 惠 根

人類文明은 오늘날 極  
 度로 發達하여 敵의來襲  
 을 未然 探知하는 電波  
 探知機類가 出現하여 그  
 빛날의 防空의露兒 聽音  
 機를 藥物化시켰고 水素  
 彈의 威力은 百耗 二百  
 耗의 砲彈을 無色게 만  
 들고있다 未來에는 또  
 어떠한것이 出現할는지  
 우리는 予測할수도 없으  
 리만큼 人間の 眼筋들은  
 앞을 向하여 실사이없이  
 움직이고있다  
 二千年前, 티로가  
 키게로"의 雄弁을 略記  
 하고있을때, 티로"는 寓  
 實的인 現今의 完全한  
 速記法을 擘擘 夢想에서  
 만 그려보았을것이다  
 끝날줄모르고 勵作되고

있는 人間の進取性과 總求性은 앞으로 우  
 리速記界에도 어떠한 劃期的인 務履을 가  
 저울것인지  
 이미 우리는 錄音機라는 새로운 文明의  
 利器의 挑戰을받어 새로운角度에서 우리를  
 再檢討케하고있다 하나 一部 科學者들사이  
 에 研究되어지고있는 發言과同時에 文字化  
 되는 所謂 다크터 포너 (DICTA PHONE)  
 이라는것이 完成되기 前에는 錄音 그自体  
 에만 그치는 이錄音機는 擘擘 速記의 補  
 助的인 役割에만 그칠것이다  
 빠르면 우리世代에서 그 出現을 볼수있  
 을것이지요 不然이면 다음世代에 宿願로서  
 넘겨질 이 다크터 포너"의 出現에앞서  
 우리 速記同人들은 未來의 課履을 무엇으로  
 보며 如何한 形態속의 速記의將來를 期的  
 할것인가를 생각해볼때 于先 우리는 學術  
 的인 所應과 普及化에 注力함으로써 未來의  
 課履을 完遂하고 速記의 普遍化로 高度의 文  
 化水準을 이룩하는 將來의 社會를 期約하  
 는것이 우리世代 速記同人들의 任務가아닌

가 생각한다

첫째, 學術的인 면에서 考察하여 볼 때 우 리는 아직도 開拓의 余地가 있다고 본다

現在 우리의 速記能力의 基準을 三百字 (一分時)에 두고 學的인 体系를 세우고 있으 나 飛言의 速度는 그 이상은 凌駕하여 오

는날 三百=三十字 乃至 三百五十字 一甚 至於는 三百七=八十字 (概算)의 線을 넘어

飛言하는 사람을 數多히 보고 있다

때로는 너무나도 빠른 飛言이기 때문에 音自體만을 收錄하고 있는 錄音機에 依存하

드라도 音에 再生시켜 보면 어떠한 飛言이

있는지 그 言語自體의 分練조차도 해아릴 수 없는 飛言速度의 記錄保持者도 間或 散

見될수 있는 實情에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아직도 우리는 法式 改良의 向上의 余地가 있다고 본다

또한 反文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現在 우리의 速記時間의 十倍乃至 十二倍를 必要로 하고 있는데 歐美各國에 있어서는 不

過 二=三倍의 時間을 消費하고 있을 뿐이다

勿論 이것은 우리의 速記士들에게 責任이

있는 것이 아니요 客觀的인 具備條件 即 歐

美各國에서는 速記 후에 記錄化하는 데 打字 機를 驅使하고 있기 때문이요 文字構成이

簡單하기 때문이다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打字機의 完全使用化를 보지 못하고

있고 文字構成에 있어서도 劃數가 너무도

지나치게 많은 漢字를 數多히 飛言者가 쓰

고 있는 까닭이다 또 그 漢字로서 自己飛言이

記錄化되기를 願하고 있는 人士가 大部分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干先 國文

專用이 忠實히 履行될수 있다면 反文時間은 能히 五=六倍로 短縮시킬수 있을 것이요 完

全無比한 打字機의 出現을 보게 되면 歐美各 國과 同等한 水準의 反文時間만으로도 充

분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亦矣 客觀的인 具 備條件이나마 우리 速記分野를 알고 있는 同

人들로서 輕視하지 못할 條件이요 上述한 바 와 같은 環境造成에 盡力하여야 할 것이다

美國에서는 現在 大部分의 高等學校에서

速記法을 習得시키고 있고 事務系統에서 勞  
 働하고 있는 應徵人들은 大部 速記를 잘 할  
 알고 또한 必帶條件으로 되어 있다고 傳하여  
 지고 있다. 政府가 樹立된지 日淺한바도 있고  
 三十六年間の 日帝國語林稅政策으로 國文學  
 發達에 莫大의 裨益을 招來하였다는 不利한 環境의  
 탓도 있었지만 우리는 아직 速記를 技術이  
 라는 分野에 두어 어느 一部特殊한 사람만이  
 習得하고 能力者가 되고 있는 實情에 있다. 이  
 는勿論 速記習得에는 相當한 忍耐力를 必要  
 로 하고 있다. 點도 及했지만 速記法普及에  
 야 許多한 難點이 介在하고 있기 때문에 普及  
 에 完滿을 期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前者의 境遇에 있어서는 우리 速記人들이 學  
 的인 構面에 좀더 研究를 加함으로써 보다 容  
 易한 習得法을 考案하여 내는 데 注力함으로써  
 解決될 수 있는 問題일 것이나 前者에 있어서  
 是社會의 客觀的인 立場에서 있는 人士들의  
 協力乃至는 文敎行政을 担当하고 있는 當路者  
 들의 協力如何가 絶對的인 條件으로 되어 있다.  
 이대 我那에서 또 一 部 高等學校와 實業學

校에서는 速記法을 習得시키고 있으나 其餘에  
 있어서는 市井의 一部 有志들이 私財  
 를 捐하여 私立한 學校 院營을 維持하여 나  
 가고 있는 程度에 不遺하다. 萬一 이것이 全  
 的으로 各高等學校에서 敎育課程으로 採  
 取된다면 不遠한 將來에 速記의 普及는 取  
 易하게 可能할 것이요 따라서 記錄은 必要로 할 때  
 에는 간단히 速記士를 配置시켜 完全無缺한 記  
 錄을 作成하는 데 無難할 것이고 구하여 거  
 장스럽게 錄音機를 準備하고 여기에 附屬되는  
 電氣나 마이크를 裝置하는 등의 煩雜스러운 設  
 備에 泊沒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設使 錄音  
 을 하더라도 이보다도 記錄化하는 데  
 速記의 及文時間보다 三四倍나 더 消費하고  
 勞力을 虛夫할 必要는 設계될 것이다.  
 學術的인 面의 再檢討과 改良向上 速記法의  
 普及 이것이 우리들에게 負荷된 未來의 課  
 題라 하면 비지네스맨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速記의 普及를 보는 것이 우리 世代의 將來를  
 期約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아날까.....  
 四二八九年九月

論壇

一人一技로서의 速記

速記學의 普及를 爲하여

黃 圭 鎮

(一)

一人一技라 하면 한 사람이 자기 배운 學問的인 知識  
 以外에 한가지의 技術을 習得한 것은 말할 수 없다  
 누구나 다 잘 아는 바이다. 그런데 이러한 말은 過去  
 에는 도무지 찾아 볼 수 없는 말로서 近來 우리  
 仁川港으로부터 輸入한 것이든 어쩔든 民主主義를 興  
 發에 옮기게 된 後부터 學校教育의 一重要目標로서 新  
 唱되게 된 것이다. 過去 우리 社會에는 儒家의 思想  
 에서는 官尊民卑와 文人을 崇尙하고 生産階級에 屬하  
 는 百姓들을 賤視하는 社會的 惡習으로 이러한 觀念  
 이 아직도 다가가지 못한채 或 우리들의 머리속에  
 남아있기도 하다. 그래서 國民이라든지 또는 特히  
 技術者에 屬하는 사람은 아예 되려고 생각지도 않고  
 머물수 없는 形勢에 處한 사람만이 本意아닌 職業을  
 執하여 이에 對매이고 있는 形勢이다. 그러나 우리  
 는 아직도 自立할 經濟的인 能力을 갖지 못하고 外國  
 의 援助에 依存하고 있으니 이러한 社會的 遺産으로  
 내려오는 古루한 觀念을 打破하여 實質上 國民 勞動  
 者의 技術者에 對한 社會保障制度를 樹立하여야 하리라  
 고 본다

島山 安昌浩先生께서는 일찌기 말씀하시기를 우리民族이 日帝의 殖民生活에서 解放하여 自主獨立을 하자면 普通以上の 學識과 아울러 自己의 生活向願을 解決할 手段以上의 技術을 가진 指導者가 必要하다 고 하여 舊産에 對한 技術專의 習得을 主眼하시바시다. 이것이 所謂 오늘날 말하고 있는 一人一技일 것이다.

人間은 平等히 出生하였으며 出生과 더불어 平等權과 自由權을 가지고 있음은 現世代에 生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認定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 憲法에도 두 것이 이를 明文化시켜 놓았다. 科學文明이 最高度로 發達한 오늘날이므로 오히려 技術者의 待遇가 뛰어나아 졌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직 官尊民卑의 思想이 完全히 抹殺되지 않고 또 세대가 自立經濟를 維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一人一技教育이란 觀念的인 面이나 實際的인 面 그 어느 점을 보더라도 必要하다는 것을 力說하지 않을 수 없다.

(二)

그러나 一人一技로서는 速記를 말하자면 먼저 眞心을 많이 가지고 있는 速記의 技術性에 對한 밝힘이 있을 수 없다. 흔히 사람들은 速記라면 사람이 어떠한 機械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단지 손으로 연필을 움직이는 것뿐이므로 技術이 아닌 것같이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速記에 對한 認識이 不足한 사람만의 말수 있는 말이다. 速記란 確實히 하나의 技術이요 速記士란 그 技術者임에 틀림없다. 勿論 人間の 頭腦에서 創造된 異常한 文字를 가지고 記述하는 것이므로 그 速記 文字를 어리게 暗記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故 日月을 두고 뒤 뒤리하는 練習으로 손에 익혀져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自動車運轉手의 技術과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技術性을 가진 速記精에는 다른 技術과는 아주 相異한 特性이 있다. 一般적으로 技術이라 하면 말할 때면 어떠한 機械를 움직이는 것으로서 그 機械의 奴隸처럼 되어 있

지만 速記는 雜誌의 編輯技術과 같이 機械  
 를 用지기는 技術이 아니고 人間の頭腦과  
 關係는 なく 그리고 그 외에 宗의 鉛筆이 必  
 要할뿐 다른 아무런 器具를 要求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러한 速記가 지닌 特殊性이 一人  
 一技로서 우리에게 가장 適合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面으로 생각할 때 이는 工場의 職  
 工들처럼 團體生活를 반드시 要하는 것도 아  
 니고 혼자서도 充分히 그 技術性을 發揮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 便利하다고 보는 것이다  
 政治思想의 發達은 마침내 民主主義思想  
 을 抬頭시켰고 참다운 民主政治의 眞蹟은  
 議會政治로서의 政黨政治를 涵으로써만 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十萬의 善良한  
 國民을 代弁하는 議員이라면 眞實으로서 國  
 民의 意思를 代弁하지는 못할 것이오 오직  
 雄弁만으로써 議會에서 鬭爭할 수가 있는 것  
 이니 議會政治의 歴史란 오직 議會에서  
 行하여진 議員들의 發言을 記錄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고 民主主義國家에  
 서 가장 重要한 言論의自由, 出版의自由等

等으로 國民의 輿論은 新聞 등의 報道에 依  
 해서 表現되고 이에 依해서 善政이 出  
 어지고 있으니 人間이 使用하고 있는 文字  
 로서 記錄할 수 없는 迅速한 發言內容을  
 特別히 速記文字로서 記錄하여 文字化시킨  
 다는 것이 얼마나 民主主義社會에서 必要하  
 며 또한 그 貢獻하는 바 크다는 것을 速記  
 人들은 스스로 自負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科學文明의 最高度의 發達로 錄音機 또  
 는 機械速記 등의 機械로서 速記의 不必要  
 함을 臆說하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錄  
 音機는 그 發言의 內容은 勿論 그 音程까  
 지도 記錄할 수가 있지마는 이를 文字化시  
 켜 歷史的으로 保存하지는 못하고 있다  
 歷史的인 保存이 必要하여 文字化하려 할  
 때는 速記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一  
 般人 特別히 速記에 關心을 가진 人들은  
 알아두어야 할 點인 것이다  
 人間の 速記術을 機械化하자면 아직도  
 數百年의 研究가 必要한 道양이다  
 健全한 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 速記術이



란 누구나가 習得해 두어야 할 技術이다  
 그리고 또 이를 生活手段化한다고 하든  
 라도 현재나 그 需要에 비해 供給이 不  
 足한 狀態이므로 그것 亦長 自己가 完全  
 한 技術者라고 公認된다면 問題外의 事일  
 것이다

오늘날의 學校教育의 目的과 그 方法을  
 보면 過去 日帝時에 行하여지던 注入式  
 教育方法을 打破하고 아지 完全하다고는  
 할수 없으나 社會의 有能한 人材를 養成한  
 다는 目的아래 生活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社會가 要求하는 指導者는  
 觀念的인 理論에만 汲々하는 無能力한 人  
 類이 아니오 社會의 어느 部面에 부닥치  
 더라도 能히 解決하여 處理할수 있는 有  
 能한 指導者를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生産部面에 參加하는 사람들이 決코 跋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世の上에서  
 가장 尊持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차차  
 民이 官을 屬해서 存在하는 것처럼 보이면  
 생각도 사라져가고 이젠 官이 民을 屬

해서 있는 節 國民의 公僕으로서 官人이  
 存在한다는 생각이 普遍化되어 있다

(三)

韓國의 速記學 分野는 아지도 未開拓狀  
 態에 있는 處女地이다 速記學이란 特殊  
 技術者만의 專用이라는 沒理解도 여기에서  
 나오느 것이다 그러나 速記란 그 利用  
 範圍가 너무나 우리 日常生活에 密接한  
 것이므로 큰 利害한 생각만 하고 있어가  
 지고는 社會文化發展에 支障을 招來할 辨  
 이다

美國人을 볼것 같으면 「타이프」와 「쇼트  
 린드」란 大學生 및 秘書들의 常識化한 具  
 備條件이다 오직은 韓國에서도 「타이프」  
 는 「인테리」의 兼補해야 할 條件으로 常識  
 化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가장 有効하게  
 쓰일 速記도 一般人들의 常識으로서 알아  
 두어야 할 것으로 그 認識을 새롭게 하고  
 널리 그 技術性을 普及시켜야 하겠다

過去에 비해 어느程度 그 認識이 새로  
 워져가고 이를 習得해야 되었다고 그 必  
 要件을 切感하는 사람의 數도 늘어가나  
 이를 習得하는데 必要하는 時日과 努力  
 特別 忍耐을 하지 못하고 中途에 抛棄하는  
 사람이 大部分이라 더욱 그 普及이 지연  
 된다

忍耐하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一獲千金하  
 려는 稀履性있는 韓國人の 尤랄리도 甚한  
 생각 때문이다

韓國이 다른 先進諸國에 비해 文明에  
 있어서 數百年이나 뒤떨어져 있음을 自認  
 하면서 一獲千金하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것은 自國의 後進을 더욱 助長하는  
 것 以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게으른 생각을 버리고 忍耐力을 기르며  
 速記의 常識化를 爲해 一人一技教育을 主  
 張하던 學校教育의 目的에 呼應하여 速記  
 學은 高等學校의 一教科目으로서 編  
 成하여 누구나나 高等學校卒業者면 常識的  
 으로 알도록 하여야만 더욱 社會生活을

當爲함에 便利할 것이다  
 速記가 技術임은 事實이다 그러나 決  
 코 特殊技術者의 專用인 技術은 아닌 것  
 이다

「뉴스」의 正確과 迅速을 그 生命으로  
 하는 新聞의 記事를 撰述하는 「피너리스트」  
 라면 速記를 常識的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  
 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人間이란 결코 으렁을 바라고 살수는  
 없는 것이다 自己의 努力의 結果로서  
 주어지는 幸運은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現代의 「인쇄리」는 忍耐로서  
 速記를 까지도 常識化하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社會文化의 發展을  
 爲해 速記를 高等學校의 教科目으로 編入  
 하고 또 이제 겨우 學的體系가 서고 있  
 는 速記學을 더욱 簡便하게 할 研究者의  
 教師를 養成하여 名實 共に 一人一技의  
 教育을 實踐에 옮기도록 하여야 하겠다

(끝)

# 常任委員會의

## 速記錄作成問題를中心하여

金 鎮 基

虛空에 살아지는 名人 達士의 名言 名談 名論의 史的  
 實態의 文字化의 必要性을 痛感한 나머지 構想된 速記學將  
 自體의 歴史가 日湯한 까닭에 長久한 歷史를 지닌 議會는  
 그 草創期時의 速記錄을 保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大韓民國議會는 時期的으로 보아 速記術이  
 發達한 最近世에 創設된 關係로 그 草創期부터의 史實을  
 生생하게 記錄하여 後世에 傳하게 되었다  
 이제 本論에 들어가기 前에 우리나라 議會速記의 初期로  
 부터의 實態를 暫時 살펴보면 그 始點은 檀紀四二七九年  
 十二月十二日에 設立된 南朝鮮憲法立法議院이라고 볼수있다  
 그當時 立法議院의 速記錄을 担当할만한 速記士는 全國의으  
 로 大名에 不遇하였다  
 速記士의 수가 이와 같이 적었음 뿐만 아니라 그들의 速記  
 實力도 大膽히 不充分한 때였으므로 그들만의 能力으로서는  
 아무리 精誠을 다하여 晝夜 二十四時間을 繼續 勤務한다  
 하더라도 同院이 要求하는 程度의 速記錄을 作成할 餘수는  
 到底히 없었다  
 及其也 速記停止에 관한 決議案이 院議로 採択되기에 이르  
 러 開院당시 七和月間인 四二八〇年七月十日부터 立法議院의  
 速記錄作成은 一時 中斷을 免할수 없는 運命에 處하게 되  
 었다

그리하여 速記를 廢止한 立法議院은 彌  
縫策으로서 一般職員으로 하여금 略記를 시  
키고다가 同年十二月에 再次 大名の 速記  
士를 採用하여 立法議院이 解散될 때까지  
屢次히 速記錄을 作成하여 왔다

其後 檀記四二八一年六月에 創設된 大韓  
民國制憲國會는 初期부터 十二名の 速記士  
採用이 可能하게 되어 完全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래도 立法議院當時에 比하여  
종러 充實하고 迅速한 速記錄을 作成할  
段階에 이르렀으며 翌年 四月에는 다시  
四名의 速記士를 增員하여 都合 十六名으  
로서 비로소 速記錄다운 速記錄을 作成하  
기 始作하였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議會가 創設된지 이미  
八年이 經過하였음에도 不拘하고 議會速記  
는 單只 本會議에만 利用되고 있을뿐 尙  
今도 各常任委員會에서는 거히 不利用狀態  
에 있다

이는 現在의 國會運營이 常任委員會 中  
心主義가 아니고 本會議中心主義를 採択하

고 있기 때문이다

本會議의 議事能率을 向上시키고 아울러  
能率있는 立法府를 具顯시키기 爲하여서는  
常任委員會中心으로 國會를 運營하여 立法  
審議를 迅速히 處理하는 것이 妥當하리라고  
思慮되는 나머지 肇昔는 이제 附隨되는  
條件으로 各常任委員會에서도 速記錄의 作  
成이 尙히 必要하다는 것을 力說하여 마  
지 않는 바이다

무릇 常任委員會라 함은 議會制度의 效率  
的 運營을 期하기 爲한 機關으로서 各  
部門別로 專門的인 審議와 檢討를 加한  
右에 本會議에 附議하면 本會議에서는 該  
當 常任委員會에서 附議한 案件을 全體議  
員의 意思로써 採択與否의 決定을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常任委  
員會에서 審議完了된 案件이 本會議에 上  
程되기 前에 반드시 그 案件은 專門的으  
로 審議檢討한 當該 常任委員會의 速記錄  
을 全體議員에게 配付하여 全體議員들로  
하여금 常任委員會에서의 專門的인 審議의

經緯의 그 結果를 同知시켜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本會議에서의 重複되는 論議를 避할 수가 있으며 따라서 本會議의 議事進行을 迅速히 하여 議會運營의 能率을 向上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常任委員會에서 行政 行政府 公務員의 証言이 本會議에 와서 相雜되는 境遇가 往々히 있어 議事進行에 混亂을 惹起시키는 專 弊하면 全體議員들로 하여금 常任委員會의 決定自体를 不信하게 하는 結果를 招來하는 事例가 있음에 繼하여 그러한 弊端을 除去하는 方法의 하나로서 도 奧로 常任委員會의 速記録을 作成하여 行政府 公務員의 責任있는 証言을 証憑化함으로써 그러한 弊端도 解消되리라 고 믿는다.

이 밖에도 許多한 理由가 있겠지만 如斯한 意味에서만 도 常任委員會의 速記録作成이 얼마나 重要的 課題인가 라는 것은 充分히 認識될 것으로 믿는다. 바이다. 이와같이 常任委員會의 速記録도 作成되

어야 한다는 必要性을 次々 認識하게 된 國會議員들은 누구나 異口同聲으로 이들 力를 합치려 해도 다만 國家財政形勢上 政司工 具體적인 論議를 하지 못하던 중 昨年 五月十八日자로 申奎植議員外 十六人으로부터 「各常任委員會에 速記士配置에 관한 決議案」을 提案하게 됨을 契機로 하여 各常任委員會의 速記録作成問題는 비로소 具體적인 論議段階로 들어가게 되었다.

當時 議會에서의 速記録作成은 本會議과 予算決算委員會(予算決算委員會는 四二八六年一月二十六日 新設과 同時에 大名の 速記士를 採用하여 그 第一次會議부터 速記録을 作成하여 왔다) 그리고 無時로 設置되는 特別委員會에 限하였고 그밖에 他常任委員會에서는 行政府 公務員의 重要的 証言擧取가 있을 때만 尙或 速記録을 利用하여 証憑書類로서 保管하는 程度에 지나지 않았고 速記録은 印刷하여 格刊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던 중 前記한바 申奎植議員의 提案을

契被로 民議院速記錄에서는 運營委員會의 指示에 依하여 申奎植議員의 提案에 副應 升은 速記士의 增員과 아울러 速記錄印刷 費等에 所要되는 一切의 予算을 算出하여 본 結果 速記士의 增員은 實로 六十名에 達하여야 하였으며 其他 速記錄編輯職員의 增員 印刷費 備品費 消耗品等에 所要되는 經費는 年間 一億餘圓이라는 極大인 數字 가 算出되었다

그러면 常在委員會의 速記錄을 作成하는 데 必要하여 六十名이라는 多大數의 速記 士가 必要하냐하는 質問이 나옴이므로 이므로 여기에서 六十名이라는 速記士의 數를 算出 하면 그 根據를 紹介하면 먼저 記者들은 速記士數의 算出基準은 各常任委員會의 會議時間에 依해서 算출수 있다는 事實을 認識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 그러냐 하면 두사람이 一組로된 速記士가 速記를 하여 그 速記文字를 普通文字(國文)로 反文해 낼수 있는 能力은 하루에 十五分以上의 實際記錄時間을 超過할수 없다는 嚴格한

限尺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現在 一 日平均 二時間五十分의 會議을하여 本會議 에서 速記에 從事하는 速記士의 數가 二 十二名에 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各常任委員會의 總會議時間은 本會議의 總會議時間보다 三倍的 時間을 所要하고 있다는 것이다. 即 第三代國會의 開 院初日 第十九回國會로부터 第二十一回國會 까지 三會期의 本會議과 各常任委員會의 會議回數와 會議時間을 數字的으로 對比可 보면은 同期中 本會議의 總會議回數는 二百九十九回로서 그 二百九十九회에 所要 된 總時間을 合算하면 八百三十三時間十五 分이었고 各常任委員會를 統合한 總會議回 數는 一千四百二十七回로서 一 會議에 所 要된 時間은 二千四百七十七時間이었다. 이것을 比率로 따져보면 各常任委員會를 統合한 總會議回數는 本會議의 回數보다 四七倍이며 時間으로는 二九倍임을 알수 있 다. 이와같은 根據에서 各常任委員會의 速 記錄作成을 爲하여서는 不得不 本會議에

所要의는 速記士數(二十二名)의 三倍程度  
인 六十名이라는 數字가 算出되되 餘는 餘  
는 餘이다

以上과 같이 極大한 人員 (速記를 理  
解하지 못하는 人士들은 極大하다고 짐  
내라고 있다) ... 과 予算이 必要하다는  
報告에 據한 民議院運營委員會에서는 國家  
財政形勢上 그리한 莫大한 予算을 一時에  
增額하기가 困難하므로 于先 그 第一段階  
로써 十五名의 速記士와 四名의 編輯職員  
만을 增員하기로 決定을 보아 四二八年  
度 第一回歲入歲出追加更正予算에 計上되었  
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十五名으로서 各  
常任委員會와 特別委員會의 速記를 担当하  
는 하나씩의 係가 民議院速記課內에 新設되  
었으나 十五名이라는 數字는 前述한 各常  
任委員會의 速記錄作成에 絶對所要의는 大  
十名의 四分之一에 不過하므로 現在로서는  
不得不 重點的인 執務가 不可避한 現狀인  
것이다. 多幸히 現在 正常的인 速記錄作  
成을 要求하고 있는 常任委員會는 予算決

算委員會 國防委員會 復興委員會等 三院常  
任委員會에 不過하므로 十五名으로서 能하  
前期의 任務를 完遂할 수가 있으나 万一  
常任委員會 中心主義로 國會가 運營되어  
余他的 各常任委員會에서도 各各己 速記錄  
作成을 要求하여 燒遇에는 十五名의  
能力으로서는 到底히 堪當할 수 있는 困境  
에 빠지게 될 것이다

가까운 日本의 例만 보더라도 日本國의  
衆議院에서만도 百二十名의 速記士가 있  
어가지고 本會議는 勿論 各常任委員會의  
速記錄을 作成하고 그 速記錄이 官報附錄  
으로 刊行되어 會議한 翌日이면 全國 어  
디에서나 그前日 國會에서 行한 모든 會  
議의 進行狀況을 記錄한 速記錄을 有權者  
인 國民이 購入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  
다. 參考로 附記할 것은 日本國 議會速記  
士의 一日의 實際記錄時間은 二人組 一班  
이 十分向이며 따라서 一日平均會議時間도  
年中 能院前議되는 우리나라 議會보다 長  
時間을 要하기 때문에 一院에 百二十名

이라는 速記士가 必要한 것이다

以上과 같은 見地에서 우리 나라 議會에 있어서도 各常任委員會의 速記錄作成에 万念을 期하기 爲하여서는 앞으로 最少限 四十五名의 速記士增員이 이루어지기 前에는 絶對로 不可能함은 明若觀火한 事實이다

그리고 各常任委員會의 速記錄作成을 屬하여서 極히 形式的인 向限이지만 然가지 看廻할수 없는 向限가 있으나 그것은 큰 國合法에 對한 是非인 것이다

即 國合法 第五十九條에 「國會는 速記錄을 作成하고 議事日程 報衆 議員의 發言과 諸般의 報告 其他事項을 記載한다

議員이 그 演說의 參考로서 簡單한 文書를 速記錄에 掲載코저 할 때에는 議長에게 許可를 請하여야 한다

演說社 議員은 速記錄의 簡單한 字句의 訂正을 請할수 있다 但 演說의 趣旨를 變更할수 없다」라고 해서 本會議의 速記

錄作成에 對하여는 法的 明文規程이 있으나 國合法第三十條 各常任委員會에 關한 規程에 對하여는

「委員會는 委員會會議錄을 作成하고 出席者의 姓名 登在의 經過 決議의 要領 表決斗數 其他重要한 事項을 記載한다」라고만 되어있을뿐 速記錄을 作成하여야 한다는 明文規程이 없다 그러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本會議中心主義를 採択하고 있는 國合法이 라고 볼수 있지만 然어도 議會의 能率的인 運營을 圖謀하기 爲하여서 常任委員會中心主義로 나아가자면 全體委員會는 正當的으로 速記錄을 作成하여야 될 것이고 다

과서 이에는 國合法의 改正이 隨件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多幸히 方今 民議院運營委員會와 法制委員會에서는 年來의 宿願이었던 議會運營의 能率化를 期하기 爲한 國合法의 全面的인 改正을 準備중인바 그 國合法改正

法律案(草案)의 內容을 보면 從來의 本會議中心主義를 止揚하고 常任委員會中心主義



을採択하고 하나의方途로서 常任委員會各議의  
公開原則과 速記錄作成을 包含하고 있는 것이  
다 卽 同條第六十七條에 「委員會는會議錄  
과速記錄을作成한다」라고되어 明文으로서  
委員會의 速記錄作成을 規定하고 있다 同條  
案은 運官委員會와 法制司法委員會의 連帶  
會議에서 細部的인 條文檢討을加한 다음에  
改正法律案으로서 本會議에附議하게될것인바  
現在 民議院內의 모든事項은五보아 同條案  
대로의 國會通過는 無難視되고있다 이로서  
常任委員會의 速記錄作成을爲한 法律的인根  
據는 確立될것이며 남은向願는 前述한程度  
의 最少限의 速記士增員에 隨伴하느 予算  
滿成向願만이 남아있다고 볼수있다

x x x  
現在推選中인 國會法改正法律案이 通過된  
다면 民議院에서는 最少限四十五名의 速記士  
를 增員하게될것이 되지않아 到來할것이며  
또한 參議院이構成된다면 거기에도 數十名  
의 速記士가 必要하게될것인데 그러면 우의  
速記界는 果然 主要에應할만한 速記人을

保有하고 있는가? 自問하지 考을수 없다  
勿論 全國的으로 總網羅하여볼때 速記를  
한다고 自處하는사람은 數百名三칠수있을것  
이나 그중의速記實力이 果然議會速記를 堪  
當할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라는데는 「차지  
다」는 말을 하기 어려울것이다

現在 서울市內에서 速記의 不充全을 自  
認하여 自己實力의 不充全을 辨通하면서 速  
記를한다고 自處하고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사람을 莫아 似而非 速記  
者協會를 構成하여 統領으로 浮圖深利를  
圖謀하고있는 人士가 있으니 實力있는 完  
全한 速記士의 數의 不充全을 補償하기가 難할수  
없다

速記는 나날이 知性人들의 認識을 새롭  
게하여 그 必要性이 날로 高潮되어가고  
있다 그 艱難한 任務 우리 速記界는 모름지  
기 그 需要面에 充當하기 爲한 有能한  
速記士輩出에 非常한 努力을 傾注하지 않  
으면 不堪 時勢임을 自覺하여 所期의 任  
務遂行에 方全을 期하여야 할것이다 (끝)

連載

議會를中心으로 한

速記의發達

民議院速記課長 金震熙

俗談에 「書堂가(狗)三年에 風月을 弄는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쓰이는 地邊는 洞의 남쪽 嚮拜하거나 嚮笑거리로 삼을 때에 땅이 쓰이는 말이나 善惡로 解釋한다면 같은 種類의 環境에 長時日 머물러 있으면 재아무리 無能하고 微物인 存在일지라도 조금은 健全한 點이 있다. 뜻으로 된 것이다. 速記技術人이 아닌 나도 偶然한 機會로 速記人과 자주 接觸을 할 수 있는 職場을 担하게 된 것이 因緣이 되어 願目 그대로 十年 가까운 時日을 躬에서 速記를 보고 있는 동안에 재법 速記에 對해서 아는 처하는 自身을 發見할 때에 前示한 俗談이 나의 腦裏를 스치게 되어 所謂 書道狗式 速記觀에 對하여 善笑를 發할 수 있게 된다.

編輯者의 懇請으로 願目에 對한 나의 皮相的觀察이 나와 記錄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의 參考가 되는 點이 있으면 甚幸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速記가 工夫를 相當할 수 있게 된 것이 八一五解放后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勿論 解放前에도 우리 速記術이 研究되었고 講

習會 등에서 速記를 利用한 것은 事實이지만  
 는 速記術의 體系가 未備한 狀態에 있었다  
 따라서 講習會의 速記를 한다 하더라도  
 三四人이 速記를 하여 가지고 이것을 다시  
 綜合하여 매꾸어 가지고 反文을 하여 내놓는  
 程度이며서 現在의 速記能力者라는 概念에  
 符合되는 速記人材의 出現은 期待할 수 없으  
 崔안이나 그뒤에 日帝의 酷虐한 朝鮮籍  
 林稅政策은 우리 速記術의 發展의 束地를  
 束地같이 封鎖하였으니 우리의 速記術은 가  
 장 緩進된 채로 解放을 맞이하게 되었다  
 解放과 더불어 이 極히 緩進된 速記術을  
 育成發展시켜서 實用의 水準까지 올리는 任  
 務는 當時의 速記人에 賦課된 至上命令이  
 었다. 이 任務의 遂行은 오로지 五六人에 不  
 暹한 速記人의 自覺에 期待하는 수밖에 없  
 었다. 그것은 解放直后로 말하면 아직 우리  
 自體가 日帝의 抑壓政策의 死燒에서 在  
 新 蘇生되어 우리 自覺을 갖는데 尙 殘存 在  
 고 余念이 있었던 時期이며서 速記術에 對한  
 社會的 認識이 稀薄했음 뿐만 아니라 速記需要

에 對한 必要性이 社會文化面에 까지 深刻  
 하게 느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文化政策으  
 로서 速記術의 保護育成策이 等閑視되었  
 던 事實을 考慮할 때에 草創期의 自覺한 速  
 記人의 情熱的인 開拓精神만이 우리나라  
 速記術의 價格을 이룰수있고 그뒤에 善과  
 非를 辨일수있는 唯一한 活素劑가 될수있  
 는 까닭이다. 이것은 個人의 利害打算은  
 超敵한 技術者로서의 矜持와 先見과 公共  
 心과 努力을 土臺로한 活動이기 때문에 崇高  
 하고 價值있는 事業이 되었고 이 苦役을 自  
 進한 當하게된 冥분의 心은 功勞에 對하여는  
 先覺人으로서의 尊敬과 功勞에 對한 感謝  
 의 心을 最大限으로 表現아니할수가 없다  
 어쨌든 이 時期의 速記術은 社會의 是  
 主 非難된 狀態에 놓여있었고 오직 앞날  
 의 希望을 바라보며 이 速記先覺人의 努  
 力에 依하여 速記術의 自立의 基礎工事が  
 屬々 準備되어가는 時期이었다. 이 時期  
 不暹한 環境속에서 各々 體系화시킨 速記  
 術이 實用의 要請을 받게된 時期는 比較

的 벨리 到來했다

그것은 南朝鮮 獨立法 議院이 誕生하게 됨  
으로 알미 아다 解放后 처음으로 速記의 實  
需要者가 나타나게 되었고 여기에서 路傍의  
들과도 같이 잊어버렸던 存柱인 速記術은  
비로소 時代의 脚光을 받게 되었다

四二七九年十月에 設置된 立議事務廳은  
前院事務에 바뻐다 當時 事務總長 全奎  
弘博士는 前院을 앞두고 院의 記錄官은 速  
記를 採擧할 것을 決定하고 于先 速記士의  
募集에 着手하였다 當時는 國內에 우리  
말 速記士의 存柱與否조차 疑問되는데라 臨  
渴掘井格으로 全國的範圍에서 速記士를 求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速記士는 좀처럼  
나타나지를 았았고 院의 人事課는 速記士  
의 出現을 鶴首苦待할 따름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速記를 할수 있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다 人事係員은 무슨 큰 橫財나 한 것 같  
이 가합을 올림거리며 이 神奇로운 技術  
者를 面接할 것 같으면 自己는 速記이니까 (勿論 普通文字) 演說을 배어 쓸 自信이 있

다는 尙句에는 벌어진 일이 달치지 않도록  
失望할 뿐이었다

모든 前院準備는 予欠대로 續々 進行되  
었지만 다만 院의 記錄을 맡을 速記士만은  
감정消沈이어서 失望과 怠懶을 느낀 院의 人  
事課에서는 直接 採擧隊를 派遣하여 速記  
士를 索出하는 行動까지 取하기에 이르렀  
다 이러한 努力이 奏效함인지 여섯사람  
의 速記士를 求하였다는 것은 邦家を屬하여  
實로 多幸한 일이라 하겠다

이 應募된 速記士는 各々 自己式으로 해  
案된 速記體系를 마련하고 있어서 各派式의  
元祖格인 速記士들이었다 이以外에 院의 欠  
涉을 받고도 아지 우리나라 速記는 完全體  
記의 段階에 到達하지 않았으니 院의 速記를  
맡는 것은 段心에 許諾치않으니 辭讓하였다  
는 辭讓한 분도 있었다는 事實은 後日에 안  
본이다 前局에도 잠간 言反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 實用速記는 이분들의 自覺으로  
速記의 土台가 이룩되었고 이분들이야말로 速  
記의 歷史가 日淺한 우리 速記界의 中興祖也

이라는 稱호를 받은 人 物 也 矣

그리하여 院으로서 本 會 會 長 待 遇 是

當時 事務 總 長 全 奎 弘 博 士 의 技 術 會 社 理

解 任 을 表 示 하 는 故 也 總 長 의 報 酬 比 多

述 記 士 의 報 酬 가 多 故 也 事 實 은 初

創 始 的 述 記 士 會 社 理 會 是 報 酬 이 多 故 也

四 二 七 九 年 十 二 月 十 二 日 十 二 時 에 立 法 院

院 式 을 舉 行 함 에 在 어 서 그 演 壇 上 에 是 瑞

祥 하 게 開 會 된 述 記 席 位 一 處 有 在 矣 矣

이 故 也 述 記 가 實 務 會 社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이 故 也 述 記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의 故 也 述 記 錄 을 手 에 是 立 法 議 員 會 會 社 會

神 妙 한 技 術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快 哉 의 歡 聲 을 聞 았 던 故 也 述 記 會 社 會

成 功 을 祝 賀 하 는 故 也 述 記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이 文化技術이 政治人들에게 自然  
科學技術 乃至 國家全般的 技術政策의 構  
立에 관한 希望과 檢討와 方向을 提供케 드  
릴수 있는 契機가 되었다면 이는 速記로서는  
望外の 榮光이 될 것이다

立法機關이 兩會가 되자 큰 院法을 制定  
하는 事業이었다. 그런데 이 院法의 制定에는  
많은 時間이 消費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法案을 審議한다는 것이 그리 簡單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아직 會議進行이 이속하지 못한 데  
에서 原因될 것이지만 民主主義를 體  
驗하고 實踐하는 것은 短時間에 이룩할 수 없  
는 날이기 때문이다. 中步가 아니라 正  
確한 코스를 밟아야 할 것이다

院法을 制定하는데 많은精力과 時間이 消  
費되었다. 速記를 始作한지 月餘가 된다고  
記憶한다. 이때에 우리는 速記士의 顔面에  
救勞의 빛이 빛든 것을 볼 수 있었다

議會에서 速記士가 担当한 記錄重은 確  
실히 過重했다. 會議가 回數를 거듭할수록

速記士는 漸々 疲勞의 度가 깊어가고 速記  
原文의 反文도 遲延되었고 따라서 速記錄出  
에도 遲延一露이었다. 이때 速記士團에는  
速記員의 增員과 더불어 最低生活의 保障  
을爲한 待遇改善의 要求가 일어나게 되었다

앞서 速記士의 報酬는 事務總長보다 더  
좋은 待遇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當  
時의 俸給生活도 現在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最低課를 維持하기가 힘들 實情이었다고  
더욱 日帝의 敗戰末期의 斷末塵의인 怨惡  
으로 溢溢된 通貨는 價値가 暴落하여  
인플레이가 惡化될수록 그 原因으로 因  
하여 天井不知로 上昇하는 物價高는 生活  
高에 強制로 모라방은 판국이 되고 보니 正  
直한 速記職業이 반할수 있는 國民의 報酬와  
物價斗의 거리를 懸隔하게 差異하게 하였고  
드디어 速記士는 待遇改善을 要求하게 되는  
것은 無理한 것은 아니리라 하겠다

(다음호에 繼續)

# 協會에對한一考

韓奎勳

協會 憲章에 對해서 是非를 論다거나  
協會 執行機關에 對해서 改進黨을 考려는 것  
은 아니다 다만 이런點도 생각해보는 것  
이 어떨나 하는 것뿐이다

憲章 第一條에는 「本協會의 名稱은 大韓  
速記學術協會라 稱한다」라고 있다

第四條에는 「本會의 目的은 我國의 眞正  
速記文化를 正當的으로 向上 發展시킨  
에 있다」라고 있다

第六條에는 「本會 會規에 根據한 資格審査에  
合格된 速記能力者가 아니면 本會의 正會  
員이 될수없다」라고 있다

第一條를 보면 學術團體인 것도 말고 第四  
條를 보면 文化團體인 것도 말고 第六條를  
보면 職業團體인 것도 같다 勿論 이 것은

學術團體나 文化團體나 職業團體나 하는 것  
이 各各 어떨한 것이라는 點은 檢討해가  
지고 第一條 第四條 第六條에 運絡시킨 것  
도 아니고 第一條가 있다고 해서 學術團體  
가 되고 第四條가 있다고 해서 文化團體가  
되고 第六條가 있다고 해서 職業團體가 된  
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第一條를 가자고  
學術團體를 고집어내고 第四條를 가자고  
文化團體를 고집어내고 第六條를 가자고  
職業團體를 고집어낸 것이 옳은지 그렇지도  
모른다 그것은 아무래도 옳은 것이다  
처음에 말한 바와같이 憲章에 對해서 是  
非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協會가 學術團體로서 또는 文  
化團體로서 活躍하기보다 職業團體로서 會  
員을 馬하여 活躍하는 것이 優先되어야 하  
겠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따름이다  
나는 우리協會가 職業團體로서 무엇보  
다도 먼저 會員을 爲해서 일해 줄 것을  
바라고 이러한 面에서 執行機關인 理事會  
가 活潑히 움직여 줄 것을 期待한다

最近 서울特別市議會 또는 京畿道議會議會의  
 速記士採用에 있어서 理事陣이 努力하고 從  
 음을 보고 敬慕를 表한다. 이 努力이 情  
 實關係를 가지고 跳梁하는 似而非 速記團  
 體 乃至 速記士를 排除하고 公正한 試驗  
 制에 板한 速記士採用을 主張하는 것이 라는  
 點에서 憲章 第四條에 있는 바와 같이 我國  
 의 眞正한 速記文化를 正當的으로 向上  
 發展시킨다는 面으로서도 憲章에 있는 것이  
 지만 보다 더 會員에게 惠沢을 주기爲한  
 努力이라는 面에서 歡迎하고 喜은 것이다  
 今番 市議會 道議會에 對한 向願에 있어서  
 는 理事會에서 小委員會를 構成하여 活理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무슨일이 생  
 겠을때 이러한 小委員會를 構成하여 일을  
 하는 것만이 理事會의 할 일은 아닐 것이다  
 理事會는 執行 檢閱으로서 理事會에 總務  
 部 文化部 研究部 審査部 事業部를 두고  
 있다. 그런데 五個部署中 總務部에서 會  
 費를 걷고 文化部에서 一年에 한번 「速記  
 文化」를 發刊하는 것 外에는 거이 하는 일

이라고는 없는데 같다  
 總務部에서 會費를 걷는다고 해야 國會  
 速記課에 있는 會員한테서나 겨우 받아낸  
 뿐이고 其餘의 會員에게서 거이 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協會로서 會員  
 에게 주는 惠沢이라는 것이 별로 없으니  
 會費를 걷기도 힘을 것이고 國會速記課에서  
 도 찾아다니며 會費를 받아내느라고 애쓰  
 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會  
 費向願은 그렇다 하더라도 檢閱誌를 通하  
 여 會務報告 같은 것을 發刊 親切을 가쳤는  
 지? 이것은 「速記文化」 第二卷가 나와  
 보아야 알 날이지만 創刊號에 실려 있는  
 會務日誌라는 것이 너무나 形式的이요 食弱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  
 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다  
 더군다나 創刊號에 있어서 理事會가 會  
 員을 爲하여 報告하는 것이라고는 아 會務  
 日誌가 唯一한 것이다. 創刊號를 發刊할  
 當時에는 나도 理事의 한 사람이었으니가  
 그때에는 創刊號라는 特殊한 條件이 있었



으므로 그렇게 되노라고 分明하고 이  
번에는 一會員으로서 좀더 充實한 報告가  
있기를 바란다.

會員의 徵收狀況도 알고 싶은 것이요 會  
員의 勸進도 알고 싶다. 그 동안에 除名  
停權당한 사람도 있고 國會速記課에 들어  
온 사람도 있다. 理事會에 對해서도 언  
제 理事會가 向權되어 무슨 向願을 討議  
해서 어떻게 決定되었는디 그 決定에 依하  
여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會員에게 알려주  
어도 좋기 않을까?

이것은 勿論 總務部만에 對한 얘기는 아  
니다. 文化部에서 할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總務部로서 그 部에 向權되는  
일에 對해서 文化部에 資料안은 提供해야 할  
것이다. 다른 部도 마찬가지다.  
研究部의 事務担当은 一、 事務調査과 研  
究에 關한 事項 = 速記學術 研究에 關한 事  
項으로 되어 있다  
及文科는 時間을 速記學 時間의 몇배로  
잡느냐 하는 것이 大々로 向願가 된다. 우

의 速記士間에서는 十倍를 잡는다는 것이  
不文律로 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  
自己의 速記能力을 내세우기 屬해서 五倍  
연 된다고 하는 수도 있고, 일이 힘들다는  
것을 내세우기 屬해서 二十倍라고 하는 수  
도 있다. 나도 五倍면 된다고는 하지 않  
지만 一分目 三百字 程度의 말을 五分間  
쓰면 五倍의 時間만 가지면 할 수 있다.  
二十倍가 걸린다고 하지는 않지만 工業  
專門家들의 研究發表會에서 速記를 했을 때  
에는 圖書館에 가서 工業 敎學의 書籍을  
더러다 보고 또는 秘言者의 「메모」를 보고  
研究를 해가면서 及文科를 하느라고 三十倍  
乃至 五十倍의 時間이 걸렸다. 五倍나  
五十倍가 標準이 될 수 없다.  
지금 速記士間에서는 十倍를 標準으로  
잡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點도 研究部에서  
檢討해볼 向願가 아님까?  
또 及文科의 向願가 되는만큼 機肉誌  
를 通하여 이에 對한 檢討 乃至 說明을  
해보면 어떨까?

審査部는 審査對象者가 있을 때 審査하는 것이 말은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將來를 顧하여 지난해 國合速記士採用試驗에 있어서의 應試者의 成績 적어도 合格者만이라도 그 成績을 記錄해둔다면 統計 其他의 資料가 될수있을 것이다

事業部에서는 協會創立當時부터 速記競技大會를 計劃하고 있지만 오늘날까지 實現되지 않고 있다. 나는 이것을 改善하려고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競技大會는 아직 時期尚早라고 생각하거나 遲延되는 것을 歡迎한다. 速記競技大會를 開催하는 것만이 事業部の 할 일인 것처럼 그것이 財政 其他의 事情으로 實現되지 못하니 이제는 할 일이 없노라고 해서 안 되겠다는 것이다. 事業部の 事務担当은 一 委託速記에 관한 事項 二 會員 就職幹事에 관한 事項 三 本會務履을 爲한 事業의 實踐事項으로 되어 있다.

速記競技大會는 第三項에 該당하는 事業일 것이다. 그러면 第一項 第二項에 該當

되는 事業을 事業部로서 한 일이 있는가? 勿論 第一項의 委託速記만 하더라도 現在의 實情으로 보아 困難한 일임은 모르겠어 아니다. 그렇다고 事業部の 事務担当事項으로서 委託速記가 있다는 것을 있어서야 할 말이 아니다. 現實情이 그것이지 到底히 不可能할 것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그러한 方向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努力만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느 날에는 速記의 需要가 몇 件 어떨어떨한 校內에서 있었고 吳時尙 吳時尙을 했으며 速記料는 얼마를 받았다는 것을 會員各自에게 協力を 要求해서 總計를 내보았으면 어떤가 協會로서 일을 幹事에게 주지 않았더라도 速記料의 五 퍼센트나를 自進하여 協會에 내놓으면 그 金額에 該當하는만큼 會費를 免除해 주면 어떤가

그게 그거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事業部를 통한 委託速記에 있어서의 速記料의 五 퍼센트나로서 協會經費에 充당하는 길을

려동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이다. 速記科向願만 하더라도 지금 大体로 一時間 方圖를 받고 있는 것 같으나 協會로서 決定한 規定速記科라는 것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있다면 마땅히 會員에게 周知시켜야 할 것이다

文化部만 배놓으면 섭섭하다고 할러니까 써야겠지만 나에게 指定된 枚數가 거킨다 채워진 것 같으니 고안 두겠다. 다만 참가자 文化部의 安易를 屬하여 犧牲當해가지고 強要에 못이겨 내가 이 글을 쓴다는 말로 부러 이 글을 쓰기 시작할까 하다가 고안 두었다는 것만은 적어 두다.

七八個月만에 韓國誌를 내는 것인데 各部에 要請해서 資料를 蒐集해다가 論釋하면 얼마든지 실을 記事가 있을텐데 그것은 하지 않고 原稿替換만 하고 다니니 말이다. 처음에 原稿를 쓰라고 할 때에는 안써도 되는 것이라니 하다가 替換을 받고 文化部에 처해서 속이나 써주자 하고 시작한 것인데 文化部만으로는 指定된 枚數가 채워지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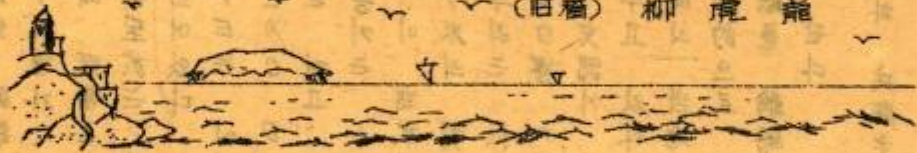
했기에 總務部로 부터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흥이나 내가 現理事陣을 攻讐한다고 생각할른지 모르지만 또 攻讐했다손치더라도 그것이 平素부터 現理事陣에 對해서 不滿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攻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글을 쓰기 爲해서 애써 머리를 짜내가지고 攻讐하는 것이니 惡意는 조금도 없다. 現理事들이 너는 初代理事로서 무척을 했느냐고 하면 귀구멍을 찾아야 할 나다

그런가 때문에 첫머리에 協會 憲章에 차해서 是非를 관다거나 協會 執行機關에 차해서 攻讐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前撰에 든 것인데 잊어버렸을가봐 다시 한번 強調한다



# GENEVE 紀行 (二)

(旧稱) 柳 虎 龍



(承前) 紫外線이 強烈 太陽의 光線을 머리위로부러 받으며 言語와 風俗이 判異한 異國땅에 네리니 도모지 東西南北을 分棟할수가 없다. 一行은 다음나온 英國大使館車로 市内에 들어와 CORNAVIN STATION 卜바로 앞에 차리 잡고있는 HOTEL DES FAMILLES 에 旅移를 풀었다. 저녁 食草가 끝난后 疲困한 몸을 BED에 依支한 나는 衆內書를 뒤적거리며 予備知識을 얻기에 苦를 하였다.

瑞面는 約方大千平方哩의 面積에 人口 四百七十餘万을 擁하고 佛蘭西 独逸 埃地利 伊太利의 四國國에 둘러싸여있는 緩衝國이다. 大統領責任制로 內閣責任制도 아닌 世界에서 唯一한 行政 權會議代表民主制를 採択하고있

는 瑞面의 政治制度는 西院에서 選出된 七名의 議員으로 內閣을 構成하여 四年의 任期를 갖는데 大統領과 副統領은 이틀이 互選하여 各々 一年의 任期를 輪番으로 갖는다. 十四州의 完全한 自治縣州로 이루어진 이나라는 지난간 六百年동안 한번도 戰火에 捲리지않은 故으로 國民의 生活水準은 至極히 向上되어 每人當 國民所得에 있어서도 美國을 次駕하여 世界에서 首位를 占하고있다. 全國民의 凡十八%는 基督教 五十六%가 宗教的 信仰生活를 하는데서 오는 結果인지 國民性은 他國民의 追隨를 不許할만큼 健全하고 民主々 發思想도 極度로 發達되어 있다. 國民의 常用語로서는 獨語

가 七十二%, 瑞語가 二〇.七%, 伊語가 五.二% 로 1 마 품가 一.一% 를 차지하고 있는 데 이때문에 紙幣는 勿論 政府公告文 一般廣告文 甚至於는 映画字幕까지도 三仁國語로 記述되어 있다

G E N E V E 는 이러한 瑞西의 西南端에 位置하여 L A C. D E. G E N E V E 라는 辭은 湖水를 끼고 秘澁한 雅淡하고 現代的 感覺을 풍기는 人口 十五萬의 秀麗한 都市이다 이 湖水中에서 岡斷缺이 내 품는 높이 百二十米의 噴水斗 湖水에 逍遙하는 白鳥들의 무리는 仙境을 彷彿케 하고 I. L. D. W. H. O 등 大國 國際機構의 本部와 二十一仁의 支部가 있어 國際都市의 風貌를 엿보여 주고 있다

約二和月間의 当地帶在中 보고 들이고 는 것것을 斷片的으로 추려봄으로써 G E N E V E 의 生態를 翰藪의인 것이나마 紹介할 수 있을 것 같다

市民과 共產主義者

G E N E V E 市內에는 勿論 瑞西全國內에 軍閥名의 共產主義者도 없다 共產主義를 極度로 忌避하는 健全한 國民性을 表示하는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가 있다.

G E N E V E 會議에 參席하는 共產側代表團에 會合를 提議할 것을 旅館業者나 市民들이 頑強히 拒否하여 不得已 政府當局에서 郊外 閑村에 있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建築物를 明渡해 주었다고 한다 또한 平年에는 이때쯤 되면 좋은 日氣가 繼續되어 「빅코닉」 등으로 줄거운 날은 보냈었는데 今年에는 비오는 날이 많아 市民들의 怨은 우리로서는 到底히 想像할 수 없을 만큼 컸다 그런데 市民들은 이러한 日氣의 不順을 共產黨들이 國內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매우 怨妄하고 있었다

時 計

瑞西하면 누구나 큰 時計를 想起할만큼 世界的 時計의 王國임은 周知의 事實이다. G E N E V E 市內에 만도 大小 四百의 時

許會社가 있으며 듣지 못하면 이름의 詩科  
 도 많다. 가장 좋은 詩科는 註文主産을  
 한다. PATEK, PHILIPPE, 이데  
 이것은 最下가 百五十弗은 주어야 살 수 있  
 다. 그 다음 가는 것으로는 CONSTANTAN  
 TIN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普通의으  
 로 알려져 있다. LONDONNES, OM  
 EGA, ROLLEX, 는 모두 四位以下  
 CYMA, DOXA, MOVADO, 는  
 十一位以下の 詩科들이다.

~ 면지 없는 世上 ~

거리나 公團을 廠策해 보면 피우런 답배  
 풍추를 배릴 곳을 찾기 힘들만큼 깨끗하  
 고 면지 하나 없다. 東京에서 사 입고 간  
 「와이셔스」가 = 週日이 지나도 때가 안  
 다표 구두권에 면지가 얇지 않는다. 그래  
 서인지 「슈샤인 보이」는 찾아볼 수 없다.  
 公象便所 같은 것은 地下에다 만들어 놓  
 고 있어서 惡臭가 全然 풍기지 않게 되어 있  
 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도

혼다 求할수 있는 「점」이 이곳에서는 藥局  
 에나 가야 口隨衛生用으로 求할수 있는 것  
 이다.

~ 자들의가 必要없는 곳 ~

모두가 生活이 晝尻한대문이기도 하겠지  
 면 犯罪事件은 도모지 않다. 그렇게 많은 自  
 動車와 「모터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車庫하나없이 밤에는 쇠도 깨우지 않는 재  
 거리에 櫛比하게 내파두는데도 아무런 事  
 故도 亮브카지 않는다.

~ 女 性 ~

山水가 좋와서인지 이곳女性은 美觀의所  
 有者가 많다. 그와 더불어 몹시 素朴하고 情婦  
 的이면서도 快活하다. 한번은 代表團會員이  
 「케이블카」로 논과 어름으로 뒤덮인 海  
 拔千九〇米의 CHAMONIX 라는 高山  
 에 올라간 일이 있었는데 山다루히에 있는 茶  
 房마담이 記念의表識이라고 하며 會員에게  
 「KISS」를 贈賜한일도 있었다. 그리고 衣

限도 어디까지나 檢査하여 옷의 색깔도 華  
惡한 原色보다는 中間色을 많이 取扱하고 있다

娛樂

娛樂施設로는 무엇보다도 劇場이 많은데  
늘래지 않을수 없었다. 辻利里에 하나씩 小劇場  
이 있어서 거의 끝목마다 있다. 小劇場  
밖에 CASINO 라는 賭博場이 있어 밤  
을 새우는 男女도 많고 NIGHT CLUB  
도 몇군데 있다. 이곳에서는 밤 一時와 새  
벽한 時의 두차례로 나누어서 STRIP  
EASE를 즐긴다. 東洋的 道徳에 欠어 있는  
우리들의 口味에는 어딘가 맞지 않는 것 같  
다. 서로서로 劇場이나 露臺에 들어가면  
바깥보다 物件값이 배산것과 같가지로 이곳  
에서도 NIGHT CLUB에 들어가면  
바깥보다 四五倍나 슬값이 비싸다

市街

市街는 現代式 都市計劃에 依하여 바둑판 같  
이 區劃되어 있으며 道路의 左便은 偶數 右側

은 奇數로 番地를 依하여서 집 찾기에 매우 便  
利하게 되어 있다. 交通機關으로는 電車와 버스  
가 있는데 버스도 電力을 利用하는 것이 大部  
分이다. 道路가 넓기도 하지만 交通規則이 遵  
守되어 交通事故라는 것은 全然 없으며 間或  
十字路에서 사람과 自動車가 맞대드리면 自  
動車가 가던 길을 멈추고 步行者보고 먼저  
건너가라고 손짓을 한다

商街

商街는 午前九時부터 正午까지와 午後二  
時부터 同七時까지 商店하는 데 水土曜日 午休  
의 日曜日을 休業한다. 物價는 歐羅巴에서  
第一 비싼 것이며 에누리라고는 한 푼도 없는  
完全한 正札制인데 輸入品은 關稅率이 높아서  
그런지 몹시 비싸다. GENEVE는 英語使  
用者들이 모인 區域이라서인지 牌列櫃에는  
外國人 손님을 위하여 우리집에서는 英語를 한  
줄 압니다. 라는 表札를 세워 놓고 있는 商店들  
이 있다. 한편 百貨店엔 가보아도 英語를 理  
解하는 사람이 極히 드물어 우리들이 物件을  
살려고 하면 英語를 알아는 店員을 찾아다니는

라고 무척 애쓰는 것이었다

警察官의 生活

어느날 代表團에 配屬된 当地警察官(警査)의 自宅에 놀러간 일이 있어 그의 私生活面을 몇몇機會를 얻었는데 비록 「아파」 「트」 生活이기는 하나 다섯食口에 房을 셋이나 쓰고 電話도 있고 그밖에 小型自家用自動車도 한대가 지고있는 것을보고는 놀래지 않을 수 없었다. 室內에 가지고 있는 家財道具를 보아도 우리나라 警察官이나 警務官도 그렇게 裕尺하지는 못할 것으로 느껴졌다

法的通用力을 가진 貨幣로는 프랑 貨價이다

그러나 거리거나 하면 서너집 걸러 「EXCH ANGE」가 있어 어느나라 돈과도 큰바를 수 있다. 通貨價值는 安定되어 있어 美幣一弗의 換率은 四프랑二十센트台를 恒常 維持하고 있다

通 關

通關手續은 勿論 出入國手續까지도 너무나 簡單한데는 놀랐다. 어느날인가 自動車로 佛

蘭西 땅名所를 찾아간 일이 있었는데 國境을 通

過하는데 그手續이 單五分도 안 걸린다. 國家

間의 往來가 이와같이 수월한 곳은 瑞西가 아

니번 볼 수 없을 것이다

煙 草

煙草製造業은 民間企業으로 되어 있는데 그 質이 좋은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種類도 가지각색이다. 煙草인가는 날부러 담배가 개에 가서 세어보았더니 無慮四百가지가 넘는다. 外國담배도 터럭있으나 関稅가 비싸게 붙어서 外國人들만이 사서 피울程度이다. 그리고 담배한잔을 사면 반다시 성냥화 한쌍까지 주기 때문에 「라이프」의 고는 도모지 않는 사람이 없다

化粧 品

化粧品도 우리가 아지 못하는 最新流行品이 많다. 外國하는 날이 決定되어 「푸레센트」 用으로 몇가지 物件을 사려고 化粧品店에 간 일이 있다. 나는 「COTY」가 제일 좋고 最新流行品인 줄만 알고 있었기에 「COTY」를 달라고 하였더니 地下庫에 있는 倉庫 잔수히 들어



가사 연지가 간혹 낫은것은 가사로 나오  
는대는 失笑를 禁치 못하였다 COTY  
의 流行은 벌써 몇개의 本이고 그후에  
도 새로운 流行品이 몇가지가 나왔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9 ENNEV트를 紹介하기 위하여 以上의  
리가 지 面觀를 斷片的으로 列學하였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公의 世上인 完全한  
TOPICAL이다

9 ENNEV트會議를 三日 앞두고 当地에  
到着한 우리는 準備에 匆忙하여 官 吏를  
은 밤을 새우다싶이 하였다 그러나 官  
上 會議가 開會되자 一週日도 못되어  
閉會說이 떠돌아 나는 모귀림의 好樣을  
逸失할까봐 우울한 날을 보냈으나 官 吏  
로 滿=和月이라는 歲月을 보내게 되었다  
아닌게 아니라 國際會議로서는 너무나도  
심거운 會議였었다

(다음음료에 繼續)

詩 綠 下 吟

머리우에 連日  
발달에 방석

물무니로 殘像이

이리도 급게 變了은

이 어인 變了던 눈물겨운 追憶인가

사반한 차림새

거품을 낫은 族屬들이 寢息하는

푸른 커튼이 드리운 窓에

螢光빛 燈이 오늘까지 밝혀 置은

이 여름에는 꼭 울지도 모른다는

그이 리도 기다림인가

한숨이 흐르르

그늘진 페이브먼트 위를

池邊속 금붕어 갈이

季節을 翫며서는 柳愁가

노을빛으로 질어감은

이 무슨 夕은 艶靨의도 같은 詩心이나

(K 生)

몇번이나 망서리고 뜻을  
 들기를 주저했는지  
 모른다 原稿를 付  
 託해온 그 命題  
 (?) (職業女性의  
 喜悲)가 恐히 不  
 快했고 못마땅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태까지의 나의  
 生活이 職業女性이  
 라는 뚜렷한 意識  
 속에서 營爲해오지  
 않았다는 데서 나온  
 놀라움에 다시 큰  
 나의 位置를 돌아  
 볼수있게 한 서늘픈  
 時隔을 만들어준  
 貴紙의 原稿讀託의  
 題目이 무어 그리  
 달가울리가 있었는가 말이다  
 그리고 또 石若에 反對로

# 職業女性의 喜悲

朴 淑 卿

職業男性의 喜悲라고 題目을  
 부쳐서 生覺해보면 얼  
 마나 우스꽝스럽고 어색  
 한 아무 興味없는 問題  
 이라 男子가 職業을 갖는  
 다면 依例로 當然하고  
 何等의 問題거리가 없  
 겠지만 職業女性이란  
 同情과 같은 그런 感情  
 으로 興味있게 注視하  
 는 男子들의 觀念이  
 아니었다면 이런 題目  
 을 選取하지는 않았으  
 리라  
 職業女性이라는 特정한  
 位置에 올려놓고 女性  
 에게 特權을 부여하는  
 듯한 男性들의 짓짓는  
 (?) 관대심에 不快感  
 을 獲치 못한다 勿論 生理的  
 힘의 差決같은 것은 할수  
 없는 일이지만 人間的인 同等  
 한 立場에서 女性에게 特權  
 을 부여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女性들의 侮辱이고 無  
 禮를 당하는 일이나 말이다 過  
 去 우리 황폐한 어머니들이  
 낚여온 그 世代와는 많이  
 女性들의 位置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女子니까  
 라는 男性들의 大部分의 觀  
 念이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  
 을 준다  
 이라고 보면 내가 貴紙에 있  
 는 分들은모다 男子이고 男  
 性들에게 反旗를 들고 挑戰  
 하는 것으로 他人에게 誤認을  
 받기쉬우나 하여튼 이 問題  
 의 選取만을 確實히 男子들  
 이 하였다는 것으로 믿고 이  
 렇게 내 못마땅한 理由를  
 인 爲의 對決같은 것은 할수  
 없다

그러니까 再政年 十月에 그 많은 사람들을 운데 요행히 幸運(?)의 재비를 뵈고 國會 事務廳 議事課에 근무한지 一年六個月이 지나나보다 무슨 커다란 期待를 갖고 들어 온 것은 애초에 아닌 나였지만 나의 職場生活의 前感을 통렬이 말한다면 그저 淡淡할 뿐이다 勿論 그동안에 기쁘고 슬렸던 일이 어찌 없었으랴

파는 그것은 公的인 事務로 인한 것보다 相對的인 瞬間의 感情이 더 많기 때문에 파 리 이야기거리가 못된다 한 나라의 最高立法機關인 上院의 議事들이 모여서 眞正한 民主主義에 立脚한 이나 라의 國利民福을 爲하여 討議하고 法律을 制定하는 곳 인만큼 다른 職場에서는 못 볼수 없는 特殊한 일들이 없는데도 아니다 더구나 議事堂 안에서 會議를 進行하는데 直接的인 關係이 있기 때문에 남다른 우습과 어처구니없는 서름도 있다 同等한 同格의 사름들끼리 모여 일을 보는 것과는 다 른 너무나 身分의 差異가 있는 議員들 앞에서 事務를 보는 것도 아닌 表決을 하는 表決士의 榮譽스런(?) 職分 이기 때문에

특히 事務廳에 근무하는 女子職員을 합하면 不逾 二十餘名 程度라 많은 男性들 틈에 끼여 지나라다 些少한 일이라도 敢怒히 넘 거버릴수 없는 일로 公연한 神經을 쓰게 된다 各 機關에서 事務처로 드나드는

사람들의 많은 눈들이 職場 을 떠난 私生活에까지 侵入할 때면 정말 짜증이 나고 누가 나의 生活을 制裁하는 것 같은 压迫感을 느끼곤한다 相對方은 나를 알아도 나는 그쪽을 알지 못하는 境界이 許多하기 때문이다 學生의 身分 파는 달라 社會人이라는 點이 別이 아직까지도 概立된 性格과 學生의 氣分이 사라 지지않은 나에게서는 커장으 일 이고 여간 若役이 아니다 애초에 내가 職業을 갖게된 動機는 學業의 延長인 허나 의 方便이었고 自立해서 工夫할수있는 目的에서 나온 것 이기 때문에 그다지 職業에 對한 意識이 徹底하지 못하였 고 또 重大視할 必要는 없 지만 自己의 位置를 無視할

수없는 데서 오는 評價와 批判  
 으로 因한 神經過敏症은 이  
 될수없다  
 사람들은 흔히 나를 가르켜  
 딱딱한 사람이라고한다 나는  
 파히 社交的인 사람이 못되  
 는 무뚝뚝한 性이다 그것은  
 先天的인 나의 性格도 있겠  
 지만 아직까지도 完全한 社  
 會人으로써의 處世術이 익숙  
 지못한 願向때문인지도 모르  
 겠다  
 언젠가 오랫동안 만난 어느  
 분이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인제는 榮然히 茶房에 들어  
 올수있는가고 그때 나는  
 無心히 否개만 否터였다 그  
 리고난후 生覺과나 언저 내  
 가 그분께 여기에처하여 이  
 야기한 記憶은 없었는데 아  
 파 그때 내가茶房에 앉아있  
 는 모습이 무척 不妥하고  
 어색해보였던 모양이라고  
 生覺이 미처자 우습이 절  
 로 나왔다  
 世上에처해 適力이 不足  
 하고 妥協할줄모르는 性格  
 이기에 때로는 사들들로부  
 터 이상한 눈총을 받을때  
 가 한두번이 아니다 그러  
 나 나는 意識的으로 努力  
 하여 자말과 터부러 本  
 意아닌 내 感情으로 妥協  
 하고 살고싶지는않다 本  
 意이 모든 주어지는 事物  
 에 처하여 익숙한 職業人  
 이 되려고 애쓰고싶지도않  
 다  
 사람마다 各自 自己의 希  
 望과 目的이 있을것이요  
 그 目的을 向하여 나가  
 는 過程이 어찌 自己의  
 理想과 符合될수있기만을 바  
 람것인가  
 그러기에는 世上이 너무나  
 단순하지못한 屈曲이 많다  
 비록 지금 내가 處해있는  
 位置가 理想과는 영 相反된  
 다할지라도 그天을 向하여  
 努力하고있는 自身을 發見하  
 기에 安心할수있다  
 健全한 精神과 理想으로 自  
 己가 맡는바 任務을 完遂하  
 고 人格을 陶冶할수있는 經  
 驗의 過程이 戰場이라고 생  
 覺한다면 마음이 더 편할는  
 지모른다  
 그러나 理論으로만 살수없는  
 時時로 度하는 感情때문에  
 世上은 그렇게 曲折이 많고  
 風波가 많은가보다  
 職業世性의 기변고 슬픈것을  
 쓰라는 付託이었지만 거기에

는 너무나 相反되는 나의  
 職場生活이기에 그 리두리  
 안에서 이야기할수 있을만한  
 아무것도 없다 都大體 無  
 感覺은 사람인지도 모르겠  
 다 아파 모든 職業女勝에  
 게 붙는다면 기쁜일보다  
 슬픈일이 더 많으리라...  
 根本的인 問題를 解決하  
 려는것이 아닌 다른 原因으  
 로 社會에 뛰어들어가 일  
 할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職業女勝의 觀念이 좋지 못  
 하고 奮者는 아니기 때문에  
 구려여 나의 職場에서 좋  
 은것을 들추어 내라면 -  
 政治적인 常識이 붙어간다  
 는것이라고나 할까?  
 그리고 푸른 푸라다나스  
 는 바라볼수있는 處가까지  
 자리잡고 앉아 마음대로

책을 읽을수있는 時間의 余  
 裕는 다른 職業을 送還한  
 女勝을보다는 幸福하리라는것  
 이다  
 하루의 일이 끝나는대로 親  
 友들과 함께 世上의 시끄러  
 운 이야기는 접어치우고 거  
 리없는 꿈을 품고 이야기  
 할수있는 時間으로 되돌아올  
 때 그지없이 즐겁기만하다  
 女勝으로 成長하는 過程에서  
 少女와같이 童心에 젖어보는  
 아늑한 마음 -  
 그럴때면 사람들은 무어라건  
 상관없이 부딪하게 거리를  
 闊步하게 되며 하루의日課中  
 에 웃을수있는 가장 簡便  
 部分을 차지하게된다  
 그외는 紙面을 通하여 公衆  
 親近한 것이 못되기에 좀더  
 親近한 사이로 이야기 하게

될때까지 피루기로 하자  
 X  
 X  
 天日二十五日! 아무스  
 公교로운 일이나 六年이라  
 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기  
 에는 너무나 記憶이 생생한  
 그날 -  
 왜 나는 이런 글을 오븐  
 쓰고있는것일까? 大 二五 動  
 亂과 나의 職場生活과는 無  
 視 못할 重要な 關係가 있다고  
 트집을잡고싶은 마음이기애!  
 책상앞에 걸어놓은 달력을  
 명하니 바라보며 북쪽 어느  
 하늘아래 계실 아버지를 그  
 리며 지금 이떨은 이러한  
 글을 쓰고있다고 응석을 부  
 리고 싶기에 더욱 마음은  
 서늘퍼만진다



# 三千九拾壹圓

## 報 惠

였다 이願으로  
 말하자면 大韓民  
 國 版圖안에서는  
 到底히 何級公務  
 員이나 五級 六  
 級... 그以下の  
 이거나 學業上에 있어서나 間에  
 動力으로써의 能力을 最高度  
 로 發揮한다 나는 校門을 떠  
 난지는 그렇게 긴 歲月은  
 아니나마 이비 오래이어서  
 現今의 學業時節의 諸報幸福  
 을 잘모르겠으나 남들이 말  
 하는 남들의 例를본다면 學  
 生의 身分으로써 他의 職을  
 갖는다는것은 분히 遺憾스러  
 운 일로써 一方불때 學業으  
 로 職業으로 兩面인 二重役  
 을한다는것은 精力을 分散  
 시키기때문에 그學究效果로나  
 職業所得效果로나 거의 제  
 로에 가까운 實效을 나타  
 낸다 一見하겠지만 이러한

四月二十五日 // 日氣 좋은

人間級으로서도 그生活을

말

붙날이었으며 新進 速記士들

營業할수 없다는것은 公知의

學

各個人의 財力에 記錄되어

事實이며 贊否를 不要하는

職을

야할 날이었다 편을든 小生

것이다

遺憾스러

一昨 처음으로 남의 돈을만

내自身은 幸인지 不幸인지

學業으

저본 바로 그날이었었다 받는

多幸히 全的인 집안살림자

로 二重役

節次도 물과 물어서 間接的

리는 羨하기 때문에 그저

分散

으로 남보다 늦게 겨우 반

그巨額을 저自身의 前程을

그學究效果로나

계된것이 해저드는 午後의

開拓하는 마당에있어서는

거의 제

일이였다

아무꺼리감없이 또한 아검

나타

봉투의總額이 三千九十一圓이

없이 쓰여지는 外上에있

이러한

見解는 非現實的인 空想의 理想論的 見解로 甚히 實質 面에 조금도 妥當치 않은 印 味없는 見解다 他方불때 그 是 逆의 効果를 나타낸다 는 것 도 아주 一考의 餘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싸여있는 이 宇宙의 空氣는 現情勢를 보아서 後進性을 多分히 內涵하고 있는 後進經 濟體制를 가진 우리나라 國 民經濟 構造를 볼때 學生身分 으로서 「알바이트」의 不許는 學業繼續의 挫折을 意味함이 요 나아가서 研學하는 學生 身分의 犧牲인 것이다 다시 말 하자면 現下의 學生도 職을 兼할 수 있다는 것을 意味 로써나마 力說하고 主張하고 자 하는 것이다 비로소 여기 에 三千九十一國의 問題가 翻着되는 것이다 美國 어느 學者의 말을 빌리다 면 人間은 約十八貫의 物質 로써 構成되었으며 그 값을 九八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조금 詳細한 價目을 보자 枕 枕한 값 이며 그 物質의 種類와 分量 은 枕대로 새장(鳥籠) 한 개를 깃들리 깃을만한 石灰 其二 는 아이들아 가지는 장난감 의 大砲를 한번 쏠만한 「포 其三이 약봉지 한봉 을 얻는다 其四가 정도인 「마그네샤」 其四가 성냥 三千個分 程度의 其五가 못(釘) 한 개만한 鐵 介 其六이 한 컵 정도인 사랑 其七이 비누 다섯장 程度의 脂肪分 으로서 우 리를 人間의 物質으로써의 값이다 그러면 그것이 무 엇일까 九八센트 밖에 안 되는 이 肉身을 나날이 움 지기게 함으로써 한 평생을 通하여 醫師라면 十萬八千 弗 國民學校 教師라면 二 萬九千七百弗 그외의 가지 가지의 그 職業에 따라서 내물값에 比할 수 없는 收入

어지는 結果는 果然 무엇일  
 가? 勿論 各個人의 見地와  
 見解가 다음에 따라 區々한  
 說이 나오겠지만 筆者는 여  
 기에서 極히 部分的이고 용  
 풀한 見解가 될는지 모르겠  
 으나 ..... 내가 일찍이  
 아래와같은 古語를 들었다  
 그父母가 아해를 낳아서 그를  
 키워 工夫를 시킨다는 것은  
 거기에 投下된 投下資額만큼  
 아니 그以上더많은 貯蓄額을  
 만들어 貯蓄의 結果로 還元  
 되는 果實인 것 이라는 것과 마  
 찬가지로 前述한바와같은 몸  
 값에 比해서 뛰어나 많은  
 果實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所得을 받게끔한 努力의 代  
 価도 있었고 또한 時間的  
 空閒의 흐름도 있었었고 投  
 下된 潛在的投資額의 還元代  
 價인 것 같다 換言한다면 二十  
 餘年이나 三拾餘年間의 年々  
 歲々로 恒久的인 投資에 依해  
 서 얻어지는 高貴한 代價인  
 것이다 決코 아무런 努力없  
 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  
 이다 그러나 이것이 自己滿  
 足を 充足시키는 나를 볼 때에  
 는 勿論 問題가 좀 다르다  
 如何間 우리는 礎수찰에 배  
 부를 埋었다 라는 옛말을 想  
 起하며 三千九十一圓이 若冠  
 二十代 青年들에게 能率的이

고 效果的인 生活을 營爲  
 하게하기 爲하여 九萬圓前  
 程을 處世하는 데에 있어서  
 伸縮性있고 彈力性있는 知  
 性人으로써의 權威을 세우  
 며 地位를 向上시키는 데  
 그目的이 있는 것이다  
 여기 그目的에 조그마한  
 도음이 될수있다면 이조그  
 만한 原稿紙 消耗를 無限  
 히 기빠하며 先輩同志들의  
 高見을 聽하고 또한 無  
 慈悲한 批評을 기다리면서  
 펜을 놓는다





(詩)

世羅는 내일을 떠났다

隱湖

世羅는 내일을 떠났다

氣盡하도록 애처리히 불러 봐도

사랑은 形而上學에 屬한것이 아니라고

萬能의 華麗芬囀한 財力を 찾아서

槓移의 袂奈을 思慕하는 肉체가 命하는

대로...

世羅는 決코 虛榮女가 아니었다

生이나 死나와 切迫한 瞬間에도

「하하하하」

그대를 아쉬워하는 靈魂은 絶叫하리니

나는 癡狂한 哲人인양 虛空에 마구

웃어 부친다

정녕 그것은

그러면서도

내世羅여 내게로 오라!

「世羅!」 또 「世羅!」





女子가 職業을 갖는다는 것은  
 發展된 社會에 있어서 반드시  
 지 있을수 있는 일이고 또한  
 女子도 男子를 파같이 어찌를  
 지누어 自立自活의 社會生活  
 을 하려면 必然코 職業을  
 가져야 할것이다 또 韓國社  
 會의 現狀으로 보든지 各  
 家庭의 經濟生活로 보아 女  
 子도 職業을 가지고 家計를  
 도와야 할 形像에 있다 그분

아니라 職業의 性質에 따라  
 男子보다도 女子가 더욱 適  
 當하고 便利한 일이 社會에  
 는 얼마든지 있는 가답에  
 必然 우리 女性들도 職業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비록 正  
 常的 教育理念은 아나나 獨  
 去에 女性教育의 目標가 賢母  
 良妻 되는데 있었다고 하면  
 수단의 女性들은 어떻게 하  
 면 自己 性格과 素質에 맞  
 는 職業을 求할수 있을가  
 라는데 教育의 目標를 두는  
 것이다  
 今年度 女大生 七、八十 퍼  
 센트 가 家庭生活보다 職業  
 인이 되기를 願하는 것으로  
 보아 알수있는 것이다  
 내가 職業女性이 된지 벌써  
 三年이 되었다 釜山避難時  
 그렇게 餘裕있는 生活이 못

되었던 가답에 高女를 나  
 오자 이어 造幣公社에入社  
 하여 가진 二年 가까이  
 있었다  
 그곳의 일은 紙面이 모자  
 라 일일이 記錄할수 없거  
 나와 특히 재미있는 1로만  
 스는 다음 移會에 얘기 하  
 기로하고 어쨌든 그곳의  
 일이란 事務的인 面도 있  
 었으나 거의 機械的으로  
 움직이는 일이되어서 하루  
 二十四時間 生命없는 종이  
 장파의 씨름의 繼續 아닌  
 反覆이었다  
 그래서 늘 서울을 懷恨하  
 면중 마침 放學中에 내려  
 온 동생을 따라서 그곳을  
 辭任하고 서울로 오게 되  
 었다 서울로 올라가지만  
 한편 어디든지 就職이 될

것이 라는 莫然한 生覽으로  
 올라는 왔으나 나에게 適當  
 한 職業이란 그리 容易한 것  
 이 아니었다 韓國銀行에 履  
 歷書를 넣고 試驗때를 기다  
 리나 一拜에 두어번 있는 入  
 社試驗도 그리 難觀할 수 없  
 어 다음에 焦燥한 가운데  
 기다리던중 한번은 新聞에서  
 國會事務處 女職員 募集 廣  
 告를 보고 나는 곧 志願을  
 하였다 그러나 當日 志願者  
 의 沙汰에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다  
 爽相 알고보니 八名募集에  
 三八〇名の 志願이나 우리女  
 生들의 就職難을 그때야 비  
 로소 깨닫게된 것이다  
 그렇게 많은 志願者 中에는  
 大學卒業生도 있고 大學在學  
 生도 많았고 더구나 四十여

가까운 中年婦人들도 섞여  
 있었다 나는 多幸의 五十對  
 一이라는 좁은門을 通過해서  
 選拔 되었을 때는 贊으로 기  
 베풀었다 그래서 錄事라는 亮  
 令을 받아 現在 國會議事課  
 에서 일을보는 또 職業女姓  
 이 된 것이다  
 비록 四級 公務員의 下라 리  
 우편이나 그래도 二百餘名  
 의 경쟁한 政治家들이 모여  
 國事を 議論하고 立法을 하  
 는 議事堂안에서 事務를 본  
 다는 것이 그리 自尊心이  
 꺾이는 일도 아니었다 때로  
 는 興野의 論爭에 끌려라  
 가 아플때도 있고 興味없는  
 法案通過에 厭症을 느낀때도  
 관두번이 아니다 그래도 내  
 가 기쁘고 感激하게 生覽하  
 는 것은 비록 그일이 싹고 좋

고 間에 나에게 배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恒常 政治 社會 法律의 知  
 識을 所存했다는 履歷感은  
 나보다 弱者에게 크게 외  
 키고싶은 마음을 免치못한  
 다  
 三時間 會議가 도모지 지  
 루한 생각이 들면 나는 지  
 금 장차 國會議員의 見解  
 을 하고있는 것이라고 영  
 동한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苦笑을 했지 못한다  
 그러나 좋은때가 오면 女子  
 政治家가 되어보겠다는 꿈  
 을 꾸지 말라는 法은 없을까  
 다  
 어떠한 때는 議員들의 밤어  
 내는 담배연기속에서(지금은  
 禁煙이 되었지만) 지루  
 한 論爭이 繼續되면서 表

決이나 자주 있을때에는 피  
상불 머리가 명하고 아프다  
이렇게 疲困하고 우울할때에  
는 會議가 끝난뒤에 轉轉히  
明洞거리를 거닐다가 반가운  
親旧를 만나면 말이 풀거운  
音素이나 듣다가 보고픈 眼  
面를 보고 우울한 倦怠症을  
疑致시킬수 있는것도 우리  
職業女性만이 가질수있는 自  
由와 特權이라고 할것이다  
나의 어머니는 就職도 좋지  
만 婚期가 늦어진다고 걱정  
을 하신다

그러나 이웃집 젊은夫婦가  
突職에서 오는 生活難때문에  
늘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  
나는 아침마다 衣服을 단장  
하고 通勤車를 타고 버젓이  
出勤할수있는 職業女性이란  
幸福感은 婚期의 늦어지는

우울을 가져볼 거들도 없게  
된다 그리고 職場에서 敬陪  
은 男子職員들 틈에 끼어서  
알을한다 할지라도 他人의  
人格을 尊重히 여기는 才  
에 男姓들의 부질없는 優越  
感에서 오는 蔑視라든가 事  
務的 職位에서 오는 差別이  
관것도없고 아무어썩파 干涉  
없이 明瞭하게 自己의 말은  
바 職責을 다 할수있다는것  
이 무엇보다도 多幸이다  
그러나 女性이란 「렷렷」이  
붙어있는 才함에 어느때나  
男姓들보다 操心하여야 하겠  
지만 더구나 우리 表決士란  
議員들과 記者와 傍聽者들의  
注視하는 눈앞에서 말하는  
것이어서 一舉手一投足이 모  
다 批評의 対象이 될수있는  
才대에 그것이 비록 어떠한

意味로 보아서는 善은 自  
己修練에 될수있을는지 모  
르나 不自由스럽거나 또  
不自然스러운程度로 自身을  
正道로가서라도 일일이 權  
心하여야한다  
그러고 가장 슬펏다고 記  
述되는것은 우리의 잘못이  
없으면서도 事務的 錯誤를  
일으킨것으로 誤認을 받았  
을때였다  
더구나 그일이 政治家들의  
利用物로서의 誤解를 받게  
되는때에 더욱 柳鬱하다  
이미 지나간 일이 되어서  
記憶에도 희미하고 具體的  
으로 말한 必要도 없거나  
와 逝去에 이러한 일이 있  
었다  
어떠한 事件에 있어 輿  
評 對決이 되어 論爭을 하

다가 表決에 부처게 되었는데 表決할 直前에는 成員與否를 알기위해서 우리 表決士들이 在席議員을 報告하게 된다

그런데 그때에도 議長은 成員되는것을보아 재빠르게 表決을 하게되었는데 野黨議員들은 表決直前에 슬금 슬금 退場戰術을 쓰게되었다 結局多數黨인 興黨의 表決強行으로 그議案이 可決이 되었으나 그後 野黨側에서는 成員未達의 理由로 無效를主張하였다

議長은 우리 女職員들의 人員數報告에 依해서 成員이 되었기에 表決을 하였으니 合法的 表決이라고 주장하고 野黨議員들은 成員未達을 면하여 놓았는데 女職員들의

人員報告가 잘못되었다고 우려를 두고 말성을 일으킨일이 있었다

勿論 우리表決士들의 人員報告가 成員이 되기에 表決한것도 事實이고 野黨議員들의 退場으로 表決할때에는 成員이 未達된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兩쪽에서 우리 女職員들만 가운데두고 야단들 갈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두가지 事實을 우리는 어떻게 解釋을 하여야 옳으나 政治家들의 政治術이라고나 하들까?

그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만이 당해야 할 슬픔이 아닐수없었다 그리고 어떤 몇몇 議員들은 우리를 무슨 심부름하는 자 람으로 誤認하는 것인지 歲

費를 타달라 茶를달라 사소한 일까지 분주하는 담배까지 사달라는데는 정말 질색이다

그런 議員들은 아마 地方出身인가보다 하고 오되려 동정이 앞서니 그나마도 기억할수가 없다 그때저래 머리속이 無條件 服從하기 마련이지만 聊件을 잊어버려놓구 우리더러 찾아내라는데는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없다 그리고 뭐 특별히 기쁨이 될것은 아마없었던 모양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없다

참 한가지 잊었다 月級날이면 맛있는 음식을 사다가 病患으로 계신 아버지를 慰勞할수 있는 일이라든가 아첨파다 끌리는 동

생들의 尊貴를 내세운 月  
 輪封套 속에서 렬어 줄수 있는  
 기쁨이란 무엇이든 比할바  
 아니다  
 더 이상은 말할것도 없거나와  
 말하고 싶지도 않다 지금 당  
 장의 생각같아서 男子들  
 모양으로 아무집이나 들어가  
 서 냉면을 굽배기로 한그릇  
 먹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뿐  
 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  
 각으로 그친다 래두표...  
 내가 이곳에 와서 厝甯 느  
 끼는 바릇은 繁華 煩雜한  
 都會生活에서 離脫되어 조용  
 한 農村의 情緒를 즐길수 있  
 는 時節을 그리워 하게 된 것  
 이다  
 그뿐 아니라 요즘같이 보리고  
 개에 굶주리는 缺食兒童들을  
 생각할때 그들을 눈앞에 보

는듯이 두어 때여 오른다  
 白飯食事가 보리 粿살미로  
 夜하는 刹那를 나도 같이  
 겪고보고 싶은 마음이다  
 女性이란 래두리속에서 터우  
 기 世俗的 現代主義에 全  
 然 無感覺할수 있을까마는  
 根據없는 虛榮보다는 眞實한  
 現實에 立脚하면서 供給하지  
 않으려는 生活態度에 새삼스  
 러이 깊은 共鳴을 가져보는  
 것이다



(懷) (心) (余) (痛)  
 過分은 늘 自身의 資格을 自身誇大妄想하려고  
 하는데 生한다.  
 虛敬은 늘 自身의 資格이 對入觀中에 있음을  
 잊었을때 가장 역세게 頭角을 든다 張逸波

探訪記

高麗速記

技術學院篇



乙生

貫鉄洞 五十一番地  
 그곳에는 六、二五 動亂前에  
 新築된 아담하고 실용한 二層  
 빌딩이 있다  
 바로 그 二層이 探訪者가  
 찾은 곳이었다  
 첫 눈에 후딱 띄우는 것  
 은 「高麗速記高等技術學院」  
 이라고 글씨 筆致로 지어진  
 看板이었다  
 速記學院을 위하여 일부러  
 뒀은 것이 貫鉄洞인가?  
 速記란 그야말로 鐵을貫할만  
 한 끈기와 힘이 있어야만  
 이루어 질수 있는거니까!  
 探訪者는 그런 생각을 하  
 면서 두사람도 나란히 올라  
 갈수 없는 階段을 다박 다  
 박 올라갔다 마지막 한 階  
 級을 올라섰을때  
 「어! 어서 오슈!」

하고 손을 내 밀며 마치  
 하는 이는 大韓速記學術協  
 會 研究部長이며 高麗速記高  
 等技術學院의 敎師인 黃重秀  
 先生이었다  
 「자미 좋습니까?」  
 「아아!」 뒤  
 들에 박은 人事였으나 말  
 걸을 맺으려하지 않는 黃  
 重秀先生 얼굴에는 힘이겨  
 운 貫担으로 지달리는 자  
 람과도 같은 疲勞가 번들  
 없었다  
 그때 敎室에는 너댓명의  
 學生들이 한뼘이 못 되는  
 널상에 걸터 앉아 한뼘남  
 지한 冊床을 앞에들 하고  
 무었인가를 熱心히 글썽거  
 리고 있었다  
 探訪者는 우선 白羊담배  
 한피치를 빼돌면서

「고려식에서는 이런 속기사  
양성기관으로서의 학원을  
언제부터 가졌다는조?」  
라고 高麗述記高等技術學院  
以前の 歴史부터 물어 보았  
다

「글쎄... 田二八一年인가? 그  
때 高昌洞(孝昌洞)팔조 다  
다미 밤에서 겨우 여섯명  
외 학생을 데리고 자자  
했었습니다 허허...」  
氣神 없이 웃는 黃重秀先  
生 얼굴에는 그 옛날을 田  
想하는 서글픔이 훑훑이 떠  
올랐다

「그때 속기를 배운 사람들을  
중에서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렴요! 육군본부 2급  
부판하프에서 속기를 가르  
치고 있는 분이 그분이랍

니다.  
語彙는 確證的으로 發展하  
여 高級 副官學校로 올라  
갔다

陸軍本部 高級 副官學校에  
서는 하루 여덟시간씩 九個  
月 동안에 修業한다느것이였  
다 그런데 異常한 것은 環  
境도 좋고 修業期間도 그대  
를강은데 그數百名을 헤아리  
는 述記 修了者中에 各處  
어엿한 述記士는 손가락을  
 꼽을 程度라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를 들는 동안  
授業時間을 대 오는 學生들이  
하나씩 졸씩 늘어갔다  
田時三十分! 授業이 始休  
되었다 급살한 黃重秀先生은  
「자아 일올레니 받아 쓰제  
요!」  
하면서 民權院 述記錄 中

에서 面打날아라는 別名을  
가진 議○○議員의 發言一  
部를 읽어 내렸다

「議事進行에 치해서 답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與野를 莫論하고...」  
探訪者는 슬금 슬금 눈  
치를 살피 가면서 받아  
쓰기에 熱中하고 있는 學  
生들 틈을 敬策하였다 冊  
床에 놓인 白紙 위에는  
꿈뚱발레 기어간 자리와도  
給似한 금이 한줄 두줄  
늘어갔다

探訪者는 얼굴이 갈색한  
한 學生의 뒷전에다 입을  
 갖다 대고 살근이 속살겼  
다  
「얼마나 하면 될것 같습  
니까?」  
「삼개월이면 배우긴 일단



다 배운대요. 그리구 여섯 달이면 수료한다는 데... 일컬어 잘 숙한 學生은 그렇게 말 하면서 일적은 듯이 씩그레 웃는 것이었다. 암만해도 自信이 없노라는 듯한 듯이 넋죽이 옛 보였

다 이번에는 발소리를 죽이고 操心 操心 면 뒷자리에 앉은 女學生 紳으로 가다가 뒷벽에 나붙은 「原福慕慕」이라는 廣告를 窺見하고 발길을 세웠다. 四方 한자 남짓한 백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다.

「本學院 同門會」에서는 六月부터 同志間의 親睦과 進記學術의 研究와 發展을 爲하여 月刊으로 交友誌 高麗誌를 定期準備中인바

卒業生 및 在學生들의 많은 應募가 있기를 바란다. 探訪者는 그 廣告로 하여금 비로소 高麗式 進記에는 同門會라는 것이 있음을 깨닫고 內心 祝賀하여 마지않았다.

그때 투당 투당 階梯를 올라 오는 소리가 나더니 高麗進記高等技術學院院長 金星漢先生과 高麗式 現 民議院 進記士인 李柱範氏가 올라오고 있었다.

探訪者는 院長 金星漢氏를 부처 잡고 學院을 經營하는데 무슨 隘路 같은 것이 없는가 물어 보았다. 「예로고 뭐구 내 지금 빛이 大十萬圓이외다」 院長 金星漢先生은 그렇게 隘路를 虛心히 吐露

하는 것이었다. 그와 같이 財政的인 赤字를 내면서까지 學院을 經營하는 理由인즉은 實로 우리 나라의 進記文化의 一翼을 担當 하고자 해서 라는 것이었다.

원만치 약빠른 사람이 이라면서 有各한 韓國進記學院式으로 「一個月 無料講座」 就職辭旋 「進記士 資格 授與」 獎學金制度有함 等等 내걸고서 라도 收支

를 맞춰 볼지한 일 이전만 探訪者가 본 高麗進記高等技術學院 院長 金星漢先生에게는 그와 같은 欺欺性이 엿보이지 않았다. 大韓進記學術協會에서는 모름지기 傘下學校의 發展과 育成을 위하여 非能率

的인 法式을 들고 나와  
 觀을 歐陽계하며 學院 謀利  
 的 行爲를 恣行하는 前記  
 韓國 速記學院 다위를 辨彈  
 乃至는 粉粹하기 까지에도  
 努力을 아끼서는 안 될 것이  
 아니겠는가?  
 「자랑거리 는 없습니까?」  
 하고 묻는 探訪者에게 院  
 長 金星漢先生은 계면적계  
 웃으면서  
 「뭐! 있다면 우리 나라에서  
 유일한 『速記通信教育』이지  
 요...」  
 하고 通信教育에 肉한 애  
 기를 하는 것이었다  
 講義錄은 初, 中, 高等篇  
 그리고 研究篇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初卷은 現在五百餘部  
 가 配本 되었으며 研究篇까  
 지 購讀하는 사람도 十餘名

이 된다고 한다  
 「그래 고려의 現의 속기사  
 가 몇 사람이 됩니까?」  
 하고 묻는 말에 院長 金星  
 漢先生은 앞서 高麗式 速記  
 를 배워주고 있는 樵翁부터  
 說明하면서 現後 速記士의  
 數 不知其數라는 것이었다  
 高麗式 速記를 배워주고  
 있는 것으로는 探訪者가 찾  
 어간 高麗速記高等技術學院 發  
 行部 高級副官學校 海軍副官  
 學校 그리고 金山에 있는 高麗  
 速記高等技術學院 그렇게 玄洞  
 하다는 것이었다  
 探訪者가 院長 金星漢先生  
 과 對話하고 있는 동안 高  
 麗式 現民議院 速記士 李柱  
 範氏는 그 투옥 되어나온  
 배를 안고 學生들의 틈바구

니를 한바탕 재면서(?)  
 유유히 거닐고 있었다  
 探訪者도 院長 金星漢先生  
 과의 對話를 申述하고 아  
 가부터 마음이 내키던 으  
 짓하고 엄정한 女學生 結  
 으로 갔다  
 「외 속기를 배우 십니까?」  
 「배우고 싶어서요!」  
 「자미 있습니까?」  
 「네! 자미있읍니다!」  
 「될 것 같습니까?」  
 「뭐가요?」  
 으 짓하고 엄정한 女學生  
 은 자미꼬장이 없는 말로  
 答覆한은 도박 도박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케 생  
 글 생글 웃는 表情은 무어  
 인지 모르게 探訪者의 氣  
 습을 시원케 해 주었다  
 探訪者는 이 探訪記를

쓰기 위한 좀더 많은 材料 두레번 두레번 하였으나 뒤  
를 求할양으로 四方周廻를 로 눈에 띄우는 것이 없었

# 速記入門所感

高麗速記技術學院

梁 雲 錫

初夏의 新綠이 自然을 덜었습니다 萬物은 驚임없이 流  
動하며 그속에 陰과陽 寒과白 善과惡의 相反된 混雜이  
交又되어 不規則的인 旋律의 演奏曲으로化하며 無慈悲한  
濁音으로 穢등을 울리니 騷亂하고 너부도 季節과는 判異  
한 都會地의 生理속에서 文字그대로 겨우 「速記」 과는 輪  
廓속에 入門한 初歩生에게 所感이라니 漠漠할뿐입니다  
日字로 練하여 約二個日의 授講生活이요 時間으로 練하여  
不遠 延七十時間内外의 授講學生의 體는 體驗所感이고보니  
글귀의 頭緒를 잡을수없음을 告白합니다  
速記 하면 中等學生時節에는 昔 羨望의적으로 되어있  
었습니다 機械도 아닌 손으로 사람의 말을 文字化한다는  
神祕스러운어 冠帶 疑訝스러운을 가졌고 또 그 時節에는

다 그래서 살기더니 빠져  
나올까 하다가 그래도 먼  
인지 아쉽고 虛한 마음이  
들어 아까 그 으저하고  
압전한 女學生 결으로 갔  
다

너부 여러말을 들어서  
피안 합니다  
아! 노!

探訪者는 女學生의 「아!  
노!」 라는 余韻을 귀에  
남긴채 좀더만 階段을 타  
박 다박 내려 갔다

高麗速記高等技術學院의 院  
屐과 지금工夫하고 있는 여  
러 學生들의 結實을 衷心으  
로 祈願하면서!

문밖을 나서니 靄은 비가 한방  
울 뚝 떨어 미에 두...

次号에는 서울女子商業高等學校를  
掲載함 (서울식)

速記라 하면 記者를 辨想했고 記者라 하면 知識  
 層의 職業이요 紳士型의 職業이라는 先  
 感이 들었음은 아마 나호자만의 少年期의  
 種屢이 아닐것으로 思料됩니다 그리고는  
 꼭 兩번 배워보겠다는 決心을 한지도 兩  
 두번이 아니었지요  
 어느덧 成長하여 社會의 一員으로 生存  
 競爭의 余波속에 휘몰아 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다할 專門技術하나 없이  
 그야말로 一入一枝의 格吾을 回想하게  
 되었읍니다 (그렇다고해서 無職의 說辭과  
 辨明은 아닙니다) 그리고하여 抱負그대로 入  
 標에 指針을 的中시켜 現在에 이르러 入  
 門生이라는 取扱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니 基本文字程度 배울때가 第一希  
 望에한 時期였을겁니다 때와場所 不問하고  
 가나다라... 記寫暗記에 汲汲했고 學生時  
 節의 種屢과 希望을 成就한것 같고 神祕  
 를 納得한듯 했읍니다 그러나 날을더할수  
 록 그런것이 아님을 알게되니 複雜奇妙化  
 하는 그것에 希望보다도 失望의 比率이 漸

次 增加하는 逆境에 陷入되어 學 不學의  
 岐路에서 唐肅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것  
 木是 나쁜이 아닌 入門生들의 共通心理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只今은 師者  
 扶一杆 入門生의 資格을 갖추春的 自信을  
 가졌읍니다 何如를 初程한 나의 心旌입니  
 다 抱負라하면 期矣이 完成된 速記士의  
 一頁이 되고저하는 그것뿐입니다 따라서  
 休戰后에 더욱 切實히 体得한 職業觀念은  
 誰何를 莫論하고 갖고 있는것이니 말로  
 育成 增加되는 新入과 吸收 消費과를 國  
 家の 公私機關의 均衡이 比等할는지? 또  
 는 高度로 發展化한 原子能時代인지라  
 그 惠澤을 입어 우리나라에도 말 文  
 字化시킬 槓槓가 究明되지 않는가? 하는  
 疑問은 精神病的인 不安症인지는 모르겠으  
 나 混濁한 故台의 潮流와 아울러 애써  
 速記라는 一繩의 技術을 習得하기에 時間  
 을 消耗하며 所望의 努力을 기우리는 職  
 業意識에서의 懷疑는 否認할수 없는 事實  
 의 心琴임을 覺합니다 或者는 辨識程度로

第一期夏期  
無料速記講座

實施하다

(編輯室)

배운다고 하나 終末的인 理由로는 勿될것임  
나다  
어차피 들어온 總金額 하나의 速記人이  
필것을 約束하며 制限된 授課時間에 誠義  
만을 받고 있는 初步生의 점은 識見과  
前感을 頭緒없이 늘어놓고보니 부끄러움과

속스리음을 全身에 느끼나 先輩諸位의 寬  
容을 바라며 끝으로 우리들 前輩에 처하여  
容인 없는 援助와 鞭撻을 바라오며 우리들  
記用者에 애쓰신 勞苦에 感謝하며 健朗을  
됩니다

끝

本協會理事會決議에 依하여 八月七日부터 卅三日까지 第一期無料速記  
講座를 高麗速記技術學院에서 實施한바 있었는더 約三百名의 志願者가  
報到하여 其中 百六十名을 拔擢하였다  
그런데 이제그 授課動機를 調査해보는데 莫然한 好奇心으로 志望한者가 四  
十四% 就職을 目的으로 한것이 十七% 大學工夫의 手段으로서 習得할  
려고 한다는者가 十四% 一人一技의 必要性에서 志願한者가 十三%  
新聞系進出의 手段으로서가 十七% 로 되어 있다  
또 學歷으로 보면 大在가 八〇% 高等學校在學이 一〇% 一級이 十%  
로 되어 있다  
受講者의 四十四%가 莫然한 好奇心에서 出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라도 終講까지 落伍  
生이 三十% 程度 밖에는 안났다는 것은 酷暑期인 八月中이었다는 時間的  
條件과 速記가 內宅하고 있는 宿命的인 無味性을 아울러 考慮할때 多  
幸한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 夏期講座를 마치고

高麗速記技術學院院長 金星漢

이번 夏期講座를 直接 말아  
 가지고 講義하는 데는 무더운  
 末秋도 가까워 티위가 한량인데다  
 無料라 선지 불라도 비좁은 講  
 義場에 一席의 빈자리도 없이  
 뻐뻐한 가운데서 관달을 떠들  
 어 밤간 섬이 된다 워낙 좁다  
 관곳에 많은 사람들이 뭉여서  
 졸린나는 밤내가 섞인 体臭가  
 코를 찌르기도 하였으나 상도  
 지프러지 않고 견딜수 있는 것  
 은 아마 자신의 너무 텅텅한  
 소지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 진땀을 빼가면  
 서도 떠들어떨때 시종 마음흐  
 뚝관감이 있었으니 그렇게 성  
 황을 이룬 가운데서 강의를  
 해보긴 처음이고 또한 대부분  
 남녀 대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도 조용히 잠을 하나 없이 청강  
 하는 데는 강자 자신이 도취되어

흥을 느껴 가면서 무난히 끝낼수가 있었  
 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나날이 어느덧 한달이라 하지  
 만 실지강의날자는 二十여일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간에 최신키록을 올려보려고 강  
 의진도를 빨리하여 약 四十일만에 있을만  
 한 진도가 나갔다 그런데 이렇게 초속도  
 로 나간것까지는 좋았으나 도중에 학자들  
 씩 낙모가 생기는데는 섭섭한 감이 들었  
 다 이리하여 예정일자에 예정과정보다 앞서  
 나가게 된것은 수강자들의 열성의 도가 높  
 았다는데 기인 하였을것이다

하여튼 지금 강좌를 마치고 가만히 생  
 각 해보면 무더운 여름날에 땀을 썼으며  
 부채질을 해가며 강의할 그날이 신기스럽  
 기만 한것 같다

결으로 한가지 피안하게 생각하는것은  
 더 계속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뜻대로  
 계속강의를 해주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며  
 당자들에게 마안스러히 생각한다

끝



# 作號辯

尹壽鉉

號를 力步라고 定해보았다 남들이 제  
 其 하나씩 만들어갔는다고 해서 나亦 원  
 승이 처럼 그중내를 내서 전제 한다는 것  
 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면 戶籍에  
 登記된 班番三宇外에 號를 하나 만들어  
 불리운에서 그리 남의 指彈함이 될만치  
 나號理가 없겠기에 心心한 감에 만들었다  
 고 하는 것이 좋을상 竝다

그런데 힘력부와 기를보호를 한거번에  
 어울려 불쳐놓고 보니 氣勢堂堂한 將  
 軍님 처럼 敬萬群衆을 모아놓고 號令계나  
 號만치 僕僕하고 곳곳한채 하는것 같기도  
 해서 나라는 사람을 아는이에게 未安한 마  
 음이 슬쩍 들기도 하지만 神通한 才標

그저 있고 既處果敢한 決斷力과 勇猛壯이  
 없는 自己를 天將 아는 나인만치 그저  
 온갖 才標근들의 노리려인 世上을 살아가  
 기에 한편 선선하기도 하고 또 있는才標  
 없는才標 부리기어는 힘에 겨우기도 해서  
 내판에는 사약다리 올라가는 氣分으로 관  
 탈자옥 관탈자옥 그저 失足이나 없이 힘  
 을 주어가며 어련에 다름식으로 갈어갈부  
 예없다 생각해서 이렇게 불쳐놓았으니 내  
 애기를 들고 갯심하다표 생각하기뻔에 于  
 先 그사람 때 標心性은 있는게로구나 생  
 가하면 感謝라고 多幸으로 알겠다

이러고 보면 남들이 좋아하는 그 힘력  
 字를 가담없이 보잘것없는 내 微微한 存  
 在가 제德心만 채우려고 盜用했다는 批  
 은 免하는 模樣인데 어쨌든 은것것을 標  
 破 任服하고도 余力이 있을 偉大하고 霸  
 氣滿滿한 그 힘력부가 어찌다가 無力하고  
 蒼白한 나라는 微物한리 存身 侮辱을 隨  
 하게 되는지 赫是 世上일이란 알수없는

알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힘이란 것이 覆大하고 支配的이며 積極的인 힘만이 힘이 아닐바에야 쓰러질려는 自身을 지양하고 維持하기에 液液한 弱者的 힘도 또한 貴重하고 必設한 힘인 것은 틀림이 없겠다

그런 意味에서 이제 力步라고 號한 것을 世上을 걸어가는데 制限 된 기힘이라도 하며 땅이 팽팽 울리도록 힘있는 기힘을 견는 威風大燄한 大將軍의 氣吞거리며 비길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 비틀거리며 한 발 자욱이라도 힘을 주어가며 疾風에 疾폭질하는 牙할수없는 疾의 거름거리에 빗대어 보는 것이 더욱 適切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疾 좁장고 無力한 나이가로서나 力拔山氣蓋世한다는 楚霸王 項羽남이나 面肩에 獨작한 肩章을 달고 념적다 리까지 올라온 長靴를 신고 「알푸스」 산 征服에 떠나는 大나프레옹의 勇將을 눈앞에 그려 보는 기막힌 快感도 때로는 없는 바가 아니다

한 치가 못되는 한 날 버려질 자라도 蒼空을

날으는 독수리의 氣概를 가져보고 싶다는 어느 詩人の 嚮往格으로 어찌 天下의 大英雄이나 豪傑들의 빛나는 行蹟을 追慕하고 崇拜할수 있는 마음까지도 許諾치 않는 殘忍을 차마 默想할수 있을 것이나 가다가

혹지 내 빗를거리는 無力일망정 다리에 힘이라도 얻어지고 살이라도 불게 되면 그야말로 남처럼 두주피이라도 볼꺼 쥐고 「마라송」이라도 한번 해볼는지 그 뒤 알겠느냐 말이다

그러나 바른대로 말이지 요렇게 빗를거리는 疾風에 어느 大力士가 었어 발길질이라도 한번 작난안어 한다면 그것은 그 偉大한 人士의 한날 작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無力者에게는 一火 致命傷이 될밖에 없고 별수없이 영영 不歸의 塵이 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이런 작난은 나에게서 무엇보다도 달갑지 않은 작난이고 업드려 빌건대는 재발되도록이면 佛院의 慈悲心도 이르켜쳐서



되도록이면 한쪽 말이라도 부속을 해주면  
그얼마나 고맙고 사람살필일이지도모를 것  
이다

혹은 빗물거름인 주피에 力步라고 하였  
으니 於然코 으갓장은 武裝에 世上의 람  
시키고 잡꼭거리는데 「동거호」의 惡行을  
斷絶할지도 모른다 오줌 世土사람(?)  
들은 원만치 멋진것이 아니퍼는 재대로  
그렇게 善解하기를 풀거하지않는 性癖이  
있고보니 호박을 참외라고 보아달라는 내  
시럽슨 要求가 千萬不備한 破廉恥漢의 所  
行이라 辱할지는 몰라도 내 特別히 이  
변관쯤은 재별 犬海같은 신 體는 雅量으로  
適히 나무라지않고 宥恕해달랄밖에 道  
理가 없다



明朗콩트

오도바이라는

速記士

全 範 成

장오 열한지

국회 속기과 자부심이다

밖에 걸린 스피카에서저는 가관종을 내

쫓듯 하는 P위원의 발언이 거이 삼십분

째 계속 뒤어 나오고 있다

공연히 심플 병클 웃고 앉았던 Y군이

뺨아 버리는 발로

「신 나겠다」

하는 것을 S군이 뺨는다

「야아」 「오도바이」 라는구나! 지극 누

구야?

「오도바이」 구「하야야」 구 우려두 라게 생  
겼어요!

S 군과 한 짝인 A 군은 「누구야」 하는  
물음은 북쇠 해버리고 이맛살에 졸음을 감  
으면서 이렇게 응수 했다

「뭘? 문제 없어? 우리 가진 안걸려  
이젠 곧 날때 됐어? 아직 이십분이나  
남았는데 왜 미리 걱정야?」

「아하하...」  
S 군이나 A 군의 웃음이 남 볼에는 평  
평 할지 몰라도 그 실은 그 웃음 속에  
어이 없어 하는 경관 이 섞여 있는 것  
이다

벽에 걸린 스피커에서 쿵라 나오는 연  
설 소리가 좀 빠를라치면 으렛전 속기자  
들 간에는 이런 말이 건너 가프 건너  
오곤 한다

S·A 짝이 속기하러 들어 갈 자간이  
임박했는데도 P의원의 발언은 곧 날것  
같은 기러 조차 보이지 않았다

「또 하나 규칙으로서 밝혀 둘것은 국회  
법 제 오십사조에 뉘라 했느냐 하면은  
정부로 부러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정부의 시정 방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각 장임위원회의 운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란테...」

S·A 짝이 속기 하러 들어 가야할 시간  
오분 전이다

「아 S·A 짝 안 들어가? 시간 됐는데  
번들 없는 V계장의 자임의식에서 느껴  
는 책임이 S·A 짝을 독촉했다

「들어 가야죠」  
S·A 짝이 백 줄어진 대답을 하고 사  
부실 문을 나갈 때다

무관에 앉았던 Y 군이  
「야아! 자알 라겠다! 지속 백 파이루  
오! 또 바이! 다 백 파이루!」

비가 속기 할 면 제트기 C의원이 나  
온다는걸 알아야지 C의원!...」  
「앗하하! C의원 하구 우리하군 인연이  
없어!」

남 못 되기를 바라는 막의에서 하는 말  
들이 아니다 속기자들은 말 빠른의원들  
이 발언 할적 마다 끝잘 이렇게들 알

대므로서 오히려 그로써 서로간에 위안  
아닌 위안을 느끼기도 하고 재미 있어  
하기도 한다

P 위원의 발언은 S·A 함이 속기 하  
지작 하피서 오분이 경파 했는데도 끝  
끝을 물랐다 될발분 좀 썼을 때다 별안  
간 정전이 되자 의사당 안은 암흑 그대  
로의 암흑이 되고 말았다

연단에서는 발언이 중단 되었고 의장석  
에서는 뭐라 뭐라 발 하는 소리가 애매  
하프 의석에서는 음성 음성 하는 소리...  
이곳 저곳에서

「계속 해!」

「그만 내려 와!」

「치켜라!」

하는 거친 소리가 연발 한다

그러자 연단의 P 위원의 입도 가만 있  
지를 안했다

「그럼 시간을 아껴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계속 하라지기 때문에 간단히 결론만  
짓고 내려 가겠습니다 제 육성을 뜻

들으신 분은 내일 속기록을 보아 주  
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P 위원의 발언은 분명히 틀리지도 않은  
려니와 빠르기는 더욱 빠르다

「안 들려...」

「내려 와...」

하는 P 함이 소음을 뚫고  
이와같이 이분 간은 지났을까 한데 전기  
불이 틀어 왔고 그러자 시간은 심분이  
지나서 S·A 함은 다음 잠파 표대 하게  
되었다

그 때 까지도 P 위원의 발언은 끝 나  
지 안했었다

S·A 함이 사무실로 돌아 오자 기다리  
피라도 있었다는 듯이 Y군이

「정전 된 동안은 먹었(안 썼) 냐구나?」  
한다

「뭐?... 먹어? 잡았다 잡았어! 아  
불이 나갔는데도 씹어 돌리니 재발 들  
려 먹어야 말이지? 왜 빠른진 그래

「더 빨라?」

「복두 팔지 뭐냐아?」

「지점은 H군이 빈정대자 럽구리 같은」

「O군이 한파다」

「장내소연 형취불능 이라고 써버려!」

「헛하하」

「허들갑 스런 웃음이 관바람 어울어 지」

「는데 M과장이 나타났다」

「어 S씨! 어떻게 됐오? 정전 됐을때」

「거 다 썼지?」

「통 안 틀려 뭣 썼어요!」

「그럼 어떡허나?」

「이때다 Y계장의 허리가 사심오도로 좁어지자」

「일종의 시선은 문관으로 집중 되었다」

「바른 손을 들꼬」

「수표를 하십니다!」

「하면서 크히 사표적인 눈 웃음을 치면」

「서 돌아서는 이는 유독 속기륙에 판심이」

「지대하기로 명난 P의원 이었다」

「내가 발언 칼적에 속기 하신 분이 누」

「구 세요?」

「저히 들입니다!」

「불 나갔을 때 잘 들립디까?」

「네 그런데 번역 해서 가져 갈래 한」

「번 봐 주십지요! 짐 안 들린 곳이 있」

「어서!」

「아 예! 그럼 써 가지고 의사당 안」

「으로 오세요!」

「네 네! 수표 하십시오!」

「이렇게 S·A편의 위기(?)는 모면 되」

「었다」

「스피! 카에서 들리는 사회자의 소리!」

「다음은 C의원의 발언등지가 있습니다」

「C의원 나와서 말씀 하세요!」

「또 한다 또다! 이번에는 호숫기다!」

「하하하」

「아 하하!」

「헛구리 같은 O군 말에 일동은 와르르」

「웃어 났다」

「존경하는 의원 등지 여러분!」  
「소속 「대음자」의 기록을 보지하교 있는」

C의 원의 입은 열었다  
「나는 규척이라기 보담도 여러분 양심에 호소 하고 싶습니  
다 읽자 부터 우리는...」 (끝)

# 韓國速記十年史 (二)

鄭 源 道

## 二、試案時代 (發表期)

並代的形態國家에서는 반드시 議會가 있으  
며 議會가 있는 곳에 반드시 速記가 있다  
日帝의 鐵蹄下에서 우리나라 國語는 抹殺  
되었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速記 承是도  
萌芽期에서 沈沈한 成長치 못하다가  
八、一五 解放을 마치자 그의 實用性의  
確定知否는 且置하고 三、四入의 速記法式  
의 案出을 보게되었던것은 높이 評價해서  
마땅한 일이라 하겠다  
前連한바 解放以前에 發表된 많은 法式

도 있었으나 그  
中 大部分은 研  
究課程에서 中斷  
되었고 또는 創  
案者自身海外에서  
歸國치 못한 事情  
等으로 말미이마  
거히 斷되었고  
오직 많은 苦境  
속에서도 꾸준한  
研究를 繼續하여

## 協會彙報

(會務日誌)

總務部提供

本協會 憲章 第二條  
에 明示되어 있되  
我國의 真正한 歷史  
文化를 正當的으로 向  
上」 시점을 唯一의 目  
的으로 하는 本協會의  
創立과 新充足에 對한  
발자취에 關하여는 이  
피 本誌 創刊號의 「會  
務日誌」 欄에 다 記述한  
바 있었다  
그 뒤를 이어서 이번  
四二八九年度 協會는  
前理事들이 쌓은 功塔  
위에 발디딤을 하고서  
보다 健全한 運營을 할

은 三、四人의 法式만이 오늘날 우리나라 議會記簿을 相當하게 되었다 하여도 遺言이 아닐상싶다

이제 現存하는 速記法式의 發表期를 略述한다면 始初로 西二七九年(一九四六年) 六月二十日 張基榮氏는 速記式速記法을 서

을신문外 各新聞에 發表하였고 뒤이어 大月末日頃 速記文化의 普及 發展 研究

를爲한 速記人의 集團體인 朝鮮語速記學會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結成을 보게 되었으며

同委員長에는 姜駿遠氏가 副委員長에 朴寅泰氏가 被選되었고 아울러 各紙에 報道

됨으로서 社會各方面에 우리말速記의 全貌를 나타내게 되었고 그리하여 全國各地에

散在된 同人間의 連絡과 共同發表의 機會도 갖게 되었던 것이다

同年八月三日에는 한글가로쓰기協會速記部主權로 朝鮮神學校에서 速記建設에對한 籌

畝會를 開催하였는데 同席上에서 비로소 各創業者의 自式紹介가 있었다 參席者는

張基榮 姜駿遠 朴寅泰 朴鍾沅氏로서 當時

는 觀察程度였으므로 同人間의 批判의 余地가 많았던 것이다

八月八日에는 朝鮮語速記學會의 別廳로 張基榮氏가 主幹인 「朝鮮

速記文化協會」가 務足하여 協會의 理事業으로 速記

事務分野의 養成 事業에 置重하기로 했었다

速記事務는 閔載禧氏(言論人)의 提은 協財로

活発히 進行되었 姜成事業은

主幹自身の 非常 精力으로 韓

수 있었으니 이에 承前하여 그 重要한 実績을 주려서 日字順으로 記述해 보기로 한다

▲四二八九年四月二十九日 前年度 協會의 終業을 告하는 第一回 定期總會에서 事業報告 및 決算報告 등이

있은 다음 理事選定에 들이 가 金鎭基氏外 十二名

의 新理事를 選定하고 未日에의 協會發展을 爲한 前途曲을 論했다

▲五月九日 召集된 第八次 理事會에서 理事長에 金鎭基氏가 當

選되고 各部部長 選等 와 部署를 選任하였는

데 그 名單은 다음과

國最初の 大規模的인 養成機關이 同年九月十日 遼波式우리말速記士養成所라는 看板을 내걸고 完足되었다 當時入所員은 卅五名 校舍는 昌德洞所在의 昌信公民學校를 隨時校舍로 使用하였으며 授業은 夜間授業을 했었다 (各派開講日時가 到來할때마다 派式紹介도 할 予定임)

張基泰氏의 發表한 遼波式速記法式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法式은 茂何線을 土台로한 折斷派이다 序論에서 既述한와와같이 折斷派는 茂何線派와 草書派의 長點을 線合檢討하여 基本原理로 採擇한 法式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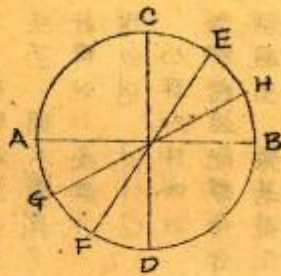
同法式에도 筆法上의 欠點을 內包하고있음으로해서 앞으로의 研究가 期待되는바 없지않다

基本文字의 原理는

初聲이 丁, ㄴ, ㄷ, ㄹ, ㄱ, ㅂ, ㅅ, ㅇ, ㅈ, ㅊ, ㅋ, ㆁ 으로 十三行으로하고 ㅋ, ㆁ 行만은 合用하기로 되어있다  
中聲은 二十一箇中 九箇音으로 ㄷ, ㄴ,

上, 丁, 一, 1. ㄱ, ㄴ, ㄷ, ㄹ, ㅂ, ㅅ, ㅇ, ㅈ, ㅊ, ㅋ, ㆁ 行을 採擇하였다 以外의 中聲은 基本 中聲으로 採擇한 九箇線에 合用하지 되어있으며 終聲은 丁, ㄴ, ㄷ, ㄹ, ㅂ, ㅅ, ㅇ, ㅈ, ㅊ, ㅋ, ㆁ 七箇로서 이것 또한 以外의 終聲은 合用을 原則으로 하였다

圖表로 보면



같다.

|     |     |     |
|-----|-----|-----|
| 總務部 | 部長  | 黃圭鎮 |
| 理事  | 金今勇 |     |
| 文化部 | 部長  | 金宗弘 |
| 理事  | 金哲淳 |     |
| 審査部 | 部長  | 白廷敏 |
| 理事  | 鄭源道 |     |
| 事業部 | 部長  | 韓奉永 |
| 理事  | 尹炳嵩 |     |
| 研究部 | 部長  | 金明純 |
| 理事  | 黃重秀 |     |
| 理事  | 盧元鎮 |     |
| 理事  | 李東淳 |     |

▲五月十一日 各部 部署在員의 選定에 따라 正式으로 事務를 引繼한 本年度의 各部 計劃樹立과 아울러 活潑한 運營에 着手하게 되었다

(初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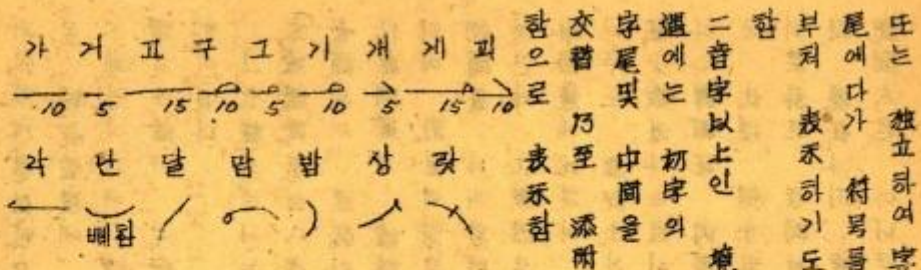
- ㄱ = AB 直線
- ㄴ = AB 下直線
- ㄷ = EF 直線
- ㄹ = CB 曲線
- ㅁ = AB 上曲線
- ㅂ = CD 曲線
- ㅅ = DE 曲線
- ㅇ = AC 曲線
- ㅈ = BD 曲線
- ㅊ = CD 直線
- ㅋ = GH 直線
- ㆁ = CA 曲線
- ㅇ = AB 曲線

(中聲)

- ㅏ = 10 耗直線
- ㅑ = 5 耗直線
- ㅓ = 15 耗直線
- ㅕ = 10 耗上大円線
- ㅗ = 5 耗上小円線
- ㅛ = 10 耗上大円線
- ㅜ = 5 耗上半線
- ㅠ = 15 耗上小円線
- ㅡ = 10 耗上半線

(終聲)

初字인 境遇에는 一定한符號를 字頭에表  
示하는것이있고 또한 二音字가 初字를 交  
換하여음으로 먼저字의 終聲을 表示하며



尾는 獨立하여字  
尾에다가 符號를  
부치 表示하기도  
함  
二音字以上인 境  
遇에는 初字의  
字尾 및 中間을  
交替 乃至 添附  
함으로 表示함

▲五月二十二日 第九  
次 理事會 召集會誌  
「速記文化」第二回 究  
刑에 對한 具體的인  
計劃樹立  
▲五月二十六日 韓國  
速記側파의 交涉이 於  
要하다는 輿論이 있어  
緊急히 第十次 理事會  
를 召集코 이에 對한  
方案을 研究하여 交涉  
委員을 送定코 이에  
一任함 그리고 審査部  
部長과 理事外에 審査委  
員을 다음과 같이 委  
囑하기로 하였다  
張德根 李柱範  
▲七月三日 前次 理  
事會에서 送任된 交涉  
委員이 韓國速記側파



以上은 史的考察에 直接的인 關係를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다만 參考程度로 工 翰 廊만을 表示하고 다음으로는 遞收式 遞記法의 長短을 論한 보기로 하였다

基本文字의 構成에 있어서 우리말의 類度 實態와 記号性格이 完全合致되어 있다는 點

交字의 構成은 우리말의 類用音字를 遞 扱하여 獨音略記號를 構成하여 第二의 基 本文字를 構成시켰다는 點

略字法은 各語詞의 略字法式이 數種의 原 則下에 能率的으로 이루어졌다는 點等이다

張基泰氏의 附錄과 때를 같이 하여 九月 二十日 자로 設置된 立法機關의 遞記士採 用本告가 軍政方人事行政院로부터 公府되자

主로 두 團體(朝鮮語 遞記學會, 朝鮮 遞記文化 協會)에서는 數次에 亙하여 協議를 거듭

하였다 同會會에서는 當時의 社會的인 環 境에서 政治的인 움직임이 모든 決定을 左

右하다 시피 하였으며 또한 面은 當時의 現存 遞記士로서는 遞記事務의 權限을 勘當키

困難하여서 이는 잡다운 遞記의 本末 使命

을 完全히 遂行 치 못하게 될 것임으 로 略記程度에 不 過하다 하여 遞 記하는 論이 支 院 的이었다

그 立証으로서는 立法議院 第百六次 會議에서 遞記의 存廢問題가 論議 되어 社會의 聲은 物議를 가져왔던 것인바 그原因은 事務量에 比하여

너무도 遞記士가 極少數였다는 點이 다 詳細한 內容 은 此後 紹介하

기로 하고 當時부 터 現在까지 遞 記同人은 아니로

交渉 하였으나 相 對方의 態度가 이에 應じ 않아 交渉을 中 止하였음

▲七月五日 第十一次 理事會를 召集하였는데 여기서 聲明書 發表與 否에 對한 論議가 있

었다

▲七月九日 朝鮮日報 四面 「우리의 報告」 欄에 理事長이 本協會 紹介文

을 掲載

▲七月二十五日 第十 二次 理事會 召集 本 協會의 對外的인 行事

로서 夏期第一回 無料 遞記講座를 開催하여

本協會에 對한 認識을 널리 宣傳키로 하여

뒤 우리 말 速記의 南柏과 後輩養成 및 記錄 文化 發展에 陰으로 陽으로 後援하여 주었고 또한 生活을 같이 하신 現民議院 速記 課長 金寶煥氏가 「일파와보」에 「앞에서본 速記」라題하여 韓福 速記 內容을 紹介하여 當時 立法議院 南院 準備 當時의 實情을 말하고 지관 다

「앞에서 본 速記」 三

四二七九年 十月에 設置된 立法議院 事務處는 南院 事務에 바뻐다 當時 事務 總長 全奎弘博士는 南院을 앞 두고 院의 記錄에는 速記를 採択할 것을 決定하고 干先 速記士의 募集에 着手하였다 그 當時에는 國內에 우리 말 速記士의 存在 與否조차 疑問되는 때라 韓福 速記 井 籍으로 全圖的 範圍에서 速記士를 求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速記士는 香처럼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院의 人事課는 速記士의 出現을 難首若 待할 따름이었다 이러는 가운데 速記를 할수 있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人事 係員은 무슨 큰 橫財나 汗것같이 가슴을

을렁거리며 이 神童로운 技術者를 面接할 것 같은 自己는 速筆 이니가 (勿論 普通文字) 演說을 받아 쓸 自信이 있다는 對句에는 拔어진 입이 달이 자양도록 失望할 뿐이었다 모든 南院 準備는 予定대로 着着進 行되었지만 다만 院의 記錄을 말 을 速記士만은 감 容 消 息 이 여 서 失望과 患難을 느낀 院의 人事 課에서는 直接 探索 隊를 派遣하

小委員會를 다음과 같이 構成함

- 金鎮基 (理事長)
- 尹炳高 (事業部長)
- 鄭源道 (逕波式代表)
- 李柱範 (高麗式代表)
- 李東淳 (中央式代表)
- 韓季永 (서울式代表)

그리고 地方議會의 速記士 進出에 對한 交渉도 講座 小委員會가 兼해서 하기로 決定함

▲八月七日 夏期第一回 無料 速記 講座를 高麗 速記 技術 學院에서 各五十 名씩 세 班을 나누어서 實施함

▲八月十日 서울特別 市議會의 速記士 採用에 對한 交渉을 함

여 速記士를 索出하는 行動까지 取하기가  
 이르렀다. 이러한 努力이 奏功함인지 여섯사  
 람의 速記士를 求하였다는 것은 邦家를 思  
 하여 史로 多幸한 일이라 하겠다. 이 應  
 募된 速記士는 各各自己式으로 創始된 速  
 記體系를 바르라고 있어서 各派式의 元祖格  
 인 速記士들이었다. 이 以外에 院의 交涉  
 을 받고도 아직 우리나라 速記는 完全速  
 記의 段階에 到達하지 않았으니 院의 速記  
 를 말하는 것은 良心에 許諾치 않으니 辭讓하  
 겠다는 謙讓한분도 있었다는 事實은 後日  
 에 안일이다 (中間略)

그리하여 院으로서 이분들에 對한 待遇  
 는 當時 事務總長 全奎弘博士의 技術에 對  
 한 理解性을 表示하는 것으로서 總長의 報  
 酬보다 速記士의 報酬가 더 많았다는 事實  
 은 初創期의 速記士에 對한 좋은 撰物이 되  
 었다.

上 述한 바와 같이 議會의 速記를 拒當하기  
 에는 너무나 無理함을 周知하면서 도 建國  
 初期의 議會構成인만큼 모든苦難을 克服

해가면서 萬全을  
 期하지는 못할망정  
 精誠을 다하여  
 盡力할 것을 結條  
 로 삼고 無計劃的  
 으로나마 勘當하  
 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十一月一  
 日附로 朴賢榮  
 崔履謙 朴學榮  
 朴鍾沆 金天漢  
 孫秉吉 李竟吉 六  
 氏는 干先 優特

의 養成機關設置  
 의 方策을 講究  
 하여 줄것의 條件  
 下에 入職을 하  
 였고

金竟完 金南鎬  
 徐廷祿 崔雲波  
 崔潤基 韓龜求

▲八月三十日 夏期  
 第一回 無料講座終了  
 以上 日誌의 公南程  
 度로 記記하여 보았다  
 이것이 第一回 定期總  
 會를 開催하여 新理事  
 가 選任된 後 八月  
 十日까지의 本協會의  
 결어온 足跡이다

(八月二十日 記)



94

늦게 金學憲諸氏が 養成員으로 採用이 되었  
 다. 이리하여 우리말 速記陣은 十二月十一日  
 午後一時 當時 軍政府第一會議室에서 兩催  
 된 金奎植博士가 五十二議員이 參席한 予備  
 會議에서부터 그活動을 開始하였던 것이다.  
 이같이 大人速記士가 議會記錄을 担当한  
 議會는 어느나라에서도 볼수 없으며 또한  
 議會謀成初부기록 記錄을 갖게된것도 世界各  
 國 議會史上에 稀한事例는 아닌것이다.  
 이저음 張基榮氏는 實務에 置重하는 面보  
 다도 後輩를 養成하여 社會에 輩出함으로  
 서 記錄文化의 完壁을 期하고져 養成事業  
 에만 邁進하고 있었다.  
 때를 같이하여 養成所開設에대한 募集表  
 帖가 各新報에 連日 掲載되자 速記法이  
 아닌 한글에 가다운 外形의 文字를 가지  
 고 速學하다시피 하는 體制로서 速記研究  
 生募集이라하여 加平에 있는 李德求氏로부터  
 서울신문을 通하여 廣告한일도 있었다. 이  
 러한 認識조차 못하는 速記의 啓蒙을 願  
 하여 諸氏は 樣會있을적마다 放送을 通하

여 또는 紙上을 通하여 啓蒙事業에 盡力  
 하였으니 四二七九年十月十二日 週刊「學生  
 新報」에 朴松氏主幹인 「朝鮮速記者聯盟」結  
 成廣告와 아울러 十月十九일부터 六日 同  
 同「學生新報」에 朝鮮語速記에 關於 研究  
 라하여 朴松氏自式의 初聲十二字를 發表하  
 였고  
 또한 十二月二十五日에는 朝鮮教育研究會  
 刊行으로 朴鍾沅氏著 「朝鮮速記」가 出版되  
 었다.  
 翌年인 四二八〇年四月에는 雜誌「新聞評  
 論」創刊號에 「速記에 대하여」라고 題한 張  
 基榮氏의 發表가 있었으며 五月五日에는 芸  
 術新聞에 「速記談話」라 題한 亦 張基榮氏  
 의 發表가 있었다.  
 五月十一日에는 善駿遠氏가 「文化日報」에  
 「速記建設의 科學的基礎」라題하여 發表한일  
 도 있다.  
 以上과같이 速記文化의 啓蒙宣板事業은  
 끈힘없이 繼續되어 왔다.  
 所謂우리말議會速記記錄이 처음으로 發刊된

것은 四二八〇年十二月十二日 十二時 立法  
議院南院式을 速記한것부터이다 곧 그것이  
南朝鮮通譯立法議院速記錄 第一号이다

當時의 實景을 金履熙氏는 「일파학보」 四  
봉에다가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드디어 速記는 「스피리트」의 「리프트」를  
用었다 第一号의 速記錄은 鮮明히 活字化  
가 되었다 速記錄을 손에든 立議員은 勿  
論 事務處의 職員들까지도 이 言語의 魔  
術師의 神妙한 技術에 瞠目 驚歎을 아절  
존 몰랐고 快哉의 歡聲을 높였듯것이다  
첫번 速記는 成功을 했다

立法議員들은 速記錄을 앞에다 놓고 驚異  
에 가득찬 새로운 눈으로 다시한번 速記  
席을 바라보게되었고 内心技術에 대한 敬意  
를 表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 速記錄의 卷귀은 일마더持續되다가  
暗礁에 걸려 及其也는 速記錄卷귀의 中斷  
거지를 보게되었으니 그 經過는 다음과  
같다

大名의 速記士로서 每日會議時間四時間分의

速記와 原稿作成을 發行하게되니 二次  
의 速記錄은 無理를加해저라도 所定時間에  
說稿가 되었으나 會議가 連日繼續됨에 따  
르는 原稿未整理分은 日益增加積滯되어 連  
日 撤夜 自定執務가 不可避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工能率은 必然的으로 低下되었고  
따라서 速記의 不忠實이라는 結果를 招來  
하기까지에 이르렀던것이다

이러한 阻礙의 難關을克服하 불양으로  
院法草案四十二條에 「速記錄은 會議後七日以  
內에 그印本을 各議員에게 配付하여 修正  
을 받아야하되 工務正期間은 그다음 會議  
日까지로 定함」이라는 院法을 成文化하여

速記의 正確과迅速을 斯하는 方向을 피하  
여보가까지하였다 그러나 當時의 速記施務  
狀況을보면 每日 全會議時間 平均四時間을  
二人式三組가 十分間式交替로 速記를 하였으  
니 一組가 十分速記를 하게되면 二十分의  
余暇가 생기고 工二十分間의 余暇가 지나면  
또 十分間을 速記하게되었다 二十分間의  
余暇를가지고 十分間에 速記한것을 反文한다

...

는 것은 도저히 不可能한 것이다. 그래서 數  
 次의 會議을 거듭하는 남이지 窮余之蹙으  
 로 方法을 바꾸어 四時間(二百四十分)을  
 三等分하여 一組가 八十分의 速記를 担  
 當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 反文은 連日  
 自家에서 徹夜執務를 하게 되었으나 每日  
 反文과야 할 速記原文은 移越되어 그량은 幾  
 何倍數의 으로 增加되어 갔고 漸次 反文率은  
 低下되어 一日날 速記錄이면 三十日에 完  
 了케 되었다. 그리하여 終局에 가서는 論難  
 對象이 되어 速記錄處止論까지 擡頭하게 되었  
 다.

本會議百十次會議日에 反文된 速記原稿는  
 四十六號로서 全體의 三分之一程度를 反文  
 한 셈이다. 그 主要原因은 上列한 바와 같거나  
 와 이에 한 幸災를 紹介하여 同人들 參  
 考에 缺코져 하는 것은 當時 在職速記士中  
 大部分의 速記士는 原稿의 整理를 어느程度  
 完了하였으나 幾個人의 職務慢慢으로 速記  
 錄原稿를 不能케 하였다. 이는 速記  
 缺上에 不幸한 일이며 速記原稿를 阻害하였

다고 볼 수 있다.

如斯한 議會에 於의 速記錄處止論의 始頭  
 는 우리 速記史上에 크나큰 不美한 事實으로  
 서 이러한 事態는 現任나 앞으로도 우리  
 로서는 想像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 하였다.  
 그러나 速記錄處止論이 拾遺한 責任이 全的으로  
 速記士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當時 議員들의 비루도 速記에 對한 認識  
 不足에서 온 議會의 措置였음도 看過할 수 없어  
 各議員의 發言 그 大略을 拔萃하여 그 眞意  
 를 紹介하고자 한다.

○ 秘書長(李相壽)은 第六次會議인데 速  
 記錄은 겨우 四十六號밖에 아디나 있습니다.  
 責任은 느낍니다. 마는 速記는 技術이 있어  
 야 하는 故로 (中略) 本院에 速記하지는 이가  
 七人인데 하로 一人당 配當時間이 約四十分  
 이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翻譯을  
 할려면 莫大한 時間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데 물어 보면 우리 普通자람 常識으로는 알  
 수 없는 妙蹟을 하고 또 날이 갈수록 幾何倍  
 數的의 時間을 말합니다. 그리고 同時에

다른나라에서는 六十名の 速記員이 있는데 우리는 七八이 다해낸다고 합니다. 結局은 人員이 不足하다는 것밖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以下略)

○金禮培議員(前略) 自己가 쓴것을 翻譯할려면 그七, 八倍의 時間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常識적으로 到底히 理解할수없습니다 (中略) 過去에도 그當場에서 翻譯을해가자고 일어서 들은일이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時間이 많이걸려야한다는것은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下略)

○副議長(尹琦度)(前略) 院法에도 所定期日이 있는데 한번도 대는적이 없읍니다 報告와같이 三辨이 말렸어요 여기에는 人員을 增加해야되는데 經濟에도 問題가됩니다 그러니까 院議로 處理해야 되으면 處理해주시기바랍니다

○文武術議員 速記는 날이갈수록 幾何級數로 올라간다고하니 날이갈수록 보기힘이 들겠으니 以後速記는 廢止하기로 動議합니다 (再議 三讀하는이 있음)

○梁濟傳議員(前略) 議會가 初創期이니 만저 速記가 반드시 必要합니다 (中略) 그러니 予算을 增加해서라도 이 陣營은 살리기 바랍니다

○金 敬議員 速記錄向還에 있어 技術이자만 疑心스러운일이 많이 있습니다 (中略) 筆記로 代用한다는것을 勸議側에서 接受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建雄議員(前略) 한時間에 萬字以上을 써야하는데 돌이서한 그것을 整理하려면 二十余時間을 가져야합니다 (以下略)

○金若水議員(前略) 三十分에 말한것이 열마나되는것은 放送이나 演說해보이는 알지 않습니다 (以下略)

○金奎植議員(前略) 本入도 速記는 아홉해 동안을 秘書로 있으면서 해보았읍니다 그런데 朝鮮速記는 이상한것같아요 英文速記는 한時間한것이면 두시간이면 「타이프」 찍어 나옵니다 速記할하면 一分에 百七十字까지 할수있읍니다 끝 「타이프라이터」로 찍어버릴수있읍니다 나도 해보았읍니다 마는

「타이프」 잘하면 一分에 百二三十字 적고 서  
두르면 九十字까지는 적습니다. 「타이프」 잘  
하는 사람은 쓰지 않고 곧 「타이프」를 가지  
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打字가  
漢文글자가 섞이고 해서 어려워져서 자면 손  
으로 쓰게 되면 時向이 많이 걸리는 것마는  
事實입니다. (中略)

아까 누가 養成을 말하는데 議會는 教  
育機關이 아니니만치 養成方法을 말리講究  
한다면 모르거니와 速記員養成하기爲해서  
을必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速記員말이 다른  
나라는 速記員이 六十人이된다하나 내보기  
에는 大體 두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는 한 사람이 나와서 進行되는 것 같습니다.  
다 院內에 一切쓰는 速記員은 많지 않지만  
院本會議에서 쓰는 것은 들입니다. 萬一 增  
加한다면 速記員이 많을 자리부러向應될 것  
같습니다. (以下略) (立法議院所記錄百十號中에  
서)

總面丙條로 全文敍載는省略  
申基彦議員이나 徐相日議員은 速記의 絶對性

을 主張하였고 卓昌赫議員은 速記士와 善  
後議案을 講究하여 明日討論자는 妥協案을  
提議하였으나 成立이되지 않고 다만 動議主  
文에 「廢止함」을 「當分向」이라고 修正하여  
表決한 結果 在席議員五十七人 可 四十五  
人 否 一人 으로 可決되었다. 이러한 決  
議로말미아마 五十號까지의 速記錄은 刊行되  
었고 百九號까지의 速記는 反文 未究재 七  
日十二日 速記士 全員은 復職하게되었던 것  
이다.

消息



새로 構成된 江原道議會 速記士로 本協會  
全員 (姜萬板 汝龍杓) 二名이 八月三十  
日 任地로 向罷함  
今報構成된 서울特別市議會에 本協會員  
(金仁寧 金顯祐 劉五益) 三名이 速記  
士로 進出함



# 編輯後記



七月에는 遠記文化  
를 낼려고 하든 노  
릇이 우물 주물하  
는 사이에 九月까  
지 밀려왔다  
如何한 辭明도 이  
에 對한 補償으로는  
되지 못할 것이기에  
다만 會員 여러 분의  
比賣만을 기다리겠다

이 우물적인 가을바  
람이 詩仙을 스쳐간  
다 가을이다 하늘  
높고 말도살피는 가  
을이라기에 우리도  
살피고 遠記文化"도  
充實해야겠다  
앞으로 여러 同志의  
加一層의 健斗를 祝  
願하며 遠記文化" 第  
三卷에는 倍前의 協  
助가 있기를 伏望한  
다  
이번 第二号 卷刊에  
있어서 그 編輯一切를

말다 쓰이한 全範成氏  
에게 謝意를 表한다

(東)

어느 때 없이 무슨  
冊子이든 尙에 編輯  
을 마치고 나면 흐  
뭇한 마음 보다 아  
쉬운 마음이 가슴  
칸구석에 스며든다  
創刊물을 낸지 어  
연 半個 星霜  
이번만은 어엿한 冊  
을 내리라던 것이 또  
부끄러워 해야 하는  
가부다  
「遠記士에게」라는  
趙副議長의 提言이 따  
率務議長의 「國會와  
遠記士의 役割」을

비롯해서 論處 「遠記  
의 將來」 「火一技로  
서」의 遠記」는 우리  
遠記人들만이 아니  
라  
못 사람들에게 말  
은 養道의 보람이  
될 줄로 믿어 마지않  
는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로 재미있고 보람있  
는 內容으로 多彩롭  
고 興味있게 꾸며  
보는 데는 甚히  
있다 또 附록 아첨  
없는 雜談이 있어  
第三号에는 보다 남  
은 「遠記文化」가 完  
行 될수 있도록 서로  
期約하자

(全)

權紀四二八九年九月三十日印刷

權紀四二八九年十月一日發行

發行處 大韓速記學術協會

編輯人 大韓速記學術協會文化部

印刷人

# 速記文化

第三號



大韓速記學術協會刊

目次

卷頭言

協會運營의回顧와展望 ..... 理事長 金鎮基 ..... 4

速記錄刊行의意義 ..... 事務總長 崔延宇 ..... 10

擴大되어가는速記士養成機關 ..... 12

地方議會速記現況 ..... 14

高麗速記는 이렇게發展되고있다 ..... 52

外國速記界의紹介(一) ..... 張惠根 ..... 16

日本編(上) ..... 16

議會를中心으로한速記의發達(下) 民議院 速記總長 金震熙 ..... 47

筆工生活一年의片片想 ..... 李東一 ..... 54

速記習得의一年 ..... 金榮宣 ..... 58

座談

協會運營問題를中心하여 ..... 23

速記界老將들의縱橫放談 ..... 35

生動하는憲政史로서의國會速記錄 ..... 朴淳亨 ..... 32

速記錄에對한再認識 ..... 朴贊文 ..... 44

隨筆

想 ..... 金今勇 ..... 46

職業 ..... 尹善敏 ..... 61

想 ..... 尹善敏 ..... 61

文態 ..... 報 惠 ..... 59

力 ..... 報 惠 ..... 59

도는것 ..... L Y S ..... 65

速記라는것 ..... 輒成 ..... 70

消息 ..... 輒成 ..... 70

協會彙報 ..... 輒成 ..... 74



南洋印刷所

社長 南 松 麟

서울特別市龍山區青坡洞三街一〇一

電話 三三七八

青丘出版社

社長 李 亨 兩

서울特別市中區北倉洞九三의四六

電話 一三三八

鮮光印刷株式會社

社長 金 晔 達

서울特別市鍾路區公平洞五七

電話 三五〇〇  
三六五三

大東堂印刷株式會社

社長 李 重 南

서울特別市鍾路區卧龍洞九三의二

電話 五六一〇



「獨學으로 速記를 看得하러면!」

우리나라에서 初有의 唯一한 獨學書

金天漢先生 創案

# 高麗速記

通 信

講 義 錄

- ◇ 案内書는 五拾圖鄺票보내면 送呈함
- ◇ 通學希望者는 直接來問爲要

서울 特別市 鍾路區 貫鉄洞 五一

高麗速記 技術學院

通信教育部

# 言高

## 波 逆 張 長 會

念은 普遍的으로 過去의 回想으로 起 歡喜를 유달리 目前에 彷彿시킴이 例事이다 이는 모름지기 極極  
 是는 人生의 本能이로되 또한 未來를 開拓하려는 試金石으로서 極  
 히 重要視할 莫인 것이다  
 오늘날 韓國運記學이 不動의 軌道에 올라 先進國家를 俄然케  
 할 能率을 示顯하고 있으며 이러한 文化面에 投身할 極少數 社會  
 人을 除外한 全社會人中 大多數人이 그 生計를 爲하여 政治欲과  
 財產欲을 들리신 血鬪劇으로 因한 人間性의 추잡스러운 斷面相의  
 露出亂舞로 率日이 設음은 오직 轉換期의 尸皮를 石華鏡속에 掌中  
 一見하는 好機會인 바이니 所謂 二午午나 粉面亂 度國後族을 把持  
 하여 對峙으러는 諸軍業自体나 必司名譽나 利欲의 狼牙를 潛着시키  
 고 虛와 實을 分疎무하게 混淆시키고 있지 않은 것이 없는 그 틈새에  
 서 創作文化로서 前者와 同方異으로 뜨르러는 事柄이 없으라는 理  
 도 없는 것이어서 自信의 各利를 爲한 巧言令色 能히 一時적으로  
 愚昧한 人心을 惑亂 수 있으며 率直決有한 正義앞에는 늘 敗北  
 當함이 古史에 尸解한 바이어늘 今時 韓國 運記界를 보더라도 일  
 커기 單行本刊行으로 賣本恒極한 尹氏等氏이 그 實跡를 眞檢하지 않  
 을수없는 例이며 韓國式이 虛荒孟浪한 自家宣傳에 終矣을 致을 날이  
 尸解鮮明히 보이니 甬余의 模倣運記 宣託者들의 自覺善處가 非但 時  
 日問題인 이 段階에 이르러 한層 더 運記界의 過去事가 慰懷는 되어나

# 頭

# 卷

社會學

即今日の 옴바른 速記學을 建立함 이 表面에는 八〇五 解放이란 立名 著財의 好機會를 社岸之火 視하고 다만 우리말 速記學 創始와 그 普及의 役 單으로 先驅者 開闢한 狂人같은 人關이 손쉬운 程度를 이社會에 보을 이 으고 있음으로써 現時의 速記界가 善惡되어 있음을 볼 때 나 個人의 自得者 보나 더 이를 獲存之役으로 되고 故하는 이들이 사는 生活觀의 體得者의 存 在가 速記學 開發上 眞正으로 希求되는 要諦임은 毋論이다.

換言하면 그 礎石은 튼튼한 柱木下에 그 生命이 有한 것이며 柱木은 다시 故한 옴바루와 椽木과 瓦를 볼 때 世인에게 瞻望시킬 義務履行下에 그 生命이 有한 것인데 이 下中上의 三者를 各기 別難不可分の 關係를 亨有 하되 오직 그 範圍와 範圍에 있어 差度가 있을 따름인 것이다.

따라서 現今 椽及瓦의 速記士가 比地國할 때 極少數이라 할진대 이亦是 職場當 要以上이 輩出되고 있는 機에 있어 이나라 政治人들의 기 우리말 速記文化의 社會 的 實力發揮의 貢獻의 世界的 實例에 대한 評價能方有無의 活用認識自體가 誠心 되는 바이지만 「더지」에서 價値와 需要가 一時에 急求할 것은 無難인 만큼 이에 裨益能勞를 可호하 자들은 速記人들의 層階 亦 創始時의 苦闘以上の 忍耐가 隨祥되어야 할 것임을 또한 一切의 速記學習者는 自覺하여 時代는 바야흐로 速記報國의 到來를 앞둔 開幕前 舞臺格인 處地로 站在 故이 確認自書하기를 故하는 바이며 全体 速記人은 늘 民主文 化의 翁은 功勞者는 될지언정 表面役者됨이 아님을 알자 그 職令院處에 있어 서도 마치 賢母良妻같이 終始一貫 背後에서 燕과 誠을 기우려야지 決斷或 自歌 禮者하여 부질없는 名利에 사로잡혀서서 二前途가 可호할 것임은 黑白의 區 分됨과 如한 것이다.



# 協會運營의回顧와展望

理事長 金 鎮 基



(一) 協會가 結成된지도 이미二年이란 歲月이흐  
 렀다 韓國의 運記人을 總網羅하여 運記文化를  
 發履普及시키고 나아가서 運記人의 救濟를 權  
 護하려는것이 協會編成當時의 趣旨 目的이요  
 또한 그 趣旨下에 지금껏 協會를 運營해내려  
 온것만은 事實이다 이런 意味에서 協會憲章  
 中에 規定되어있다는것이 그 目的가운데 運記  
 文化의 正當的發履의 圖謀와 運記人의 救濟豫護라  
 는 두가지 目的이있음을 알수있다 그러나  
 本協會는 我國에 있어서 運記界의 微薄的한 現  
 實態에 비추어 職業團體로서의 活動을 展開하  
 기에는 尙早한 感이있었다 아직도 未發履狀態  
 에있는 諸君이있고 또한 一般入의 運記에 대한  
 沒認識과 必要性의 確을 認識치 못한 關係로  
 아직 社會的으로 우리의 뚜렷한 要求條件을  
 主張할만한 時期에 到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協會草創期에 있어서 하여야 할 當先  
 務는 오늘날의 現狀을 비추어볼때 運記人의  
 救濟豫護보다 一般入의 運記에 대한 的確한 認識  
 을 爲하여 社外的으로 宣傳啓蒙하는 同時에 未  
 而拓分野가 많은 運記界의 發履을 圖謀하고 社  
 會的으로 널리普及시킴에 있는 것이다 文字上  
 구태여 協會의 目的과 性質을 区分하여 여기  
 한다면 職業團體로서의 發履보다 文化團體로서  
 의 役割을 먼저 充實히 하여야 되었다는 것  
 이다 이러한 過程을 어느程度 成功的으로 經  
 過한 然後에야 비로소 確固한 基盤위에 協  
 會가 서서 運記人의 主張을 貫徹시키고 救濟를  
 豫護하는 役割을 다할수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協會가 結成된지 一年半에  
 不濟한 오늘날 各會員에게 尊 惠利이라는 것  
 이었다고 하여 不平을 하는會員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理由로 協會專用論을 主張하는 性急

한 회원도 있다. 그러나 七十坪이란 신 歷史  
를 保有한 日本 歷史界에 있어서 唯一한 團  
체인 「日本 歷史協會」에 比한다면 그러도 本  
會는 急進的이라는 形容詞를 부칠만큼 發展  
하였다고 보겠다. 韓國 歷史界의 歷史란 日本의 七  
分之一에 不遜한 것이다. 하지만 보다 적지 않은  
會員을 包攝하여 그 基礎를 닦아 나가고 있  
다는 것은 앞으로의 難大한 發展을 期待해도  
 좋을만한 概兆라 하겠다.

(二)

未來의 보다는는 注意를 曾爲키 爲해 過去  
歷史의 研究가 그 價值를 認定받 爲해 過去  
協會 運營의 將來를 爲해서 將來하여야 할 일과  
期待되는 것들을 여기하기 전에 過去 運營해은 협  
會의 實績과 現況을 여기서 說述함도 無 價值  
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協會가  
過去 무엇이 내용을 단한 큰 일을 하였느냐  
하면 그렇지 못했음에 이 못에 처해서 本  
會 運營의 一部 責任을 맡은 사람으로서 全  
體會員에게도 勿論 社會에 처해서 面目이 없  
음을 正直히 自認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結果를 和來케 된 表面에는 運營者 몇몇 사람의  
能지만으로는 到底히 打南해 나갈수 없는 隘  
路가 있었으니 그와 같은 隘路가 어디에 있  
었다는 것을 指摘함으로써 앞으로의 發展에 큰 도  
움이 되겠기에 한 일과 하고저 하였던 일 그  
리고 그 隘路를 말하고서 앞으로의 協會 運  
營에 있어서 所見의 一端을 披瀝해볼까 한다.  
前記한바와 같이 本協會는 먼저 自己의 力  
한 組織體로서 나아가기爲하여 門戶를 開放  
하고 創立當時 協會에 加入하지 않은 諸 派  
派式을 加入시켜 會員을 增加코저 企圖하였다  
이에 協會 加入의 意思를 表明하여 正式으로  
申請해온 派式도 있었고 또 이와는 反對로  
似而非 派式團體를 組織하여 本協會와 對立하려  
는 派式도 있었다. 그러나 本協會는 이들의  
反對를 促求하여 實力을 尋獲시키 包攝하려고  
努力하였지만 自進加入의 意思를 表明해온 康  
邦式(中央 經理 高等 學館 運營部)은 所定의 資  
格試驗에 合格치 못하여 그 派式의 認定을 받  
지 못하였고 似而非 派式團體의 看板을 내걸  
고 조랑하는 韓國式(韓國 歷史 高等 技術 學館)  
에 처해서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屢次에 결

新 그들의反省을 促求하기 爲하여 訪問하였  
 지만 相對方面의 代表되는 사람이 全然 然나  
 주가지차 當기 때문에 巨額의 余地조차 假어  
 다를 方法으로서 이리한 團體에는 壓力을 加  
 하는 手段을 取하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以而非徒輩들의 조랑은 眞正한 速記文  
 化의 正當的인 何上 發展을 圖謀하려는 本協會發  
 展에 있어 커다란 痛的 存在이므로 하로속히  
 그들의 發展力함을 万天下에 暴露함으로서 除  
 去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직도 자리잡히지 않  
 은 本協會의 財政形便으로는 到底히 그러한 聲  
 譽를 조차 한번 發表하지 못할 程度라 다시한번  
 協會 經營의 責任者로서 苦衷을 느끼게 하였다  
 이러한 事情을 모르는 一般人은 本協會보다도 그  
 들의 團體를 더 잘알게끔 宣傳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速記란 머무나 잘알다싶이 宣傳만  
 으로서 그 生命을 持統할 수는 없는 것이요 오직  
 速速하고 完全한 記錄 그 自体에 生命이 있는 것이  
 므로 時日이 經流함에 따라 自然 淘汰당하고  
 完全히 淘汰당하리라는 自信을 가져도 無妨  
 할 것이다 그것을 證明할 수 있는 一段階로 過去  
 二次에 對하여 史乘된 서울特別市議會 速記士

採用試驗의 結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一三地方 選舉에 依하여 비로소 構成된 漢水以  
 北의 地方議會 即 서울特別市議會 京畿道議會  
 江原道議會 등에 速記를 採用케 하여 本會員  
 으로서 아직 速記를 現職으로 하고 있지 않은 有  
 能力者를 採用시키도록 交渉을 進行中 서울特  
 別市議會에서 非公開 速記士 採用을 한다는 傳  
 報를 들은 것은 이미 韓國 速記例에서 五名이  
 選定內 定되어 市長의 次薦를 기다리고 있는 때였  
 다 勿論 그들이 秘密裡에 內定된 裏面에는  
 同事務 相當 下部職員들이 速記를 理解하지 못  
 한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情實과 金力으  
 로 自己들의 惡能力을 「감푸라지」 하려드는  
 以而非 速記人들의 利害에 利用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適當한 것이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韓國  
 速記例의 史力이라는 것을 잘안다 그래서 到  
 底히 不可能한 狀態에 있는 이 일을 公開試驗  
 에 依하여 速記士를 採用하도록 數次 市當局  
 의 高位者를 訪問하여 交渉하고 營惑하였다  
 速記란 어떤 것이며 어떤 方法으로서 速記士  
 를 採用하여야 하는 基礎부터 說明하기 始  
 末하였을 때 비로소 생각을 고쳐 公開試驗을

차르게 되었다. 그結果 採用된人員은 選拔式  
 二名 高麗式一名 韓國式二名(多年有經驗者)  
 以上五名이었다. 이러한일이 있는 四五月後에  
 서의前과같은 經濟로 選拔士를 四名增員한일  
 이있었는데 이번에도 前과 마찬가지로 方法과  
 手段으로 韓國選拔制에서 推薦한 五名을 이  
 미 採用하기로 議長... (前者에는 市長이決  
 裁)... 의 決裁까지 났다는 말을 듣고 또다  
 시 市當局을 찾아가보니 事務停頓이全般的으  
 로 改竄되었을 뿐만 아니라 職員採用階次도  
 前과는 달랐었다. 그리하여 前番採用에이르기  
 까지의經濟를 說明하여 決裁까지 난것을 報  
 覆시켜 公南試驗을 차르게한結果 高麗式二名  
 選拔式二名이 採用되고 韓國式에서는 一名도  
 採用되지 않았으며 同試驗에서 韓國式의最高能  
 령者가 第八位에 該當하는데 不選하였다.  
 한편 京畿道議會에대한 交涉이어서는 道  
 當局이到廳하 受諾할수없는 運轉條件과 人員  
 을 내세우기때문에 拒絶하였더니 本邦 韓國  
 式에서 如何한 條件이라도 좋다는 態度로서  
 그를 應諾하여 採用되게되었다. 그러나 그를  
 의 實力은 몇칠도 못가서 選拔을 理解하지

못하는 道當局者로하여금 選記自体를 完全히  
 不信케하는 아를담지못한 結果를 招來하고야  
 말어 드디어京畿道議會는 選記를 廢止하고鐵  
 音校로 代替하고 있는 形勢이다. 多幸히 京  
 原道議會는 本邦會員 두사람이 派選되어 選  
 記를 担当하고있다.  
 이러한 實情을 두루생각해볼때 一般社會人  
 士들이 選記를全然理解하지 못하고있을뿐만아  
 니라 選記에대해서 誤認하고있는것을 잘 解  
 明하려고 하지 않는데에서 本邦會員 運轉制  
 나가는데있어 커다란 隘路가있으며 또한 似  
 而非徒輩들의 造謠으로 因한支障이 莫大한바  
 있으나 이는 本邦前記한바 一般社會人들이  
 選記에대한 認識이 不足한데서 나오는 一種  
 의 自然時인 社會現狀이므로 時間이經過함에  
 따라 自然 解消되리라하고 確信하는바이다.  
 그런데 앞서 좀 言及한바있지만 議會運轉에  
 있어서 가장 困難한 點은 첫째 財政이 食  
 糧하다는 點이다. 子算을 세워서 議會를 再滑  
 히運轉할만한 財政의 開發점이 全然 없기때문이  
 다. 現在 議會의 財政形勢으로서 겨우 耳聞  
 本「選記文化」를 讀할 두번 免刊할만한 財政狀

에 있는 것이다 勿論 利害關係를 같이하는 사  
 람끼라 모인 이니 團體를 莫論하고 처음에는  
 會員들의 주머니를 털어낸 돈은 모아 次々 그  
 밑받침이 되도록 形成해 나간 것이 事實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時期까지는 各各  
 스러운 큰 事業보다도 小規模로 漸進的인  
 發展을 해나가도록 協會를 運營하는 수밖에 道  
 理가 없으리라고 느껴진다 그리고 그다음  
 두째로 困難한 點은 會員의 수가 너무 적다  
 는 것이다 게다가 日隘增加가 아니라 日日縮  
 少의 現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速記를 現象으로 하지 않고 있는 會員들이 會  
 費를 納付하지 않아 大部分이 停權乃至 除名  
 處分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協會에 처하여  
 그와같이 無關心한 理由는 아마 協會에서 每  
 月 會費만 徵收할뿐 協會로부터 받는 自己  
 에 대한 利益면 莫이런 것이 何處없다고 생  
 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推測된다 그러나 그로  
 마나 그 차로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같이 本協會도 어느時에 가서 完全한 公  
 益團體로서 그存在價值가 나타날 때에 가서는  
 지금의 期待以上으로 會費를 徵收 協會가 되

리라고 본다 우리의 現狀은 現段階은 無에서  
 有를 形成해나가는 創業者이니만큼 不可不  
 會員의 一方面的인 犧牲을 强要치 않고서는 到  
 底히 漸進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  
 므로 會員 各自가 너무나 爆急한 成果에 만  
 期待하지 말고 當分間 犧牲的인 協同精神을  
 發揮하여 未來의 보다는 成果에 期待를 가지  
 주었으면 協會發展에 커다란 힘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세째로 困難한 點은 너무나 財政이  
 貧乏한 데다가 速記를 本業으로 하고 있지 않은  
 會員들이 會費는 커녕 協會에 처한 良心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 協會運營의 責任者가 아무런 有  
 能한 者일지라도 運營을 円滑히 해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人間の 心理가 特別히 寡國에 있어  
 서는 더 무례한 것으로 되어 있어 自己에게 直接  
 的인 利害關係가 없는 일에 처해서는 良心조차  
 두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現  
 狀을 그대로 維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만으로는 어떠한 團體를  
 組織했다면 그 團體는 所期의 目的達成은 始槍  
 하고 社會에 처하여 修徳만을 기칠 것이며  
 그러한 個人이나 團體가 많은 社會일수록 그

社會의發展은 그만큼 遲滯될것은 兩者麗々한 事實임을 우리는 잘알아야 할것이다

(三)

時雨의흐름에 따라 一般人들의 速記에 對한 認識이 날로달라져 가는데를보아 앞으로 速記를 必要로하는 곳이늘어가고 그에따라 會員이 增加될 때에는 지금보다는 나은協會가 될것이요 보다 強力한 團體가 될것이다 外國의예를 보아 앞으로 우리가 予想할수있 는 速記 需要는 甚은 여러곳이있다 干預 參議院이 補正되면 이에 速記士의 採用이란 不可避한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經濟가 安定되어 모든 企業체가 正當的인 運轉을 期할수있게되면 新南 通信社의 報章速記를 비롯하여 一般會議에 있어서도 必然的으로 速記를 必要로하게 되리라는것이다 그리고 法廷記錄에 있어서도 速記를 採擧해야될것이며 現在 民議院에 있어서도 推選中에 있는 尙任委員會中心主義採擧를 善한 國會法改正案이 通過된다면 各南任委員會 速記에 必要한 人員을 大補用員하지 않을수 없는 形便인

것이다

이러한 諸方面에 速記가 採擧되면 自然 會員도 增加될것이요 따라서 確固한 職業團體로서 어느程度의 發言權도 가지게될것이며 協會로서 마땅히 遂行하여야할 業務面의 範圍도 大幅擴大될것이다 그럼으로 첫째로 우리는 全國的으로 權威있는 速記士檢定試驗制度를 確立하여 本協會의 檢定試驗에 合格된 者가 아니면 어디에나 가서 나는 速記를할수있다고 하는소리를 敢히 할수있지않아는同時에 速記士를 必要로하는 모든機關에서는 本協會 檢定試驗에 合格된者에 限하여 採用하게끔 强히 推選되어야 할것이다 現在는 다만 本協會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民議院의 速記士採用時에만 本協會가 推薦한者에 限하여 應募資格을 賦與하는 措置를 取해 놓은데 不備한것이다 두째로 速記士의 技術向上을 專揚하기 爲한 全國速記競技大會의같은 行事를 定期的으로 辦行하여야 될것이며 세째로 記錄員으로서의 職務遂行上 必要한 諸般要求의 研究를 爲한 事業도 積極推進하

14

여야 될 阿類인 것이다  
 其他 모든 速記人의 價的向工을 國議함과  
 同時에 社會的인 地位向上 阿類라든지 迅速에  
 阿類 阿類에 이르기까지 本協會로서는 最善  
 의 努力을 傾注하여야 될 阿類인 것이다  
 이와같이 앞날의 우리들이 하여야 할 業務  
 란 庚로 尠大하며 唯且大한 努力까지 而  
 이있음을 우리는 予測할수 있는 것이므로 이런

한 우리들의 希望을 보다 빠른時日内에 達  
 成되게 하기爲해서도 무엇보다도 會員各자가  
 誠心誠意로 本協會課程에 努力해 주어야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들은 現在보다 未來의 發展形 勢  
 會를 爲해서 完全한 努力을 研磨해 둬야  
 必要하리라 믿는다

# 速記錄刊行的意義

民議院 事務總長 崔 英 宇

國會는 國會法第五十九條에 依하여 速記錄을 載하지는 않는 것이다. 速記錄은 이와는 反對  
 保成할수 있으며 이 速記錄에는 議事日程 載 本會議에서 行하지는 議員의 發言全部를 攝  
 察 議員의 發言과 諸般報告 其他를 掲載할수있 載하기 때문에 贊否의 討論에 參加한 議員의  
 다. 그러므로 速記錄은 國會의 對狀况을 가 發言內容을 昭詳히 알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速  
 記 明確히 紹介하는 方便이 되는 것이다. 國會 記錄을 通하여서만 一般國民은 國會의 議事進  
 行 況을 正確히 把握할수 있으며 一般國民의 行狀况을 正確히 把握할수 있으며 一般國民의  
 會의 會議經過를 簡略히 記錄하며 두는 데 지 意思가 載壇上에 어느 程度 表示되고 있  
 나지 않으며 議員의 發言하나하나를 빠짐없이 攝 는가를 辨明할수 있는 것이다. 速記錄이야 말

로 國會活動의 實錄이며 國民에 대한 구입  
본 報를 통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速記錄의 價值가 高價되는 理由는 이  
速記錄이 民主政治의 代表的機關인 國會의 活  
動을 가장 詳細히 記錄하여 紹介하기 때문이다.  
民主政治가 討論에 依한 政治라는 것은 오늘날  
하나의 常識이 되어 있을 程度로 모든 公議場  
內은 大小의 討論을 交雜함에 있어서 반드시  
議員相互의 願望은 討論을 許치된다. 따  
로는 簡單히 結束을 지어 버릴 수 있는 瑣事라도  
반드시 贊成하는 議員과 反對하는 議員의 意  
見을 들은 後에 決定을 보게 되는 것이다.  
討論은 民主政治는 바뀌어 가는 수레와 같은 것  
으로 到底히 變遷할 수 없는 일이다. 民主政治  
가 民意를 土台로 한 政治인 이상 民意의 自由  
로운 表現이 絕對的으로 要請되어 이 民意를 具  
體하는 段階가 固 各種 公議場에서의 討論  
인 것이다. 그러므로 國民은 恒常 討論의 結果  
를 察視하게 되며 討論의 內容에 至大한 關心  
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速記錄은 이와 같은 意味에서 國會를 爲始한  
各種 公議場의 討論의 內容을 記錄하고 또 발

표 國民에게 알리는 役割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即 速記錄은 會議의 記錄을 保存하는 同  
時에 會議公團의 原則을 具顯하는 두가지의 意  
義를 가지고 있다. 特히 會議公團의 原則을  
具顯하는 것이 速記錄이 가지는 가장 큰 意  
義라고 할 수 있다. 廣域國家化한 現代에는 國會  
나 其他의 公議場의 會議를 直接 傍聽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至極히 制限되어 있으며 따  
라서 이러한 會議가 正確히 國民에게 報道  
될 수 있는 余地가 적기 때문에 速記錄을 用하여  
처음으로 會議公團의 原則의 意를 알리게 되  
는 것이다. 會議公團의 原則은 裁判公團의 原  
則과 함께 現代各國의 憲法이 規定하는 두  
가지의 重要な 公團原則인 것이다. 우리나라 憲法  
第三十八條는 「國會의 會議는 公團한다. 但 各院  
또는 兩院合同會議의 決議에 依하여 秘密會議로  
할 수 있다」라고 規定하고 또 地方自治法第三  
十六條는 「地方議會의 會議는 公團한다. 但 議  
長 또는 議員三人以上の 發言가 있을 때에는  
討論을 經하지 아니하고 出席議員三分之一以上  
의 多數의 贊成에 依하여 公團을 停止할 수 있  
다」라고 規定하여 會議公團의 原則을 確立하

다. 그리고 規定하여 會議公團의 原則을 確立하



였다. 國會와 其他의 各 機關의 會議의 要請이며 依  
 公南는 民主政治의 當然한 要請이며 依  
 하의 理由로 모든 國政이 國民의 面前에서 討  
 議되고 있다는 名分을 세울수 있는 것이다. 그리  
 나 前言한바와같이 直接 모든 公議機關의 會  
 議를 傍聽할수 있는 人員은 스스로 制限되어  
 있기 때문에 討論의 內容을 必らず 傳達하는  
 建設錄의 必要性은 絶大한바가 있는 것이다.  
 現在 우리 國會는 予算上의 事情에 依하여 八  
 百部밖에는 速記錄을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國會 議員과 國外의 重要機關外는 이 速記錄을  
 配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다. 國會의 速記錄  
 況을 알고 싶어하는  
 國民의 苦心이 나날  
 이 高漲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國會의 會議  
 公南의 原則을 充分히  
 眞實하는 意味에서 또  
 이 速記錄이 國民에게  
 널리 配付되어야 한다  
 는 것은 實情을 要치



### 擴大되어가는 速記士 養成機關

編輯室

「人」 技教育의 必要  
 와 速記의 需要가 늘어감  
 에 따라 學校를 爲始하여  
 各 地方에 速記士 養成을  
 爲한 機關이 茁겨나고 있  
 다. 學校의 例를 본다면 速記를 一  
 教科目으로 改編하여 教育하고 있는 學校도 있  
 었으며 또한 現在에도 實施中에 있다. 그러나  
 이는 數少의 實業學校에 局限되고 있었지만 차  
 차 다른 人文系 學校에서도 이를 實施하고 있

않는 일이나 여러가지의 途路로 因하여 이와 같은  
 要請에 報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遺憾으로 생각한다.  
 그리고므로 우리는 國會의 各 機關과 討論을 備略하  
 려서 國民一般에게 紹介하고 있는 英國의 「헨사키」  
 (Henshaw)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한다. 이 「헨  
 사키」는 英國의 印刷業者 「토마스 키센 헨사키」(1757~1833)가  
 「스미트」(Smith)와 「Robb」와 「Robb」가  
 共同에 刊行한 것이 이의 嚆矢이며 그後 一八四〇년에 政府  
 의 公認을 얻게 되어 國民一般에게 配付하게 되었는 것이  
 다. 그리고는 前記한바와같은 事情으로 國會의 速記錄을  
 널리 國民에게 配付하지 못하는 만큼 英國의 이 「헨사키」  
 와 같은 것이라도 自發的으로 刊行되어서 國會의 議事  
 에 關心을 가지는 國民에게 配付되도록 宣傳되어서 會議公南의  
 原則이 더욱 保障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는 櫻何에 있다 서울高校 大東商高 서울女高  
를 비롯하여 各堂校에서 選記를 가르치고 있다  
으나 現在에는 事情에 依하여 中斷되고 있다 最  
近에 選記를 講義하고 있는 新設校 兩을 以下 細  
說하고저 한다.

△ 延世大學校編

此校에서는 總長의 特別한 關心으로 一人一校  
教育의 必要를 強調해오던 次 選記와 打序를 教  
科目으로 改編하여 發布되였다 卽 四二八  
九 年 第 二 學 期 부 터 正 式 으로 發 表 하 여 一 週 日  
三 時 間 의 講 義 를 하 고 選 次 科 目 으로 是 學 科 考  
查 一 學 科 를 認 定 하 고 有 了 것 이 다 이 러 한 科  
目은 다른 科 目 과 別 然 與 際 로 習 得 後 에 卽  
時 로 利 用 할 수 有 는 技 術 的 關 係 로 受 講 者 들 의  
關 心 이 集 中 되 어 一 學 期 가 지 나 는 지 금 의 受  
講 生 이 千 餘 名 에 達 하 고 有 다 한 다 이 講  
義 를 担 當 하 고 有 는 教 授 是 現 在 延 世 大 學 校  
春 秋 主 幹 會 會 長 有 는 李 吉 鎰 教 授 이 고 그 法  
式 은 書 式 이 다 別 途 로 敎 材 까 지 印 刷 하 여  
大 學 講 義 會 櫻 會 이 發 行 한 冊 選 記 의 發 展 을  
期 望 하 고 有 다

△ 養正高等學校編

昨年 十二月以來 同校에서는 課外 特別若  
斷으로서 選記를 新設하고 每週二時間의  
黃善明(選波式)氏가 講義를 担當하고 있는 데  
受講生은 約 二百名에 達하고 있다 한다

△ 江原大義塾編

江原道 儒道會에서 運營하고 있는 江原大義  
塾內에 昨年十一月부터 選記科를 新設하여  
江原道議會選記士인 洪堯杓(選波式)氏가 이  
를 担當 講義하여오다가 洪堯杓氏의 專入隊  
로 現在에는 徐平吉氏가 이 講義를 맡고 있  
다 今 日 同 校 的 授 業 時 間 은 下 午 五 時 半 부  
터 八 時 半 까 지 一 日 三 時 間 이 며 受 講 生 은  
男 女 二 十 餘 名 이 라 한 다 이 는 江 原 道 內  
에 有 는 授 業 會 中 唯一 한 選 記 士 養成  
校 的 일 뿐 만 不 然 道 內 에서 最 初 로  
授 業 되 는 것 인 冊 冊 앞 으 로 의 發 展 이  
크 게 期 待 되 고 有 다

# 地方議會速記現況

編輯室

八·一三地方議會議員選舉로 漢水以北의 地方議會 卽 서울特別市 江原道 京畿道의 議會가 構成兩院되었다 함은 周知하는바다 其外의 地方議會는 四二八五年三月以來 會議을 繼續해 내리고 있던바인데 議會活動에 附隨되는 速記도 地方議會의 兩院과 더불어 活潑히 使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編輯子는 地方議會에서 使用되고 있는 速記의 現況을 紹介함으로써 讀者諸位의 參考에 便하고자 各 地方議會에 二度 傳紹介를 依頼한바 있었으나 一部가 未着되어 不得不 未着된 一部議會의 吏情을 紹介하지 못함을 諒解하길 바라면서 以下 各地方議會의 速記現況을 簡畧히 記述하고자 한다

## △서울特別市議會編

開院에 따르면 速記錄作成의 必要性을 切感한 同議會에서는 干先 速記士 五名을 募集코 이를 相當하게 고시 速記士 採用試驗을 公

兩度施行한바 있었다 그結果 多數의 應試者中에서 本協會會員三名을 包含한 五名이 合格되어 吏務를 担当하고 있었으나 五名의 速記士로서 議會速記錄作成이라는 重大한 業務를 勤當할수 없음을 認識된 同議會當局에서는 다시 四名을 增員하고자 公內試驗을 實施하여 本會會員 四名이 採用되어 現在 郡令 九名의 速記士가 同議會의 速記錄 作成을 担当하고 있다 다른 地方議會에 비하여 가장 많은 人員을 採用하여 印刷된 速記錄을 作成하고 있는 同議會는 韓國의 首都에 있는 特別市 議會로 正當한 預算이 다른 데 보다 어느 程度 余裕가 있는 關係도 있겠지만 同議會 當局의 速記에 對한 理解와 認識이 他議會보다 높은 가닭이라 보지 않을수 없다 現在 서울特別市議會 速記에 執務中에 있는 會員은 다음과 같다

金仁亨 金顯祐 金祐義 姜万根 (以上並波式)  
崔孝來 洪乙姬 柳智永 (以上 高麗式)

## △江原道議會編

同議會 本是 八一三選舉以後의 兩院과 더불어 速記錄을 作成하고 있는데 兩院初에 本

協會會員 洪重杓 等五名(遠波式) 兩氏가 執務한 바 있었으나 兩氏의 專權으로 現在에는 徐平吉 皮光鏞(遠波式) 兩氏이 代替 執務하고 있다 二名의 速記士로서 速記錄을 作成한 다는 것은 檢히 이러한 일이나 以下記述할 他 議會와 마찬가지로 予算關係上 不得可하다 하 더 又 會議가 없는 때에는 他事務까지 執務 하고 있다고 한다

△忠清南道議會會編

四二八五年三月에 南院은 忠清南道議會에서 南院以來 專屬速記士二名을 採用하여 速記錄을 印刷 各部提議員들에게 配付하고 있다고 한다 現在 執務하고 있는 專屬速記士는 李甲熙 史永吉(遠波式) 兩氏인데 四後公務員의 待遇를 받고 있고 會議가 없을 때와 時間의 余裕에 따라 他事務를 執務하고 있다고 한다

△慶尙南道議會會編

四二八五年三月에 南院은 慶尙南道議會는 南院以後 오늘까지 速記士 하고 있으나 速記錄 印刷을 予算關係로 하지 못하고 다만 懸款된 原稿을 保管하고 있다고 하며 他事務를 担当하고 있다

는 速記士는 嘔託一名과 臨時速記士一名이라 한다 現在 嘔託으로는 朴元求(서클식) 氏가 있으며 또한 그는 會議錄作成까지 兼務하고 있고 臨時速記士는 會議가 있을 때마다 選定採用하고 있다 한다 速記士의 待遇로는 嘔託이 月四萬圓을 臨時速記士는 本會議에 限하여 日當三千圓程度의 待遇를 받고 있다

△京畿道議會會編

同議會에서는 現在 速記錄을 作成치 않고 다만 議會發言을 錄音으로 保存하고 있을 뿐인데 同議會 兩院當時 本務會에서 予차 速記士採用을 容하며 交渉한 바 있었으나 議會當局이 提議한 不當한 人員과 條件으로 定否하고 말았다 其後 그條件을 應諾한 韓國速記側이 이를 担当하였는데 얼마가지 않아 其의 實力이 暴露되어 오히려 議會當局者로 하여금 速記를 不信케 하는 結果를 招來하여 現在 錄音만을 保存하고 있다고 한다

△各市議會會編

其外에는 釜山市議會에서는 現在 李延仁(서클식) 氏가 速記를 担当하고 있고 水原市議會는 金承烈(高麗式) 氏 그리고 春川市議會에는 李鴻元(遠波式) 氏가 速記를 担当하고 있다

# 外 國 速 記 界 的 紹 介

## 日 本 編 上 張 惠 根

갑자기 (二) 처서  
도 아니요 外國  
事備에 稱述해서  
도 아니다 바  
갈 事備에 어  
두어 가깝하게  
느끼는 心膺은  
同人들 누구나  
다 같으리라는  
생각에서 取히  
주제넘게 붓을 들었다  
이미 同人 柳若庵氏가 「  
게네바」 夜節團의 速記士로서  
瑞西까지 派遣되었던 일이 있지  
만 當時 氏는 外交團員으로  
씨의 奔走한 公務旅行이었던  
탓도 있어 外國의 速記勳態에  
처해서 靑이 「맛치」가 되  
지 못했던 것 같다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디  
며 보지 못한 尊者로서 구태  
어 同人 柳若庵氏를 제쳐  
공고 앞서려는 마음 敢호도 없으나 本조부  
의 癡하고 있는 資料가 充分치 못하나 다 多少  
入手되고 보니 實窟한 資料의 死藏보다는  
리 同人들에게 公南해서 우리들 知識에 알  
마간의 보탬이라도 된다면 幸후이 아닐까  
생각되는 心膺에서 紹介의 役을 맡아 보았다  
本來부터 構想하고 實現시켜 보고서 願했던  
計劃은 쳤으나 이번에 入승된 것은 겨우 隣  
邦 日本에 關係된 것 若干에 지나지 못하다  
따라서 筆者가 紹介하는 日本의 勳態에 對해  
서도 尙少한 資料에 立脚한 考察에 不遑  
하므로 自然 未洽한 處가 不無할 것이다  
矣 諒者로서 많은 諒解가 있기바란다  
X X X  
文法上으로는나 言語構進에 있어서 國語와 類  
似한 矣를 많이 散見할 수 있는 日本語의 速記  
法은 約 八十年前 千八百八十三年에 敏素  
을 本業으로 하고 鉉山嶺을 研究中이던  
田嶺綱紀氏가 英語速記法의 創案者 〃아이  
삭핀트먼 (SACOTTMAN)의 構成原理에 많은  
影響을 받아 日本倭羅記錄法이라는 一連  
記法式을 創案發表함으로서 日本語速記發達의

一 源泉을 이루어 놓았다

發表當時는 아직도 完全實用을 볼 段階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是는 研究를 거  
듭함으로서 翌年인 千八百八十三年에는 自式  
의 普及를 急하여 後輩를 養成하게 되었다  
第一期卒業生으로서 當時 十餘名을 輩出케  
되었다 奧地 卒業生들이 社會에 副應할 수 있  
을 만한 能力을 具備시키기에 亦是 不足  
한 것이 없지 않나 田嶋氏門下中에서 有能한  
首弟子 若狹瑠藏, 林 茂淳等 二·三人은 다  
시 研究改良을 加하여 最初로 速記의 實用을  
보게 된 것은 翌年 時專新塾主權의 經國漫遊差  
談라는 環下의 座談會에서 前記二人이 行한 座  
談會速記였다

그後 千八百九十年 日本에 議會가 開設되  
자 兩會初일부터 速記를 採択하게 되어 이를  
契機로 漸次 社會에서도 速記의 重要性을 認  
識받고 稀貴한 存在로서 優待받게 되니 自然  
速記의 改良과 보다 優秀한 法式創案에 着  
眼하게 되는 有志들이 繼出하였다

田嶋氏가 創案發表한 千八百八十二年을 起  
點으로 하여 日本速記의 發達時代라고도 볼 수

있는 千九百二十年까지 四十坪向에 數多한 法  
式이 創案發表되고 그中 몇々優秀한 法式  
은 現今까지 活用되어 오고 있는데 重要한 法  
式으로서 日本速記協會가 推薦하고 있는 것  
은 早稻田 中根 佃 熊崎 田嶋 石村  
國守 佐竹 「이도」 (伊藤) 山根等々の法式  
이 列擧되고 있다 此外에 國賈로서 養成하  
고 있는 衆議院速記士 養成所와 參議院速記士  
養成所에서는 現今까지 發表實用되어 온 모든  
法式을 綜合折衷하고 先輩들의 經驗을 土  
白로한 一法式을 各기 衆參兩院에서 考案  
하여 衆議院式 또는 參議院式으로서 各院養  
成所에서 教授하고 있다 또한 우리로서 注  
目할 만한 것은 日本에서는 約七十年前인 千九  
百五十二年부터 硯城速記인 「소구타이프」 (速  
타이프) 라는 것이 考案되어 이미 研究段  
階를 지나 完全實用을 보고 있다고는 것이다

한편 이들 速記法式을 教授養成하고 있는  
實態를 보면 日本國首都 東京에는 勿論 地方  
곳 곳이 速記士 養成機關이 거의 없지는 마가 假  
다 싶이 되어 있다

首都東京에는 干法 官費로 養成하고 있는  
 衆議院速記士 養成所의 衆議院 速記士養成所를  
 비롯한 早稲田學校 中級速記學校 등이  
 日本最高裁判所의 書記官研修所에서는 소  
 푸타이피스트를 養成하고 있다

이밖에 各法式法律者들은 聖 王은 學院의  
 形態로서 經營되어 速記士를 輩出하고 있으며  
 各地方主要都市에서도 支部를 두어 養成을 하  
 고 있다

그리고 衆議院에서는 十三名 參議院에서는  
 二十七名씩을 毎年 養成하므로서 收容하고  
 二年間修業을 시켜 各院의 需要에 充트 시키고  
 있는데 同養成所 入學志願者는 毎年 相當한  
 數에 達하고 있다 最近千九百五十大年 三月  
 에 施行된 新入庄募集에 있어서는 衆議院의  
 男子 三百八十五名 女子 二百二十七名 計  
 六百十二名 志願에 男子 十名 女子 三名 計  
 十三名이 合格入學되었고 參議院에서는 應募  
 者 三百七十一名(男子)中에서 二十七名이  
 合格되었다

「소푸타이피스트」의 養成教授인 最裁의書  
 院官 研修所에서 三 四年間의 試驗期를

지나 約三年前부터는 裁判 速記에 適應할  
 수 있는 完全 「소푸타이피스트」로서 本格的인 養  
 成에 着手하여 昨年인 千九百五十大년에는  
 七十五名의 大量的인 輩出을 하고 있으며 今  
 년에는 더욱 많은 卒業生을 輩出하여 地方  
 各級裁判所에 配置할 計劃을 세우고 있다 地方  
 다 그런데 이養成所永尾 應議事는 二十四處  
 一이라는 熾烈한 競爭率을 나타내고 있다

一面 市井에서 運營되고 있는 各學校나  
 塾에서도 輔導하는 志願者를 收容할 餘 없  
 이 四部刑者級까지 하는 大繁盛이어서 아직  
 도 日本에서는 그를 社會가 要求하는 速  
 記士需要에 充足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다음에 養成過程을 마친 各學院이나 塾의  
 卒業生들게 對한 資格規程에 對해서이다  
 이곳에 對해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직 總  
 家의 同類로 되고 있는 데이지만 日本의 速  
 記學에서는 이미 完全한 殺序를 잡고 있는 것  
 같다

卒業者나 法式習得을 마친者는 干法 日本  
 速記協會主管下에 行하여지는 檢定試驗에 應

試하게 되어 있다. 義務的으로 應試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習得者로서 自己의 實力을  
 社會的으로 認定받고 職業的인 面으로 進出  
 하려면 먼저 이 檢試에 合格하여야만 될 程  
 度로 日本選協主官의 檢試는 社會的으로  
 公認받고 있으며 權威가 있다. 따라서 檢試  
 施行回数도 漸次 하여져 現今까지 無  
 慮百餘回를 算하고 있으며 毎年 應試者가  
 增加一路에 있다.

檢定の種類는 一分時 三百二十字以上の能  
 カ「テスト」인 高度試驗外에 세가지로 区分  
 되어 있다. 上級인 A級이 一分時 三百二十字  
 (ミス2%認定) B級이 一分時 二百九  
 十字 (ミス3%認定) C級이 一分時 二百  
 六十字 (ミス3%認定) 로 되어 있으며 午前  
 午後 二회에 行하여, 테스트하게 되어 있는데  
 試驗委員은 斯專의 權威者로 構成되어 있다.  
 을 網羅한 斯專의 權威者로 構成되어 있다.  
 時의 並來에와서는 實費養成注인 衆多兩院  
 養成所 卒業生들이 前例없이 多數應試하고  
 있다. 下로서 보아서도 日本選協主官의 이  
 檢定試驗이 얼마나 權威가 서 있는가도 推

測할 수가 있다. 參考로 百回까지의 受驗者數와 合格者數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種目別 | 受驗者數 | 合格者數 |
|-----|------|------|
| 高度  | 四九   | 一三   |
| 檢定A | 一四一〇 | 三九〇  |
| 檢定B | 二四三九 | 六九四  |
| 計   | 三八九八 | 一〇九七 |

이밖에 日本選記協會에서는 (但合格者는  
 元々回까지) 技術의 研磨와 高度의 技術何  
 上을 目的으로 選記技術最高競技試驗이라  
 는 것이 東京, 大阪 등에서 隨時로 施行되고  
 있다.

最近에 施行된 것으로서는 千九百五十大年  
 五月初旬에 行하여진 바 있었는데 當時의 試  
 驗程度는 十分時 三千五百七十五字 였으며  
 第一席을 차지한 竹元健次君(二十六歲 選  
 記吏務 五年五加月)은 單只 十九字의 誤字를  
 냈을 뿐이었다.  
 檢定試驗과 併行되는 것으로서 日本選協에  
 서는 選記技術檢定奨勵試驗이라는 것을 行  
 하고 있다. 이는 程度가 若干 낮은 것이며



習得途中에 있는 자가 自己의 技術水準을 評價 하고 檢定試驗에의 準備를 시키기爲하여 分 類되고 있는 것이다 種類는 甲. 乙. 丙. 丁 네 가지로 區分되어 있으며 程度는 獎勵甲級이 一分時 = 百四十字 (미스 四 % 認定) 乙級이 一分時 = 百字 (미스 五 % 認定) 等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前者에서 論及한 바 있던 「소구타이 프」에 있어서는 一分時 百五十語乃至 二百語 (一語平均 = 字로 計算) 을 打寫할 수 있어야 만 能力者로 認定되고 있으며 研修所에서 二年의 修了期間中 二. 三 次의 中間試驗이 있어 中間試驗에 合格하여야만 無事히 卒業試驗까지 應試할 수 있게 되어 있다

X X X

以上에서 우리는 日本에서의 速記法式의 發展過程과 養成 및 資格 規程에 對한 動態를 概略적으로나마 考察하여 보았다 八十 年의 歴史를 가지고 있는 日本의 速記界에서는 現在 速記第三時伏를 나타보고 스스로의 發展을 促하는 데 많은 努力을 하고 있다 그리면 이 點에 對하여 日本社會에서는 速記를 如何히

活用 驅使 하고 있는 가를 各部 門 別로 一覽 하 여 보자

△ 議會 速記

現在 兩院에서는 半數 以上の 女子 速記士를 包含한 都合 = 百七十名의 速記士를 쓰고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衆參各院에서는 每 年 四十名을 養成所에 入所시켜 二年 間의 修業 課程을 마치게 한 후 速記士 補로서 記録部 職員으로 採用한다 따라서 原則적으로 一般市井의 學校나 塾에서 習得한 速記士를 兩院에서 採用하는 일은 全無한 것 같다

速記士의 候補 上 位置를 보면 兩院 各 課 事務 總長 밑에 記録部를 두고 (我邦 政府 候補 上 一局 該當) 그 밑에 速記課 三課를 두고 있다 總 則上 速記第一課 速記第二課 速記第三課의 區 分으로 되어 있고 一課에 三十名 乃至 四十名의 速 記士가 있다 課에 三課長 밑에 課長 代理 速記監 督官 主任 速記士 速記士 速記士 補의 級別로 되어 있으며 養成所를 卒業하고 速記士 補에 被任 된 者는 大 小 月 乃至 一年의 吏務 經驗을 마친 후 所定의 昇級 力 試驗을 보고 速記士로 昇級 하게 되어 있다 그리면 昇級 試驗에는 반드시 眞

務經驗年數를 갖추어야만 應試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라서 速記士補에서 速記士가 되기 위해서는 大和  
月以上の 實務經驗을 거쳐야만 應試할 수 있고 速記  
士가 主任速記士로 昇級을 願할 때에는 二年以上의  
經驗年數를 가져야만 昇級試驗에 應試할 資格이 付  
與된다 그러나 大和分の 度運에 있어서 三年以上 服  
務하게 되면 大和 主任速記士로 昇級을 하고 있는 것  
같다 主任速記士가 되면 速記監督官이나 課長 代理  
或 課長으로 昇級할 때에는 試驗制度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 行政的人 人事措置로서 昇格을 하고 있다

商院에서의 實務 實態를 보면 速記士補或은 速  
記士一名과 主任速記士一名 計二名이 一組가 되어  
十分間 速記를 하고 即時 反文에着手하게 되어 있다 專  
務分担面에 있어서 分委 速記와 本會議 速記의 區別은  
있고 있지 않으며 會員이 輪番的으로 兩議부의 散會  
時까지 함께 다 맡고 있는 것 같다 時히 徹夜 國會時에  
는 二次代로 勤務를 하고 있는데 次代時間은 午後  
五時부터 午後十時까지 사이 行하고 있다 參事  
로 지난 一九五五年十二月二十일부터 一九五五  
年六月三十일까지 兩議되었던 第二十四回 日本通  
商國會에서의 會議日數와 速記時間數를 보면 豫  
參兩院 合해서 百十八日の 會議日數와 總千七百

九十八時間의 速記를 하고 있다 前記時間中 三分之  
二弱이 分委 速記로 되어 있다 兼하여 待遇面을  
普照하면 一例로 養成所를 本業하고 順調로운  
進程을 밟아 主任速記士까지 된 五年間 勤務한  
A 速記士의 待遇를 볼 때 月 固定給與가 二萬四千  
圓(日貨)이고 이 외에 副收入이 固定收入의 五割이  
넘는다 고 한다 그리고 다른 職業에 비해 時間的인 余  
裕가 豊富한 關係로 大學에 修業을 하고 卒業을 繼續  
하는 한편 余裕 있는 勤務를 하고 있다고 한다

### △裁判 速記

現在 東京地方裁判所에서는 六十九名의 速記士가  
民事刑事에 각각 半씩 配屬되어 公判廳理에 있어 註  
入等의 役 速記錄 作成을 맡고 있으며 日本全國에 約  
三百餘名의 裁判所 係 速記士가 있다 横城 速記  
士 소구다 이 피스트만 採用하고 있는 日本裁判  
所에서는 千先 最裁의 書記官 研修所에서 二時間의  
授業을 시킨 후 速記士補로서 六級一號 稱을 給與  
하고 東京地方裁判所를 爲 始한 各 級地方裁判所에  
配置를 시킨다 大和月 以上の 實務經驗을 마치면 日  
本議會에서와 마찬가지로 速記士 昇級試驗을 받고 七  
級一號의 速記士로 榮令을 받는다 法廷에 速記士  
가 進出하여 活動한 것은 四年前부터이며 現在 三

年以上勤務한 速記士 中에는 九級俸까지 받고 있는 자도 있다. 一般職員과의 級數의 比較를 보면 大體를 卒業하고 法廷에 就職한 者가 五級俸을 받고 있는 處으로 보아 本是 技術者로서의 待遇를 受을 리하지 않고 있음은 몇 倍 可矣.

法廷 速記의 勤務狀況으로서 는 一週 一人이 三時間 程度의 速記와 反文을 하고 있다. 一回의 速記時間은 一時間 至 三時間 程度이며 速記士 補는 二人이 一組가 되고 速記士는 一人이 一組가 되어 公判 一回에 一組가 들어가서 兩拜時부터 兩拜時까지 交代 없는 繼續勤務를 하고 있고 兩回 公判時까지 反文하기로 되어 있다. 이 날이 職務에 시달리면 서도 法廷 速記에서는 아직 도 公判 全部의 速記를 担当하지 못하고 있으며 速記士가 第一 場이 配屬되고 있는 東京地方裁判所를 一例로 보더라도 月約二百五十時間의 速記로서 約三百名 程度의 證言關係만을 處理하고 있는데 지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最裁의 書記官 研修所에서는 앞으로 多量은 養成을 받아야 되고 每年百餘名을 内外하는 卒業生을 輩出시킴으로서 裁判 速記의 完備를 期할 予定에 있다 한다.

△地方議會 速記

各都道府 縣議會에서는 現在 거의 다 速記士를 配屬시키고 있는 反面 全國四百九十市에 있는 市議會

에서는 아직도 速記士 不足으로 約三分之二的 市議會만이 速記錄을 作成하고 있는 形勢이다. 大體로 各都道府 縣議會에서는 二名乃至四名의 速記士를 두고 있으며 近來에서는 會期中에는 速記를 맡고 閉會中에는 一般事務를 맡는 一人二役을 하는 傾向이 强어지고 있다. 이 英國會나 法廷關係의 專務 速記士와 好對照를 이루고 있다. 勤務狀況을 K縣議會의 良例에서 보면 一時間의 速記時間數는 本會議約五十八時間 委員會二百十時間 計二百六十八時間이다. 따라서 反文은 自然 次會期前會前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速記를 定員의 速記士로서 勤耐키 어려움 때문에는 隨時로 臨時 速記士 또는 複數 速記士(二重 速記士)를 쓰며 人의 採用하고 있다.

X X X

筆者로서 不足한 느낌도 없지 않으나 이미 制限된 故 類를 充진 起過하였다. 아직도 現今 日本의 勤態로서 新聞 通信 速記, 一般市井에서의 速記 石用 範圍 및 日本 速記協會의 者 勤相 紹介하여야 할 部分이 남아 있다. 아울러 第三時代에 처한 日本 速記界에서의 論争의 內容도 모자도 充實性 있게 前記 項目에 對해서 紹介할 機會를 얻었으므로 此處에서는 이만 그치겠다.

(筆者 民權院 速記課 第三係長)

協會運營問題를 말하는

日時 四一九〇年四月十一日 下午三時  
場所 民衆院 議事廳 第三條

參席者

司會 金 鏞 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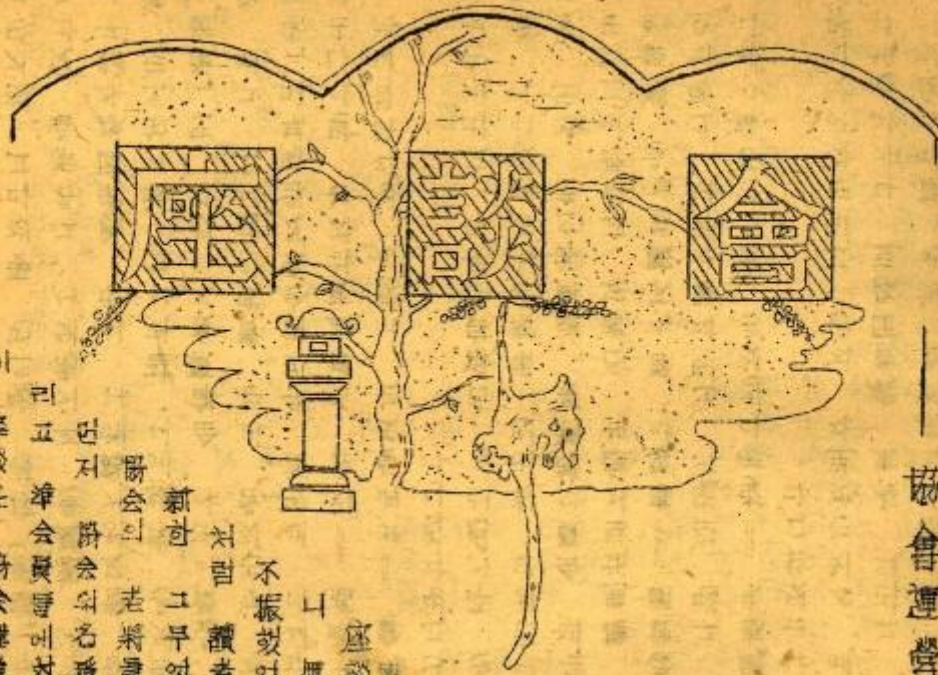
鄭 深 道 興 奉 宋

張 逸 振 李 東 淳

韓 奎 德 金 京 弘

李 廷 範 安 仁 榮

尹 炳 高



座談會의 題目이 「協會運營問題를 中心하리라」라고 되어있으니 無論 讀者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그간의 協會運營이不振하였다 — 하는 생각이 泛濫히 떠오르리라 믿는다. 그처럼 讀者들의 協會에 대한 關心에 있어서 不滿足한 가담으로 蘇 新한 그 무엇을 要求하든바가 分期있으리라 믿어 編輯室에서는 本 協會의 老將들을 한 자리에 모셔 놓고 이 座談會를 마련했다.

먼저 協會의 名稱문제를 비롯해서 會員들의 整齊問題 財政打關策 그리고 淨會費를 徵收한 處理等々를 들리라고 서로 懸念있는 意見을 나누는 座談會는 協會運營의 實際担当者만이 아니고 正녕 讀者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줄로 믿어 마지않는다  
○ 司會 〓 지금부터 座談會를 始作하겠습니다  
公報多忙中에 이렇게 와 주셔서 大謝히 感謝  
합니다.

定期總會도 時時 안남고하나 주로 速記課에  
계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協會運轉問題를 中心  
으로하여 여러분의 高見을 懇고지 이런 機會  
를 만든 것입니다. 이 자리에 外部에 계신분이  
한분도 參席하시지 못하것은 遺憾의 準備不  
察로 그렇게 된 것이니 別리 諒解해주시고 또  
조록 踴躍함이 좋은 말씀을 많이 들려주시기 바  
랍니다.

주先 제가 協會運轉의 責任을 맡아오는데 동안에  
몇가지 二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  
러분에게 그 몇가지점에 對해서 물어보기로 하  
겠습니다.

첫째 우리 協會는 名稱上으로 볼때 學術團  
體로 되어 있는데 事實上 過去의 運轉狀態로 보나  
또 앞으로의 展望으로 보아서 우리協會의 活動이  
라는 것은 學術團體로서의 活動보다도 一種의 文  
化團體로서의 活動面이 더 클 것이고 나아가서  
는 職業團體로서의 役割을 해야 될 것이 아닌

가 생각할 때에 이 「學術」이라는 協會名稱에  
對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  
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鄭源道 〓 지금 司會께서 그때 1만로서 내놓  
은 것이 名稱問題인데 그것이 範圍가 넓어질 것  
같지 않지만 時間이 없으니까 오늘 論議할 다  
음의 「테」로 한꺼번에 말씀해주시면 좋  
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關係가 없는 問題는 한  
번에 整理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 司會 〓 제가 생각한 것은 協會運轉이 運々  
不振하게 減數만 거듭하나가는 狀態인데 이  
리한 狀態를 脫皮하기爲해서 主先 그러한 狀  
態를 助成한原因이 무엇인가를 糾明해 보자  
는 것입니다. 그래서 協會의 名稱으로부터 始  
末해서 運轉面에 있어 甚다란 隘路라고 생각  
되는 會員에對한 問題 財政問題 그다음에는  
總務問題 등의 順序로 이 座談會를 進行시켜  
가 생각해보았읍니다.

○ 鄭源道 〓 그 名稱이 나오게 된 그때에 들  
아가서 생각하면 어떤 流派된 名稱에서 새  
로나온 것이 이름입니다. 그때 大韓總記文化協  
會라고 하자면 大韓總記高等技術學校 또는 逸

波式이 가지고 있는 母體의 이름값고 韓國遠記 文化協會라는 것은 似而非 韓國遠記看稱會라는 것이 있으니 韓國을 거기세다가 넣는 것도 大義에 걸리지 않느냐 해서 朴東憲으로 나온 것이 大韓遠記學術協會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稱을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의 생각에는 고치는 것은 좋지 지금 여기各派에서 다 모여 있으니 이座席에서 생각해보신 것이 있으면 여기까지고 거기서 妙案을 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李東濤 || 名稱을 바꾸는理由가 어디있어요

○司會 ||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各種의學術協會인데 學術的으로 아무活動이 없으니 學術字를 빼는 것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李東濤 || 學術團體라고 해서 社會的으로稱俗하다거나 이런 뜻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 아저는 足하다고 봐요

○司會 || 그게 아니라 제 생각은 學으로會莫이 贈附되지 않고 學團體가 되면 그때는學術團體로서의 役割보다도 文化團體로서의 役割

이나 職業團體의 役割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요 으 그러나 將來 職業團體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때 고치는 것보다 지금 고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購奉求 || 學術이란 것은 適合한名稱이 아니에요 으 그때 空氣가 그렇게 돌아가서 그랬지요

○李柱顯 || 專業이 遷々不換한 것을 積極的으로 推進해보기 위해서 各種도 고쳐볼려고 하는 것 같은데 會員의 義務를 強制的으로라도 履行하게끔 하고 할려면 專業을 하는 데 있어서 積極

性을 주기 위해서 名稱自体부터 고치자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司會 || 尹炳高氏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尹炳高 || 지금 名稱變更하자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애당초 우리協會 發足當時부터 「學術

두자 넣는 것을 저는 贊成안 했어요 그때 當時 會員이러야 全部 職業人이었고 또 「學術」

이란 것은 學界에서 할 것이고 學外的으로 漢語를普及하기 위해서 이런 既成團體가 있구나 이렇게 認識을 주기 위해서 그名稱을 定하는 데는 「學術」字를 썼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

26  
때 滲透되지 않았는데 名稱 高치는 것은 確度 一年이나 二年行보다 지금 高치는게 좋겠다  
히 낫습니다 學術」을 배버리고.....  
고 생각하는데요

○ 可會 —— 그냥 大韓總記協會로요.....

○ 韓泰米 —— 名稱을 여기서 設論할것없이 그

것은 總會에서 가서 高고 고치는게 좋겠느냐 아

것만 얘기합시다 어쨌든 綜合的으로 봐서 고

치는 것이 좋겠어요

○ 可會 —— 金原氏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名稱에 대해서.....

○ 金原氏 —— 저는 現名稱이 좋다가나 나쁜

다거나 異議를 가지고 있지않어요 고쳐도 좋

고 안고쳐도 좋고한데 앞으로 協會運營을

活潑히하는데 고치는 것이 影響이 있다면 고치

는 것도 좋고 어쨌든 그리 必要하다고는 생

각하지 않습니다 名稱은 아무렇게 濶히라는 이

름이 들어가고 우리 協會의 性格을 나타내는

看板만 된다면 좋다고 봅니다

○ 韓泰米 —— 난 그렇지않어요 두엇을 하든

지 적은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야 할 것이예요

適合치않는것을 하나씩 고쳐가는 것이 事業의

始初라고 생각해요

○ 可會 —— 그런데 乃若 高칠必要가 있다면

고 생각하는데요

○ 韓泰米 —— 이번 總會에서 꼭 고쳐야 합니

다

○ 尹炳高 —— 저는 고치는것을 前提로하고 말

하는데 事實 外的으로 우리 協會가 實存이

되지않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오는 사람

은 이럴것을 살려 強力히 推進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可會 —— 그러면 名稱은 대개 고치는것이

좋다고하는 結論을 지었다고볼수있습니다

다음은 會員에대한 問題인데 創立當時에 九

十七名의 會員이있었는데 오늘날 除名 待叔

도 不遑問 待叔될 사람이 大十七名이나 되

며 新入會員은 十八名으로서 現正會員數는 卅

十八名입니다 이것이 우리 協會의 實情인데

앞으로 會員을增加시킬수있는 좋은 方策에對

해서 意見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韓泰米 —— 會員問題라면 本是 적은 結構인

만큼 會員가 遞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데

會員 遞付狀況을보면 國會內에있는 會員이 金

體를 占하고있고 外部에있는 會員은 몇사람

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未徵되는 것이 대  
개 距離關係가 큰 原因이 되는데 會費를 徵收하기爲  
해서 停叔 姓名 이런 것을 어느 程度 完化する  
方向으로 나갔으면 어떻가 생각됩니다.

○李柱範 — 지금 어느 團體도 그렇지만 會  
費에게 義務를 賦課하면 惠沢을 주어야 할데  
그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道義心에서 協會가  
團結이 되어야 할데 그것도 어려워요. 이것이 理  
要原因이예요. 그리고 會費徵收에는 月末項이  
가장 쉬울 것이예요. 그리고 또 口口人에게  
督促이나 連絡을 活潑히 하면 어느 정도는 打  
斷할 수 있다고 보는 데요.

○張惠根 — 여러분들 말씀이 모두 하나로歸  
됩니다. 그런데 그 根本問題는 協會를 會員  
들이 直接間接으로 切實하게 지켜주는 結構  
로해서 能率的으로 해나가면 會員의 巨擘은 可  
能하리라고 생각합니다.

○韓奎顯 — 우리가 協會를 몇 년씩 내다  
보고 하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當장會  
費未納으로 除名이나 停叔이니 하는 것보다 우  
리가 할 것은 現狀이라도 그대로 維持하는 것  
이예요. 그런데 後에 救濟策을 講究해야 할 것이

예요. 若流히 事業을 해서 會員에게 惠沢을 준  
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바랄 수 없는 일입니다.  
○鄭源道 — 지금 말씀하신대로 會員에게 惠  
沢을 주고 그런 方向으로 가야 한다면 그것은  
協會 無用論으로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韓  
奎顯氏 말씀대로 이러한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名稱만 끌고 나가는 것이 意義있는 일이라면 現  
實에 있어서도 協會가 있을 만한 存在도 認定할 수  
있을 것 같아요.

○張惠根 — 隣國 日本의 예를 紹介하면 協  
會의 對外的 宣傳을 爲해서 鼓浪大會라든가 檢  
定試驗等을 하고 있는데 當장은 안 되지만 우  
리도 하나의 株式 株式 해나가면 多少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李東澤 — 協會로서는 會員들에게 物質的인  
나 經濟的으로보다 精神的으로 速記學術協會  
會員이라는 精神的인 優越感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事業部理事들이 責  
任을 痛感해 가지고 會員이나 一般社會人에게  
좋은 認識을 주게끔 積極性을 띄고 努力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李柱範 — 어쨌든 總論적으로 보서는 除



名이다 傳板이다 하는 것보다도 그 방법을 완  
화할수 있는 方向으로 이끌어갈수 있는 研究를 하  
는 것이 捷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李良淳 〓 여러분들이 莫然히 協會의 宣信이  
나 一報에 切한 認識이 나하는데 遠記의 實 같은  
것을 開進해서 講演도 하고 會員으로 가모며  
各自 親睦도 圖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文仁徽 〓 여러분들이 말삼하다 實히 會費  
問題는 本人의 誠意가 없다가 보나도 단돈 몇백  
圓을 내기 爲해 오기 싫어서 안오는 사람이 隨處  
나타나 더욱기 地方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 勿  
論하고 반드시 除名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  
다 그리고 每月 會費를 徵收하되 理事會에서  
各派式으로 그派에 屬한 사람은 式에서 免  
어서 내도록 勸誘하는 方式을 取하는 것이 어  
떨까 생각합니다

○尹炳高 〓 여러분들이 事業部가 無能하다  
고 그러시는데 專戾 創立以後 事業部에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專戾 저도 事業部長  
으로서 일을 좀 해볼까 했지만 모든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랬습니다 漢記 競爽大  
會와 展示會를 해볼생각은 꼭 가지고 있었습니

다

○韓奎勳 〓 協會의 財政이 完備食源하기 때문에  
歷代 理事長이 財政에 關係가 없거나 일들을 못하고  
있는 吏備입니다 그러나 事業部가 「푸른」  
을 내준대도 實踐 못할 것입니다 그 말지않으면 돈  
을 남질려고 그러니 漢記 文化에 쓰이고 나면  
다른 天에는 쓸돈이 남지 않을 것이요 이런  
것을 보아 앞으로는 勇敢한 理事長이 나서 주었  
으면 좋겠어요

○尹會 〓 會員에 切한 문제가 自動적으로 財  
政 문제로 歸轉가 미쳤기 때문에 말삼드리는데  
지난 一年의 財政現況을 말삼드리면 會費徵收가  
九萬二千九百圓 또 贊助金이 大萬圓 合計 總  
十萬五圓입니다 그러나 財政의 特別한 打關策  
이 없이는 會員 縮少 문제와 關聯이 있  
는 困難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財政 打關策에  
妙策이 있으시면 아울러 말삼해주세요

○尹炳高 〓 事業部 自体로서 생각하는 것인데  
多少 彈力性이 있습니다만 副業을 한 경우 다만  
몇劑이라도 그 價値를 濶搜하게 하지 않고 徵  
收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張惠根 〓 一理 있는 말삼이지만 그것은 濶

다

〓 協會의 財政이 完備食源하기 때문에  
歷代 理事長이 財政에 關係가 없거나 일들을 못하고  
있는 吏備입니다 그러나 事業部가 「푸른」  
을 내준대도 實踐 못할 것입니다 그 말지않으면 돈  
을 남질려고 그러니 漢記 文化에 쓰이고 나면  
다른 天에는 쓸돈이 남지 않을 것이요 이런  
것을 보아 앞으로는 勇敢한 理事長이 나서 주었  
으면 좋겠어요

○尹會 〓 會員에 切한 문제가 自動적으로 財  
政 문제로 歸轉가 미쳤기 때문에 말삼드리는데  
지난 一年의 財政現況을 말삼드리면 會費徵收가  
九萬二千九百圓 또 贊助金이 大萬圓 合計 總  
十萬五圓입니다 그러나 財政의 特別한 打關策  
이 없이는 會員 縮少 문제와 關聯이 있  
는 困難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財政 打關策에  
妙策이 있으시면 아울러 말삼해주세요

○尹炳高 〓 事業部 自体로서 생각하는 것인데  
多少 彈力性이 있습니다만 副業을 한 경우 다만  
몇劑이라도 그 價値를 濶搜하게 하지 않고 徵  
收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 一理 있는 말삼이지만 그것은 濶

〓 協會의 財政이 完備食源하기 때문에  
歷代 理事長이 財政에 關係가 없거나 일들을 못하고  
있는 吏備입니다 그러나 事業部가 「푸른」  
을 내준대도 實踐 못할 것입니다 그 말지않으면 돈  
을 남질려고 그러니 漢記 文化에 쓰이고 나면  
다른 天에는 쓸돈이 남지 않을 것이요 이런  
것을 보아 앞으로는 勇敢한 理事長이 나서 주었  
으면 좋겠어요

〓 會員에 切한 문제가 自動적으로 財  
政 문제로 歸轉가 미쳤기 때문에 말삼드리는데  
지난 一年의 財政現況을 말삼드리면 會費徵收가  
九萬二千九百圓 또 贊助金이 大萬圓 合計 總  
十萬五圓입니다 그러나 財政의 特別한 打關策  
이 없이는 會員 縮少 문제와 關聯이 있  
는 困難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財政 打關策에  
妙策이 있으시면 아울러 말삼해주세요

〓 事業部 自体로서 생각하는 것인데  
多少 彈力性이 있습니다만 副業을 한 경우 다만  
몇劑이라도 그 價値를 濶搜하게 하지 않고 徵  
收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 一理 있는 말삼이지만 그것은 濶

去부되 생각해왔지만 아직도 實現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생각에는 會費以外에

다른 經費를 提出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 그代身 募演大會같은 것을 열어서 參加金

을 받아 事業 하나하나를 自辦하는 그런方

法을 講究하는 것이 어떻가 생각합니다

○尹炳高 — 募演大會를 해가지고 參加金을

받아서 經費를 提出하는 方法이 어떠한지는

말씀을 하겠는데 그렇게되면 거기에서 參加할사

람이 없습니까 잘못하면 總記協會 總任이 아

니라 逆效果를 범나 다

○鄭奉永 — 會員들의 會費로는 도저히 財

政難을 打開할수는 없으니 贊助金을 더받는

다거나 自體의 事業體를 갖는 다거나 이런 方

面으로 檢討를 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尹炳高 — 그렇게하려면 거기에는 基本財産

이 있어야 합니다

만들어 들리는 것보다 展示會를 하면서 우리

가 이런 展示會를 하니 다만 얼마라도 내주

시오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李柱範 — 募財行爲自體가 지금 相當히 어

려우리라고 봐요 잘되면 좋지만 안되면 費

用으로 全部가져요 그러니 우리에게 可能

하고 實行할수 있는 副業을 가지면 몇「分」

면 몇「分」을 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鄭奉永 — 도저히 어렵습니다 實行하기가

힘들습니다

○韓奎勳 — 아무리 贊助金 받는 것이 좋고

그方策이 낫다고 하지만 우리自體로서는 어

려한 努力을 해야 할 것이예요 그러니 尹炳高

氏 말대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總記協會

로는 하지 말고 뜻이 있는 사람이면 多少라도

내달라 이렇게하면 될 것이예요 내기 싫은 차

람은 그만두라는 것이예요

○司會 — 金泉或氏 意見은 어떻게요

○金泉或 — 過去 一年向의 財政이라는 것이

모두 會費로 모인 것이예요 그리고 理事長이

活躍해가지고 贊助金으로 들어온 것이 會費의

三分은 以上을 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安仁燮 — 贊助金받는 方式으로서 冊을

나적 주고 會費를 열파씩 받는다 이럴수도 좋

을것 같습니다

○李東濤 — 總任에 推稱되는지 모르지만

總任같은 것을 두어가지고 國會議員들한테하

나적 주고 會費를 열파씩 받는다 이럴수도 좋

을것 같습니다

○安仁燮 — 贊助金받는 方式으로서 冊을

나적 주고 會費를 열파씩 받는다 이럴수도 좋

을것 같습니다

○李東濤 — 總任에 推稱되는지 모르지만

總任같은 것을 두어가지고 國會議員들한테하

副業의 열마를徵收하는게 어떠냐는 말이 있  
는데 한달에 많이있어야 다섯번이요 거기  
요수라면 열마 안되는 金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根本的인 打開策은 되지않고 또 競  
練大會를 한다는것도 좋지않 簿記가 그姓  
格이 特殊하기때문에 縣算이없는 사람은 參  
加하지도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人員  
이적기때문에 열마도움을 주지못할것입니다  
그러니 根本的으로 解決을 할려면 贊助金은  
말이 받아들일수있는 理事長이 나와야 할것  
입니다. 그러나 아카 史先庄말씀이 제일 오  
당한 方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惠真棍 隣國日本の 例를 參考로 하  
나 말씀드리겠습니다. 日本에서는 財政의 三分  
之一을 會費가 차지하고있고 남어지 三分之二  
는 檢史試驗受驗料 競練大會 參加金입니다  
그러니 競練大會같은것을 開辦하는것이 有益  
하겠습니다  
○ 司會 一 지금 말씀은 消極的인面의 打開策  
은 하지만 積極的인面의 財政打開策은 못됩니다  
○ 鄭源道 一 여태까지의말씀이 贊助金을

말이 받은 理事長이 要求된다 또 簿記의 發  
을 開辦하자 또 副業의 몇割을 띄어서 받자  
이런 이야기 가 있는데 나는 여기저기서 異  
論이 많습니다  
이런것을 打商못하는것이 나쁜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無計劃的으로 일할하는 所致에요  
協會創立當時와 지금과에 동여있었던 位置가  
좁달라졌다는것은 事實이고 이것은 우리가 理  
事長을 同權하지않으면 안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簿記界도 外國과같이 者者히 吾  
지일려는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직 우리는 渡渡期에 놓여있으니 우리는 規  
在 이 狀態로 漸足하다고 봅니다

○ 司會 一 여태까지 좋은말씀을 많이 해주셨  
습니다 會員向題와 財政向題가 同時에 取扱  
되었는데 消極的인 打開策으로부터 積極的인  
打開策에 이르기까지의 綜合的인 意見이 開  
陳되었다고 볼수있습니다 앞으로 協會運營의  
担当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  
서 이런게는 이것으로 그치고 다음은 幸會  
員에 대한 問題입니다 現在 幸會員이 三十六  
名인데 入會할當時에 入會金만내고 會費가

하나도 輸出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此處에 이  
會費 補付 制度를 아주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尹炳高 — 그것이 좋습니까?

○韓奉永 — 入會만 시켜 두었다가 適當한時  
期에 會員으로 變으면 될 것이예요.

○司會 — 그건 안됩니다. 試驗을 보아야  
합니다.

○鄭源進 — 一도 入會 金만 받고 入會시키  
는 것이 옳아요.

○尹炳高 — 入會 金을 받고 適當한 때에 가서  
審査해서 正會員 資格을 주도록 합시다.

○用會 —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別  
異論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우리 總  
會에 지금 部가 다섯이 있는데 이것을 統合  
整備할 必要를 느끼지 않으세요?

○張基根 — 그것은 아직도 五部가 兪全의  
技能을 發揮해보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더욱  
고 活動을 시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奉永 — 이젠 여기關係가 없지만 앞으로  
로 役員을 뽑을 때는 擔任者를 골라서 뽑도  
록 하세요.

○韓奉永 — 그것 좋은 말씀입니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시키면  
원도 잘할 것입니다.

○金泉 — 送出制보다 自請制로 한번하는  
것이 어때요?

○司會 — 部는 그러로 두는 것이 좋다고 하  
시는데 그러면 理事十五人이 많다고 생각안  
하세요?

○安仁榮 — 會員이 四十餘名이라면 많지않을  
까요?

○韓奉永 — 憲章과 肉條되는 것이니 잘 研究  
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李東淳 — 理事는 十五名을 그냥 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將來를 생각해서라도...

○韓奉永 — 이것은 部와 같이 더욱 보고는 것  
이 좋겠어요.

○司會 — 이것도 더욱 보고자는 意見이 많  
군요. 다음에는 우리 遠記同人들이 끊임이  
기는데 있는데 서울식, 과, 中央式, 이 어떻게  
復舊할 길이 없는가. 이쪽에 대해서 서울식의  
代表되시는 尹炳高氏의 精進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까.

○尹炳高 — 었다고야 할수 없지만 이자리에

서는 辨證하였읍니다  
○司會 — 살릴수 있는 권이 있느냐 그것만!  
○譯事 — 그곳은 漠然히 말하기도 困難  
하니 그만둡시다

○可會 — 그리면 中夾式의 李東原氏!

○李東原 — 사람은 자랄때부터 各自의

希望과 抱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成功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 지금 내

머리에만 어떻게하면 다시 中夾式을 살릴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充滿하였읍니다 아무

때나 時向이 容許하고 좋은 분을 만나면

다시 머지않은 將來에 此類의 功績을 올

어드릴날이 있을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愚

이답처와가지고 명명 살어나지 못하는 수도 있

을것입니다 그러나 인제나 그런 構想만은 갖

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司會 — 長陞兩에관한 功은 말씀 많이 해주

서 大端히感謝합니다 此類의 功은 지금까지 말

씀해주신 高尼이 앞으로 本協會 運籌相當者들에게

大한 도움이되리라라고 생각하고 오들은 以上으

로써 이번 庶政會를 마치기로 하겠읍니다

말

흔히를 우  
리나라는記  
錄이 없으나  
라統計가 없  
는 나라라  
고外國사람  
은 勿論우  
리틀도 이  
야기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는 史로科  
學的인基礎  
위에 當爲  
되어야 할 民  
主社會 在  
바로게 史學에  
論 우리나라에  
도 全然統計가  
나 다만 을바르  
樹立하는데 不  
外爾의 例를 보  
면 保障關係 農  
業關係 其他

### 의서로 史政憲는 勤生

### 國會速記錄

자 淳 亨

생에 있어서 記錄이 없  
고 統計가 없으면 政  
命의 인정이 아닐수없다  
생나하면 古來로 現在  
而知新이란 말이 있거니  
와 이는 어디까지나 옛  
것을 되살아서 새로운  
것을 안다는 意味인 것이  
記錄이 없는 우리나라의  
諸般事에 溫存而知新이  
될수없고 統計가 없으면  
우리나라에 科學的인 數  
字위에 政策이 樹立될수  
있을 理없고 그러므로  
해서 科學的인基礎위에  
樹立되지않은 政策이  
바로게 史學에 當爲  
論 우리나라에 全然  
나 다만 을바르  
樹立하는데 不  
外爾의 例를 보  
면 保障關係 農  
業關係 其他

全假에 걸쳐 매우 細密한 統計가 되어 있어서  
 그 正確한 現象把握과 아울러 適宜의 政策樹  
 立과 그 實施는 우리의 한껏 부러운 時이 되  
 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政治 經濟 文化 社  
 會를 일러주는 文獻이 殆無함은 너무나도 加  
 新이 있어서 昔蹟을 가져온다 우리도 記錄과 統  
 計를 가지지 못하여 되고 國民이 되어야 되겠다  
 國會의 歷史記錄은 우리나라 建國以後의 主觀  
 하는 憲政史이다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全  
 假에 걸친 國事가 빠짐없이 收錄되어서 모든  
 研究 學者 尊徒로 하여금 憲政을 理解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卽 現代國家의 立法  
 府의 三權能 卽 立法權 國政監查權 予算審  
 議權 行假에 있어서 우리國會 憲政記錄은 予算의  
 內容修正 通過條綱 國政全般에 대한 調査報告  
 立法 國家 其他 決議案과 또 對行政府  
 建議案等 實로 國政全般에 관한 細密한 記  
 錄하고 있다 무리는 不幸히도 建國以前 卽  
 四二七八年 以前의 政治 經濟 文化 社會  
 諸假에 貴重한 資料를 갖지 못했으나 이제  
 九十一回國 世界 獨立國家의 하나로서 國會를  
 가졌고 國政全般을 紀錄한 國會憲政記錄을 가

지게 되었음을 無恨히 자랑하여야 하며 이를 後  
 世에 傳하여 後代로 하여금 溫古而知新하는  
 資料로 하게하기 爲해서도 保存하고 아까와  
 할 것이다 어느 나라의 立法府가 嚴存하고 본  
 來의 技能을 發揮하는 나라는 民主主義國家  
 라해도 適言이 아니며 저기에는 또 當然히  
 國會 憲政記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英國과  
 美國의 國會憲政記錄을 紹介하면 英國에서는 下  
 院의 憲政記錄으로서 *Parliamentary Debates*  
 (Hansard)가 있으며 이를 瓦瀆하 可刷  
 하여 平日 早朝에 各議員에게 郵便으로 送  
 付하여 議員이 前日의 國會에서의 國政의 處理  
 狀況을 細密히 알고 然後에 國會에出席하여 國  
 政處理에 臨하게 되어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英  
 國議會에서는 月火水金各曜日의 午後二  
 時半에 開議한다 土曜日과 日曜日は 休日  
 로서 送考區에 가는 議員도 있고 賫謝 原籍을  
 作成하는 議員도 있고 成은 旅行하는 議員도  
 있어서 充分히 이 「워이크·엔드」를 즐기고  
 또 時向을 活用한다 그런데 古來의 慣習으로  
 午後二時半에 開議하여 晝는 午後十時까지  
 會議을 가지지만 緊急한 案件處理를 爲해서

前發한 것과 같이 自前에서 前中 前日의 議  
 記錄 其他 提出된 法律案 專을 精讀하고 研  
 究하고난 後에 午後에 議會에 出席하는 것이  
 다 이는 우리나라 國會의 一時 兩議와 普通 午後  
 一時 散會와는 對照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建國 日發하고 處理할 國事가 山積한  
 우리나라로서 本받아야 할 實이라고 생각된다  
 또 英國에서는 一般市民도 國會의 議記錄을 購  
 入하여 讀을 수 있어서 名實 實히 輿論政治의 實  
 을 거두고 있다 則 이二 議員 또는 이二 黨  
 이 어떠한 法律案 議案을 提出하고 이二  
 黨가 反對하고 支持하는가 等々를 一般國民  
 이 熟知하게 되므로 輿論政治는 理想에 가  
 가을 程度로 갈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國會 議  
 記錄을 一般에 販賣하지 않는 것과는 좋은 對  
 照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街頭에 販  
 賣케 하여 新聞보다도 詳細히 國會에서의 議員  
 의 發言要旨과 國政處理狀況을 알려주는 議記  
 錄을 一般國民으로 하여금 精讀케 하여 輿論政  
 治의 實을 거둬이 若何할지?

다음으로 美國에도 議記錄 Congressional

Record가 있어서 여기서도 自由로운 配分에  
 依하여 一般國民이 精讀하고 있어 國民의 輿論遊  
 成에 實大한 役割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國會 議事에 있어서의 先例와 國  
 會 議記錄과의 關係를 曹問보자 어느 나라를 莫論  
 하고 判例가 法規未備時의 裁判의 基準이 되고 있음  
 은 더부도 當然之事다 國會에 있어서도 憲法  
 國會法 등에 依하여 國事를 處理하고 議事를 進行  
 하고 있으나 모든 問題가 一一히 憲法이나 國會法  
 에 規定되지 못하기 때문에 自然的으로 議事에 있어서의  
 法規未備는 先例에 依하여 議事를 進行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一代二代三代國會의 議記錄에는 이러한  
 先例가 많고 또한 後日의 先例의 源泉이 되기 때문  
 에 보다 重要한 價值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여기  
 서 斷言할 것은 民議院 規則의 規定을 要望한다  
 는 것이다 國會法에도 議事에 關한 大略만을 規定  
 하였지 않고 細々한 處까지 規定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規則未備로 議事가 매우 遲延된다는 것은 누구나 가 다  
 알고 있는 터이다 그래서 先例로 既往에 우리 民議院  
 에는 規則이 없으니 憲法條에 나타난 先例를 參考하  
 여 規則을 새로 制定하는데 이 先例를 基準으로  
 하고도 될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도 立法資料로

# 談放橫縱의 將老界記速

速記를 아는 사람이 縱橫放談을 읽고 누구라 웃웃하지 않으랴!

速記界의 老將들이 實吐하는 이 縱橫放談이야말로 事實 速記人이 아니고서는 理解하기에 힘 들른지도 모른다. 그러나 讀者여 리분들은 필시 自己의 境遇를 비기면 자미있어 하리라!

紙面關係로 좀더 많은 얘기를 실리지 못해 遺憾이다. 그러나 앞으로 讀者 여러분들로 부터의 要請이 있으면 아직도 未盡한 老將들의 얘기를 다아 털어내려 고한다.

讀者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다. 이 縱橫放談과 같은 內容의 얘기가 거리가 있으면 本館新室로 많이 投稿해 주시기 바란다.

○編輯子 卍 바쁘실터인데도 不拘하고 이렇게 많이 參席해 주셔서

서의 速記錄의 價値는 大端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記錄된 것은 남게된다」는 古諺이 있다. 國會 速記錄과 같이 重要な 記錄物을 永遠히 保存하여 再言하거나와 우리의 後代가 이로써 溫故而知新하도록 하여야겠다. 우리 憲政의 永続々한 記錄物인 國會速記錄을 널리 一般國民에게 配布하여서 우리나라의 輿論政治의 實情을 거두기로하자. 그리고 널리 保存케함으로써 後世에 이의 求得이 困難하지 않도록 힘쓰자.

主勤하는 憲政史로서의 國會 速記錄의 無窮의 發展을 본다. (筆者 民議院法制調查局職員)

大端히 感謝합니다. 이번 「速記文化」 第三號를 發刊함에 있어 過去 數年間 速記界에 投身하여 이젠는 古矢이 되신 여러분들이 經驗한 이모저모를 讀者들에게 伝해드리고 싶어 서 오늘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速記士로서의 쓰라렸던 일이라든지 자미 있었던 일이라든지 기뻐던 일이라든지 좀 普通대는 느껴보지 못할 特異한 境遇의 얘기를



거리가 많으실 겁니다.

形式을 座談會로 하지 않고 縱橫放談이라고 했으니 文字 그대로 自由롭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韓奉永 ॥ 이런 얘기는 술이라도 한잔 들면 서 해야지... (笑聲)

○ 張惠根 ॥ 그래! 이런 얘기는 좀 霧團氣가 부드러워야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올거야

○ 李柱範 ॥ 응소! (笑聲)

○ 編輯子 ॥ (웃으며) 가만히 좀 계세요 이제 끝난번 「리포」 한진쯤은 날레니 (笑聲) 于先 말씀이나 해주세요! 여러분도 다 經驗이 계시겠지만 술먹으면서 座談會할때 여러분이

直接 速記하던 氣分이 어떻습디가? 여기

只今 速記하는 두사람 (速記士)들 가르키며) 을 생각해서라도 (爆笑) 좀 참으셔야지...

○ 李柱範 ॥ 아닌게 아니라 그렇군 그래... (笑聲) 그렇지만 두사람 (速記士)은 돈버리 하는거 아냐? (爆笑)

○ 編輯子 ॥ 오늘만큼은 無料奉仕입니다 (笑聲)

○ 李柱範 ॥ 그럼 할수없군 두사람을 同情해서 라도... (笑聲) 나중에 「리포」들 번다니까

내가 먼저 速記 배우든 때 얘기부터 하나

꺼내보지요... 이런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速記를 한참 배울저에 한 二百字以上 쓸 程度면 電車나 「베쓰」를

타고 다닐때에 商店의 看板같은것을 보고 손을 까딱까딱 놀리거든요 그런데 한번은

이런일이 있었어요 車中에서 방어리에들이 손을 가지고 한참 手語를 하고있는데 제가

옆에 있다가 손을 까딱까딱하고 있으니까 여러사람들이 나도 방어리인줄 알았다 말이

예요 (笑聲) 자꾸 疑心스럽게 나를 보면서 저 사람도 방어리라고 그러는데 무슨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抗辯할수도 없고 立場이

困難한때도 있었어요

○ 韓奎勲 ॥ 자비는 元來 「방어리」하고 因緣이 많지... (笑聲)

○ 李柱範 ॥ 바로 우리가 盲啞學校 옆에 살던 때 얘길세... (爆笑)

○ 韓奎勲 ॥ 「방어리」 얘기가 있으니 말이 저 내가 「방어리」가 말하는것을 速記한 일이 있었

예요 (笑聲) 各 高等學校 美術先生 座談會인 데 盲啞學校 美術先生이 왔어요 이 사람이

병어리에요 (笑聲) 왜 있지 않아요? 병어리  
 가 말을 배워가지고 하는 것... 무슨 애기인  
 지 알수가 없어요 도무지 쓸수가 없어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애기가 끝나면 아하  
 무는 애기구나 하는 것을 겨우 짐작해가지고  
 씁니다. 더군다나 '병어리' 學校先生이기 때문에  
 그사람한테 質問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애기를 하는데 무엇인지 몰리요 그래  
 서 그때는 할수없이 速記를 안하고 그사람  
 애기를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사람  
 애기가 끝나면 그것을 大綱 머리속에서 종  
 집어가지고 저고 다시 그사람 애기를 듣고  
 있다가 끝나면 적고 적고 할일이 있었어요  
 ○李桂範 〓 내가 '병어리' 하고 因緣이 많다  
 지만 난 아직 그런 시시한 速記는 해보지  
 않았어... (笑聲)  
 ○鄭源道 〓 내 速記生活中에 第一 부끄러웠던  
 애기 하나 하지요 國會에 처음 들어와가지  
 고 國會誌記士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루는  
 집에 있는 日曜日날인데... 그때가 麗順叛亂  
 事件이 나서 收拾하라 軍隊들이 나가고 또  
 中央에서는 財政官들이 나가서 財政狀態를

調査하고 와서 報告하던 때입니다 日曜日날  
 집에 있으려니까 아주 모르는 사람이 찾아  
 와서 國會에 있는 鄭源道가 있느냐고 물어  
 요 그래서 내가바로 國會에있는 鄭源道를시  
 다 했더니 반가이 쳐켜주어요 그러더니 오  
 늘 드때에 雅叙園에서 座談會가 있으니까  
 외달리고 해요 事實 그때만해도 처음이니만  
 큼 '래디오'에서 나오는 金奎植博士말도 잘  
 못쓰는때지만 내自專心에 速記를 잘 못해서  
 못가겠다고는 못하고 가겠다고 큰소리를 했  
 더니 (笑聲) '그사람이 말하기를 여기 車들  
 가지고 왔으니까 타고 가라고 하는데 속이  
 떨리는데 안간다고는 못하고 큰일 났더군요  
 그래서 내동생한테 張惠根氏한테 가서 只수  
 雅叙園으로 速記하라하니 곧 그리 외달리고  
 付託을 하고 꼭 張惠根氏도 彼此에 피로운  
 것을 알고 있으니 오리라고 믿고 왔읍니다  
 (笑聲) 雅叙園에서 애기를 하는데 누가  
 했느냐하면 當時의 韓國銀行理事로 계신 白  
 斗鎭氏의 報告인데 여러분 아시다싶이 白  
 鎭氏의 發音數字로 볼때 二百二十字程度로  
 내가 마음을 꼭 먹고 쓰면 充分히 쓸수있

는 것인데 怯을 피고 있으니까 떨면서 쓰는 데 門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中國집 「보이」 뿐이지 (突聲) 救世로 殺割을 할... (爆笑) 憑先 生은 들어오지 않아서 各集中에 쓴 것이 無處 四時間 썼어요 結局 다 쓰고 냈는데 未日 「부렌크」가 평평 날것을 생각하니 정말 큰일이더군요 (突聲) 집에 와서 보니 도통 리나도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白斗鎭氏 말이 아니라 知源道발도 안됩니다 (突聲)

그때 참 大膽했어... 사람이 웅담적에는 窮 餘之原이 생기더군요 韓國銀行 理事室을 찾 아갔어요 생전 처음 그런데 가 보았습니다 秘書한테 하잘것없는 名譽를 썼더니 白斗鎭 氏가 「스릴피」로 迎接을 해주어요 마음을 鎮靜하고 白斗鎭氏한테 얘기하기를 어떻게 됩니까... 速記를 하는데 中國보이가 어떻게 시고럽게 떠들어대는지 (爆笑) 등 잡 들지를 못했습니다 했더니 白斗鎭氏말이 내가 멀리서 말을 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내가 보아주 겠다고 하시면서 보는데 나는 옆에 앉아있 는데 理髮館에서 理髮받치에 잡이 술을 오 듯이 (爆笑) 즐기고 있었음니다 보시고 주는데

내가 쓴 것이 四分之一이고 白斗鎭氏가 쓴 것 이 四分之三이나 되더군요 (爆笑) 집에 와서 밤을 새워가면서 淨書를 해가지고 그이튿날 내가 速記한것처럼 해서... (爆笑) 雜誌社에 갔다 순일이 있습니다

○ 韓奎勳 速記를 배워가지고 第一 처음으로 할때에 누구말부터 썼는지 記號하는 시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第一 먼저 쓴 것이 金日成의 말이예요 (突聲) 그것이 放送局에 들어가가지고 平壤放送을 만는데 第一 먼저 速記한것이 金日成의 放送이었요

그날 무슨 大會를 해서 演說을 했어요 十分 二十分 이런것이면 모르지만 처음에 들 어가서 딱 걸렸는데 演 時間이 거진 다 되는것이예요 지금은 錄音機도 있고 또 지 금은 잘 들리지만 그때는 雜音이 甚해서 걸 들리지 않는때예요 이것을 演 五十分동안 써놓으니 그것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雜音때문에 들리지않아 못쓰고 처음이라 用 語를 몰라 못쓰고 速記에 익숙하지못해 못 쓰고 演 折半을 가지고 全體를 만들어내느 라고 온었어요 反文은 바로 해내야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루밤을 끔박 새고  
그 이틀날 낮에까지 밤도 못먹고 있어 일  
을 했어요

○尹炳高 速記를 하고서 한달동안 잘먹

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八十六年

度입니다. (笑聲) 그때 放送局에서 한참 捕虜

釈放問題에 착한 以北放送「유」스」를「갓취

할때인데 受信機도 나쁘고 雜音이 많아서

잘 안들었다. 말이야! : : : 그래. 上部에 報告하

기를 雜音이 많아서 聽取不能이라 이렇게

報告하니가 放送局長이 그러냐고! 그러면 한

번 같이 들어보라고. 그래서 같이 放送을

들었는데 「유」스」全部를 速記하고 그것을 反

對하는데 局長을 앉혀놓고 일을 하니 날도

더했지만 건담이 난다. 말이예요 (笑聲) 그런

데 그것도 交代로 일을 하면 절력이 안날

텐데 혼자서 毎日 새벽 다섯시부터 밤

두세시까지 일을 하니 몸도 전디며 날수가

없고 짜증이 난단 말이예요. 그래. 나중에

할수 없어서 辭表를 내고 나가는 暇이 있더

라도 나는 일을 더 繼續할수없다고 하니가

오늘 그만 두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가 왜  
? 待選가 나빠 그러느냐고 하길래 나는  
率直히 그렇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주 달리지요  
! 왜? 당장에 아쉬우니까! 아침에 달걀  
세個 點心에 세個 저녁에 세個 또 고기국  
도 삼시세끼 고려주고 술도 많이 먹지말고  
대포 한잔쯤은 먹이라 이렇게 되어서 그다  
음에 한달동안은 잘먹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問題가 지나버리니까 亦是 前과 마찬가지로  
로, 뒤고리만한 月給으로 되들어왔습니다. (笑聲)  
○韓奎勳 그래서 그랬는지 그때 내가 한  
번 찾아갔었는데 내가 國産담배를 내놓으니  
까 그것을 피우지않어요! 같이 食堂으로  
내려가더니 하는 말이: 아! 아침에 버가  
달걀 갖다놓은것 있지요? 그것 담배로 바꾸  
어 주시요! (笑聲) 이사람! 달걀며지않고  
그것을 담배로 바꾸어서 다 피웠어요.  
○李東淳 내가 해본 速記를 여러분들은  
못해보셨을것입니다. 某 女性雜誌에서 付託해  
서 「스」고개 速記를 했습니다. (笑聲) 어떻게  
담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래 緊張해가지고 始作을 했는데 처음에  
 「여기는 秘密호입니다」라는 뜻은 聞았으나 한  
 一問씩 恐라가지고 떠들어대는데 ; 한분이  
 計算해본즉 : 司會者는 二十問 다해서 맞았  
 는데 速記한것은 十五 之間 밖에 안되요  
 (英聲) 저는 하나도 빠트리지않았는데도 그  
 雜談社 編輯長보고 이런 速記는 不能이요  
 못하겠소 한즉 다한圖을 惝으니 어떻게 進  
 당히 만들어주시요 ; 그래 할수없이 다시 記  
 憶을 더듬어서 「스드르고개」 二十問을 다 때우  
 어가지고 간신히 만들어보낸 일이 있었습니  
 다 이것 저것 태도 第一 여러었던 速記이  
 기도하나 淸便으로는 容易한 速記이기도했음  
 니다

니다.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자기집에 가가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前에도 한  
 著述速記를 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關係가 아닌가 하고 同行했디겠  
 습니다.  
 그래 가서 한 二三十分을 기다리고 있  
 있노라니까 그 當時 政界의 巨頭들이 하나  
 둘 모이기 始作하고 暫時後에는 料理床이  
 床床 띄버리지게 차려나오는데 그야말로 山  
 海珍味가 다 나오더군요 그리고 當時 有名  
 한 唱劇의 梅威인 金素姬 金漢珠 그 외에  
 한 시너분의 歌姬들이 나왔더했습니다. 이윽  
 고 그분들께서는 談笑가 始作되고 益이 오  
 라기라 하기 始作했습니다  
 曹副議長은 그때야 비로소 저를 부르신 目  
 的을 말씀하시기를 事實 子비를 부른것은  
 다른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古代로부터  
 려오는 春香伝이라든지 沈清伝이라든지 말하  
 자면 옛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忠孝  
 義信烈 등을 表徵하는 代表作이라고 할만한  
 唱劇詞를 우리가 때때로 들으면 内容도 興  
 味津津할뿐더러 그内容에 들어가서 一言一句

○張惠根 〓 지금부터 한 五六年前 얘기입니  
 다 當時 副議長이었던 曹奉若氏가 하루는  
 무슨일인지 모르지만 速記課에 사람을 보내  
 서 누구든지 速記士한사람을 보내달라고 해  
 서 마침 아무도 없고 그래서 내가 갔었음

歌詞를 들어 보면 침으로 표용한 글들이 많

이 섞여 있는데 이 歌詞가 記錄으로서 내려

온 것이 없고 다만 歌姬들이 북에 맞추어서

읽어 내려온 것인데 내가 이번에 그것을 한

卷의 書冊으로 記錄化해볼려고 자비를 부른

것이니 이제부터 始作되는 이분들의 소리를

플린을 다시 速記해 주게 : (笑聲) 이것은

침으로 意외의 註文이었습니다 제가 速記

士로서 行勢하여 오면서 여러가지 經驗도 해

보았지만 이런 註文을 받기는 침으로 意외

이고 生前 뒤음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既往 일에 부디 참고 보니 다른 同僚들이 이

직 것 해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可能性與否도

한번 試驗해보고 싶다는 好奇心도 생겨서 不

知不識問에 承諾을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뒤음에는 「토기」를 북에 맞추어서 소리를

하더군요 북이 잠시 울리더니 音聲으로

높은 소리를 뽑고 갑자기 低音으로 절막한

詞를 늘어놓아요 그러더니 또 急히 북에

인 소리로 「다?」를 쓰는지 우는 소리인지

分據키 어려운 音聲이 나오더군요 마치 怒

마와 嗚咽이 뒤범벅이 인 것 같은 소리가 종

무름도 두드러고 「종지!」 「종다!」 소리의 速

시 이어 나와요

처음으로 速記士로서 經驗을 쌓아온 터이지만 이

러해 速記士로서 經驗을 쌓아온 터이지만 이

런 것을 처음입니다 勿論 全혀 다 못들었다

는 것은 아닙니다 間或 歌詞가운데 問答形式

의 詞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無事히 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部分은

全 歌詞가운데 不 十分之一에도 未達할 程

度이고 그외의 部分에 가서는 「아!」 하고 위

치는 것이 怒聲도 아니요 泣聲도 아닌 그中

間음미숫하게 외치는 때로는 「아!」 로도

들리고 때로는 「야!」 로나 「으!」 소리로도

들려요

특히 淸한 것은 「와!」 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의!」 인지 「이!」 인지 「에!」 인지 「워

」 인지 都 大體가 區別이 안되고 雪上加霜의

로 장단을 맞추는라고 장구를 치는데 제

옆에 앉아서 容怒없이 뛰들기는데에는 손을

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뿐이겠어요 招待반

은 容반들께서는 禮贊을 주고 받고 하시면서

間或 그럴듯한 句節이 나오면 興에 겨워서

무름도 두드러고 「종지!」 「종다!」 소리의 速

奏입니다 또 爆笑도 일어나입니다 이소리도 歌姬소리에 交錯되어 그야말로 瑤池鏡水에서 의 連記입니다.

등에서는 식은밥이 뜨르고 붓끝을 놀리는 손은 臂에 쯤뻐 젖어서 가득이나 제머로 움직이지않는 鉛筆대가 지꾸 미끄러집니다

「도끼」에 이어서 「赤壁歌」 이렇게 이런 苦惱를 無慮 時間半을 했습니다 결과는 變히지요 그러나 지로서는 급히지않었습니다

이왕 손에 붙잡아 본것이요 또 해보겠다고 応諾한 以上 어떻게든지 原稿化해야겠어요 그래서 当然은 于先 며칠전에 빌었다고 말하고 曹副議長宅을 물러나왔습니다

그後로 連日 저는 金素姬氏와 金演洙氏를 찾다니는 것이었습니다 偶然인지 故意였는지 모르지만 마치 그분들과 저는 숨바꼭질 하는것 같았어요 모처럼의 余暇를 얻어서

찾아가면 지금 막 내려가겠다는 것이고 또 어느때는 地方에 내려가겠다는 것이예요 桂洞에있는 國樂院에도 十餘次나 갔었습니다 그

렇게 하기를 無慮 一旬月餘나 되었습니다 至誠이면 感天이라고 結局 만나기는 만나

되

었습니다. 이는 겨우 만난것이 市立劇場 舞臺 뒤였어요 當時 國劇에 出演들을 하시느라고 거기에 계셨어요 그래서 사면을 말씀하

고 조용한 자리에서 부엌이 「리퍼」드려주실것을 懇請했습니다 했더니 그분들 말씀이 그 歌詞가 매우 신랄도 있겠지만 自己비판

이 그것을 배우고 외울적에는 장구에 맞추어서 배웠고 무슨 말이 있어가지고 暗誦한것

도이니고 그저 歌詞의 高低에 따라서 장구에 맞추어 마릿속에 소리를 외려서 배운것이므로 북에 맞추고 環繞亦是 그런 술가리

를 배울程度가 아니면 도저히 거기다 詞를 反獲시킬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結局 이 連記는 完全히 失敗에 돌

아가고 말았습니다. 마는 連記士生活에서 아 마 이것이 제가 겪은 奇異한 일이였다고 할까요?

○韓奉永君 이전 좀 너저분한 얘기이지만! 座談會같은 데갔을때 미리 用硬을 봐둔다는것

은 우리의 職業的인 常識인데 내가 한번은 「실사」에 걸려가지고 中間에 座談會가 中斷된 일이 있었어요 (爆笑) 어떻게 主催者側에

未安했던지!

○金宗弘君 내가 速記를 매처가지고 速記를 해오는데 있어서 좀 強靱한 印象을 받은 것이니다. 八六年인가! 그때 速記士로서 一流通 信社의 外信關係를 囑託받아가지고 일했으니다. 外信을 받으면 通信社에서 사람이 와서 原稿를 받아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대가 쓴 原稿가 그다음날이면 新聞에 "통" 記事로도 나오는 다. 말이에요. 一面에 "그것이 大韓民國 國民에게 읽히는구나. 내가 쓴 記事가 "통" 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마음이 좀 기쁘더군요. 이런다가 어느날 外國의 "뉴스"를 받는데 平壤 처럼 臨時 "뉴스"라 하고 "스탈린" 이 지금 危篤狀態에 있다. 이런단말이예요. 그래서 重大한 일이기 때문에 速히 通信社에 이런 記事가 나왔는데 어디냐고 얘기를 했더니 빨리 좀 불러달라고 해서 電 話通으로 불러주었습니다. 記事內容이 重大하 그 反面 外國放送이 나간 그것을 그사람들이 新聞社에는 안보냈습니다만. 그다음 外國가 지난다음에 나왔습니다. 何如間 通信社와에 屢報도 볼수 있습니다. 모여들고 야단이었습니다. "스탈린" 에 관한 記事는 내가 韓國에서 讀- 먼저 알았을 것입니다.

○安仁榮君 嘿로 할 얘기가 없습니까. 다들 그랬으니 안 할 수 없군요. 내가 陸軍速記學校에서 速記를 배운지 다섯달되던 어느때입니다. 그리니까 八二年 여름이었습니다. 아직 체

배우지도 못한 速記學生들에게 原子彈이 떨어졌습니다. 다름아니라 當時 陸軍本部作戰局長으로 있던 姜文奉中將(當時大領)이 大田에서 緊急會議가 있으니 速記士 二名을 派 遣하라는 電文이 速記學校로 날리웠습니다. 그래서 先生님들이 나를 指揮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나는 못가겠다고 拒絕했지만 너박이 는 先生님이 없다고 戰友들도 말하고 해서 될수없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當時 같이 배우는 張 禹商君과 함께 가게되어 作戰局 의 幹放으로 臨時列車(貨車)안에 타고 大田 으로 向했습니다. 가면서도 어떻게나 걱정이 되는지 짐이 안오더군요. 저녁을 안먹어도 배고픈줄 모르겠고. 그러나 세사람이나 어떻게 되겠지라고 잠을 잘려고 봐도 亦是 不安한 마음은 떠나지가 않아요. 時間이 흐르고 大田 이 가까워 올수록 가슴이 더 뛰더군요. 張君한테 나 禹商君한테 너 어떻게 될것같느냐? 라고 물으니 "아 비가 있는데 우린 너만 믿고 가는 거다" 이러니 세사람이 서로 믿고있는판이라 정말 미운합니다. 그래 그리저러 大田에 피 着하여 又 聯隊作戰敎育部로 갔지요. 마음을 두근반 두근반 하고 미처 屠殺場에 들어가는 소모양으로 떨어지지않는 무거운 실음으로! 그어도 聯隊에 가서는 速記士라는! 더우기 일무리 불러서 서둘러서 내려온 速記士라는 "프린트"는 있어서 作戰將校한테 우리가 會議關係로 내려온 速記士라고 했더니 아주待 遇가 극진해요. 그러 "유성로맨" 에 姜局長이 있



으니 그리로 가라고 하면 서 乘車를 하나 내주  
 더군 : 그때 乘車가 乘車가 유성로  
 들로 갔었다 남이다. 또 乘車가 가기는  
 으나 조금 후에 乘車를 생각하니 : 뭐 어떻  
 다고 그 뜻은 알 수 없어요 乘車가 아니었  
 으면 勿論 乘車가 없었겠지 : 그때 乘車가  
 서로 먼저 乘車가 가라고 하면 서 乘車가  
 乘車 내지 乘車님을 찾았드니 乘車가 나와  
 서 乘車내에 乘車로 乘車한데 갔더니 아주 반  
 가워 하얏다. 잘 왔다고 하면 서 受苦했다고 : 그  
 러나 나만은 가쁘지 슬픈지 모르겠어요 : 어  
 떻지 금방 잊어질 때가 있으면 잊어지고 싶은데 :  
 그러나 하늘이 도우셨는지 그 다음에 會議를  
 延期했으니 未日 같이 니올로 돌아가자고 하는  
 局長님말은 정말로 기쁘서 어쩔 줄 몰랐어요  
 겨우 마음이 놓여 정해진 밤에 가서 어찌저  
 녀 웃진 것까지 합쳐서 자기 이튿날 局長을 마  
 라올라오는데 二等車까지 태워 주더군요 서울 乘  
 에 到着하니 미리 連絡을 했던 터이라 車까지 待  
 期하고 있고 그 이튿날 作戰局에서 또 오라는 것이  
 에요 또 무은 鐵植가 내려지는가 하고 갔더니  
 出張자가 오느라고 手苦했다고 하면 서 出張  
 費를 주는 거예요 이래서 아슬아슬한 受難을 겪  
 었습니다.  
 ○ 編輯子 2 자야 1 그림 이만 : 여러분 수고 많  
 았습니다. 참말 우리 速記人 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재미 있고 유모러스한 말씀들을 많  
 이라셨습니다. 좀더 時間이 있고 좀더 많은 紙面이  
 허락 되었다면 여러분의 얘기를 좀더 添綴

드릴 수 있겠는 때 : 이만 하고 끄어야 한다는 것을  
 甚히 遺憾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관자  
 리를 勵해서라도 많은 얘기를 올리면 되리라  
 자기 바랍니다 (拍手)

### 速記錄에 대한 再認識

朴贊文



現代의 우리 日常生活에 速記의 切實한 必要  
 性과 高度大인 極值性에 對해서 는 새삼스러  
 은 說明을 할 必要가 없다  
 速記는 記錄의 迅速을 期할 수 있음으로 速記  
 는 一種의 技術이라 는點에서 그 極值가 있는 것이  
 一種의 議會에서 作成된 速記錄은 여러가지 意  
 味에 있어서 높은 極值가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速記錄은 議會에서 論議된 모든 問題를 細々  
 照攝히 記錄함으로써 會議決定의 證據가 되며  
 後日의 生소한 史料가 되며 또한 公開發治의  
 實際가 된다는點에서 더욱 더 높은 極值와 意義  
 가 있는 것이다.  
 速記錄이 가지는 여러가지 意義가 있겠지만  
 筆者는 이 중에서 法制資料를 蒐集함에 있어  
 서 速記錄은 무엇보다도 生소한 資料가 되  
 다는點에 對해서 그 極值性을 再認識하게 된다.  
 議會에서 作成된 速記錄을 議會內에서 審  
 議或는 決定된 모든 事項을 먼저 어떻게 行하  
 였던가를 具體적으로 記錄된 것이므로 議會에

사制定된 모든法律의 立法過程을 速記錄에依  
히 알 수 있는 것이다

速記錄은 政治史 法制史 文化史 或은 其  
他史料로서 그 價值가 있다 는 것은 앞서 言及  
한 바와 같이 速記錄은 法制史로서의 그 意義  
가 多大한가 있는 것이다

法律이란 制定不變하는 것이 아니라 立法者의  
社會的事務如何에 따라서 制定 變改或은 廢止  
하게 되는 것이므로 法律은 時期와 場所에 따라  
서 隨時로 變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法律은  
그時代的 社會的諸般事務에 適應할 수 있는 데

그法律의 價值如何가 依存하는 것이며 卽 法  
律의 價值尺度는 時代的 社會的事務의 適應  
性與否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法律制定은 언제나 그時代的 社會  
的諸事務을 把握하는 것이 優先問題이며 法制  
資料란 卽 이優先問題인 時代的 社會的事務의  
正確한 認識이라는데 그意義와 價值가 있는  
것이다. 萬若에 어떠한 法律의 制定을 必要로

하고 있는 時代的 社會的 現實을 正確히 把握  
하지 못한다면 그외에 制定된 法律 亦是  
歪曲된 法律이 되고 말며 그 때 다른 社會的害  
損 또한 있는 것이다

그러나 速記錄은 어떠한 社會的條件下에  
如何한 法律이 如何한過程을 거쳐 審議決定  
되었던가를 細密히 記錄되어 있으므로 法制  
資料로서 이以上の 生産한 資料가 缺는 것이  
그리하여 速記錄은 曠々照々한 國內立法資料

가 된 것이다

그리고 速記錄은 그 자체가 곧 法律集이므로 法  
制資料로서의 커다란 意義가 있으며 모든法律  
의 審議過程을 細々하게 記錄되어 있으므로  
서 速記錄은 法律解釋義錄으로서 그 價值가 있다  
어떠한 法律이 있다 그하면 그法律이 當初에  
如何한 趣旨으로 如何한 方法에 依하여 審議  
決定되었던가를 記錄하고 있으므로 速記錄은  
곧 法題目과 法解釋의 唯一한 解答者가 될  
수 있으며 또한 法律制定의 指標가 된다

法律制定의 指標가 된다는 것은 卽 進展된  
社會生活에 即應할 수 있는 法律을 制定하기爲  
해서도 現實의 水準을 事實대로 記錄하고 以  
는 것이 速記錄이기 때문에 速記錄은 進展度의  
基準을 把握할 수 있는 資料가 된다. 換言하면 法  
律制定의 史的過程을 速記錄에 依하여 理解  
할 수 있기 때문에 速記錄으로서 그나라의 政治  
經濟 文化 社會 其他 모든方面의 進展或은  
退步狀況을 把握할 수 있게 된다.

以上에서 略述한 바와 같이 議會에서 作成  
된 速記錄은 民主政治가 公開政治라는 原理  
를 實際化하는 것이며 그나라에서 制定된 모  
든 法律을 收錄하고 있는 大法集이며 議會에  
서 審議決定한 事項에 對한 證據이며 모든  
法律의 趣旨과 目的에 對한 明明한 解釋義錄이  
며 國內에서 作成된 法律의 法制史이며 또한  
그나라의 文化史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니 速記錄  
의 價值와 意義는 그야말로 重且大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速記錄은 그 자체가 곧 法律集이므로 法  
制資料로서의 커다란 意義가 있으며 모든法律  
의 審議過程을 細々하게 記錄되어 있으므로  
서 速記錄은 法律解釋義錄으로서 그 價值가 있다  
어떠한 法律이 있다 그하면 그法律이 當初에  
如何한 趣旨으로 如何한 方法에 依하여 審議  
決定되었던가를 記錄하고 있으므로 速記錄은  
곧 法題目과 法解釋의 唯一한 解答者가 될  
수 있으며 또한 法律制定의 指標가 된다

法律制定의 指標가 된다는 것은 卽 進展된  
社會生活에 即應할 수 있는 法律을 制定하기爲  
해서도 現實의 水準을 事實대로 記錄하고 以  
는 것이 速記錄이기 때문에 速記錄은 進展度의  
基準을 把握할 수 있는 資料가 된다. 換言하면 法  
律制定의 史的過程을 速記錄에 依하여 理解  
할 수 있기 때문에 速記錄으로서 그나라의 政治  
經濟 文化 社會 其他 모든方面의 進展或은  
退步狀況을 把握할 수 있게 된다.

以上에서 略述한 바와 같이 議會에서 作成  
된 速記錄은 民主政治가 公開政治라는 原理  
를 實際化하는 것이며 그나라에서 制定된 모  
든 法律을 收錄하고 있는 大法集이며 議會에  
서 審議決定한 事項에 對한 證據이며 모든  
法律의 趣旨과 目的에 對한 明明한 解釋義錄이  
며 國內에서 作成된 法律의 法制史이며 또한  
그나라의 文化史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니 速記錄  
의 價值와 意義는 그야말로 重且大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速記錄은 그 자체가 곧 法律集이므로 法  
制資料로서의 커다란 意義가 있으며 모든法律  
의 審議過程을 細々하게 記錄되어 있으므로  
서 速記錄은 法律解釋義錄으로서 그 價值가 있다  
어떠한 法律이 있다 그하면 그法律이 當初에  
如何한 趣旨으로 如何한 方法에 依하여 審議  
決定되었던가를 記錄하고 있으므로 速記錄은  
곧 法題目과 法解釋의 唯一한 解答者가 될  
수 있으며 또한 法律制定의 指標가 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速記術이 날로發達  
하러 가는 것도 이와같이 速記의 必要性이 우  
리의 日常生活에서 切實하게 提議되고 있기 때문  
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의 日常生活을 營爲해나감에 있어  
서 速記의 必要性과 速記錄이 가지는 重大한 價值  
性에 비추어 보아 앞으로 速記가 더욱 發展하기를  
期待해 마지 않는다. 故로 筆者가 平素에 느끼고  
있던바 即國會에서 作成된 速記錄을 公刊販賣함  
으로써 一般國民에게 議會에서 論議된 事實을 通俗  
具體적으로 把握할 수 있도록 하며 公開發政治의 意義  
를 좀더 살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이機會를 利用하여 말  
하되 든다 ( 民議院法制調査局職員 )

筆 隨



# 봄과 더불어

스물 스물

춤다던 겨울은 가고 첫날도 눈우습치는 봄! 참새  
숨릴처럼 보드랍고 어머님 뒷가슴인양 미스란 봄은 이해  
도 정녕 잊지 않고 왔는가 보다.

주니골의 달린 새장안에도 지밀꽃우에 놓인 어항속  
에도 봄빛은 노래하고 춤추며 인상하게 밀려버린  
저 가지에 움이 트고 싹들이 있어 자랄 그날도 멀지않으리

니... 마냥을 구만 싶은 심정 가해 오래 못된인 남을 만났어  
헤버러지게 물리는 바람이다 구석구석에 기쁨이 지 슬음인 자 본  
간 못할 줄기가 소용돌이쳐 지나간다 해마다 맞이하는 봄  
해마다 이루어질지도 없는 것들을 새로이 다짐하는 어리석  
음을 비롯고 돌아선 발들처에 다짐금 된보이보는 마음속의 의  
정인 이 봄도 변함없는 판승이런가!

겨울내 임은 외투는 빗쟁이 몰아나뉘들보지않고 十餘년 知  
린인 듯 다정하던 난로를 본채 만채 하게 된들 난부도 담연  
관일이 아니겠는가? 甘香품만라고 하며 도왔자 十萬佛의  
保險料로 母親이란 비렁기에 독달을 장치는 그사탄의 後  
裔들에게 특할 리도 없으니 말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만가지 錯雜한 感傷가 오른내리는  
봄! 또한번 실망이린 추수를 권어들인 희망의 불씨를  
뿌리는 인리같은 심리는 겨울살이에 지쳐버린 가슴에  
그나마 순간의 위로는 되리라 믿어 봄인가?

양지바른 언덕에 꽃이 피고 녹음이 우어지면 음산한 심벽  
그늘에도 어름은 풀려나겠지... 아지랑이 아물대는 지평선  
너머로 흰구름이 한송이 두송이 피어오르고 물시하게 스  
치는 흙바닥에 대지전 풀안으로 안기고 싶은 계절...  
봄과 더불어 枯木들이에도 생명의 힘이 솟아나리라

連  
載  
議會를 中心한 速記의 發展

(下)

民議院速記課長 金 震 熙

立法議院에서의 速記士의 待遇改善의 要求는 한동안 物議를 일으키바 있었으나 乃終에는 院의 事務當局과의 諒解가 成立되어 雙方이 円滿한 妥結을 얻게 되었고 그結果로 速記士의 報酬가 若干向上을 보게 되었음은 多幸한 일이라 하겠다 또 以待遇改善의 要求는 速記士의 報酬를 引上하는 것만이 目的이 아니라 記録事務量의 過重을 呼訴하는 바 있어 이의 緩和策으로 見習速記員制의 採択을 實現케 하였음은 速記의 發展을 爲하여 좋은契機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見習速記員制는 우리나라 速記士養成事業의 先芽期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見習速記員制가 採択되었다 하여 立憲速記士의 말은바 記録量이 尠하지 輕減되는 것은 아니며서 見習速記士가 尠사람은 否의 일을 할려면 相當한 時間이 所要되는 까닭이다 하루 會議의 發言量은 平均三時間의 會議로 따져도 六、七萬字나 되는 珍大한 記録量인데 六、七人의 速記士로서 이 會議 記録을 맡는다는 것은 速記能力으로 보아서 無理한 勞動이 아닐 수 없었다 여기에서 速記反文은 自然 累積됨을 免치 못하게 되어 記録發刊의 遲延一路를 行게 되었다 速記發刊의 遲延은 院內에 速記에 대한 不滿을 造成시켰고 나아가서는 速記士에 대한 文惠으로 化하게 되었다 이 速記反文의 遲延은 速記士의 過重한 負擔에도 一因이 있지만 技術의 未熟과 아울러 速記執務의 亂狀에서 그原因을 찾을 수 있다

當時 立憲에서는 速記士의 勤務에 對하여는 그 特殊技術事務라는 點을 考慮하여 速

記士의 自治的 勤務에 關해서 一般公務員과 같은 出退勤時間의 制限이라든가 其他 勤務의 監督을 받은이 없이 議會가 兩議되면 速記 科를 하여가지고 事務廳에서나 自宅에서나 便 利한 場所에서 反文을 하여 提出하면 그만 이었다 이렇게 勤務의 自由空氣를 保障하 여준것은 勤務能率을 올릴수있도록한 措置인 것이며 그만큼 速記士에대한 責任이 加重되 는것을 意味한것이다

이러한 自由스러운 勤務를 通하여 立議速 記士는 몇달동안은 全員이 緊張한마음으로 勤務를 繼續하여 成果를 올릴수있었으나 勿 論 當時의 院法에 規定된 三日以內에 速記 錄을 配付하여야한다는 拘束은 못지않으나 立議가 開院되지 八日月에 이르러서는 三日月分이 速記가 累積되게되어 速記士에대한 院의 不備이 爆發하게되었다

四二八〇年七月十日 立議第一〇六次會議에서 秘書長으로 부터 다음과같은 速記錄發刊遲延 에關한 報告를 하게되었다  
 即 『本院의 速記錄에 關해서 말씀이 많 으셨는데 事實 그 責任을 느끼지않는바 아

니지만은 지금 一〇六次會議인데 速記錄은 겨우 四十六次밖에 아니나왔습니다 責任은느 낀니다마는 速記는 技術이 있어야하는고로 될수있는대로 速記士들을 鞭撻하여왔습니다마 는 効力を 얻지못하였습니다 本院에 速記하 시는이가 七人인데 하로 一人當 配當時間이 約四十分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彌補하려면 十時間을 要求합니다 그래서 지금 彌補하지 五十余次인데 이것을 彌補하려면 莫大한 勝 向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우리 普通사람 常職으로는 알수없는 對答을 하고 도날이갈수록 幾何倍數的의 時間을 말 합니다 그런데 同時에 다른나라에서는 六十 名の 速記員이 있는데 우리는 七인이 다해 낸다고 합니다 結局은 人員이 不足하다는것 밖에 남지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處地에 있다는것을 事實대로 報告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報告가 있은後 議會에서는 이問題 를 報告處理로 院議에 上程하여 院의 速記 에 關해서 論議하게되었다  
 여기에서 速記는 많은 糾彈을 받게되었으

나 이 速記技術의 養成에 關해서도 많은 興  
心이 表現되었다

이 論議에 參加한 議員의 數가 實로 前二  
十名이나 되는것을 보더라도 速記에 關한 議  
員의 關心이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할수가  
있는것이다

當時 速記에 關하여 論議된 여러 議員의 發  
言을 要約하여 紹介하면

速記를 廢止하여야 하겠다는 側의 主張

첫째 速記士에 對한 事務監督의 不做意

둘째 速記士의 執務態度의 不誠實

셋째 立議는 速記士의 養成까지는 할수  
없다는것

네째 速記는 速記가 못되고 晚記이니

이에 代替하는 略記를 採択할것

等으로서 強力히 그 廢止를 主張하였고

多大數의 議員은 이 主張에 贊同하였다 그  
리고 速記를 存續하여야 한다는 側의 論旨

은

첫째 議會의 速記錄은 歷史的인 記錄이

라는 點

둘째 速記士가 負擔하는 事務量이 過重

한가

하나 豫算을 增額하여 速記士의  
增員과 아울러 速記士의 養成을 實  
施할것

등이었다 이리하여 「速記를 廢止함」이라

는 勸議主文을 表決할 段階에 이르러서 金

奎植議長은 이 勸議主文에다가 「管分閣」이

라는 字樣을 挿入할것을 提議하여 「管分閣

速記를 廢止함」이라는 主文을 在席五十七人

可에 四十五票、否에 一票로 드디어 不信在

이 可決되었다

時代의 需用로 登場하였던 速記士는 눈물

을 머슴고 名譽스럽지 못한理由로 職場에서

逐出되고말았다 이를 契機하여 速記는 自我

反省의 機會를 가지게되었고 이번의 失敗의

經驗은 또한 앞날의 切實한 速記의 發展에

좋은 基礎를 奠을수있는 좋은 機會이기도하

였다

이리하여 街頭로나선 速記士는 未補한 速

記學術을 整理하는 一方 後進速記士의 養成

事業에 集中된 鷹子와 싸우며 捲土重來의 悲

壯한 覺悟로서 쓰러져가는 記錄文化를 지키

기로 決心했다

그런데 速記를 廢止한 立議速記席에는 略  
 記士가 登場하게 되었다 이것은 文化의 進  
 退가 後退하는 奇現象이 아닐수 없다 나는  
 當時의 略記에 從事한 人들의 苦心하는 光  
 景을 目見하고 새삼스럽게 速記術의 功마음  
 을 再認識하게 되었고 速記에 對한 이은 政治入  
 의 反應을 가장 哀惜하게 생각하였다

이 環境에 陷入한 速記는 速記入들의 非  
 常한 勞力으로 肉體의 速記의 發展을 爲한 그  
 準備의 課程으로서 各形式에서의 速記士의  
 養成事業이 着意히 展開되었음은 多幸한 일  
 이라 하겠다

이러한 가운데서 院의 事務當局과의 議事  
 記錄에 다시 速記의 採択을 交涉하게 되었고  
 立議의 末期에는 다시 速記가 復舊하게 되거  
 은 實로 多幸한 일이라 하겠다 이렇게 하여  
 五十年學を通한 우리나라의 始初의 國會가  
 構成되었을때의 速記는 議會의 記錄事務를  
 自信있게 맡을수 있는 實力이 具備하게 되었  
 다 이는 오로지 草創期の 速記人의 努力과  
 精誠의 結晶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制憲國會의 記錄을 맡기爲한 二十餘名の 選  
 任한 速記士는 建國의 歷史的記錄에 從事한  
 에 모든 精誠과 精力을 바칠수 있는 位置에  
 서 보람있는 自任을 느꼈수 있었다

制憲國會의 誕生은 速記界에 큰 希望을 주  
 였으며 여기에서 刺戟을 얻어 速記士養成事  
 業은 各形式이 競爭的으로 일어났고 速記習  
 得熱은 熾은이들 間에 날로 熾창하여 갔다

이렇게 하여 制憲國會의 記錄은 그대로完  
 滿할수 있었으며 速記界의 地盤도 鞏固하게  
 이르렀다 이것도 亦是 立議에서의 겪은 試  
 練에 힘 입은바 있다고 할것이다

制憲國會時代는 建國草創期の 새希望과 터  
 부터 速記界의 發展에도 順調로운 課程을  
 밟을수 있었고 二代國會에의 티 많은 記錄물  
 을 相當할수 있는 準備도 着々 갖추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어찌 뜻하였으랴 저 赤虎  
 의 角股을 六二五動亂이 가져온 모든部  
 面의 被害의 慘狀에서 速記界도 例外가 될  
 수는 없었다 가장 酷毒한 被害를 입은것이  
 速記界라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것이다

感歎의 九二八收復으로 야위고 초라한 일  
 景으로 事務處에 나타나 速記士는 不邊五·六

名에 지나지 못하였다

越北、被害、拉致로 多大數의 速記人材를 잃  
어버렸으나 收復한 國會의 會議에 對稱하는  
喜稅과 勇氣가 스스로 일어났다 動亂으로  
中止되었던 議會의 速記는 第二代國會 第八  
回臨時國會 第三十八次會議(四二八三年十月二  
十日) 부터 繼續되게 되었다 지금國會가 南  
下하여 大邱釜山等地에서의 軋々하며 開議한  
實重한 記錄을 後世에 남길수 있는 것은 가습  
아픈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一、四右退、이번에는 어떠한 일이있더라도  
議會와 行動을 같이 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心構은 저 몹서리치는 三個月동안의 苦難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더 切實히 느껴지는 것이  
였다 송두리채 被擄당한 速記界는 臨時首領  
釜山에서 再建事業에 着手하게 되었다  
干先 緊急한것은 速記士의 養成인데 이事  
業은 速記入 自身에게 맡기기에 는 너무도  
힘에 부찬일이였다 여기에서 뜻있는 몇몇  
國會速記士는 議會에 速記士養成機關을 設置  
할것을 着眼하며 이의 推進에 努力한 結果  
總會當局의 絶大한 理解와 後援과 國會議員

諸位와 社會有志의 寄附金을 基礎로 國會事  
務處는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를 文教部長官의  
認可를 얻어 四二八四年十二月에 開校를 모개  
되었다 이養成事業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規模있는 教育機關을 通하며 이루어지게 되  
었다 여기에서 總會를 中心으로하는 速記의  
發展의 基礎가 세워졌다

지금 議會가 擁하고있는 速記士의 數는  
四十余名으로 增加되어 오늘날의 會議의 記錄  
은 豊日開議와 더불어 配付할수있게까지 發  
展하였다 앞으로 國會法이 改正이되어 常在  
委員會의 速記錄發刊이 採擇되면 相當敎의  
速記士의 招員은 必至의 趨勢라고 하겠다  
이제 速記界의 當面課題는 質的으로 優秀  
한 速記士의 養成과 速記學術의 一段의 發  
展에 重點이 놓이여야 할것이다 그렇지않으  
면 우리나라 速記術의 後進性을 免할날이  
遙遠하기 때문이다

지금 三十字의 速記能力은 標準能力의 線  
에서 벌써 後退되어있다 議會의 發言量은  
十分間에 四十余字에 達하고 있는것이다  
이에 各派式에서는 速記學術의 發展에 많은



優秀한 速記入材의 養成과 아울러 研究發達 義務가 實로 무거운바 있고 우리나라 速記學 家 要望되는바 이런 意味에서 實學術協會의 術의 發展에 奮斗하는 眞의 文責을 免할까 합니다

# 이렇게普及되고있다

金星漢

## 高麗速記는

許多한 難肉과 隘路를 克服하면서 速記士를 養成하고 斯學을 普及하기 에 全力하고있는 機關中의 하나로서 私設 高麗速記技術學院을 비롯하여 其他教育機關을 通하여 本高麗式速記 普及는 漸次 舌捲하여가고 있다 이에 編輯子의 要求에 應하여 普及과 運營은 어떻게 되고있는가 하는 實狀況을 紹介하기로 한다 먼저 여기에 밝혀들것은 서울을除 外한 其他地方과 軍機關에서의 實態는 尙 把握키 困難하기에 大略만을 紹介한다

△高麗速記技術學院  
解放后로부터 事變前까지는 現

場所가 아니었고 校舍도 極々에가면서 二二期生을 냈을 程度이었으며 學生數도 極히 少數인데다 有能者가 敎名에 不遇하였다 現在 本學院은 三·一六首都收復后 四二八七年五月에 開設하여 現在에 이르러 六期의 卒業生을 냈고 現在學生은 五十 餘名이다 六期의 卒業生 六十餘名을 내는 동안 國會를 비롯하여 市議會等 各方面에 實務速記를 하고있는 能方者의 數는 十餘名 에 達하고 其他는 軍部에서 勤務하고있으며 또한 監記와 의 方向을 달리한 사람도 많다 本學院의 敎授方法에 있어서는 每日平均一時尙半程度의 敎授로서 六個月尙의 週 程을 밟아둔 다음에는 主로 各者의 素養 에 따라 實習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本學院 에서는 四二八八年十一月부터 通信敎育部를 設置하여 地方學生들에게 速記學을 普及시키고있다 지금까지 本速記學 講義錄을 보는 校外生은 一千四百餘名에 達하고있으나 大部

分의 校外生은 中途拋棄者가 많은現狀이며 綜合 六卷 四百餘名에 達하는 總 編錄을 履修한者만도 數十名에 達하고있으며 이들中에는 本學院에 編入하여 履修한 成績을 올려서 速記士로서 君禮하고있는者도 있다 여기에서 附託하는것은 總營面에있어 豊富한 財力이 없어 円滿한 教育을 하고 있지 못한데 대해 未安할 따름이다

△서울市立成人學校速記科

政府의 成人教育費로 運營되고있는 서울市立成人學校가 市內 清及國民學校에서 夜間으로 兩校되고있다 이學校는 高等教育을 받은者들에게하여 自己趣味의 素質에 따라 授하여 工夫할수있도록 各種의 技術科目이 設置되어있다 이中의 하나로 速記科가 있는것으로 受講料는 極히 적다

서울市教育委員會 傘下에 있는 이機關는 一期를 三個月間으로 하여 各科를 授業하고 있다 그러나 速記科는 三個月修了해도 實地에는 未完成이기때문에 이곳에서 修了한

者가 高麗速記技術學院에 編入하여 工夫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完全한 速記士는 이곳에서 나오지 못하고있는 形便에 있다

△善隣商業高等學校速記部

一入一技의 教育으로서 本校에서 高等科 學生의 定規科目으로 每週 一時間의 速記 學科가 있으며 그밖의 科外로 工夫하고저 하는 者를爲해 學徒團部層에 速記部가 있어 每週 二時間以上の 特別活動時間에는 速記部學生들이 科外工夫를 하게 되어있다 四二八年度부터 本校에서는 速記科를 設置하였다 現在 速記部の 學生들은 七十余名에 達하고있으며 能力者는 尠으나 速記 術의 必要에서오는 各自의 滿足을 充足시키고있으며 一入一技教育에서 速記科를 授하고있는것이 多幸한 일이라 하겠다

△陸軍高級副官學校速記班

現役軍人을 相對로 速記教育을 하고 있는 곳으로 大邱에 있는 陸軍高級副官學校에 速記班이 設置되어있다 이는 四二八年度부터

活潑히 움직이고 있어 많은 現役軍人 速記士를 輩出하고 있다. 教育期商은 速記專攻으로 一日 八時間式의 教育으로 九月月間에 걸쳐서 하고 있다. 每期 四十名式의 修了生을 내고 있으나 今年부터는 學級數가 增加되어 每年 二百五十名의 修了生을 내기로 되어 있다. 한다. 速記敎官으로는 高麗速記學院 釜山(臨時)學院 卒業生 四名이 担當하고 있다.

以上 서울市内에서의 움직임과 軍系統에서의 움직임과 略하였다.

(筆者 高麗速記技術學院院長)

筆工生活一年의

(片) (片) (想)

李 東

筆工 一年이라는 이歲月... 지내온 그말자취 발자취들 모두가 나에게 있어서는 그대로 산 敎育이었고 또한 生소한 經驗이 아닐수 없었으니



올해가 速記士에서 발이 돌아나고 靑리가 점점 짧아져서 形體의 變 記士가 된后 生活해온 一年 열두달 三百六十五日 짧다면 말할수없이 짧은 期間에 느끼야 무엇일 느끼을까마는 그래도 나로서 人生의 첫 巨步를 내어디딘 이길에서 周圓의 親旧들(速記士아닌)이 나를 가르켜 나는 筆工이다 그것은 内自身이 그렇게 볼 러서 쓰여지는 代名詞는 决코 아니다 다만 周圓의 親旧들(速記士아닌)이 나를 가르켜

「筆工」이라고 부르기에 나도 亦是 自身을  
 「筆工」이라고 부르기도 있을 따름이다 그렇  
 지만 書記士를 「筆工」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듣기에 異常한 맛이난다 「筆工?」  
 亦是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自躬이나  
 옛날부터 내려오는 積習의인 旧習에 뒤어서  
 인지 모르지만 어딘지모르게 聽스럽게 여겨  
 지고 多小間 듣기에 구역질이난다 지금은社  
 建主義制度가 崩壞되어서 萬民平等이니 勞動  
 의 神聖함이니 職業의 無差別이니云々하고  
 있지만 以前에는 職業의 貴賤에대한 差別이  
 極甚하였으니 苦勞人 勞動者 商人等등은 賤  
 시 賤待하여 「환생이」 「미정어」 「판대」  
 「장사꾼」이니하는 部類에屬하는 사람들은  
 蔑視當하여 왔던 것이다 現資本主義 制度下에  
 있어서는 아무리 賤정의 子女라고 하더라도  
 力量과 돈만있으면 出世할수있는 길이 얼마  
 든지 있는것이지만 오늘날까지 이러한 旧來  
 의 君任意識이 지들어있으니 「筆工」이라고  
 하는 代名詞가 賤스럽고 구역질이 나는것도  
 無理가 아닐것이다 그러나 書記士라는것이  
 靴대를 읊지여서 그 勞動의 代價로서 報酬

를받는점에서 볼때에 나를 「筆工」이라고 指  
 稱하는것을 認어놓고 나무랄수는 없다 다만  
 웃어 버릴수밖에... 벌써 내가 社會에 첫  
 발을 내어디딘 이 瞬間부터 이미 나에게서  
 「筆工」이라는 「렛틸」第一호가 붙어버린것  
 이다 앞으로 一生동안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렛틸」이 나에게 붙어질것인지!  
 X  
 X月X日에 發令狀을 手に持行 長期間 休  
 養로 突恣에 臨하지못하고 그날그날 練習으  
 로만 消口한지 二十五日째 〇〇〇〇圓의 누  
 른 月給封套를 받고보니 그제사 内自身이  
 올챙이에서 개고리로 變貌했다는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二十五日間 別로 이렇다할 二점을  
 갖지못했던 내가 이제 貳千안되는 庫給을  
 손에넣고 비로소 職業意識을 느꼈다는것이  
 참으로 怪異하기 짝이없다 우리가 태어나기以  
 前 머나먼 옛날 「아담」과 「이브」의時代  
 우리들 入向은 그대로 잠시나마 珠算盤을  
 떠나고 敎를 떠나서 經香라는 單語조차 알  
 지못하고 살어온 때가 있었다고는 하나 先  
 史時代의 것이란 한낱 꿈과도 같은 伝說에

지나지 않았고 人類의 尸史가 생겨나고 人類  
 이 裕된 生活을 하기 始作한 瞬間부터서 우  
 리의 先祖들은 珠算盤과 數를 떠난 生活을  
 營爲할 수 없었으며 燈者를 떠난 生活이란  
 各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兪令발  
 은后 二十五日째 月始封套를 손에 넣고야  
 비로소 職業意識을 느꼈으니 나도 尸史以右  
 의 入商이요 守衛奴의 右衛인이 틀림없지  
 않은가!

四十余日商의 林會를 끝내고 速記의 處女  
 突務에 臨하였다. 担当時商이 되어서 主務

나 先生의 뒤를 따라 議事堂速記席에 가서 자리  
 를 잡고 앉아서 「레시바」를 끼고나니 가슴  
 은 두방망이 질을 한다. 나 先生의 時商交代信  
 符와 함께 不安 焦燥 興奮과 緊張의 錯雜한  
 感情이 뒤 엉키는 가운데 鉛筆은 議員의 兪  
 言에 따라 寫사없이 「로고그램」을 그리면  
 서 白紙위에서 亂舞를 한다. 이른날 印刷하여  
 文字化된 速記錄을 눈앞에 對했을 때의 感懷  
 또한 잊을 수 없다. 내 손으로 이나라 尸史의  
 一部分을 記錄하였다는 기쁨과 速記의 神妙

함을 再三 認識하였다. 速記를 한 나 自邦도  
 歐美 先進國의 무슨 原子爐나 人工衛星 王  
 冠 「로켓트」나 求景하는 것처럼 速記自体가  
 神奇하게 느껴졌다. 歐美 各國에 比해서 韓  
 國의 經濟 社會 文化 工業 各分野가 行進  
 性을 脫皮하지 못한 것과 같이 이나라의 速記  
 界亦是 右進性을 띄운 까닭이리라. 速記의 年  
 輪이 日進한 關係上 速記가 一般이 周知하  
 도록 普及이 되지 않은 現實에 있어서 速記를  
 모르는 사람이 보게 될 때면 더욱 神奇하게 느  
 겨질 것이 아닌가!

때때로 나는 親旧들한테서 이런 種類의 質  
 向을 받는다. 「速記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  
 시 國文化하는 反文時商이 얼마나 걸리는냐」  
 고 묻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五倍 十倍  
 十五倍라고 하지만 十倍를 標準으로 삼고 있  
 다」고 하면 파리를 잡아먹은 두꺼비처럼  
 納得이 가지 않는다는 듯이 두눈만 眨바眨바한  
 다. 그리하여 다시금 차근차근 說明해주어야  
 짐 알아듣는다. 이것이 韓國速記界의 突務이  
 며 또한 여기에 韓國速記界의 苦惱이 있는

及此 認議을 시키는것이 時急히 要請되는것  
 이다 美蘭이나 日本의 雜誌를 뒤져보면 여  
 러가지 商品廣告가 눈에뜨인다 그 宣傳術이  
 야말로 우리나라의 商品廣告와를 比較해볼때  
 에 天壤之差의 二浬이든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라 濠記界의 普及向題가 언뜻 머리에 떠오  
 르는데 그렇다고 外國의 商品廣告처럼 濠記  
 를 商品化시키라는 말은 아니다 外國에서는  
 어떠한 方法으로 어느程度까지 濠記가 普及  
 되어있는지 나는 알지를 못하나 여기에서도  
 「后進」이라는 用語가 쓰여져야만 하느냐하  
 는데 一沫의 懷疑感을 禁할수없다 微弱하되  
 라도 머리를 짜내서 할려고하는 努力만이라  
 도 功업없이 보여주었으면... 하는것뿐이다

하루는 事務室에 어떤 訪向客이 왔다  
 이야기기 저이야기 끝에 濠記士에대한 얘기가  
 나왔다 訪向客 曰「韓國의 濠記士는 普通一  
 般入의 壽命에 比較해서 短命한것이다」라고  
 하는것이였다 들는이에 따라서는 이말이 마  
 치 死刑宣告처럼 커다란 「속크」를 받는사  
 람도 있을텐데 이런 死刑宣告를 아무 躊躇  
 함이없이 해놓고도 顏色하나 變하지않는다  
 이말을 듣고있던 C先生이 「어떠한 根據下  
 에서 濠記士의 壽命이 一般人보다 짧다는것  
 임니까?」라고 反對하자 「濠記士는 恒常  
 冊架에만 住그리고 벗어나서 글씨를 쓰기때문  
 이다 내가 어떤 親戚한테서 들은얘기인데  
 美國에서는 濠記士가 서서 濠記를해가지고  
 反文은 「라이프라이터」로 직기때문에 決코  
 住그리고 앉아서 쓰지않는다고 하더라」는  
 것이였다 美國의 濠記士들이 서서쓰거나 누  
 어서 쓰거나 그眞僞는 여기에서 論外로하고  
 濠記士의 壽命이 冊架에 住그리고 앉아서  
 글을 쓰기때문에 短命해질것이라는데에는 異  
 議가 없을수 없는것이다  
 訪向客의 말대로 한다면 冊架에 住그리고 앉  
 어서 글씨를 쓰는사람은 모두가 短命하다는  
 結論이 내려져야 하는데 왜 唯獨 濠記士만  
 이 短命해야한다는 말인가 何如向에 濠記士  
 가 一般人보다 短命하다는 것이 事實이거나  
 虛構이거나를 不向하고 不決한 이야기임에는  
 踴림없다

# 速記習得의一年

K T S

웃음으로 門을 열고 울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마 速記 習得의  
期間이 아닌가 한다  
速記를 習得하여 어떻게 하겠  
다는 目的意識도 없이 漠然히  
新聞廣告에 突았던 것이 病肉 兩  
面の 苦痛속에 一年을 보내게  
된 것이였다

去年 四·五對一의 苦難을 겪  
고 國會事務處內의 大韓速記高等  
技術學校 教室에서 시작된 速記  
習得의 힘든이런 허술히 생각은 規愈을 顯  
覆고 새로운 두려움이 每日 더 加하여졌다  
午後 五時半에서 八時半까지의 三時間은  
經驗치 못했던 受難이었으며 十數年의 學愈  
生活의 그 類가 아니었다 時間을 마치고  
校門을 나갈때 學生들의 백바진 한숨소리는  
學堂가 힘들었다는 緊張된 呼吸 얼굴뿐이지  
새로움을 배웠다는 進一步의 快笑는 찾아  
볼수 없었다  
風聞에 三日月이면 "마스트라" 할수있는 容

易한 技術이라는 희미한 소리는 新聞에 每  
日 商廣告인양 紹介되는 三日月 就職  
資格證... 一 등을 指指한인지 速記를 배우겠  
다고 二·三日月 鉛筆을 쥐어본 사담이면  
누구나가 一年의 期間도 疑心치 않을수있는  
苦學中の 苦學임을 알것이다  
基本音字 助詞가 끝나고 略字에서부터의  
速記는 學業이 아니고 一種의 重勞動이였다  
千先 學校를 마치고 故家右의 一·二時間의  
復習, 翌日 登校前의 練習, 境邊에는 訪問은  
親友나 近處의 아무나를 불러 談話는 強  
制로 誦讀시켜서 써보고 學校에는 남보다  
일찍 나가서 練習, 意程度의 意程과 誠意  
또한 忍耐와 努力이라면 能히 一年을 繼續  
하여 考試라도 "파스트라" 할수 있을것 같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다른 約束과 모임을  
避하는 每日의 이런 時間이 平均 十時間은  
넘었으리라 생각된다  
教室에서의 三時間이란 너무도 貴重한 時  
間이다 尙或 失手하여 珍 기침이라도 날까?  
다른 누구에게 한두字라도 뒤지거나 讀을까?  
이런 細細한 總求가 緊張하여 妙를 다투니

結局엔 夜困함도 있고 神經이 날카로워진다. "참음"이 있는 곳에 榮冠이 있고 여기에 一年間의 修業 / 初入의인 時間을 얻지 못했던 苦難의 時期 / 何時何處 速記를 念頭에서 피어볼수 없었던 始終如一 速記. 速記의 一年이었다

速記를 얻을수 있으면 人生을 얻을수 있다고 屢次 強調하심을 再三 記憶한다

一年間이란 速記外에 未哈한 人間을 修養할수 있었고 広範한 知識을 "키치" 할수있었으며 特히나 가장 "못"인 忍耐와 努力을 쌓아올릴수있는 期間이었다

或者는 말하기를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는 速記할수있는 環境과 條件이 具備되어있기때문에 一年을 成績 좋게 克服할수있지않느냐 하지만 勿論 母校가 때에 알맞게 施設이 完備되어있음은 否認할수없지만 一年間에는 其의 完成할수없는 速記라는것도 알아야 할것이다 再論을 避하고 速記의 價値이란 短時日內에 求景만을 할줄 알어서 되지않는 平 穩한 "忍耐"와 "努力"의 結果이며 이것으로 얻어지는 조그마한 代價가 바로 速記 일것이다

비로소 勝利가 붙여진다. 「速記의 習得이 하나의 人生縮圖일수 있지 않을까?」 九〇.三.二六



△二題△ 돈은 써야 생기는 법이니 Ⅱ (報惠)

돈은 애써서 써 본적도 있으나 그와 反對로 青春時期에 남만큼이나 輩足하는 沒去를 한번쯤은 남기고싶은 衝動에서 氣分을 介 아무 怯없이 「평평」 써본일도 있다 前者나 后者나 向에 一身上에 閑한일로서 前者를 實積主義라고하면 后者를 名目主義라고 할까... 經濟學者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들 國民의 어떤 一初入이 自己의 將來의 榮華나 不意의 故事를 當할때 予備費로 使用할 目的으로 貯蓄을하는 아름다운 理念下에 貨幣를 金屬



으로 變形하거나 又は 諸形態로해서 貯藏한  
 다는것을 一面 獎勵하고 싶으나 그 方面을  
 떠나서 全體 國家的으로 볼때 特히 右進國  
 家에서는 어느程度的 限까지도 貯蓄이 必  
 要할는지 모르겠으나 그도를 넘어서는 貯蓄  
 은 오히려 國家全體的인 損害를 보는것이다  
 다시말하면 그 一收入 一收入의 적은 貯藏  
 資費가 모이면 巨額이되며 따라서 그만큼의  
 資費가 줄게되니 消費가 많아야 그額만큼의  
 投資가 可能한것이며 可能함으로써 擴大再生  
 産이 實現될수있는것인데 擴大 再生産의 不  
 缺의 要素인 投資가 各收入의 케케묵은장속  
 에서 遊休狀態로 들어가게됨에  
 따라서 擴大再生産에 危險을주는 現象을起  
 來하게되어 結局 次期에 産出되는 全國民所  
 得에 所得分을 적게 차지하게되니 그前보다  
 더못한 生活에 威圧을 느끼며 窮困의 懸危  
 邊을 걷는데 더욱 迫車를 加하게 된다는것  
 이니 讀者 會友 結賢들께서는 深思熟考하셔  
 서 明哲하신 判斷아래 前者나 行者를 마음  
 대로 拘束받음없이 自由로히 選擇하시기를

기드뒤에도 눈이 있어야지

어느때 弄談이 벌어진 座中에서 筆者 質問  
 받기를 「자네 등 뒤에서 自動車 「크라손  
 소리가 響響하고나면 왜 뒤를 쳐다보나」 하  
 는 물음에 意識的으로 「꼭지않을려고 또  
 避할려고」라고 서슴치않고 回答하였다 그랬  
 터니 質問者말이 그것이 아니고 「뒤에 눈  
 이 없으니까」라고 한다  
 果然 듣고 보니 弄中에도 一理가있는것같이  
 들린다 當場에는 爆笑로 골을뺏고 말았으나  
 끔々히 생각해볼때 한聲 웃음을 不禁하면서  
 도 아지못할 그무엇인가에 골리는 妙한 말  
 한마디를 아지껏 聯想하고있다  
 勿論 뒤에 눈이없으니까 意識이든 無意識이  
 든間에 뒤를 보게되는것이 入向의 常備이리  
 라. 말을 바꾸어서 우리들 젊은이들은 더  
 군다나 現下 非常時局下에 處해있는 우리들  
 은 뒤에 눈은 눈을 가지고 있을必要를 느낀다  
 知滿面에있어서나 道義面에 있어서나 陰으로  
 나 陽으로나 그處世에 不缺의 要素이리라.

저 옛날의 孔子 孟子的 또는 三綱五倫의 수  
 행하는 못한다치더라도 그가진 趣旨를알며  
 實行하는데 침차야 할것이며 아작도 어두운  
 만신을 보고 있는 우리들 二十代의 福은이  
 들에게 밝은燈를이 될수 있는 教養이나 知  
 識을 쌓아 博識을 發출 必要를 絶對 느끼  
 게하는 弄中眞言인것 같다 (報應)

隨想

職 業



하고 維持해나가자면 必然코 職業이라는것을  
 가지지않을수가 없을것이다. 職業을 純全히  
 삼두라는 圖에서란 따진다면 아무래도 政府  
 나 혹은 어느機關의 높직한 자리에 絶對 있  
 어서 큰기침을 한마디쯤 하는것을 누구나  
 滄足하게 생각할것이고 어떠한 業績을 남겨  
 서 萬사람의 頌加를 받는것이 所望이라면  
 그일을 할만한 教育事業이나 社會事業 또는  
 文化事業등을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그러나

尹壽敏 自己의 生活을 自己스스로가 担当  
 살이나 며을만치며 年이라고 해서 낮  
 사람이 一般 成

自己가 希望하고 하고저하고 그地位에 跌고  
 저하는 꿈이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는것은 어  
 려운 일인것이다 아무리 自己가 希望하고  
 하고저는 하지않은 마음대로 實現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社會에는 여러가지 階層의 職業  
 에 從事하지않을수 없게되고 성말 階層은자  
 리에 映어서 무엇을 한번만 꺼어도 풀줄이  
 따라다니던 사람들로부터 7시원하시겠습니까  
 「모당하옵나다」 소리를 듣게되는 사람이 있  
 는가 하면 그날 그날을 糊口之資이 漠然해  
 서 남에게 苛責을 받히고 한문 두문 지게됨  
 을 파는 寒心한 人間像이 있게되는것인줄  
 로 안다. 이러한 여러가지 職業은 알코보  
 러 事實上 어머니 배속에서부터 宿命적으로  
 運命이 決定된것도 아닐분터러 어찌 어찌  
 하다가보니 한사람의 人間은 그렇게 萬사람  
 이 欽慕하고 따르지않을수없는 높은地位와  
 入格을 갖추게도 되고 또한사람의 人間은  
 언제나 기약한 苦楚속에서 自己 혼자만이 먹  
 고 살어나가기에는 苦痛을 당하지않을수없게  
 도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떠한 職業이든지 職業을 한번갓게

되고 틀에 빠져서 딱지가 붙으면 그 사람의  
 人商植라든지 全人格은 直接 그職業과 結  
 付되기때문에 「金아무개」하면 「그사람이무  
 었하는 사람이지?」하게되고 「朴木柳賣商이  
 다」하면 「權아무개도 그것을 한다」하  
 는것이 社會의 觀念이 되어있다 그래서 그  
 런지 우리社會에는 모두들 尙우爭奪에 血限  
 이 되어있는것만같고 어떠한 手段으로든지  
 남보다 좋은자리 높은자리에 앉아서 威嚴과  
 멋이라도 내보고싶고 「先生님」 「師母님」 소  
 리를 듣고저 하는것은 속일수없는 人商社會  
 의 風俗으로 되것같다。 日前에 어느新聞에  
 建載된 大學卒業生들얘기를 들어보더라도 女  
 大卒業生이 理想으로 여기고 希望한다는 配  
 偶者가 國會議員이 아니면 무슨 實業家를 좋  
 아한다는 모양이었는데 그것을 勿論 그사람  
 의 人商性이라든지 人格을 度外視한 純全한  
 職業만을 보고 지켜리는것이 事實일것이요  
 그렇게 되면 自己의 配偶者가 李哥가 되든  
 지 차哥가 되든지 혹은 皮哥가 되든지 口  
 味에 맞는 職業만 가졌다면 좋다고 탐비는  
 淺보心理가 아닌가 疑心할수없다

이것이 世態라면 無條件 尙우라도 쓰지않으  
 면 안되겠다. 생각이 번져 일어나는것이  
 事實이고 自己가 지금 어떠한 職業을 가지  
 고 있는가 한번 檢討하지않을수가 없고 自  
 己職業이 果然 남들이보고 「先生님」 소리를  
 하게되는 職業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놈」 한  
 다는것이 겨우 그것을 하고있구나 /  
 손피라질이나 안할른지 調査해보는것도 無意  
 味하지는 않을것이다. 내가 毎日 出勤을 하  
 는곳은 國會요 身分証明書를 들여다보면  
 「書記士」라고 써있으니 여러번 생각하고  
 研究할것도 없이 내職業이 「國會議員」이  
 것이 틀림없는데 國會라고하면 干先 紳士  
 생각되는것은 國會議員이 아니면 國會議員이라  
 는것이 分明하므로 書記士는 아무리 好意로  
 생각했다. 좀 未安한것만은 事實이다。 國會  
 書記士도 國家公務員이요 公務員은 級이  
 級으로부터 五級까지가 있고 내가 四級이라  
 니까 팔지에서 아마 두째는 되는 모양이고  
 未端公務員 未端公務員 하기는 하지만 五級이  
 내발밑에서 숨을죽이고 품작 달삭을 뭇하고  
 있는것을 생각하면 空然히 아가리가 찢어질

것같이 좋고 氣分이나 다 가도 三級이나 二級  
 이니 一級이 나 라는놈을 蔑視하고 노알을  
 글리려니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  
 워 眩氣症이 일어나는것을 어찌볼 道理가  
 없다 하기가 今年度大學卒業者만 約二萬名이  
 된다고 하고 그들이 제各自 自己네口味에  
 어느程度 맞을만한 職業을 찾아서 해매일관  
 인데 우리같이 젊은놈이 엉뚱한것만 생각한  
 다는것은 妄想이고 별수없이 叩박고박 自己  
 職務나 失手없이 處理하고 俸給이나 받으면  
 多幸이려니 생각하니 速記라는 職業이 정말  
 이지 나에게게는 열마나 정답고 기막힌 職業  
 인지 모르겠다. 펜으로 글씨를 쓰는것이  
 專門이나만큼 往黃上 速記士는 書士 種類에  
 屬하는것도 같은데 書士라고 하면 靑일인지  
 洞事務所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글씨를 叩  
 는 代書所영삼 생각이 자꾸만 나서 어쩐지  
 마당치가 않다. 本來 自己職業을 남에게  
 전해서 世上에 없는것처럼 極口讚揚하지않는  
 理由는 그래도 自己는 그 職業에 固着될  
 人物이 아니므로 그 職業이 그렇게 自己에게  
 大端할것이 없다는것을 暗示하는것이기도 하

지만은 한편으로는 남에게 條件없이 自己職  
 業을 蔑視당하고 싶지않은것이 또한 入商이  
 기도 하다. 같은 職業을 가지고 남들이 출  
 용하고 보람있는 職業이라고 稱讚을한다  
 해서 그 職業이 神聖해지는것도 아니요 남들  
 이 보잘것없는 職業이라고 輕蔑여진다  
 實地로 그 職業이 卑賤해지지는것이 아니겠지  
 人間인 우리의 自尊心은 도무지 그러한 理  
 性이 없는것이 應心하다 아닌게 아니라 나  
 라는 놈도 速記를 하기 始作하고 보니 될  
 수있으면 速記라는것을 좀더 높이 評衡하고  
 싶은 생각이 間或 생기기도 하고 남들이  
 容恕만 한다면 速記를 할줄아는 나 自身을  
 조금식 자랑이라도 하고싶은 생각이 없지않  
 아 있는것이 事實이다 速記라는것이 神奇하  
 고 趣味가 좀 있는것은 남들이 알아보지못  
 하는 글씨로 叩볼 叩볼 叩를 부러가면서  
 술술 써 내려가는것이라든지 어지간히 말슴  
 씨가 좋은사람이 떠든다고 하더라도 그런것  
 쯤은 하고 남에게 實力(?)을 暗示하는데  
 있을것이다 이러한 蔑이나 自稱 才藝도 우  
 리같이 젊은놈에게는 그럴사하고 그리 큰

「모조리」先生の 말씀 같지는 않  
지만은 한 四五. 되는 어른  
이 이쯤 나온다면 좀 고달픈  
애기가 아닐수 없다. 前부터도  
「三十隊長」이나 「四十隊長」  
이란 말이 있었지만 汗和의  
人商이 官界에 進出을 하면 어  
는程度 年令에 비추어서 尙  
하지않게 삼투配當을 받는것이  
當然한 일이고 그렇게 되지를  
못한다면 人商으로서 者伍者가  
된다는 것을 알수가 있는데 내가  
職業으로 가지고 있는 速記士라  
는 職業이 아무리 생사해 보  
아도 열골이 주골 주골해지고  
뭇배기를 써야만 될 四五十  
이 될때까지 그대로 있어서 극  
저거릴 職業은 못되는 것 같다  
原水 손에 鉛筆을 쥐고 방정맞  
게 까불어야만 되는 職業이란  
틈 좀더 텅잡어지고 또 기운  
이 떨어져서 손에 힘이 빠진

다면 도저히 해나갈수가 없  
을것이다  
그래서 나는 요지음 방에  
잠도 자지를 않고 空想과  
研究를 하고 쉬면 낮을때의  
내處地를 생각하기에 이르렀  
는데 方法으로 別로 神速  
한것이 없고 한가지 隱密히  
남에게 알리기가 困難한 妙  
策이 있다면 特等 千萬圓을  
바라보는 福券이나 한장 사  
보자는것이 며칠동안 끔끔히  
研究한 나의 結論이었다



# 消息

編輯室

- △ 本會 名譽會長 趙致奎先生  
개서는 「유엔」 民向代表로서  
「유엔」 總會에 出席하시기  
爲하여 去一月五日 本國을 出  
發하여 「유엔」 總會에서의 在  
務를 마치시고 陔羅巴로 가  
시어 英國 麻蘭西 伊太利  
獨逸 和蘭 瑞而等 自由友邦  
諸國의 親善禮訪을 마치시고  
三月二十日 無事히 歸國하셨습니다
- △ 서울特別市議會의 追加速記  
士 採用試驗에 本協會會員  
洪乙姬(高麗) 柳智永(高麗)  
姜万根(遼波) 金祐義(遼波)  
四名이 合格되어 速記士로서  
赴任함
- △ 江原道議會速記士 姜万根  
(遼波) 氏가 서울特別市議會

(용어)

# 모는 것



L · Y · S

합박눈이 람스럽게 쏟아지고 있다 K 變은 冊 庶위에 두말을 전고 變아서 焦 冥이 窓 밖을 내다보면서 무엇을 팔들히 생각하고있다 K 變은 지금 自己가 하고있는일 變고있는 길의 變은나 그르나 하는것을 判斷하기엔 비록눈은 밖을 내다보고있으나 窓 밖의 棉花송이같은 합박눈이 쏟아져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雪景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K 變은 本來 精 髓 的인 天性이었으므로 눈이오고 비가오고 꽃이피고 四季節이 오고 가는事 自然에 대한 감각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먼저 느

끼고 磁 質한다 그러나 묘사 이는 예전과같이 自然의 度 此에 敏 感할 만큼 精神的인 余裕를 갖지 못했다 K 變으로서는 理 複雜하다고 여는만한 일이생겼다 極히 單 調한 公式的인 K 變의 生 活에 交 動이 일어나는것이다 社會人으로서 지금까지는 알 지못하던것을 배우게된것이다 그만큼 靚野가 넓어지고 生 活舞臺가 넓어진셈이다 卽 한말로 말하면 K 變은 最近 社交 一變을 배우기 시작한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것의 是非를 가리지 못하 고있다 K 變은 新聞雜誌에서 各界人士들의 是非論을 많이 읽어보았다 그 거의가 모두 大 概 우리 韓國의 實情으로 나쁘다 안된다는것보다...

- 로 共 竜 杓 ( 逸 波 ) 氏 가 重 入 販 路 말미아마 徐 平 吉 ( 逸 波 ) 皮 光 鎭 ( 逸 波 ) 西 氏 와 交 替 된
- △ 大 韓 總 記 高 等 技 術 學 校 第 五 期 卒 業 生 ( 履 事 ) ( 崔 龍 夏 , 崔 衡 重 , 金 泰 善 , 朴 泰 和 , 金 永 若 ) 五 名 이 民 衆 院 囑 託 選 記 士 로 採 用 된
- △ 水 原 市 議 會 에 金 承 烈 ( 高 麗 ) 氏 가 選 記 士 로 赴 任 함
- △ 春 川 市 議 會 에 李 瀾 元 ( 逸 波 ) 氏 가 選 記 士 로 赴 任 함
- △ 本 協 會 前 理 事 院 院 全 範 成 氏 는 民 衆 院 選 記 士 를 辭 任 하 고 矣 韓 巴 以 어 政 界 에 投 勞 함
- △ 崔 孝 燮 共 乙 姬 柳 智 永 ( 以 上 高 麗 式 )
- 金 顯 祐 金 祐 義 徐 平 吉 姜 乃 根 ( 以 上 逸 波 式 )
- 趙 氏 本 會 正 會 員 으 로 加 入 된
- △ 金 明 株 ( 逸 波 ) 氏 農 業 銀 行 運 營 委 員 會 選 記 士 採 用 試 驗

K 嬢도 自己自身이 배우기 前에는 別로 趣味가 있었다 그  
 까지는 이를 否認하는 모든사 러므로 職業女性으로서 周圍  
 람들과같이 余功으로 非難하며 의 親友들이 여러차례에 걸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배 처서 배우고 하고 했으나  
 우게 되고 나후부터는 이를 否認 社會의 非難보다도 性格의으  
 하는데 若干 踴躍하지 않을 수 없 로 口味가 變기 지않았다 나  
 게 되었다 K 嬢은 近來에와서 中에는 하도 拒否를 하게  
 그것이 現代入은 누구나 다갓 되니까 지긋은 親友들은 女  
 추어야되는 社會常識化되지처럼 性으로서 完全한 養育이 아  
 認定하게 된 것이다 아마 남들이 지 다 못되었다고 까지 하  
 非難하는 것을 自己가 하는데 었다 그렇지않고는 그렇게  
 대해서 理性의 바른 부르짖음 養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을 抑制하기 위한 口實으로써 그 이다 好奇心에서라도 한번  
 령계 생각을 하는 지도 모른다 알고 싶지않느냐고 했다  
 K 嬢은 지금 바로 이것을 생 그러나 끝내 머리를 가로  
 가하고있다 事實에 있어서 社會 혼들었던 것이다 그러던것이  
 常識化되었느냐 아니면 하고싶 열마전에 K 嬢의 社에서  
 은 사람 하는 사람들의 口實이나 1 덴스나 얘기가 나왔다 그  
 하는것을 때 어떤 社員이 한번 열 아두고싶다고 하였다 그래다  
 K 嬢은 比較的 內向적인 性格 이다 하겠다 그래다  
 이며 學校에 다닐때부터 舞臺 社員 하나가 意思가있다  
 이라든가 音樂이라든가 하는것 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하

여 結局 몇몇 男女 社員이 배우게 된 것이다 K 嬢은 이때 에도 勿論 배우려고 하지않았 다 그런데 自己의 가장 親한 親友하나가 있었는데 그親友는 이것을 할줄 알았다 그래서 언제나 단박이되어 낯을 같이 하나 親友의 結婚式이라든가

여 合營팀  
 △ 三月十二日 上午十一時 大 韓連記高等技術學校 第五回 卒業式은 同校 教室에서 來 賓多數參席裡에 盛大히 舉行 함 卒業生三十一名中 優等은 五名 皆勤은 三名이다  
 △ 四月九日 大韓連記高等技術 學校 第六回入學式舉行 四村 一의 競爭을 突破하고 西次 試驗에 合格된 入學生數는 六十名인







하나 發見했다. 그것은 그 周는 힘 보다 強했으므로 弱  
 匪에서가 아니라 K 變自弱에서 肉強食法에 破해서 또 3턴  
 었다. 그것은 처음에는 다시는 것이다. 그날밤 K 變은 자리  
 안오겠다고 門밖을 나섰는데 에 누워서 天井을 쳐다보며  
 두번째 나올때에는 요다음은 映風 「來日·울려다」의  
 언제 다시 올까 하는것을 생 「알콜」 中毒者 「스잔·혜  
 가했다. 이것이야말로 陰陽之差 이워「드」가 술을 보기도  
 가아나고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싫어하고 또 미워하며 마시  
 重大視할 差異點이었다. 이렇게 기를 願치 않으나 안마시고  
 줘되면 覺醒은 다 온것이다 는 못견디어내던것을 생각  
 K 變은 그날집에 돌아와서 日 했다  
 記憶을 떠놓고 지나온 時向을 그리고 그 아름다운 女入  
 回想하였다. 다락하는것이나 아 이 乞入처럼 斜 머리에  
 난 나는 지금 무슨 무서운 술어져 자는 것을 보았  
 巢窟에 빠져들어가고 있는것이 었다. 아름다음은 사라지고  
 아나가 이런것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醜해지는 것을 보  
 요다음부터는 삼가야 되겠다고 았다  
 했다. 그러나 며칠뒤 K 變은 그리고 온갖 旅屋을 다  
 또 가고야 말았다. 그렇지않아 蕩盡하여 故家하고 근身  
 도 가고싶은 마음을 抑制하고 하고 乞入이 되면서 까지  
 있는데 誘惑하는 힘이 抑制하 라도 안맞고는 못백이는

而片中毒者를 보았다  
 이런것을 생각하며 K 變은 다  
 시는 總체로 안가리라고  
 곧게 곧게 盟誓를 하였다  
 X X X  
 우리는 K 變의 救養있는 理  
 性이 感傷에 依한 發露에  
 움지가지 말고 끝끝내 冷徹  
 하기를 빌 다름이다



詩

變態

力步

글씨를 쓰시려면 똑바로 쓰시지  
표불 표불 누굴 놀리시는 겁니까

원숭이도 펜스를 하꼬

병아리가 하이야에 치렸는데

어이 새삼스리太古를

그리워 하오

그것은 象形先生의 祖父님이요

風症도 아니면서

손은 왜 그리 떨으시요

보아하니 점잔은 분미

스리아림은 저승에 갔꼬  
늙婦는 집을 쫓겨나오  
秘窟은 아메 풀기지마오

키려어리워 장남파는 차라리  
인사도 안하셨다니

참으로 丑하구료

여보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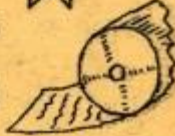
여보!

精神을 차리시요 精神을

아마 술을 몹시 醉하신 모양이군요



# 速記라는 것



金範成

「속기라는 것은 몇달간이다 배우면 됨  
 니까?」  
 이 말은 S가 가끔 받는 질문이었다.  
 그때마다 S는 그저 적당히  
 「아마 대역실 배우면 되나 봐요!」  
 하고 대답하곤 하였다. 사실이 또한 대  
 역실이면 배우기만 하는 것은 일단 끝마  
 칠 수도 있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S  
 가 그와 같이 수월 수월히 무책임한 대담  
 술 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질문하는 상대방이 속기는 한 대역실  
 달만 하면 되느냐라 하는 흔히 일간 신문  
 광고란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속기화  
 생 모집 광고에서 얻은 예비지식(?)을 갖  
 고 묻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었고 두째로는 그런 까닭에 속기라는 것을  
 S 자신이 체험한 것처럼 어렵고 힘든다는

말을 해서 질문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  
 망케 하기로 싫었거나와  
 또한 그렇게 말하게 되  
 면은 왠지 자기 자신  
 이 속기를 하노라는  
 것에 대한 어떤 우월  
 감의 표시가 되는 것이  
 날카로운 겸손한 마음  
 에서였다.  
 정철 초하룻날이었  
 다. 이날도 B리는  
 친구로 부러 같은 질  
 문을 받았다.  
 S는 이번에도 힘 한  
 나 드리지 않고 또  
 같은 대답을 하였다.  
 「S씨는 몇달만에  
 배웠습니까?」  
 「나도 배우기는  
 대역실시간에 다  
 배웠어요!」

協會彙報  
 (會務日誌)

(總務部提供)

前號의 日誌에 承  
 前하여 四二九〇年  
 四月二日까지 協會  
 가 運營해 온 實  
 續中 重要한 것만  
 簡略히 추려서 記  
 載하면

△ 八月三十日 理  
 事會의 決議에 依  
 한 小委員會의  
 發願한 推選으로  
 서울特別市議會 選  
 記士 採用을 公  
 用試驗에 依하도  
 록 하여 本協會  
 會員 三名이 採

「속기를 해도 취직하기는 힘 들지요?」  
속기를 배우겠다는 사람이면 으레 저를 여  
보는 말이다

「알세요... 뭐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어디서 무엇이든 자신 있게 해 낼 수만  
있다면 취직하는 것 쯤이 문제겠습니  
까?」

이 말로 입대까지 여러 사람에게 대답했던  
그 말을 그대로 또 한번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B의 표정은 정색으로 돌아 가는  
것 같더니

「올치... 그럼 나일 당장 나속기야원  
에 가서 입학을 하군 율해는 속기를  
해야겠다

아, 이거 뭐 군대서 재벌 하고 나니까  
해 먹을 게 있어야죠?

그까짓 뭐, 지금 까지도 허송 세월  
했을라구 그리구 앞으로도 언제 취직이  
될런지 모르니 속기라도 배워서 취직을  
해야 할까 봐요!」

하고 말끝을 맺더니  
두손가락을 두기면서  
용기를 들구는 것이  
였다.

S는 지금까지 순환  
사람으로 부터 속기  
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하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 하였지만 이번

같이 자기의 말이  
직효해서 상대방 으  
로 하여금 속기를  
배우겠다는 의욕을  
충동시켜 놓아 보기  
란 처음이었다

그와 같이 상대방이  
속기를 배우려 한다고  
서둘러 대는 데는 온  
근히 저절되는 바가  
있었다.

이제까지 S에게 들

用됨(濫波式二名  
高麗式一名)

△ 九月五日 江原

道議會議 商會와  
터불어 本會會員

二名이 執務위원  
△ 九月十日 京畿

道議會議 總記士  
款用을 交涉하였

으나 不當한 特  
溫條件과 入員이

라 拒否

△ 十月一日 會誌

「總記文化」第  
二號를 發刊하여

無料로 配付  
△ 十月十二日 第

十三次理事會  
를 召集하고 會

려 준 말이 사실이기는 했지만 정말로 배워 보겠다고 덤벼 드는 이에게의 대답치고는 너무나도 건성 건성 넘겨버린 대답이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교자리에서 자리도 옮기지 않고 속기를 한다는 것이 이만큼 거만큼 힘이 들고 어려우니 단념하라든가 속기를 할려면 초비상한 자오로 임하라든가 해서 방금 한 말을 반복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S는 겨우

「사실 부닥치고 보면 그토록 누워서 딱딱기로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공연히 속기를 배운답시고 몇달고생하시고 나서 나를 원망하는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했더니

「문제 없읍니다! S씨래 한것을 내래 못 하겠읍니까?」

고 응수하는 것이었다  
그만 그말에 S는 좀더 참고가 될만한 여

가를 돌려 줄가했던 노릇이 무안을 당했는지라 말문이 열리지 않을 않았다

그쯤 하고 헤어진 B는 한 겨울이다 가도록 S를 찾아오는 일이 없었다. S는 B가 정녕 속기에 팔려져 찾아오지도 못하는가 부

다 싶어서 자기가 B에게 돌려 준 판도 있고 해서 무엇이라고 이름 지을수 없는 박약한 책임감이 움직였는지 어느 날은 B를 찾아 간 일이 있었다

때 마침 B는 영어 사전을 펼쳐놓고 있

誌 發刊에 對한 報告와 白卷 塔 加에 對한 承認 을 함

△ 十二月二十六日 村을 特別市 議會 二次 總記士 採用 試驗을 公開 試驗 亦是 推選 하여 本會 會員 四名이 合格 採用 됨 (遞波式 二名 高 麗式 二名)

△ 二月八日 十四 次 理事會를 召集 且 會議 三號 發刊 및 會費 徵收 方法을 比 吳 韓 全般的인 問題를

어 있었다

「B형 : ... 쉔일이요? 난 B형이 속

기를 하시나 해서 찾아 왔더니?」

「속기는 다 했읍니다!」

「다아 했더니요?」

S로서는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도저히 B의 말이 믿어옴지를 알

았다.

그래서 S는 되 묻지 않을수 없었다

「일분 간에 몇자 정도나 쓰십니까?」

「일분 간이고 심분 간이고 다아 배웠다

니까요 하하하...」

S는 B의 웃음으로 그가 속기를 포기

했다는 것을 알아 차릴수 있었다

B의 말을 틀어본 적은 이러했다

첫째 속기를 배워보니 남자가 할게 못

되더라는 것

두째 여간한 공력으로는 될수도 없을 뿐

터러 때 뵈턴들 뒤 하겠나는것

세째 차라리 그만한 정력이라면 다른 곳

에 드림이 실효할게라는것

등등 이었다.

그보다도 B의 결

론이 결박이었다.

그의 결론은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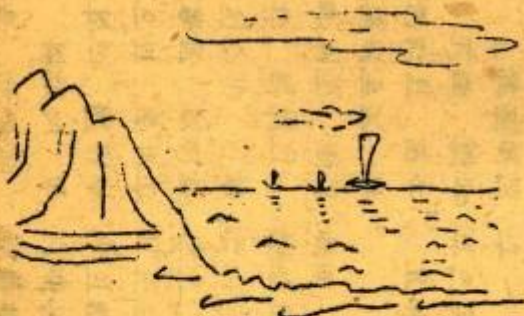
파 같았다.

간단했다.

「속기사 노릇할

사람은 따루 정해

져 있나봐!」



討論會

△ 二月八日 金

宗弘理事가 文化

部長을 辭任코

理事長이 文化部

長을 兼任

△ 四月二日 席

查部에서 金顯

祐外 六人의 正

會員 加入資格

審査를 하코 加

入資格을 認定

함



編 輯 後 記

봄이 오는가 했더니 참말 오  
고야 말았다. 아야. 아책이  
여러분들 손에 들어 건 짐이  
면 푸르러 가는 산야의 천만  
가지 꽃들이 만발하리라  
편집후기를 쓸대면 번번히  
하는 말이지만 이번에도 여러  
가지 말 못할 애로가 한 두  
가지 아니었다  
그래 그렇지 또 「이만하면  
됐구나」 하는 자신이 불지  
않는다. 그저 자위할수 있는저  
은 이 「속기문화」가 총회전  
에 나올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초조했고  
초조했기 때문에 더욱 허술한  
면도 많은가 싶다

金嶺基氏의 原稿와 本協會  
老將들의 眞摯한 座談은 우  
리들의 協會에 對한 衷心을  
새롭게 해 줄것이라 믿는다  
連載로서는 民議院 誌記錄  
長 金靈熙氏가 쓰시는 「議  
會를 中心으로 한 誌記의  
發達」이 이번 号로서 끝나  
게 됨으로 張惠妮氏에게 부  
락드려 「外國誌記界의 紹介  
를 쓰게 하였다. 代身 前号  
까지 連載되어온 「韓國誌記  
十年史」가 筆者의 事稿으로  
이번호에 連載되지 못함이 遺  
憾된일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손으로 마련되는 誌記錄에 對  
한 外部人士들의 關心이 어  
려한가 해서 실린 民議院事  
務總長 崔秉宇氏를 비롯하여  
朴亨亨氏와 朴贊文氏의 王稿  
가 本誌를 더욱 빛나게 해  
주었다. 또한 「誌記界老將들의  
從橫放談」과 李康一氏의 「筆  
工生活一年의 片片想」은 讀者  
들의 興味를 돋구어주리라 믿으며  
그밖의 모든 原稿들이 다야 誌  
實어린 原稿라 생각되서 投稿  
하신 여러분들에게 編輯子는  
讀者여러분과 함께 發達한 謝  
意를 表하고서한다



부디 독자여러분을 위해서 틈틈  
「誌記文化」의 장래를  
염려해 주시기 바란다  
이만하고 보다 더 향상 받  
전된 다음 호를 기약하면서  
편집후기의 멘을 적는다

協會 運轉을 中心한 理事長

